

| 기사연 포럼 |

F O R U M



변화하는 혹은 답보하는 한국교회와 청년담론

일시_ 22.4.28(목) 오전 10시 장소_ 공간이제
CI 빌딩 지하1층

 YouTube [생중계] 기사연 TV

사회_ 김상덕(기사연 연구실장)

SESSION 01

세션1.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

발표_ 이민형(성결대학교) 정경일(성공회대학교)

토론_ 김승환(장신대학교) 이진권(한국살렘영성훈련원)

SESSION 02

세션2. 빅데이터로 본 청년담론 분석

발표_ 신익상(성공회대학교) 송진순(이화여자대학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순서

환영 인사

김영주 원장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 소개

김상덕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연구실장)

세션1.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

발표1. 포스트 코로나 신앙과 종교성 연구
온라인 예배의 의미와 한계 -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변화

이민형 박사
(성결대학교)

토론1. 포스트 코로나 신앙과 종교성 연구에 관한 논찬

김승환 박사
(장신대학교)

발표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공동체와 영성

정경일 박사
(성공회대학교)

토론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공동체와 영성에 대한 논찬

이진권 목사
(한국살렘영성훈련원)

세션2. 빅데이터로 본 청년담론 분석

발표1. 미디어에 나타난 청년-젠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송진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발표2. MZ세대, 민주시민인가 소비자인가?

신익상 박사
(성공회대학교)

질의응답

목 차

연구 보고서

제 1 부. 연구 개요	7
--------------	---

제 2 부. 조사 결과

세션 1.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

포스트 코로나 신앙과 종교성 연구	이민형 (성결대학교)	14
--------------------	-------------	----

논 찬	김승환 (장신대학교)	31
-----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공동체와 영성	정경일 (성공회대학교)	33
------------------------	--------------	----

논 찬	이진권 (한국샬렘영성훈련원)	51
-----	-----------------	----

세션 2. 빅데이터로 본 청년담론 분석

미디어에 나타난 청년-젠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54
----------------------------	---------------	----

MZ세대, 민주시민인가 소비자인가?	신익상 (성공회대학교)	62
---------------------	--------------	----

전체 토론

제 3 부.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 설문 응답 및 그래프	71
--	----

부 록.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 설문지	197
--------------------------------	-----

제1부. 연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지난 2~3년간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빼고서는 무엇도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지금도 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는 등 예배의 많은 부분이 변화했고, 대면 모임 제한으로 교회 공동체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개인 신앙생활과 영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는 다소 낮설었던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익숙한 예배의 한 형태가 됐을 만큼 개신교인들은 팬데믹 속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본 조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개신교인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영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봄으로써 위드 코로나,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신교인의 영성 강화와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진

◎ 책임연구원: 김상덕 박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신익상 박사 (성공회대학교)

◎ 연 구 원: 정경일 박사 (성공회대학교)

송진순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이민형 박사 (성결대학교)

◎ 보조연구원: Phor Vicheka (연세대학교 박사 과정, 빅데이터/통계)

남연희 (감리교신학대학교)

3.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 만 19세 이상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인 남녀
조사 지역	● 전국
조사 방법	●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 총 1,0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 지역/성/연령 비례할당추출 1) 공식적인 개신교 인구 자료 중 가장 최신 자료인 2015 인구총조사의 개신교 인구에 맞추어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2-1)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2015년 자료와 현재 인구의 연령 비율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현 시점에 맞는 연령별 가중치 부여 2-2) 연령별 가중치는 한국갤럽의 2021년 연간 옴니버스 조사(6천명 개별면접조사)의 개신교 인구 연령을 기준으로 함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 2022년 2월 24일 ~ 3월 3일
조사 의뢰 기관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4. 자료입력 및 분석

○ 자료검증

- 입력된 자료는 검증원이 검사하여, 검증 시스템 기준에 따라 불성실 응답 설문은 제외
- 입력된 자료는 자료처리 과정에서 내검 프로그램에 의해 2차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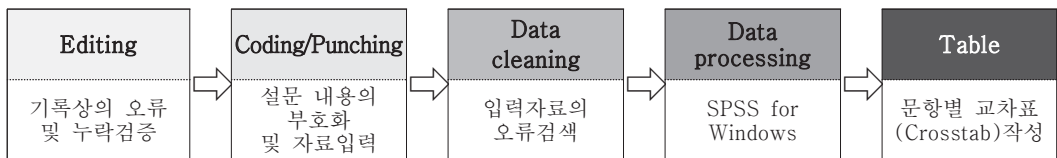
○ 다단계 검증과정에서 최종 합격된 자료를 SPSS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를 이용해 전산처리

○ 분석방법

-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 산출
- 중복응답의 경우, 카테고리의 사례수를 전체 사례수에 근거하여 백분율 산출
- 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분석
- 가중치 부여 : 온라인조사 특성 상 화이트컬러 직업군이 많아 직업에 따른 가중치(림가중) 및 개신교인의 고령화에 맞춘 연령별 가중치 적용함

○ 자료해석상의 유의점

- 표본조사는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5. 조사 기관

○ (주)지앤컴리서치

- 책임연구원 : 지용근 대표이사
- 담당연구원 : 김진양, 송예슬

6. 응답자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성	(427)	42.7
	여성	(573)	57.3
연령	19~29세	(137)	13.7
	30~39세	(147)	14.7
	40~49세	(193)	19.3
	50~59세	(190)	19.0
	60세 이상	(333)	33.3
지역	서울	(244)	24.4
	경기/인천	(347)	34.7
	대전/충청	(102)	10.2
	부산/울산/경남	(89)	8.9
	광주/전라	(120)	12.0
	대구/경북	(66)	6.6
	강원/제주	(32)	3.2
직업	자영업	(122)	12.2
	화이트칼라	(302)	30.2
	블루칼라	(156)	15.6
	주부	(251)	25.1
	학생	(78)	7.8
	무직/기타	(91)	9.1
고용 형태	정규직	(339)	73.3
	비정규직	(124)	26.7
학력	고졸 이하	(206)	20.6
	대재 이상	(794)	79.4
결혼여부	기혼	(768)	76.8
	미혼	(232)	23.2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21.6
	16~25년 이하	(220)	22.0
	26~35년 이하	(234)	23.4
	36년 이상	(330)	33.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16.5
	주 1~2회	(652)	65.2
	월 3회 이하	(145)	14.5
	연 1~3회	(38)	3.8
교단	예장통합	(302)	30.2
	예장합동	(195)	19.5
	감리교	(117)	11.7
	기타장로교	(171)	17.1
	기타 교단	(173)	17.3
	잘 모름	(42)	4.2
교인 수	99명 이하	(261)	26.1
	100~499명	(306)	30.6
	500~2999명	(244)	24.4
	3000명 이상	(189)	18.9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3.8
	보통	(137)	13.7
	중요함	(825)	82.5

제 2 부. 조사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신앙과 종교성 연구

온라인 예배의 의미와 한계 -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변화

이민형
성결대학교

I. 들어가며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잠시 멈춤의 시간을 보낸 지 만 3년, 오미크론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는 이전처럼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들은 그토록 바라던 일상의 회복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물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상은 이전의 일상과 같을 수 없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사람들은 전례 없는 상황에 맞춰 발전한 문명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이제 한동안 소원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간의 거리는 다시 좁혀지겠지만, 예전처럼 가까워지기는 힘들 것이다. 생활 방역은 삶의 기본자세로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질병의 증상에 대한 경계는 높아질 것이다. 디지털 온라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생활 역시 그 편리함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될 것이고, 이는 사람들 간의 관계, 모임과 어울림의 모양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비대면 종교생활은 이전과는 다른 기독교 신앙의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학자들은 그동안 지속되어 온 기독교의 중심적 시공간 개념이 “일요일 오전 예배당 안”에서 “일주일 내내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될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소통 방식의 변화, 권위구조의 수평화, 자발적으로 신앙을 탐구하는 공동체의 발전과 이에 대한 소속감의 증대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나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종교 활동의 활성화는 학자들의 예상이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과연,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한국의 개신교에는 학자들의 예상과 같은 변화가 생겼는가? 온라인 예배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이를 살펴보기 위해 2022년 2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글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형성된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 지형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 활동의 중심이었던 온라인 예배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보고, 이것이 개신교인들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일상의 회복 혹은 일상으로의 회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에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될 것이며,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코로나19 이후의 한국 기독교 신앙에 대한 신학 연구에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II. 조사 개요

“2021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의 후속 조사로 시행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에 대한 조사”는 이전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역/성/연령에 따라 비례할당추출된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이며, 2022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었다.¹⁾ 설문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파트는 “코로나19와 예배”를 주제로 삼아, 2021년 한 해 동안 개신교인들의 예배 경험을 포함한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신앙생활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질문들을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취합하였다. 이 파트에는 온라인 일반 예배, 온라인 절기 예배, 온라인 성찬식 등의 온라인 신앙생활 경험을 묻는 질문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 일상 공간의 변경 여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개인적 신앙생활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두 번째 파트의 주제는 “코로나19와 영성”이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동안 교회 내, 외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개신교인들의 영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파트의 주요 질문은 코로나19 상황 동안 출석하던 교회 및 목회자, 교회 내, 외부 활동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들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참여한 개인영성활동 등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본 글은 첫 번째 파트의 설문 중에서 유의미한 결과들을 선별, 분석하고, 그것이 현재 한국교회와 개신교 신앙에 의미하는 바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본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 연결점이 있는 두 번째 파트의 설문 결과 중 일부를 추가로 분석하여, 논지를 확장하는 근거로 삼을 것이다.

III. 조사결과

1. 온라인 예배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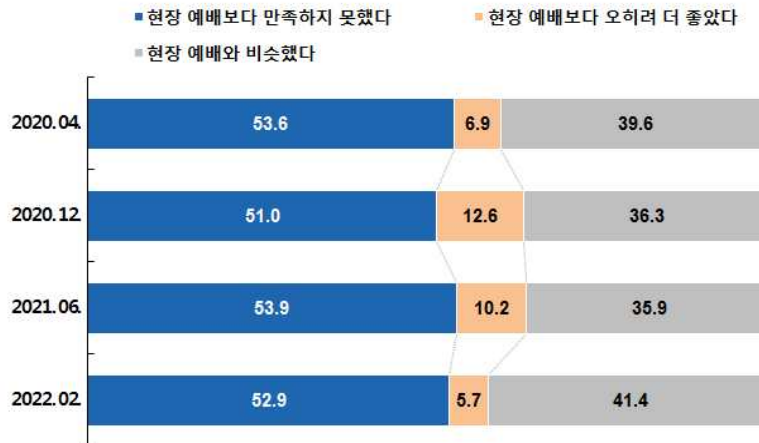
1)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는 2018년부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전국 단위 설문조사 연구사업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젠더, 통일/평화, 생태, 그리고 신앙, 총 여섯 분야이며, 주로 전국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후, 이를 취합,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2021년도 인식조사 중 신앙 분야 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활동과 책임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생각을 묻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국교회”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는 2022년 2월 15일 발표되었다. 두 번째는 본 글이 다루고 있는 연구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을 주요 연구 주제로 삼았다.

1) 온라인 예배 경험

코로나19 상황 동안 한국교회의 예배 형식은 바이러스의 확산세와 이에 따른 종교시설의 방역지침에 의해 결정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상황은 이어졌으며, 대부분의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교차시행하거나 병행하는 선택을 하였다. 이에 2021년에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개신교인은 89.3%로 집계되었다. 이들이 경험한 온라인 예배의 형식은 대부분 “현장 예배 전체를 그대로 중계하는 방식”(88.5%)이었으며, 11.5% 정도의 개신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예배 콘텐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인 수가 적을수록 현장 중계가 아닌 별도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온라인 예배만을 위한 별도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기보다는 소형교회일수록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약식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의 경험은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의 경험과 비교해 어떠했을까? 아마도 상당수의 개신교인들이 궁금해 할 바이며, 향후 한국교회의 예배 형태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다 더 자세하게 제시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서는 2020년 4월, 2020년 12월, 2021년 6월, 그리고 2022년 2월에 각각 실시한 조사에서 제시한 동일한 설문항의 결과를 비교하였다.²⁾ 2022년 2월 조사의 결과,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52.3%,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응답자는 41.4%, 그리고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5.7%로 나타났다. 지난 설문조사의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 비율은 2020년 코로나19 상황이 시작된 이래로 약 53% 정도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예배에 부정적이지 않은 응답자들, 즉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의 경험이 비슷했다고 하거나,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 역시 47% 정도를 유지해 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 2020년 4월 조사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에서 주관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이며, 2020년 12월 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2021년의 조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에서 시행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의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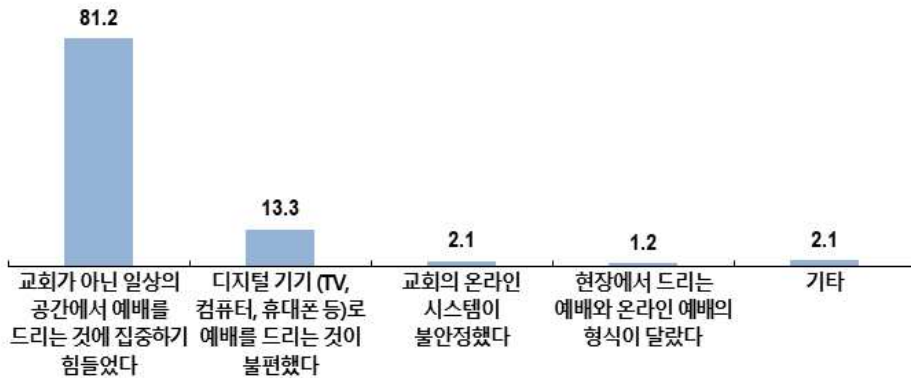
[그림 1] 현장 예배 대비 온라인 예배 만족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코로나 시국이 막 시작되었던 2020년 4월, 대부분의 교회는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어야 했기에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이들은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기가 쉽지 않았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의 상황이 곧 끝나리라 예상했던 상황이었기에 상당수의 개신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에 적응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았고, 이는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좋게 평가한 인원은 6.9%에 그쳤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서 온라인 예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응하려는 인원의 비율이 늘어났고, 그 결과 2020년 12월에는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비율도 12.6%로 높아졌다. 이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진 개신교인들의 증가, 그리고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부분적 대면 예배 실시 등으로 2021년 6월 조사에서는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감소세로 접어들게 되었다 (10.2%).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약화될수록, 다시 말해서 대면 예배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2년 2월 현장 예배 대비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가 조사 이래 최하인 5.7%를 기록한 것을 보면 앞으로 온라인 예배 선호도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예배에 긍정적인 인원의 비율은 여전히 47% 정도로 유지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장 예배 대비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았다는 응답자들은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는 응답자로 이동하기보다는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비슷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예배에 반대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인원의 수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의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당수의 개신교인들의 종교적 시공간 개념이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동시에 앞으로 예배를 포함한 개신교 신앙생활의 모습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2) 온라인 예배 만족도

이처럼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거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종교적 제의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형식상의 존재와는 별개로 개신교인들의 만족도는 여전히 불만족의 정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 다수(81.2%)는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에 집중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사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했던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였다. 주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적 공간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차이다. 일상의 공간에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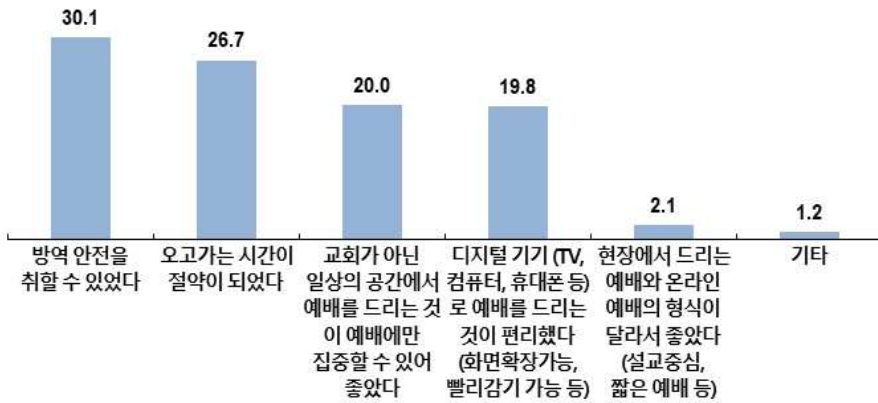
[그림 2] 온라인 예배 불만족 이유

한편, 이러한 교회 현장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표된 여러 연구들 - 2020년도 개신교인 인식조사의 신앙분야 결과 분석 보고를 포함한 -은 비대면 온라인 신앙생활이 일상화됨으로 인해 기독교의 종교적 시공간은 “주일 오전”과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와 “일상의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적 시공간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기독교인을 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 연구의 요지이다.³⁾ 그렇다면 이 둘의 괴리, 즉 온라인 예배로 인해 기독교의 종교적 시공간이 확장되고 있음에도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학자들이 주장한 온라인 예배의 긍정적 가능성이 실제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역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가? 혹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의 어떤 부분이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현재 개신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 가지고 있

3) 이민형,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한국 개신교 신앙 지형 연구: ‘2020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3(2020), 960-961.

는 불만족의 이유뿐 아니라 만족의 이유도 살펴보았다.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일관된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만족의 이유 대부분이 당사자들의 편의성과 편리성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응답 (20%)을 제외하고 나머지 응답들은 방역 안전 (30.1%), 시간 절약 (26.7%),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조작의 편리성 (19.8%) 등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예배의 장점으로 지목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와 달리 온라인 예배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나,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 의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그림 3] 온라인 예배 만족 이유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지만, 기독교 예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하다. 첫째, 예배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이다. 이는 그리스도, 즉 말씀이었던 존재가 스스로 이 땅에 와 성례의 희생 제물이 되었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둘째, 예배는 같은 신앙을 공표하고, 같은 종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들이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인하는 공적 제의이다.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식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 공동체성을 배우고,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⁴⁾ 이와 같은 예배의 정의를 고려해볼 때, 앞서 살펴본 온라인 예배의 장점들은 과연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안적 “예배”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설문 결과 나타난 온라인 예배의 장점들은 신적 존재를 경배하는 제의적 특성이나 교회 구성원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공동체적 협업과 같은 예배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도리어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고 있는 이유들로 꼽힌 특징들은 온라인 예배의 목적이 예배 자체가 아닌 “성도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에 있다고 생각하게끔 한다. 물론 “참여”는 예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예배”에의 참여인지, 예배에의 “참여”인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

4) 최주훈, 『예배란 무엇인가: 예전에 담긴 의미와 역사 탐구』 (서울: 비아토르, 2021), 103-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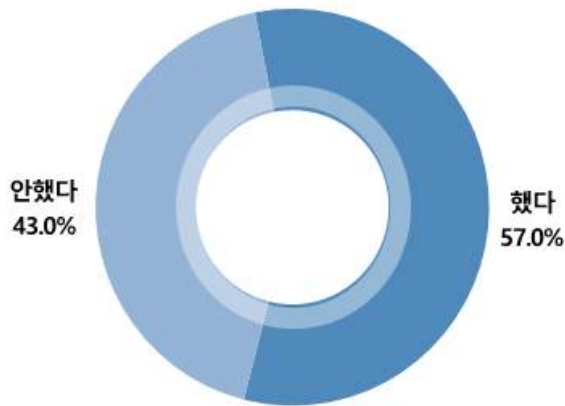
라질 수 있다. 전자의 궁극적 목적은 예배인 반면 후자의 목적은 참석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온라인 예배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그것은 현장 예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의 일상 영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없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밀려 급하게 준비한 까닭일수도 있고, 개교회의 온라인 예배 기획 의도가 그러했을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예배는 예배로서의 의미와 종교적 시공간이 확장되는 상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한 채, 당장의 예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용주의적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 미디어에 물든 기독교 신앙

1) 예배의 간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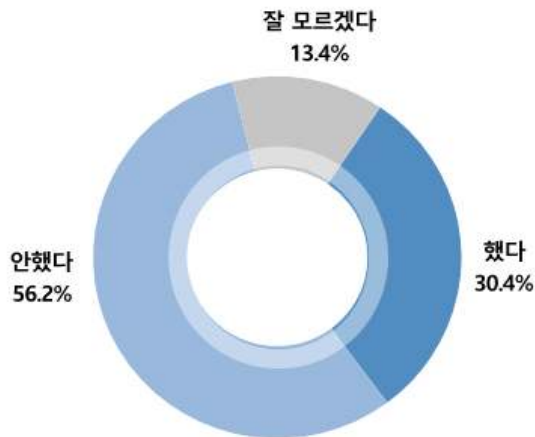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가 이처럼 실용주의적 목적만이 강조된 수단으로 비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이라는 미디어에 주목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종교시설에 집합 규제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그 어느 종단이나 종파보다 빠르게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종교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할 시간이 부족했던 나머지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던 다양한 활동 중 극히 일부분, 특히 공예배를 이어 나가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마저도 이미 온라인 방송 중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교회들이나 차후에 장비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었던 교회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교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급하게 제작된 비대면 예배 콘텐츠로 종교 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에 따라 방역지침의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면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가 병행되었고, 그로 인해 온라인 예배는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

이번 조사의 질문 중 기독교 절기 예배나 행사의 진행 여부, 성찬식의 진행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은 이러한 한국교회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상황 동안 부활절 성탄절과 같은 기독교 절기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43%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절기 예배를 경험한 인원 중 온라인 절기 예배를 드린 인원은 61.2%로 나타났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기독교의 주요 절기인 부활절과 성탄절이 있는 4월과 12월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모두 강도 높음의 단계였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 이후, 절기 예배에 온전히 참석이 가능했던 인원은 전체 개신교 응답자의 34.9% 정도로 추산이 가능하다. 약 65%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절기 예배를 일부만 참석했거나, 아예 참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기간 중 기독교 절기 예배/행사 진행 여부

기독교의 절기는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그리고 성령강림 등을 토대로 짜인 시간의 흐름으로 기독교인은 이 흐름에 따라 살아가며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확립한다.⁵⁾ 따라서 교회는 절기에 따른 시각을 알리고, 흐름의 의미를 설명하여,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종교적 시간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학적 해석을 배제하고서라도 기독교에 있어 중요한 두 개의 절기를 특별한 기념 의식 및 참여 없이 보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 신앙의 의미와 실천이 상당히 간소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기간 중 성찬식 진행 여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설문 조사는 성찬에 관한 것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성찬식을 진행한 교회는 전체의 30.4%로 나타났으며, 성찬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 응답자의 25.7%

5) Alexander Schmemmann, *For the Life of the World: Sacraments and Orthodoxy*, (New York: St. Vladimir's Seminary Press, 1998), 52-55.

에 지나지 않았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제의적 활동으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상징화하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 기독교인들을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종교적 이상으로 인도할 수 있다.⁶⁾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코로나 시국에 성찬을 진행한 교회의 비율과 성찬에 참여한 개신교인의 비율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코로나19의 상황을 떠나 한국 개신교 교회 중 성찬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교회의 비율이 높지 않기에 이러한 결과를 코로나 19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비대면으로 성찬에 참여한 인원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10%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예배는 성찬까지 담아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간소화된 온라인 예배의 특성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 볼 수 있다.

2) 온라인 서비스

예배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은 결국 온라인이라는 미디어에 맞추어 기독교의 종교적 제의 활동을 재편하였다는 의미이다. 온라인 예배의 1차적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예배의 형식을 온라인 미디어에 맞추어 간소화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에 쫓겨 온라인 예배를 온전한 기독교 제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을 충분히 거치지 못한 결과, 온라인 예배는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머물게 되었음 역시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전례 없는 비대면의 상황으로 인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자칫 교인들의 이탈로 이어질까 하는 목회자들의 두려움은 온라인 예배의 접근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여 성도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일조하였다.

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표는 코로나19의 상황 동안 목회자들의 주력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한 개신교인들의 답변이다. 본 글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조사의 두 번째 파트에서 시행된 설문에 따르면, 개신교인들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가장 노력한 부분으로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43.4%)을 꼽았다. 이 응답은 “재난 속의 비전 제시”(24.3%),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실천”(20.8%), “목회적 돌봄”(9.9%)와 같은 다른 사항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이는 목회자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예배, 교육, 교제와 같은 성도들의 참여 활동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이를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무이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이 주력하여 조성한 환경이 반드시 “온라인”이었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그것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주도하는 예배를 “중계”하고, 성도들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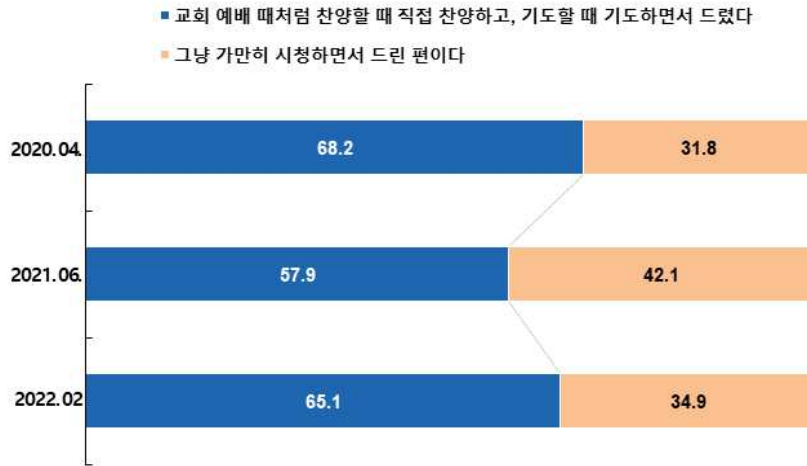
6) Ibid., 24-27.

를 “보는” 일방적인 소통만이 이루어지는 미디어라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코로나 기간 동안 목회자들이 만들어 놓은 온라인 예배 시스템은 성도들이 예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담 없이 지켜볼 수 있도록 중계하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서비스로서의 온라인 예배를 살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조사결과는 개신교인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때 예배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것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성경책과 찬송가,” “의복,” “예배용 자리,” “온라인 예배 키트,” “종교적 상징물,” 그리고 “없다”와 같은 예 중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은 “성경책과 찬송가”(47.5%)였다. 그다음으로 많이 선택한 답변은 “없다”(36.7%)였으며, “의복을 갈아입은 경우”가 21%로 세 번째 순위가 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교인수가 많을수록, 즉 앞선 설문 결과와 비교해보면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을수록 별도로 준비한 것이 없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특히 교인 수 3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의 경우 응답자의 52.6%가 준비한 것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온라인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교회일수록 별도의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비단 온라인 예배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교회와 같이 미디어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 굳이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들고 가지 않더라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제공되는 영상과 자막을 통해 편하게 예배를 “보고” 돌아올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온라인으로, 즉 일상의 환경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편리한 시청이 가능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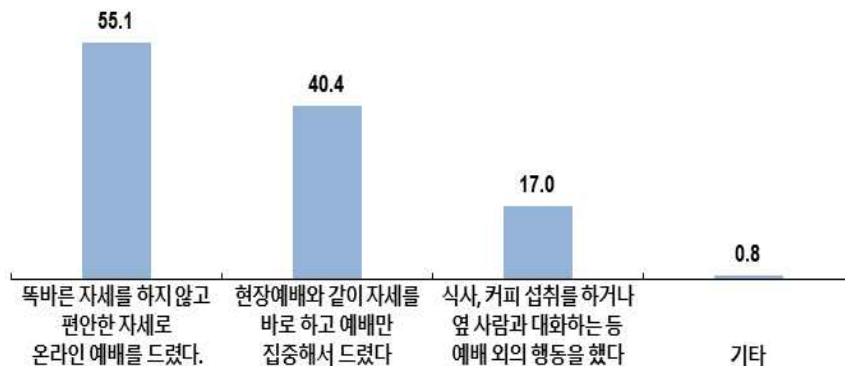
3) 예배를 “보는” 개신교인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가 다소 비약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상황 동안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개신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설문 결과는 온라인 예배에 대한 위와 같은 평가를 어느 정도 긍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5.1%는 “교회에서의 예배처럼 찬양할 때 직접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드렸다”고 응답한 반면, 34.9%는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렸다”고 답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차이 없이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온라인 예배의 평가는 긍정적이어야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3분의 1이나 되는 개신교인들이 시청하듯 예배를 드렸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기실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기보다는 관람하는 자세를 취한 개신교인들은 2020년 4월 조사에서 31.8%, 2021년 6월 조사에서 42.1%,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34.9%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게 여겨지기에 아직 무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예배는 여전히 일방적 전달을 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임하는 개신교인들 중 3분의 1은 시청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6] 온라인 예배 시 찬양/기도 여부

물론 교회에서의 예배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해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이 시청자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했는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며 예배를 드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5.1%는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고 응답했고, 17%는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응답했다. 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고 응답한 인원은 40.4%였다. 앞선 질문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처럼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인원이 65.1%였던 것을 감안해볼 때, 이들 중 일부도 교회에서와는 다른 자세, 혹은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온라인 예배 시 집중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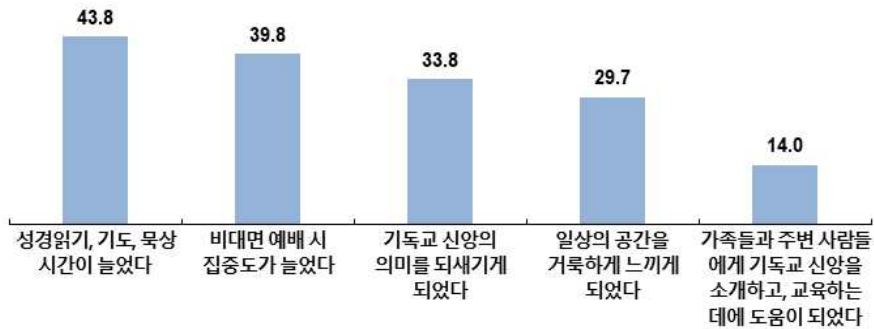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자세로 온라인 예배에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잘못된 예배라는 의미는 아니다. 예배의 형식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태도는 환경에 맞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학적 논의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태도와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태도가 크게 구분이 되지 않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온라인 예배를 미디어 콘텐츠로 소비하는 성향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염려할 뿐이다. 기실 코로나19의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비대면 예배를 시행하기 위한 온라인 미디어 시스템 설비보다 중요했던 것은 비대면 예배에 임하는 기독교인들의 예배 모범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의 위기감으로 인해 교회는 성도들이 종교적 공간에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 교회와의 연결점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하였고, 결국 예배를 편의와 편리해 중점을 둔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로 만들었으며, 성도들은 그것을 소비하는 시청자의 위치에 앉게 된 것이다.

3. 작지만 큰 변화

1)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스스로 극복하려는 움직임

코로나19 기간 동안의 기독교 신앙 활동은 결국 일방적 소통의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성도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예배로서의 기능 보다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기에, 편의와 편리만을 강조한 신앙생활이 강화되는 결과를 만들기도 했다. 주일과 교회라는 종교적 시공간이 일상으로 확장되면서 일상신앙이 강화될 것이라는 학자들의 예상은 “온라인 예배”라는 강력한 미디어로 인해 실제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만, 이번 조사의 결과에서 일부의 개신교인들은 일상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았다고 응답했는데, 이들의 시도가 사뭇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일상의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변화를 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 중 78.6%는 변화를 준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조성된 수동적 신앙의 분위기가 여실히 드러나는 응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나머지 21.4%의 응답자들은 “예배, 성경읽기, 기도를 위한 가구를 구비”했거나, “공간 배치를 변경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거나, “종교적 상징물을 마련”하였거나, “향초와 조명 등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바꾸었다”고 답하였다. 비록 비율로 보자면 절대적 소수에 해당하는 인원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들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공간의 변화가 신앙생활에 미친 영향

무엇보다 일상의 공간에 변화를 준 인원들은 성경읽기, 기도, 묵상과 개인 신앙생활의 시간이 늘었다(43.8%)고 답했다. 이는 교회에 갈 수 없었던 비대면 신앙생활의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돌아보고, 성숙시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동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는 온라인 예배와 달리 공간의 변화, 즉 미디어의 변화가 능동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졌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 인원들이 세 번째로 많이 선택한 답변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이들은 공간의 변화를 줌으로 해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답했다. 일방적 소통만이 가능한 온라인 예배의 특성상, 개인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의 전달이 불가능하고, 일방적으로 전달된 메시지 이상의 신앙적 사변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간의 변화는 개신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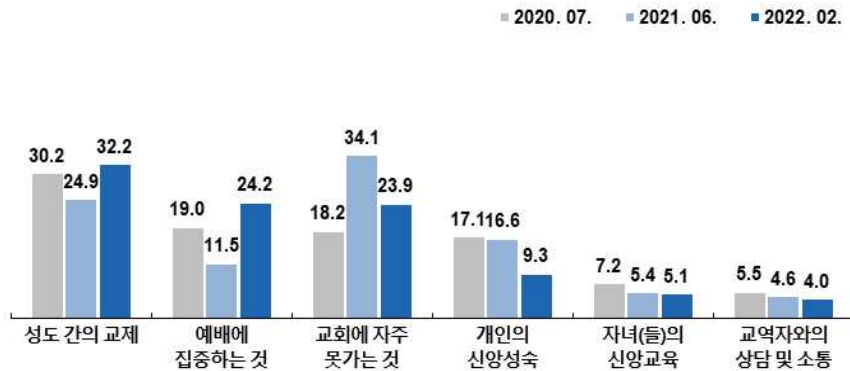
그렇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되었다는 것이 온라인 예배와 같은 공예배, 혹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공간의 변화를 만든 개신교인들은 온라인 예배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39.8%)고 응답하였다. 이는 공간의 변화로 인해 일상의 공간에 교회와 같은 종교성을 지닌 상징적 공간이 마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글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일상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한계, 즉 종교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며, 일상의 영역이기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많다는 것이라고 했을 때, 공간의 변화는 분명 이러한 한계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답자들은 일상의 공간을 거룩하게 느끼게 되었다고도 답변하였는데, 이는 그동안 교회에서 충족되던 종교적 공간감이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다가, 공간의 변화를 통해 다시금 충족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주도적인 시도는 온라인 예배로 인한 수동성을 극복하고 자신의 신앙의 의미를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시도를 한 개신교인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다행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점차로 감소하고 있고, 일상의 회복을 시도하는 사회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기때, 이러한 설문 결과의 아쉬움 정도로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만 한번 확장된 종교적 시공간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의 학자들은 주일 오전 예배당으로 온전히 돌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겠지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인해 인류는 언제 어떻게든 또 다른 비대면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다. 따라서 확장된 종교적 시공간에서 기독교인 개개인의 신앙 성숙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비대면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서라도 일상의 공간에서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및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 조사 결과가 확인시켜주고 있다.

2) 온라인 예배와 신앙성숙의 반비례

비록 상당수의 개신교인들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실행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느끼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비단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뿐 아니라 코로나19 기간 동안 느낀 신앙적 어려움 및 코로나19의 종식 후 신앙생활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먼저 코로나19의 상황 아래 있었던 동안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부분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였는데, 바로 대면 예배 참석 가능성과 개인이 느끼는 신앙성숙 정도가 비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9]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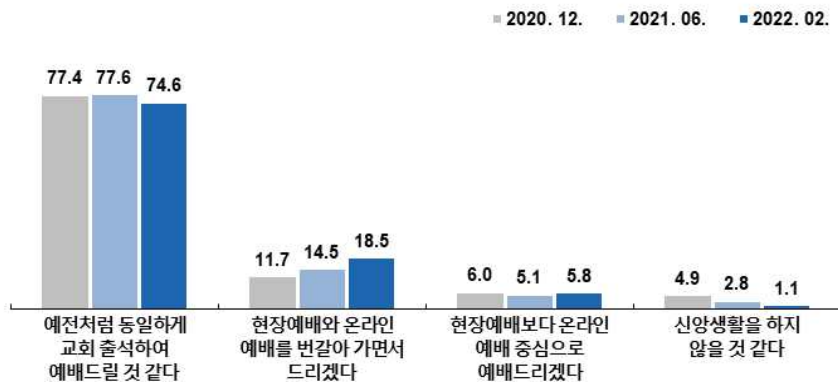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6월과 2022년 2월의 설문 결과 중 “성도 간의 교제”나 “예배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주요 어려움의 지표는 24.9%에서 32.2%, 11.5%에서 24.2%로 각각 올라갔다. 반면에 교회에 자주 못 가는 것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으로 꼽은 응답자는 2021년 6월 34.1%에서 2022년 2월 23.9%로 줄었고, 개인의 신앙성숙을 어려움으로 느끼던 응답자의 비율도 2021년 6월 16.6%에서 2022년 2월 9.3%로 떨어졌다. 이를 종합해보면, 정부의 방역조치 완화로 인해 대면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자 개인의 신앙성숙에서 개신교인들이 느꼈던 어려움이 덜해졌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여전히 성도들과의 교제는 쉽지 않고, (온

라인)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당장 교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앙성숙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이 결과는 결국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결과만 가지고는 응답자들이 온라인 예배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개인의 신앙성숙을 저해하는지까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온라인 예배가 교회에 나가는 것, 혹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서 충족되는 부분을 온전히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온라인 예배는 어디까지나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임시방편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말이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 외의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지 못한 채,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개신교의 예배가 대부분 온라인 예배의 형식으로 고착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문제이다.

3)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교회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차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인의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당장 온라인 예배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 종식 이후 개신교인들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74.6%). 이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겠다는 인원이 조금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18.5%),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인원의 비율(5.8%)과 비교해볼 때, 병행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현장 예배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험을 통해 개신교인들이 깨달은 바는 현장 예배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예배는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현장 예배의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록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력을 생각하면 다소 허무한 결론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성격, 그로 인한 수동적인 예배와 신앙에 대해 개신교인들이 적절한 평가를 하였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0] 코로나19 종식 후 신앙생활 예상

더불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온라인 예배가 아닌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이다. 비록 온라인 예배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지만,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온라인 종교생활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며, 그것은 인류의 종교성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그것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발현되지 못했을 뿐이다. 이러한 학자들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이번 조사 중 온라인 교회, 즉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프라인에서 가끔씩 모이는 형식의 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정 비율의 응답자들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2021년 6월, 2022년 같은 질문을 묻고 답변을 조사한 결과 참여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2020년 50.8%, 2021년 36.6%, 2022년 50%로 변화하였고, 참여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2020년 40.6%, 2021년 48.4%, 2022년 38.6%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 정도가 포착되지만, 온라인 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의 평균 비율이 40%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온라인 교회의 출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는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뛰어넘고, 학자들이 주장하는 온라인 종교의 긍정적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온라인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다행히 상당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온라인 예배 이상의 신앙생활이 가능한 온라인 교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아직 연구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에 향후 온라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중요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국 개신교 교회의 환경과 상황, 신앙생활 등을 기반으로 한 진지한 연구와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급한 시도는 결국 또 다른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IV. 나가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의 멈춤이 인류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당연한 것은 없다”일지도 모른다. 역사의 오랜 기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수많은 말과 행동과 관계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모두가 간절히 원할 만큼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다. 한국 개신교의 예배와 신앙은 어떠한가? 주일 오전에 교회에 모이는 것이 당연했던 것만큼 온라인으로 옮겨진 신앙이 당연했는가? 안타깝게도 많은 수의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 듯하다. 인류에게 “허락된” 종교적 시공간을 너무나 당연시한 나머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당연히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급하게 준비된 새로운 미디어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회의 시대는 올 것이다. 물론 “당연히” 오지도 않을 것이고, “당연히” 잘 될 것이라 말할 수는 없다. 그만큼의 준비와 연구가 필요하고, 어쩌면 기존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상당히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번 연구 결과가 그런 자세를 준비하기 위한 현실 자각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하여 한국 개신교 교회가 앞으로의 개신교 신앙을 성숙한 모습으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누구보다 진심으로 바란다.

포스트 코로나 신앙과 종교성 연구에 관한 논찬

김승환
장신대학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교회가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예배 형식과 장소에 관한 것이다. 비대면 예배, 즉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형식으로서의 예배 전환은 오프라인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를 경험하게 했다. 종교의 ‘디지털 전환’(Digital Turn)은 시간과 장소의 변화를 일으킬 뿐 아니라, 예배의 형식과 구성원의 관계성, 성직자의 종교적 권위, 복음 전도와 선교 방법 까지도 디지털 시대에 따른 새로운 시도들이 일어나는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는 약화되지 않을 것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처치(Hybrid Church)가 전망된다. 이 연구의 유의미한 점은 엔데믹 시대에 온라인 예배 또는 온라인 교회의 지속성과 변화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점이다.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온라인 예배의 평가에 있어서 조사통계에서 확인되듯이 지난해, 응답자의 89.3%가 온라인 예배를 경험했으며,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긍정 47%, 부정 53%로 근소하게 현장 예배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제자의 분석처럼 이러한 응답이 앞으로 한국교회의 예배 형식과 새로운 교회 유형의 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온라인 예배의 보편화로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일상의 예배화’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지만, 미디어를 관찰하는 수동적인 참여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다루면서 두 가지를 질문했다. 하나는 ‘성찬식’의 경험 유무인데, 코로나 기간 중 30%만 성찬식을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대면 예배의 한계로 인해 성찬과 세례와 같은 성례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신학적 해석과 목회적 실천에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목회자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신경 썼던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43.4%)은 미디어에 대한 신학적 이해 없이 서비스 제공과 같은 도구적인 활용으로 인해 아쉬운 대목이라 지적한다. 발표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상당수 교회가 다른 준비(성경책 찬송가, 의복, 예배용 자리, 종교적 상징물 등)를 하지 않았음을 언급하면서 편의성을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예배자를 시청자로 인식할 수 있음도 경계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 예배는 일상의 공간을 예배 장소가 변화시키면서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의 집중으로 인해, 아쉽게도 일상에서 주도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신앙의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는 개인들은 목회자와 다른 신앙인들의 도움을 받지 못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발표자는 앤더믹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교회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비대면 상황이 종결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겠다는 응답이 높고 있으며, 40% 가까운 이들이 온라인 교회의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예견하면서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의 내용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의 긍정과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팀 허칭스(Tim Hutchings)는 『온라인 교회 세우기』(*Creating Online Church*)에서 2000년 들어 형성된 영미권의 온라인 교회 5개를 소개한다. Church of Fools, St. Fixels, I-Church, The Anglican Cathedral of Second Life, Lifechurch.tv이다. 인터넷의 보급과 가상공간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교회가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 교회는 오프라인 교회 없이 온라인 공간에서만 진행되는 교회들이다. 특정한 소속감 없이 자연스럽게 가입하고 탈퇴하기도 하지만, 목회자가 임명되어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여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 국내에서 펜더믹으로 온라인 예배에 관한 논의가 부상했지만 이는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이전에도 오프라인 교회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배를 실시간 중계해왔으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예배 생활을 영위해왔다.

크리스토퍼 헬랜드(C. Helland)가 주장한 것처럼 온라인 종교(Online Religion)와 종교 온라인(Religion Online)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교회를 확장한 형식이다.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기존 신자들을 관리하는 동시에 전도와 선교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기도 한다. 영미권 온라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통계를 보면, 가나안 성도, 타교회 신자, 비신자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와 미디어를 연구하는 하이지 캠프벨(Heidi Campbell)은 가상의 공간을 뉴타운처럼 하나의 선교지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기를 제안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 교회는 기존 교회를 확장이 아닌, 새로운 교회이다. 이 교회는 성직 중심, 장소 중심, 전통과 교리 중심이 아니라 (느슨한 다중적인) 관계 중심으로 교회이다. 오프라인 교회는 지역과 인맥 중심의 관계망을 형성한다면 온라인 교회는 장소, 언어, 인종, 나이, 성별을 초월하는 관계 맺음을 시도한다. 드와이트 프리센(Dwight J. Friesen)은 온라인 교회가 네트워크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구현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필자는 온라인 교회의 등장은 제2의 종교개혁의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평가한다. 개교회 중심주의, 성직 중심주의, 전통과 교리 중심주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의존적인 신앙에서 자기주도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정과 일상을 중심으로 하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하도록 할 것이다. 물론 위험성도 존재한다. 디지털 미디어를 매개로 하는 경우 신도들을 종교 소비자로 전락시키거나 신앙의 왜곡과 변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할 것이다. 하이지 캠프벨은 미디어의 활용은 기존의 형식적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차용되는 것이며, 유대교와 아미쉬 공동체의 기술활용처럼 전통과 교리, 가치와 의미, 공동체의 논의를 거치기에 신앙의 본질적인 차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발제자의 언급과 같이 온라인 교회를 향한 다양한 연구와 적용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의 탄생을 기다려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공동체와 영성

정경일

성공회대학교

1. 여는 말 :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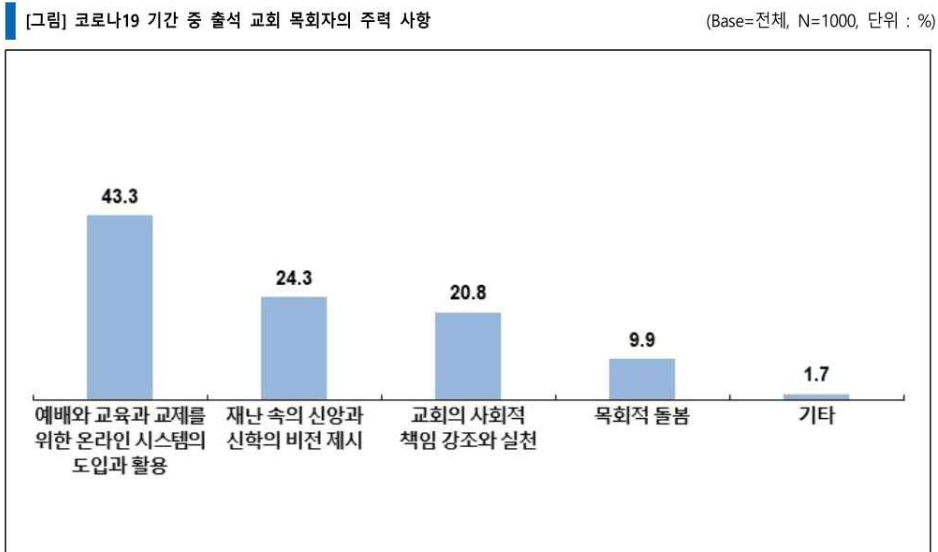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실시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에 대한 조사〉의 목표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개신교인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지난 1월에 실시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2021 개신교인 인식조사〉와 이번 조사 분석 작업을 하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두 개의 ‘없다’이다. 우선 주요 사회 현안에서 혐오 관련 사안을 제외하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의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욕망을 좇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팬데믹 시기 개신교인의 교회 공동체 생활과 영성도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는 완전히 다를 거라는 시대적 인식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서 변화가 없거나 있어도 크지 않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 고통을 다 겪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성급히 비관할 필요는 없다. 개신교의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단순하고 일회적인 해프닝으로 지나가기에는 전 인류에게 끼친 충격과 영향이 너무 크다. 어떤 형태로든 팬데믹 경험은 인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점에서는 사회의 일부인 교회도, 신자이면서 시민인 그리스도인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개신교인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서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교회의 재난 생활

이번 조사의 중요 관심사 중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내 목회와 운영 시스템이 위축된 가운데, 교회의 공동체성이 어떻게 유지 또는 변화하고 있는가였다. 종합적 조사 결과는 팬데믹 시기에도 목회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 개신교 교회의 구조 변화가 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 나타날 변화의 전조들도 보여준다.

1) 목회자의 교회 내 역할

이번 조사에 따르면, 팬데믹 시기 교회 내 목회자의 역할에 관한 개신교인의 인식과 기대는 주로 교역자로서의 ‘기능적’ 차원에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코로나 이후 자기 교회 목회자의 주력 사항은 무엇이였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가장 많은 답변은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43.3%)이었다. 그다음은 ‘재난 속의 신앙과 신학의 비전 제시’ 24.3%,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실천’ 20.8%였다. 이는 1순위 역할 인식보다는 크게 낮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영적, 윤리적 역할 기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목회자의 중요 역할 중 하나인 ‘목회적 돌봄’은 9.9%로, 다른 역할 기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신교인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목회자와 교인의 대면 접촉 제약을 불가피한 현실로 인식하며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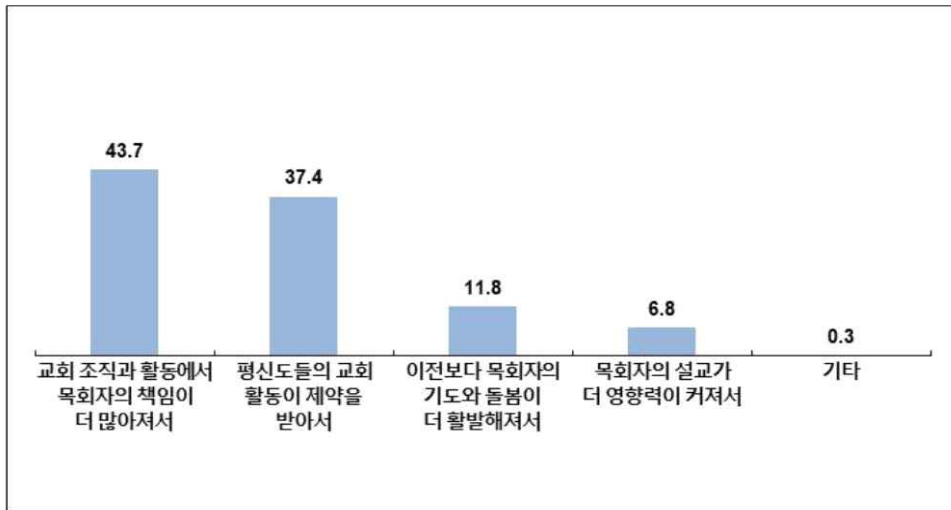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교회 내 의사 결정과 실행 방식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56.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목회자의 역할 비중이 커졌다는 답변도 3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평신도의 역할 비중이 커졌다는 답변은 9.5%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서 교인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목회자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그만큼 목회자의 활동이 더 가시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재난 시기 목회자의 역할이 강화된 이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회 조직과 활동에서 목회자의 책임이 더 많아져서’라는 답변이 43.7%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평신도들의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37.4%)였다. 전에는 평신도가 주도했거나 분담했던 활동까지도 목회자가 수행해야

하는 코로나 상황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통계다. 여기서도 목회자의 기능적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전보다 목회자의 기도와 돌봄이 더 활발해져서’는 11.8%, ‘목회자의 설교가 더 영향력이 커져서’는 6.8%로, 기능적 역할에 대한 기대에 비해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역할 강화 이유

(Base=의사 결정에서 목회자 비중 늘어남, N=336, 단위 : %)



흥미로운 것은, ‘교회 조직과 활동에서 목회자의 책임이 많아져서’와 ‘이전보다 목회자의 기도와 돌봄이 활발해져서’라는 답변이 응답자가 참여하는 교회의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99명 이하 소형교회 교인의 경우 전자의 답변은 51.5%로, 100명 이상 교회 42.1%, 500명 이상 교회 40.5%, 3000명 이상 교회 39.9%보다 약 10%p 높다. 이는 코로나 이후 작은 교회들에서는 운영, 영성, 돌봄, 교육 등 교회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목회자가 이전보다 더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목회자의 역할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이유는 논란의 여지없이 단순명료하다. 예상대로 ‘목회자와 교인의 접촉 기회가 줄어들어서’라는 답변이 43.3%로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목회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개인의 자율적 신앙생활이 강화되어서’가 30.8%, ‘목회자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가 24.7%다. 목회자의 역할 약화와 관련된 세부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는데, 개인의 자율적 신앙생활 강화 항목에서 남성 교인과 여성 교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남성은 18.2%인데 비해 여성은 43.5%로 두 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신교 여성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기도, 성서독서, 사귄과 돌봄 등 교회생활 전반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이었던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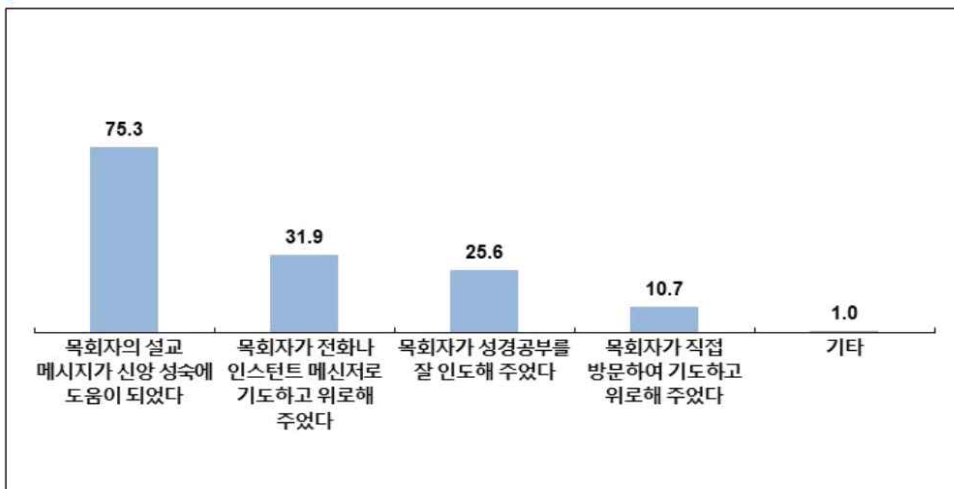
2)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팬데믹 기간 동안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가 32.5%로 ‘그렇다’라는 답변 30.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런 종합적 수치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세대별, 교회별 차이다. 우선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은 60세 이상 그룹에서 28.6%로, 다른 세대보다 적게는 3%P, 많게는 7.4%P ‘낮게’ 나타났다. 교회 구성원 중 정서적, 신체적, 물질적 돌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고령층의 세대 특성을 생각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아마도 재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고연령 교인들에게 목회자의 관심과 돌봄이 우선적으로 향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교회 규모와 관련된 개신교 내부의 차이와 양극화도 나타났다. 교인 수 99명 이하의 소형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이 36.5%였는데, 이는 다른 규모 교회보다 최저 4.1%P에서 최고 6.4%P 높은 수치다. 인격적 소통과 관계가 가능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더 활발할 거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다. 이는 중·대형 교회가 영적 지도와 돌봄 시스템을 상대적으로 더 잘 갖추고 있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소형교회에서는 단독 혹은 소수 목회자가 영적 지도와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반면, 중·대형 교회에서는 여러 목회자 또는 교역자가 세분된 각자의 영역에서 영적 지도와 돌봄을 체계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인격적 관계가 가능한 작은 교회일수록 목회자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감이 커서, 코로나 시기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더 큰 결핍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림] 목회자에게 받은 영적 지도와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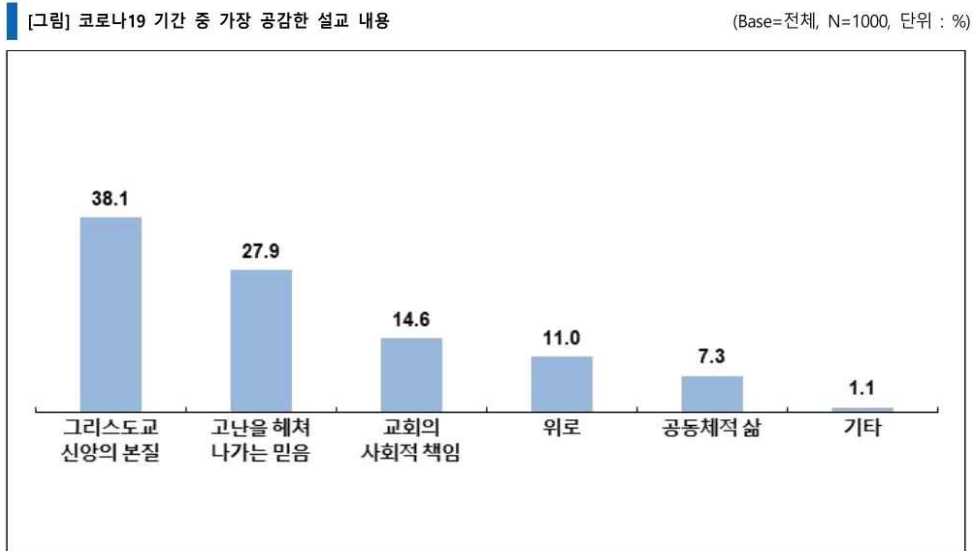
(Base=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잘 이루어짐, N=309, 단위 : %)



목회자의 직접 방문 기도와 위로가 20대 그룹에서 30.7%로, 다른 세대 그룹에 비해 적게는 세 배에서 많게는 여섯 배 이상 높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로나 기간 동안 대면 접촉의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20대의 세대 특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세대 차이는 직업 차이와도 연동되어 나타난다. 목회자의 직접 방문 기도와 위로 경험은 20대 그룹이 가장 많을 ‘학생’에서 23.7%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코로나 시기의 목회, 특히 청년목회는 이런 세대별 차이를 고려한 영적 지도와 돌봄 방식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에 의한 영적 지도와 돌봄의 내용은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 답변한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내용은 설교 메시지가 75%로 가장 높다. 비대면 기도와 위로는 31.9%, 직접 방문 기도와 위로는 10.7%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이는 개신교 문화에서 목회자의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으로도 경험할 수 있는 설교가 영적 지도와 돌봄의 느낌과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개신교인이 목회자의 설교에서 가장 많이 공감한 내용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38.1%)이다. 이는 팬데믹의 충격 속에서 평신도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등 종교의 근본 의미와 목적을 묻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많이 공감한 설교 내용은 재난 현실에 맞게 ‘고난을 헤쳐나가는 믿음’(27.9%)이다. 그 외 공감한 설교 주제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14.6%), ‘위로’(11.0%), ‘공동체적 삶’(7.3%) 순이다.



설교와 관련된 세부 조사 결과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설교에 대한 공감이 20대 그룹에서 18.4%로 다른 세대-30대 14.4%, 40대 16.2%, 50대 12.1%, 60대 14.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공동체적 삶’의 주제에 대한 공감도 20대 그

룹에서는 12.4%로, 4.4%에서 8.0% 사이를 보인 다른 세대의 공감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젊은 세대가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에 갇혀 있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 응답자 수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개신교인이 읽은 신앙과 신학 도서 주제에서도 ‘사회적 공공성’이 20대에서 14.8%로, 다른 세대의 7.3%에서 9.5%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정적, 긍정적 의미 모두에서 ‘공정 세대’로 불리는 20대가 ‘공공성 세대’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3) 교인 간 사귄과 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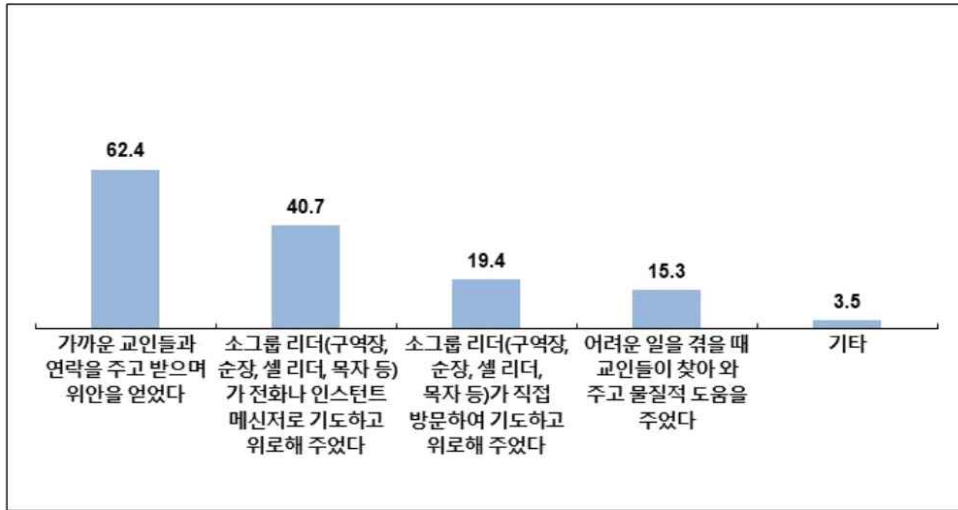
코로나 이전의 교회 공동체 내 사귄과 돌봄은 교인들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교인 간 대면 접촉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공동체적 사귄과 돌봄이 위축되었다는 인식은 당연한 결과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 동안 교인 간 사귄과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은 절반 가까운 48.7%로 매우 높다.

이 조사 항목에서도 젊은 세대의 차별성이 드러난다. 교인 간 사귄과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고 답한 비율은 50대 16.1%, 60대 이상 13.8%인데 비해, 20대 20.7%, 30대 23.2%, 40대 19.6%로, 젊은 세대 그룹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젊은 세대가 SNS와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의 사귄과 돌봄에 더 익숙한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3000명 이상 대형교회 소속 응답자 중 교인 간 돌봄과 사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율은 53.8%로, 다른 규모 교회 소속 개신교인의 답변 비율이 40% 중·후반대인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교인 간 돌봄과 사귄이 잘 이루어졌다는 답변도 3000명 이상 교회 소속 교인의 경우 15.7%로, 99명 이하 교회 19.1%, 100~499명 교회 19.5%보다 다소 낮다. 이는 소형 또는 중형 교회에서 인격적 소통과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교회 교인은 ‘군중 속의 외로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경험한 사감과 돌봄

(Base=교인 간 사감과 돌봄 잘 이루어짐, N=177,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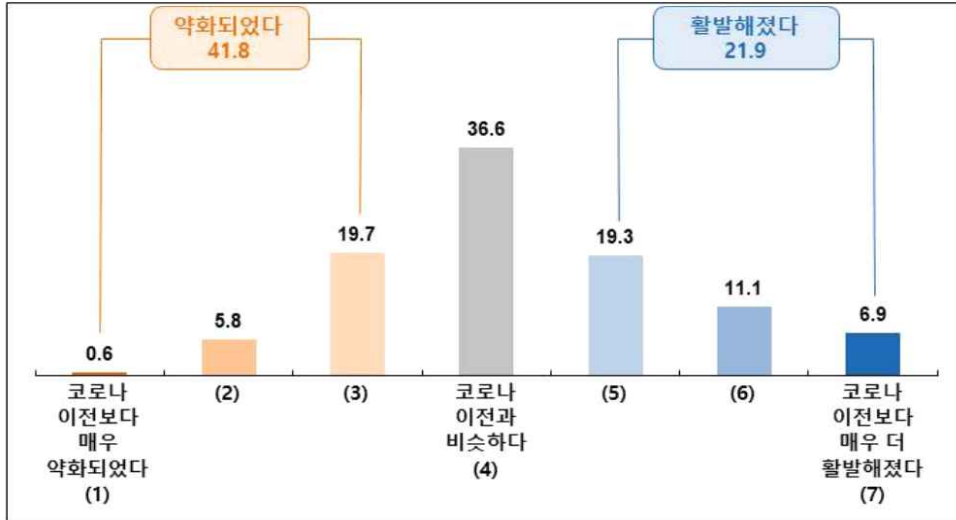


코로나 시기 동안 개신교인이 가장 많이 경험한 교인 간 사감과 돌봄의 형태는 ‘가까운 교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안을 얻는 것’(62.4%)이었다. 소그룹 리더의 비대면/대면 기도와 위로는 각각 40.7%와 19.4%였다. 교회의 공적 리더십 체계에 의한 사감과 돌봄보다 친밀한 교인끼리 사적으로 서로 사귀고 돌보는 것이 더 문화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교회 규모와도 관련이 있다. 가까운 교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안을 얻었다는 답변은 99명 이하 교회(58.3%)와 100~499명 교회(78.2%)에서 500~2999명 교회(53.1%)와 3000명 이상 교회(4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그룹 리더가 비대면으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응답은 500~2999명 교회(61.1%)와 3000명 이상 교회(51.3%)가 99명 이하 교회(23.9%)와 100~499명 교회(36.4%)보다 크게 높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교인들이 직접 찾아와 주고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는 답변은 15.3%로, 다른 형태의 사감과 돌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지만, 대면 접촉이 크게 위축되었던 재난 상황에서 교회 내부에서 직접적 도움을 주고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직업 구분에서도 물질적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 비율이 블루칼라에서 53.4%, 무직/기타에서 45.4%로 다른 직업군보다 크게 높다. 또한 세대 그룹에서도 60세 이상이 22.1%로 다른 세대군보다 크게 높다. 이런 통계 결과는 물질적 도움이 실제로 필요한 경제적 취약자, 노약자에게 교회 차원의 돌봄 자원이 분배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제적 취약 교인 도움 활동 정도

(Base=출석 교회의 경제적 취약 교인 돕는 활동 있음, N=488,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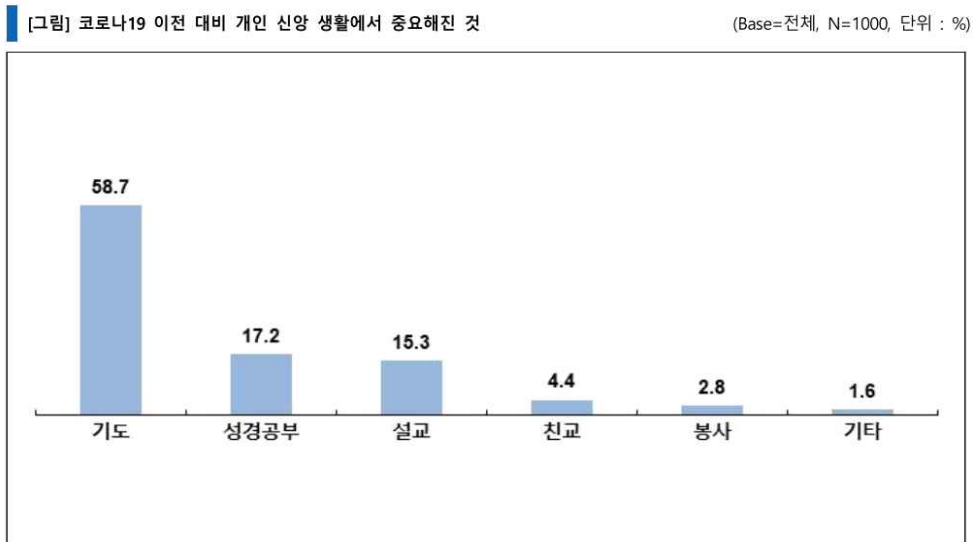
하지만 많은 개신교인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교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이 코로나 이전보다 위축되었다고 인식한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취약 교인 돌봄 차이에 대해, 악화되었다는 답변이 41.8%로 활발해졌다는 답변 21.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취약 교인 돌봄이 활발해졌다는 답변이 30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한편 같은 답변은 99명 이하 소형교회에서도 40.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간의 100~499명 교회는 33.3%, 500~2999명 교회는 33.2%로,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출석 교인의 답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형교회는 경제적 취약 교인 돌봄의 인적, 물적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소형교회는 서로 염려하고 배려하는 인격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교회의 '역량'과 소형교회의 '관계'를 모두 가질 수 있는 중대형 교회가 경제적 취약 교인 돌봄에서 가장 저조하다는 사실은 전체 교회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3. 코로나 시대의 개인 신앙생활

팬데믹 초기에 개신교는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도 현장 대면 예배와 각종 종교·정치 집회를 고집하다 집단감염의 발화점이자 통로가 되었다. 자기희생과 이웃사랑을 결여한 한국교회는 사회의 대표적 비호감 집단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 개신교 특유의 교권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의 폐해가 크다. 시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소수 목회자의 문제도 있지만, 주체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지 않고 집단주의에 휩쓸린 다수 평신도의 문제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팬데믹 과정에서 개신교인의 개인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1)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에서 중요해진 것

개신교인의 개인 신앙생활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것은 기도 58.7%, 성서공부 17.2%, 설교 15.3% 순으로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주요 방식이었던 친교와 봉사는 각각 4.4%와 2.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 통계를 보면, 기도가 더 중요해졌다는 답변은 남성(55.6%)보다 여성(61.0%)에게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설교가 더 중요해졌다는 답변은 여성(12.9%)보다 남성(18.6%)에게서 약간 더 높았다. 설교를 듣는 것의 수동성과 기도를 하는 것의 능동성을 감안하면, 개인 신앙생활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친교가 더 중요해졌다는 답변은 전체적으로는 소수지만, 세대 관련 세부 통계에서 특이한 점이 보인다. 친교가 더 중요해졌다는 답변은 20대 그룹에서 8.8%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세대—30대 3.0%, 40대 1.5%, 50대 4.6%, 60대 이상 4.7%—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 역시 팬데믹의 제약 속에서도 온·오프라인 친교 방식에 익숙한 20대 그룹의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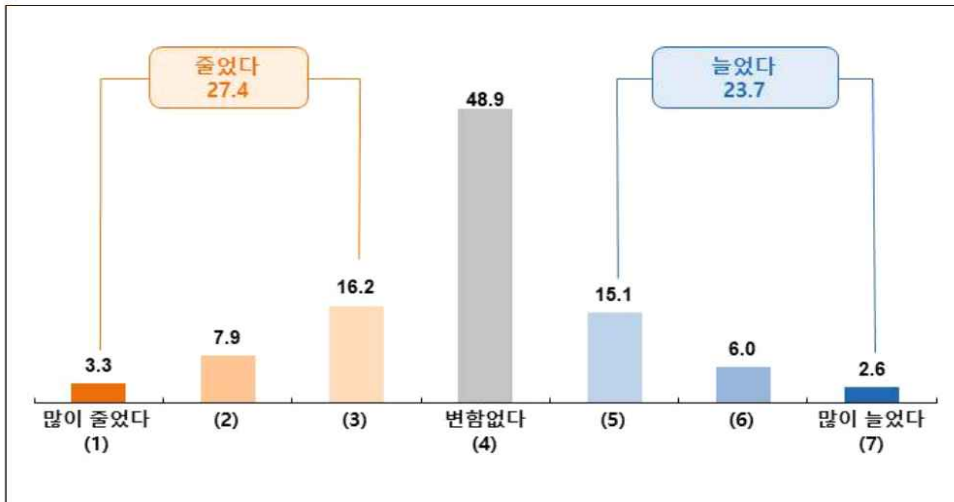
2) 개인 기도 생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개인 기도 시간 변화에 대해 ‘변함없다’는 답변은 48.9%, ‘줄었다’는 27.4%, ‘늘었다’는 23.7%로, 전체적으로는 개인 기도 시간이 약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에 홀로 머무는 시간이 많아 기도 시간도 늘었을 거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다. 따라서 세부 통계의 그룹별 차이를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부 통계를 보면 기도와 예배의 상관성이 나타난다. 즉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개인기도 시간이 늘었고, 낮을수록 줄었다. 주 3회 이상 예배 참석자 중 기도 시간이 늘었다는 답변은 39.4%인데 비해, 주 1~2회는 21.8%, 월 3회 이하는 17.7%, 연 1~3회는 11.4%다. 같은 맥락에서 기도 시간이 줄었다는 답변은 네 그룹에서 역순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한다는 답변도 주 3회 이상 예배 참석자는 47.7%로, 다른 그룹보다 크게 높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종교적 열심과 관련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각자 있는 곳에서 개인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예배 때마다 강조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예배가 기도를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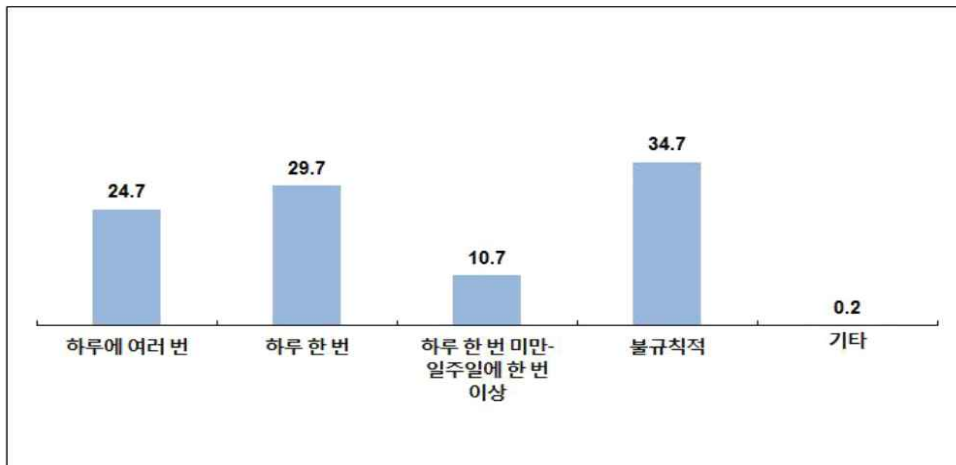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기도 시간 변화

(Base=전체, N=1000, 단위 : %)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일상 속 기도 빈도

(Base=전체, N=1000,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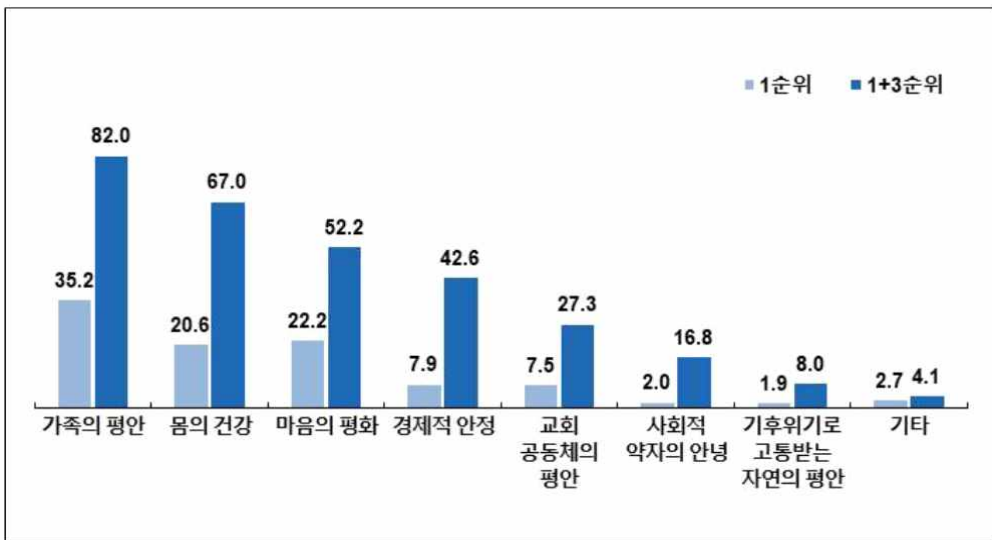


기도의 빈도수 조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대상자 중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한다는 이들이 24.7% 정도이고, ‘하루 한 번’이 29.7%, ‘하루 한 번 미만~1주 한 번 이상’이 10.7%다.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시간과 회수가 정해지지 않은 ‘불규칙적’ 기도로 34.7%다. 이와 같은 개신교인의 기도 빈도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것일 수도 있고 적은 것일 수도 있다. 아무튼 정기적·정규적 기도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개신교인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개신교 영성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세부 통계 중 특이사항은, 하루 여러 번 기도한다는 답변은 3000명 이상 대형교회에서 18.6%로, 다른 규모 교회들의 25.0%~26.8%에 비해 꽤 낮다는 점이다. 반면 ‘불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응답은 44.1%로 다른 그룹의 30.0%~35.0%보다 크게 높다. 이는 대형교회 교인의 신앙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수동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교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를 받는 ‘종교 소비자’로서의 신앙 방식에 익숙해진 대형교회 교인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기주도적 개인 신앙생활에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Base=전체, N=1000, 단위 : %)



개신교인의 기도 제목 1, 2, 3순위 응답 내용을 합산해 보면 ‘가족의 평안’ 82%, ‘몸의 건강’ 67%, ‘마음의 평화’ 52.2%, ‘경제적 안정’ 42.6%, ‘교회 공동체의 평안’ 27.3%, ‘사회적 약자의 안녕’ 16.8% 순이다.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1순위 응답자 특성별 세부 통계에서 나타나는 세대별 관심의 차이다. 예를 들면, ‘가족의 평안’은 30대 이상 그룹에서는 34%에서 39.4% 사이인데, 20대에서는 24.1%로 크게 낮다. 이는 가족 형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세대별 차이로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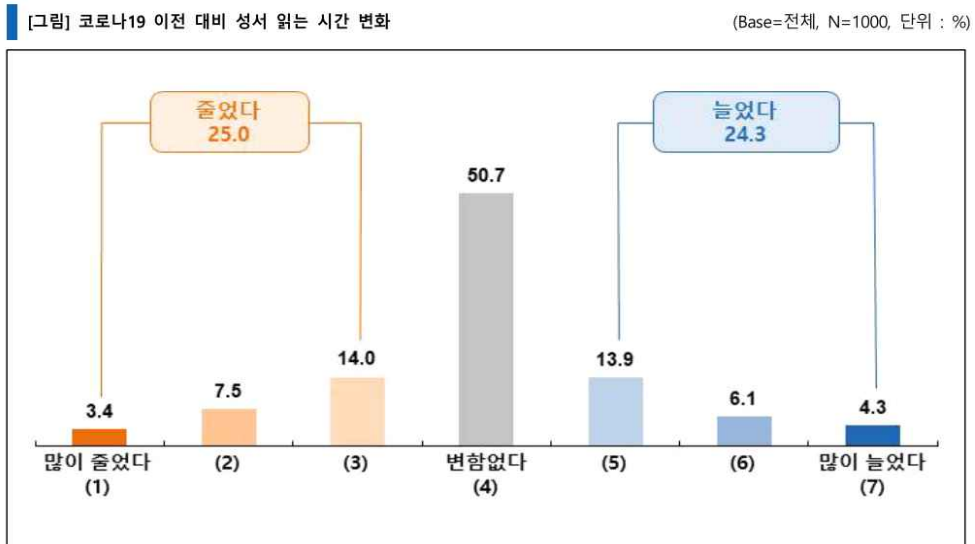
다. 한편 ‘마음의 평화’는 20대 그룹에서 34.4%로, 다른 세대—30대 26.1%, 40대 18.6%, 50대 19.1%, 60대 이상 19.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정서적 불안은 경제적 불안과도 상관이 있다. ‘경제적 안정’ 항목에서 20대 답변율은 14.4%로, 6.4%에서 9.9% 사이의 다른 세대 응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20대는 불안한 것이다.

아쉬운 점은 개신교인의 기도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이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기도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교회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참여하는 교회는 주일예배에서 동시대의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연대하는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이처럼 교회의 중보기도 전통을 교회 밖 사회로 확장하는 ‘사회적 기도’가 절실한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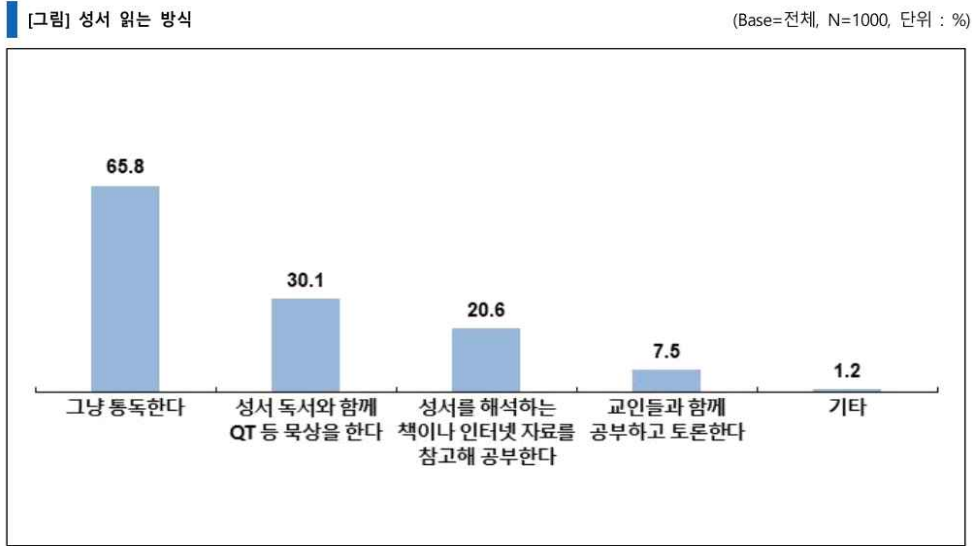
3) 성서 독서와 공부

코로나 기간 동안 성서 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은 41.8%이고, ‘잘 이루어졌다’는 답변은 21.9%로, 코로나 이후 교회 차원의 성서 공부도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조사 결과 중 주목할 것은, 성서 공부가 잘 이루어졌다는 답변이 대형교회 신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22.4%)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대형교회가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엔데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악화나, 백신 약효의 저하에 따른 가을 재확산을 예측하는 이들도 있다. 교회의 대면 활동은 언제라도 다시 정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교회들도 온라인 성서 연구 시스템을 갖추 수 있도록 교단 차원의 노력, 또는 교회 간 협력이 시급하다.



성서 읽는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었다’(25.0%)는 답변과 ‘늘었다’(24.3%)는 답변은 비슷하다. 그리고 ‘변함없다’(50.7%)는 답변이 가장 많다. 하지만 세부 통계를 보면 상황과 조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다. 성서 독서 시간이 늘었다는 답변은 남성이 19.1%, 여성 이 28.2%로, 큰 차이를 보인다. 예배 참석 빈도에서는 주 3회 이상 예배 참석 응답자의 42.4%가 성서 독서 시간이 늘었다고 답해, 예배 참석 주 1~2회 21.9%, 월 3회 이하 17.1%, 연 1~3회 14.1%보다 크게 높다. 이는 앞에서 다룬 신앙행태와 비슷하게, 개인적 열심, 예배를 통한 상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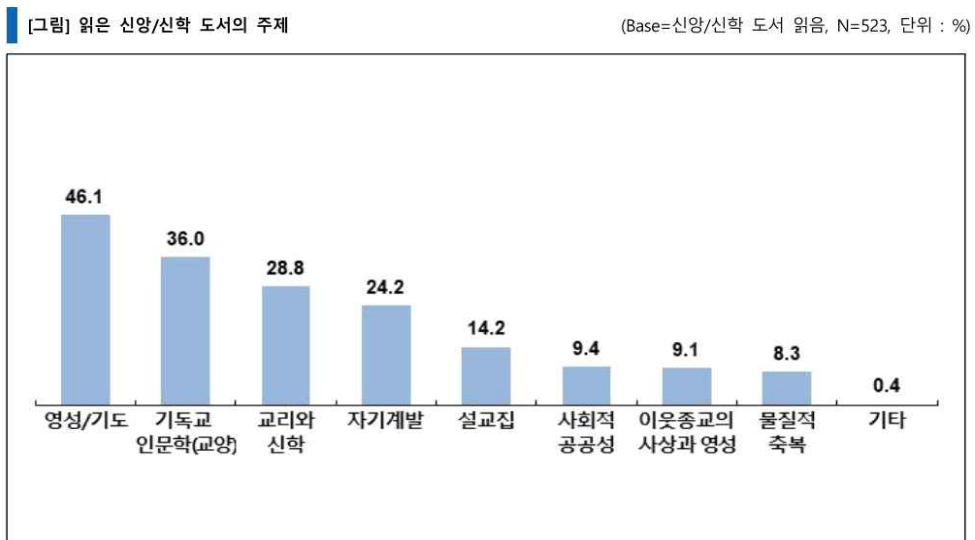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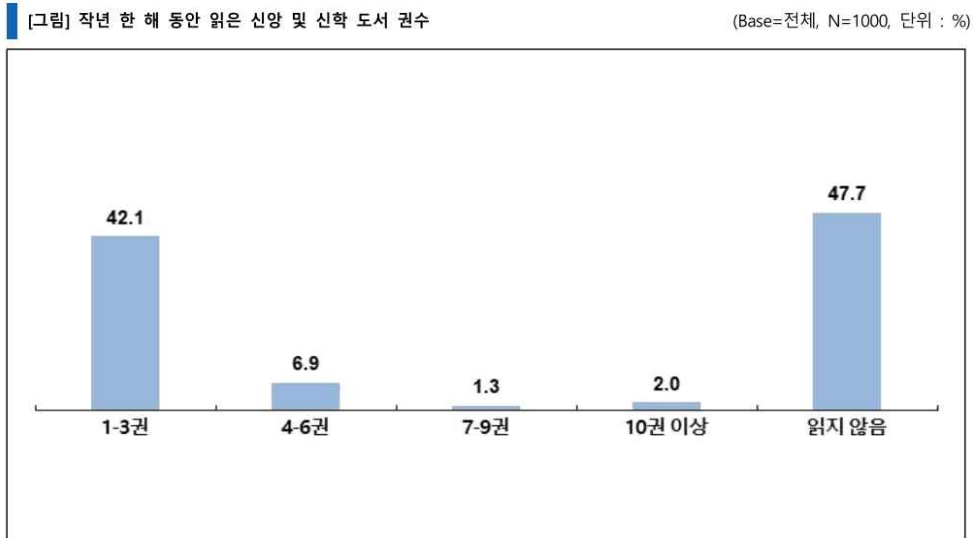
성서 읽는 방식은 ‘그냥 통독’(65.8%), ‘QT 등 묵상’(30.1%), ‘자료를 참고하는 공부’(20.6%), ‘교인들과 공부와 토론’(7.5%) 순이다. 묵상이나 공부 등 보다 적극적인 성서 독서 방식은 신앙생활 연수가 많을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많을수록 높다. 주 3회 이상 예배에 참석한다는 응답자의 38.3%가 묵상을 하는 반면, 연 1~3회 그룹에서는 18.5%다. 자료를 참고한 공부에서도, 주 3회 이상 예배 참석 그룹에서는 33.8%인 반면, 연 1~3회 참석 그룹에서는 11.1%로 큰 차이가 난다. 신앙의 열심과 성서 연구의 관심이 연동되어 있는 것이다.

4) 신앙/신학 도서

“개신교인 1천명 중 477명이 지난 1년 동안 신앙과 신학 도서를 한 권도 읽지 않았다.”

“개신교인 1천명 중 523명이 신앙과 신학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었다.”

두 문장 중 하나로 기사 제목을 단다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인데 어감이 무척 다르다. 전자는 절망의 이유가 되고 후자는 희망의 이유가 된다. 희망이 절실한 시대니, 후자의 관점으로 분석해 본다. 개신교인의 신앙/신학서 독서에서 특이사항은 10권 이상 읽었다는 비율이 2.0%, 7~9권이 1.3%다. 너무 적은 비율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전체 도서가 아닌 신앙/신학 분야 도서가 이 정도라면, 교회의 지성 회복을 희망하기에 아주 부족한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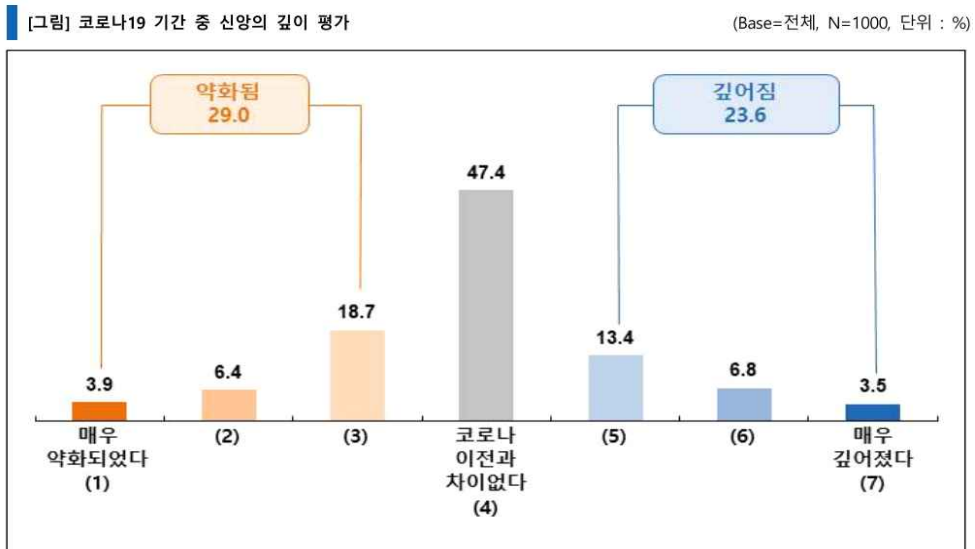


조사에 참여한 개신교인이 2021년 한 해 동안 읽은 신앙/신학 도서 주제는 영성/기도 46.1%, 기독교 인문학(교양) 36.0%, 교리와 신학 28.8%, 자기계발 24.2% 순이다. 물질적 축복

은 8.3% 순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의 신앙/신학 도서를 읽는가인데,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게 이번 조사의 아쉬운 한계다.

5) 코로나와 신앙의 깊이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답변이 47.7%, ‘약화’ 29%, ‘심화’ 23.6%다. 흥미롭게도, 신앙이 깊어졌다는 답변이 20대 그룹에서 30.7%로, 다른 세대 군의 20.4%에서 25.0% 사이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 덜 영향받으면서 영성 모임, 상담, 친교 등에 참여하는 20대의 세대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앙이 깊어진 이유는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에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49.8%다. 팬데믹을 통해 인간의 한계상황을 생생히 목격하거나 직접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목회자와 동료 교인의 영적 지도와 돌봄 덕분이라는 답변은 25.6%인데, 세부 통계를 보면 99명 이하 교회 그룹에서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은 교회의 긍정적 의미와 역할을 생각하게 해 주는 결과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해서 신앙이 깊어졌다는 답변이 20%인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현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신교 종교성 변화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속적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신앙이 약해진 이유로는 역시 ‘예배 참석이나 모임 참여 등의 기회가 줄어서’가 71.1%로 가장 높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이다. 그다음은 ‘비대면 상황에서 목회자/교인의 영적 지원 받지 못해’ 14.0%,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에’ 10.8%다. 세부 통계를 보면, 예배 참석이나 모임 등의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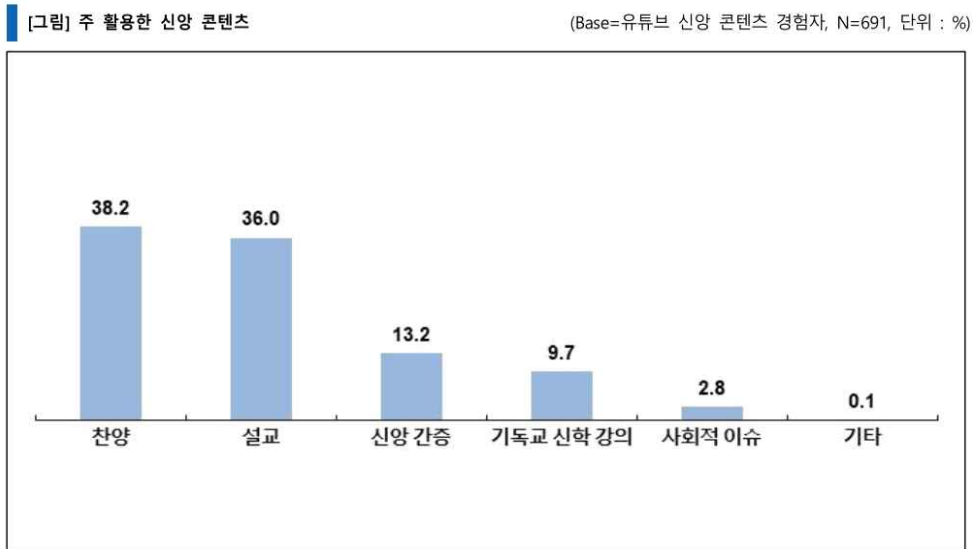
500명 이상 교회 81.5%, 3000명 이상 교회 77.6%로, 100명 이상 68.5%, 99명 이하 57.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화된 예배나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형 교회와 중소형 교회 교인들의 경험 차이가 개인의 신앙행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목회자와 교인의 영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라는 답변은 99명 이하 교회 교인 그룹에서 19.5%로, 10.3%에서 14.4% 사이를 보이는 다른 규모 교회 그룹의 조사 결과보다 높다. 이 역시 원래 작은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교인, 교인 간의 인격적 관계가 높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6) 유튜브 신앙 콘텐츠 활용

유튜브를 활용한 신앙 관련 콘텐츠 시청 경험은 응답자의 69.1%가 ‘그렇다’라고 답해 무척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튜브 시청을 통해 신앙 콘텐츠를 경험했다고 답한 여성 응답자 비율은 73.4%로, 남성 63.4%보다 10%P 높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유튜브 신앙 콘텐츠 시청도가 높다. 60대 이상에서 78.3%로, 다른 세대 그룹보다 최소 6.2%P에서 최대 18.3%P 높다. 이는 사회 전체에서 코로나 이후 60대 이상 고령층의 유튜브 이용률이 급증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유튜브 활용 정도가 높다는 사실이다. 주 3회 이상 그룹에서 54.0%로, 다른 그룹보다 최소 7.5%P, 최대 15.6%P 높다. 이는 유튜브를 통해 예배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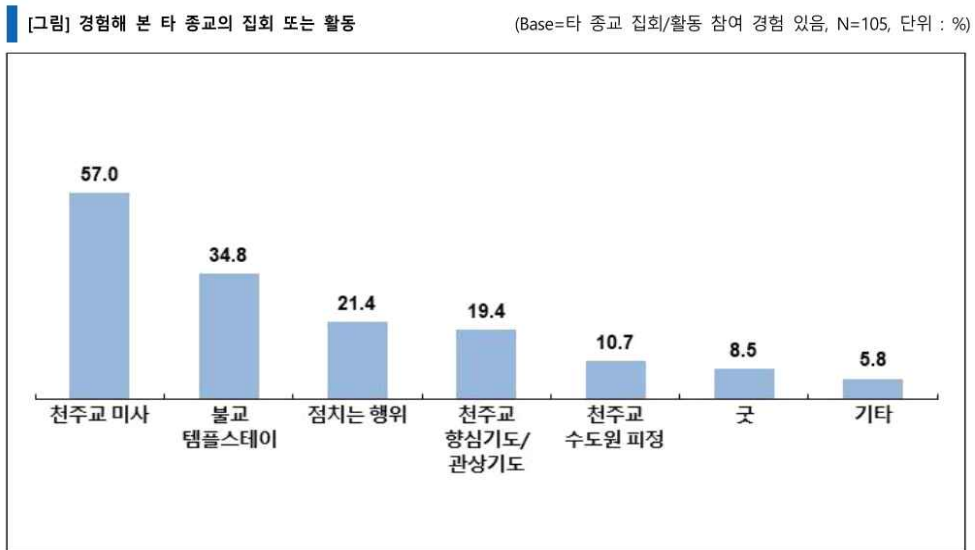


개신교인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 콘텐츠는 찬양 38.2%, 설교 36%, 간증 13.2%, 신학 강의 9.7%, 사회적 이슈 2.8% 순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찬양 콘텐츠 시청 정도가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설교 시청 비율이 높다. 사회에서도 10~20대는 음악이나 게임, 패션 등의 콘텐츠를 다

른 세대보다 더 많이 시청하고 60대는 정치나 뉴스 콘텐츠를 더 많이 시청하는 것과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다. 한편 신학 강의 시청은 15년 이하 응답자에서 15.8%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8.2%에서 8.5% 사이의 다른 신앙 연수 그룹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다. 신앙 연수가 짧을수록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이해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을 보여준다.

7) 개신교의 이웃 종교 경험

코로나19 상황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탈종교화, 탈경계화 흐름과 관련해서 이웃종교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국 개신교의 특징 중 하나는 극심한 ‘종교적 배타주의’다. 한국에서는 그리스도교가 최대종교이며 주도종교이긴 해도 지배종교는 아닌데, ‘오직 예수’의 배타적, 정복적 관점이 강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이웃종교를 경험해본 개신교인 응답자의 비율은 10.5%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는 적은 수치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은 수치다. 더 실감 나게 표현하면, ‘개신교인 열 명 중 한 명’이 이웃종교를 경험했다는 것은 개신교의 집단주의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결코 사소한 현상이 아니다.



개신교의 ‘이웃종교’ 경험에서 흥미로운 것은 천주교와의 관계다. 천주교와 개신교는 같은 그리스도교 전통에 속하지만, 한국 개신교인은 천주교를 다른 종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천주교 미사’, ‘천주교 향심기도/관상기도’, ‘천주교 수도원 피정’을 ‘이웃종교 체험’으로 분류해서 제시했다. 아무튼 배타적 신앙과 신학에 지배되고 있는 개신교인의 이웃종교 체험에서 천주교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관념보다 어려운 게 체험이다. 개신교인 중에 천주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직접 천주교 미사와 피정에 참여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은 개신교의 이웃종교 이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사항은, 불교 템플스테이 참여도 상대적으로 활발하다는 사실이다. 한쪽에서는 코로나19 와중에도 <부처님오신날>에 조계사에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시위성 전도를 하는 이들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교 사찰을 방문하여 불교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명상하는 개신교인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웃종교에 대한 개신교인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개신교인의 점(21.4%)이나 굿(8.5%) 참여도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다. 무교에 대한 교회적, 사회적 반감과 편협이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무교적 종교성, 의례성에 대한 관심은 개신교인 사이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요가를 체험한 개신교인이 전체 조사 대상자 1000명 중 337명으로 꽤 많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요가는 종교가 아니라고 보는 이의 비율이 63.8%에 이른다. 몇 년 전 한 교단 총회에서 요가는 종교이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결의해 사회적, 교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다. 물론 종교학적으로 요가는 인도 종교 특히 힌두교의 신앙 및 수행체계와 관련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종교적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요가는 신체 수련의 하나일 뿐이라는 게 개신교인의 일반적 인식이다.

4. 맺는말 : 돌아가야 할까, 나아가야 할까?

교회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야 할까, 코로나 이후로 나아가야 할까?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다. 개신교 교회 특유의 공동체성, 관계적 친밀성에서는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공공성, 사회적 책임성에서는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개신교 교회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경로의존성’이 아니라 ‘회복탄력성’이다. 재난 이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장점은 탄력 있게 회복해야 하지만, 단점은 과감하게 버리고 경로를 바꾸어야 한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바닥을 쳤다. 개신교 교회가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기복주의, 물질주의, 배타주의, 정복주의, 내세주의에 사로잡혀 지냈던 과거로 경로의존적으로 회귀한다면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개신교인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의 위기가 지속될 것을 예측하게 한다. 하지만 위기는 늘 기회를 수반한다.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개신교인의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의 미세한 변화들은 개신교 교회를 쇄신할 작은 씨앗이 되어 싹을 틔울 수도 있고, 교회의 폐허 위를 먼지처럼 날아다니다 공중으로 흩어져 버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개신교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 공동체와 영성에 대한 논찬

이진권

한국살렘영성훈련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한국교회의 ‘공동체성과 영성’의 패러다임은 거의 변하지 않은 듯하다. 그렇지만 몇 가지 변화의 전조와 동력이 보인다는 분석에 동의하면서, 그 지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팬데믹 시기의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 항목에서 코로나 시기에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측면(온라인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 - 43.3%)과 본질적인 성찰과 비전에 대한 요구(재난 속의 신앙과 비전 제시 + 교회의 사회적 책임강조와 실천 - 45.1%)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내용으로 가장 높게 나온 설교 메시지(75%)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38.1%)과 ‘교회의 사회적 책임’(14.6%)에 대한 부분을 합하면 반절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국교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익숙한 과거로의 급속한 회귀’가 아닌 ‘그리스도교 신앙과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과 사회적 공공성의 제고’를 위한 진지하고 다양한 논의와 대안들이 추구되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책임지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 목회자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목회적, 신학적으로 숙고하고, 이를 교회의 쇄신과 비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재교육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온 비대면 관계로의 변화는 개인의 영성생활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58%). 그러나 실제적인 기도생활의 변화나 기도내용의 변화는 그리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불규칙적’ 기도생활이 제일 많았고(34.7%), 기도 제목에서도 가족의 평안, 몸의 건강, 마음의 평화, 경제적 안정 등을 구하는 청원기도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위태롭고 불확실한 위기 속에서 자연스레 솟아나는 기도생활의 절실함을, 개인의 삶의 현장과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영성 형성(spiritual formation)을 한국교회가 제대로 준비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현실 속에서 절박한 청원기도를 포함하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자체를 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관상적 기도와 고통받은 이웃과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향한 사회적 중보기도를 영성생활과 신앙공동체의 중심 지향으로 삼지 못해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영성 전통에 묻혀있던 소중한 보화들을 발굴해서 현재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도원 전통에서 간직되어 있던 다양한 관상(침묵)기도의 전통들—렉시오 디비나, 예수 기도, 의식성찰기도, 향심기도, 떼제찬양 등—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상 속의 일상생활을 거룩한 영성생활의 리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무일과(아침기도, 점

심기도, 저녁기도)를 장려하는 생활 기도 운동을 전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필자가 아는 한 목회자는 세계교회가 함께 사용하는 공동성서정과 본문들을 사용하여, 매일 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묵상 기도책을 혼자 힘으로 제작하여 일상 속에서 영성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필자가 속해있는 한국샬렘영성훈련원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매일 어디에서나 묵상과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샬렘매일묵상’앱 (<http://shalem2020.cafe24.com/prayapp>)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교회의 여러 교단과 공동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이 창조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미디어에 나타난 청년-젠더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망 분석을 중심으로

송진순
이화여자대학교

연구 요약

- 연구의 목적은 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미디어에 청년과 젠더가 어떻게 보도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1) 미디어에 나타난 청년과 젠더 이슈의 현상을 파악하고 2) 이를 통해 청년 인식의 지형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는 2019년 8월~2021년 12월까지 각 신문사별로 기사를 추출하여 진행했다. 보수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1541건)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1142건), 기독교언론(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일보, 미션라이프, 노컷뉴스, 기독교보 외, 1999건)에서 유효한 4691건의 기사를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며 정부지원과 정책이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언론사별로 청년 인식과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청년”은 최근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다양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 소위 MZ세대로 통칭되는 2030대의 청년 세대가 한국의 유동하는 경제-정치 상황에서 어떤 세대로 인식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언론은 청년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청년의 모습을 스케치한다.

다수의 한국 언론들이 MZ세대로 통칭되는 청년세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다양성 선호, 개인의 취향 존중, SNS 등을 기반으로 한 익명성과 느슨한 인간관계 선호, 자신에게 흥미로운 것에 집중, 자기중심적 소비생활, 안정적인 직장보다는 다양한 삶의 경로 모색,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거대 담론에는 무관심함 등(매일경제, 2020년 2월 23일, MZ세대의 특징).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 언론들은 자신들의 프레임을 투영시켜 청년들이 ‘노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주장하며 시험과 경쟁을 중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여성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MZ세

대의 특징이라고 보도한다. 다시 말해 청년은 개인주의적이고 보수적 성향으로 묘사되고 있다. 다른 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은 취업과 부동산 폭등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마주하는 세대로, 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주축이 될 잠재력있는 세대로 묘사되기도 한다(오마이뉴스, 2021년 3월 16일 “청년 걱정하는 척, 언론 입맛따라 ‘2030’ 이용말라”).

언론은 사실을 보도함으로써 현실 자체를 나타내기보다는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특정 관점을 견지한 미디어의 구성물로 제공된다. 요컨대, 뉴스 프레임 연구가 대표적인데 뉴스가 특정 이슈를 선택, 강조, 배제함으로써 대중의 이슈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Entman, 1991). 특히 특정 이슈를 처음 소개하고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서 많은 언론들이 청년을 세대 갈등과 젠더 갈등의 중심에 두고 이슈 메이커로 만들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언론에서 “청년”과 “젠더”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파악하고 현재 청년에 대한 인식의 지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자료수집 및 절차

- 1) 빅데이터 전문 연구단이 자체 개발한 Crawler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기사의 기간은 2019년 8월~2021년 12월까지 각 신문사 별로 “청년”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를 추출하여 이후 “청년”과 “젠더”(남성, 여성, 남자, 여자, 젠더)가 동시 추출되는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 2) 해당 언론사는 보수언론(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1541건)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1142건), 기독교언론(크리스찬 투데이, 기독교일보, 미션라이프, 노컷뉴스, 기독교보 외, 1999건)에서 유효한 4691건의 기사를 중심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의미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 3) 분석절차 및 방법: 뉴스 기사는 비정형 데이터로서 본 연구를 위해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의미 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텍스트를 분석하기 전에 각 언론사에서 청년 관련 기사를 크롤링한 후 텍스트에서 유의미한 단어들을 추출하고(tokenizing), 많이 등장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단어인 불용어(stop word)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후 TF-IDF 가중치 알고리즘(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빈도가 아니라 중요도로 가중치를 구하는 기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단어의 크기에 따라 키워드의 빈도수를 가시성 있게 분석한 워드 클라우드 분석(Word Cloud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연구진과 빅데이터 분석가와 협의 하에 분석 키워드를 50개에서 최대 300개까지 수집하였다. 또한 분석 텍스트 내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와 각 단어들 간 형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워드 클라우드와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1) 언론사에 나타난 “청년”과 “젠더”에 대한 인식 : 워드 클라우드 분석

워드 클라우드 분석(Word Cloud Analysis)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텍스트 데이터에서 출현 빈도수를 계산하여 시각화한 분석 방식이다. 단어의 크기와 굵기에 따라 출현 빈도가 표현된다.

(1) 보수 언론 “청년” & “젠더”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보수 언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청년과 젠더(남성, 여성, 남자, 여자, 젠더)가 동시 출현한 체크스트를 기반으로 상위 주요 50개 단어를 시각화한 결과 보수 언론에서는 청년/ 지원/ 정책, 정부, 고용, 취업./ 일자리, 소득, 코로나, 사회, 문제, 참여 순으로 키워드가 등장했다.
- 보수언론이 보도한 청년 이슈는 (비록 젠더라는 키워드의 동시 출현을 전제했어도) 경제 분야가 제일 중요한 관심사였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일자리, 고용 문제가 시급하였기에 정부가 청년을 지원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한 보도로 제시하였다.
-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키워드 역시 정규직, 활성화, 플랫폼, 공유이었으나 이것 역시 경제 분야와 관련된 것이었다.
- 젠더 이슈와 공정 문제는 주요 키워드에서 상대적으로 낮았고, 그 외 부차적인 것으로 공정, 기후, 환경, 정치 문제가 언급되었다.



[그림1] 보수언론 - 청년&젠더 분석
상위50개

(2) 진보 언론 “청년” & “젠더”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진보언론(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 진보언론에서는 청년/ 정책, 문제, 정치, 지원/ 사회, 세대, 사람, 여성, 고용 순으로 주요 키워드가 나타났다.



[그림2] 진보언론 - 청년&젠더 분석
상위 50개

- 청년의 일자리, 고용, 취업, 정규직 등 경제 분야에서 청년이 당면한 과제들이 키워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진보언론은 보수 언론에 비해서는 ①코로나 언급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② 세대, 문제, 정치, 차별, 목소리, 계층, 사람, 가치, 경제, 위기, 불평등 참여, 기성세대, 청년층 등 보수언론과는 다르게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 등 청년과 관련된 사회 정치적 이슈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 여성, 남성, 계층, 분노, 논란, 공정 등 청년 관련하여 다양한 갈등 상황을 갈등의 대상을 언급하고 이에 따른 감정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년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기독교 언론 “청년” & “젠더” 관련 워드 클라우드 분석

*기독교언론(기독일보, 미션라이프외)

- 기독교 언론에서는 청년/ 정책, 지원/ 취업, 문제, 일자리, 정부, 참여, 사회/ 코로나교육 세대 금지 고용 순으로 주요 키워드가 나타났다.
- 이전의 언론사와 비슷하게 코로나 상황에서 청년 지원 정책이 중요한 관심사이고, 사회에서 취업과 일자리, 소득이라는 경제 분야가 제일 시급한 현안으로 보도되고 있다.
- 기독교 언론인만큼 하나님, 관용, 소통, 관심, 행복, 자유, 예배 기독, 정의 희망, 마음, 가능이라는 기독교 단어와 긍정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빈도는 낮아도 상위 50개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희망이 긍정의 메시지 전달보다는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의 경제지원책의 이름으로 사용된 것이다.
- 진보언론에 비하면 사회적 불평등이나 공정 문제 등 사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상위 50개 키워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 문제에 대한 언급보다는 기독교 예배와 긍정의 메시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언론이 청년 관련하여 기독교만의 특화된 이슈를 다루는 경향은 약했다. 다시 말해 기독교언론이 청년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이 일반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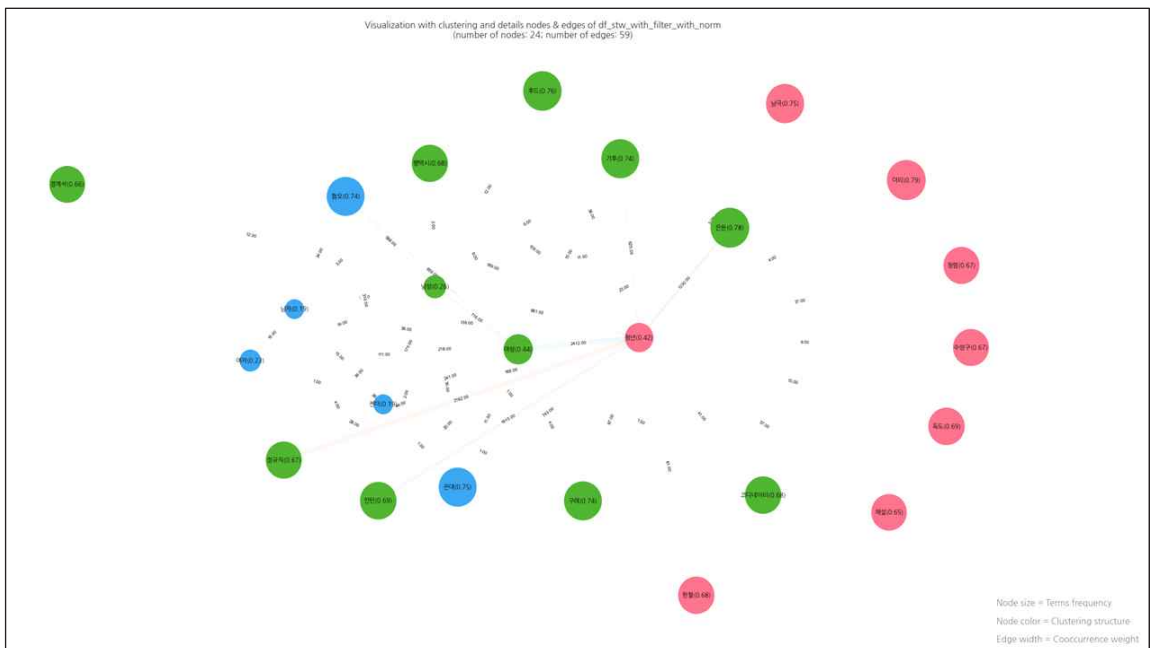
[그림3] 기독교언론 - 청년&젠더 분석
상위 50개

렇다고 사회의 청년 이슈에 대해서도 청년의 정치성과 사회적 불평등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언론사에 나타난 “청년”과 “젠더”에 대한 인식 : 의미연결망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단어를 분석 대상으로 비정형 데이터 분석방법의 대표적인 분석방법이다. 텍스트는 단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분석가능한 텍스트와 단어의 수는 무제한이다.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분석 텍스트 내 특정 단어의 출현 빈도와 각 단어들 간 형성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텍스트는 메시지는 다양한 의미들을 단어 차원에서 추출하고 분석 단어들 간에 형성된 관계의 속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관계 데이터는 “노드”(node)라고 불리는 각 개체와 이들 간의 연결 관계를 의미하는 “링크”(link)/엣지(edge)로 구성된다.(정원준 외, “빅데이터의 분석방법과 활용”, 2020) 키워드인 각 개체를 나타내는 노드인데 노드(원)의 크기는 빈도수 즉 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엣지의 숫자는 단어와 단어 간 연결 강도를 나타낸다. 특히 엣지의 너비는 동시출현 빈도를 나타낸다. 의미연결망 분석은 각 단어의 위치와 구조 연결 선의 두께로 의미망의 강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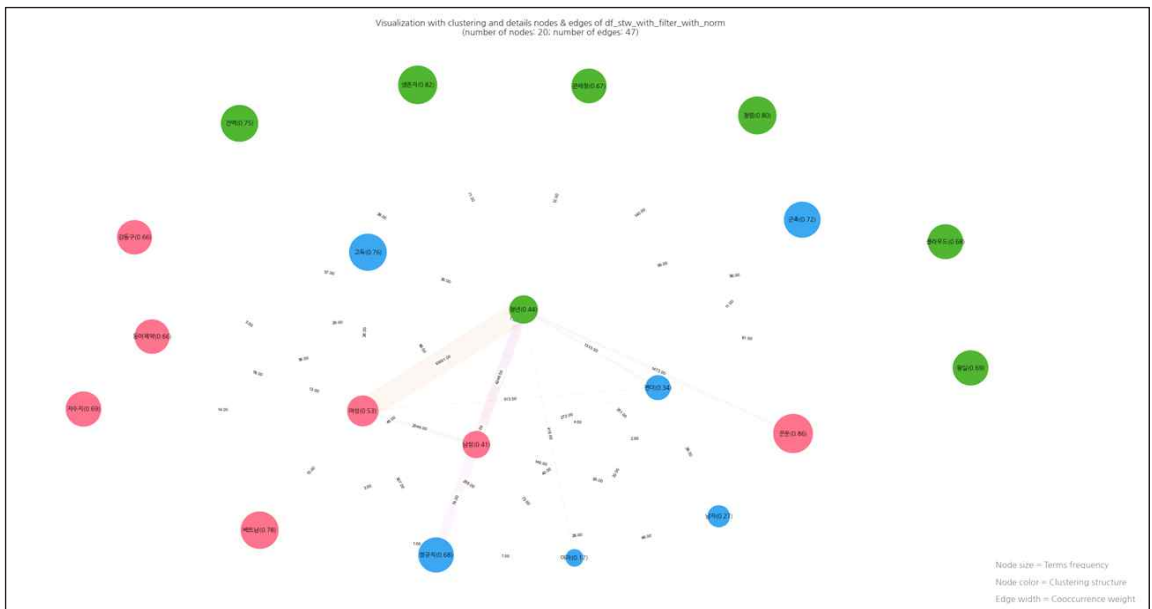
(1) 의미연결망 분석에 나타난 보수 언론의 “청년” & “젠더”의 인식 지형도



[그림4] 보수언론 청년&젠더 분석 상위 250개

- 보수 언론에서는 청년을 중심으로 은둔, 기후, 혐오, 정규직, 인턴, 구레라는 키워드가 높은 노드로 나타났다.
- 코로나 이전부터 문제시되었으나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집 안에서 홀리스가 된 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사업이 기사화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낙오되어 정서적으로 고립된 청년에 대한 정부지원이 이슈화되면서 정부지원 정책(청년지원정책) 시행으로 청년과 은둔이 강도 높은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
- 이외 인턴, 정규직은 노드와 엣지 모두 크게 나타난다. 구레가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은 구레에서 시행하는 청년지원정책이 기사화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듯이 보수 언론은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 이외 젠더 관련 이슈는 청년-남성-여성-혐오는 키워드간 서로 비슷한 강도와 빈도로 연결되어 있으나 느슨한 연결로서 근접성에서는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목할 것은 청년과 기후가 높은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의미연결망 분석에 나타난 진보 언론의 “청년” & “젠더”의 인식 지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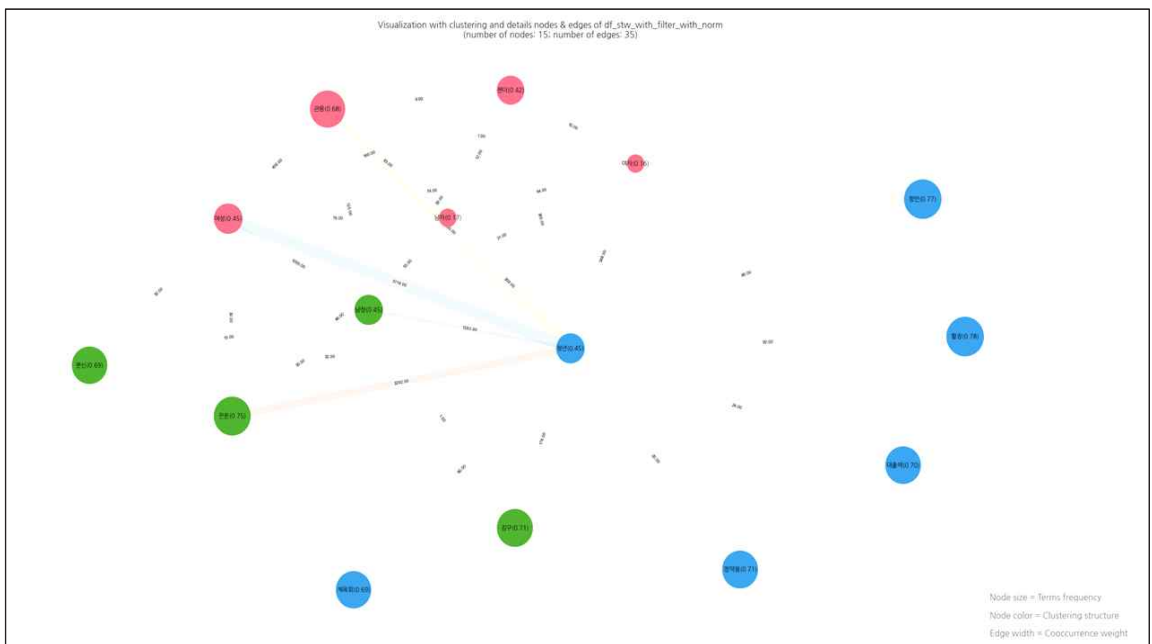
[그림5] 진보언론 - 청년&젠더 분석 상위 250개

- 진보언론에서는 청년과 관련하여 은둔, 정규직, 고독, 베트남, 생존자, 군축, 동아제약 그리고 여성, 남성 순으로 노드의 크기가 높게 나타났다.
- 보수언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은둔” 키워드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중요하고 다뤄지고 있는데, 한 가지 더 고독이라는 단어가 진보언론에서는 눈에 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주거, 취업 등 불안한 상황에서 20대 남성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것을 보도하면서 청년과 고독이

높은 강도와 빈도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 동아제약이 옛지의 두께는 크지 않지만 강한 노드로 나타난 것은 2021년 3월 동아제약의 성차별 면접 이슈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것이다.
- 주목할 것은 여성의 노드가 상대적으로는 낮지만 옛지 수치가 가장 높다. 다시 말해 진보 언론은 청년과 여성이 한 텍스트에서 가장 많이 공출현하는 키워드라는 의미로, 청년과 여성, 남성, 젠더 키워드는 근접성과 빈도 측면에서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성의 경우 정규직 문제와 가장 큰 연결관계를 갖는다.

(3) 의미연결망 분석에 나타난 기독교 언론의 “청년” & “젠더”의 인식 지형도



[그림6] 기독교언론 청년&젠더 분석 상위 250개

- 기독교 언론에서는 향만, 혈장, 대출, 정약용의 키워드는 노드는 높지만 옛지 수치는 낮게 나타났다. 혈장을 제외하고 세 개의 키워드는 경남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청년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경제 분야에서 사용된 키워드이다. 그러나 청년과 젠더 관련해서는 연결망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 기독교 언론은 청년과 은둔이라는 키워드가 빈도와 공출현에서도 높게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은둔청년지원정책에 대한 언급이 반복된 것이다.
- 청년과 여성 남성 젠더 키워드의 연결망은 나타나지만, 각 키워드 간 거리와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보아 느슨한 연결망에서 기사가 다뤄지고 있다.

4. 연구의 요약과 시사점

각 언론에 나타난 청년과 젠더 이슈를 워드 클라우드 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으로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일자리와 주거를 비롯하여 경제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매우 시급한 세대로 묘사되고 있다. 사회 문화적으로 좌절과 실패로 낙오한 은둔자 혹은 극단적 선택에 놓인 암울한 세대로 인식된다.
- 청년 관련 공정 담론이나 젠더 갈등이 청년 문제의 전면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기사에서는 이러한 보도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수, 진보, 기독교 언론사가 갖는 청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달랐다. 보수 언론이나 기독교 언론에서 묘사된 청년 세대는 주도적이고 자기 참여적인 적극적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정부 지원과 정책이 필요한 사회경제적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로 묘사된다. 진보언론도 청년의 경제 차원의 이슈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나, 젠더 갈등, 사회적 불평등, 고독사 등 청년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기독교 언론은 종교적 기반에서 차별화된 보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교회관련 청년 기사 역시 획일적이거나 청년 이슈에 대해서는 비종교 언론과 비슷한 관점에서 보도하고 있다.
- 청년을 좌절한 세대이자 갈등의 중심에 있는 세대로 이미지화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 각 언론에 나타난 청년 인식이 기성세대의 관점을 취하고 있기에 청년에 대한 역동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발견하고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MZ세대, 민주시민인가, 소비자인가?

신익상
성공회대학교

한국의 언론은 MZ세대를 어떤 식으로 묘사할까? 그리고 그걸 읽는 독자들은 또 어떨까? 이 짧은 글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고자 시도한 간단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다. 특히 집중한 것은 MZ세대를 평등과 관련해서 묘사할 때 어떤 단어들이 동원되는가다.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 이에 대한 민주공동체의 이해와 실천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데이터 크롤링(crawling) 대상은 보수 언론으로 평가받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진보 언론으로 평가받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개신교 언론인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한국기독교공보, 노컷뉴스, 기독교신문, 뉴스앤조이, 크리스천투데이의 뉴스와 이들 뉴스에 달린 댓글들이다. 이들 뉴스와 댓글의 검색 범위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불거진 2019년 8월 9일 이후부터 2021년 말까지로 하였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정을 토대로 하는 평등의 문제가 대두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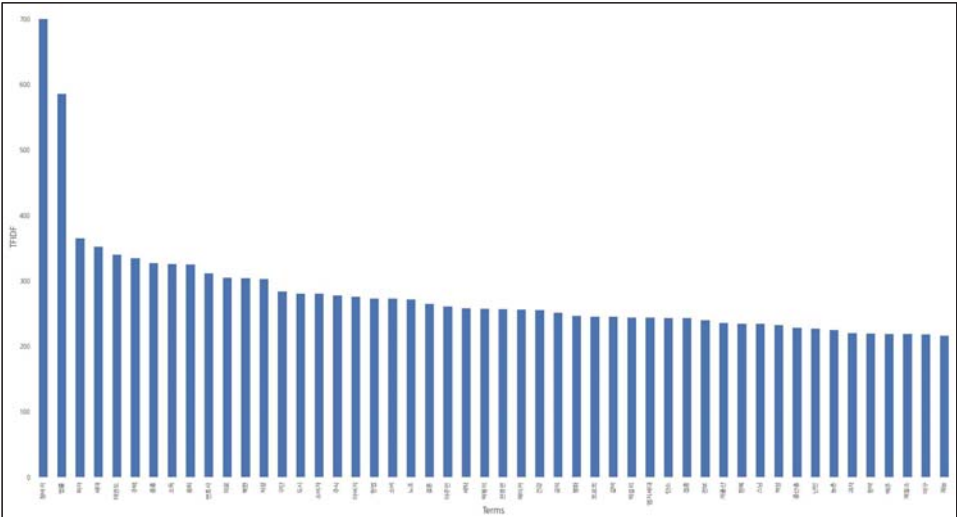
모인 데이터는 뉴스 기사와 댓글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뉴스 기사와 댓글 각각을 보수, 진보, 개신교 언론으로 나누어 총 6개 그룹을 만들었다. 각 그룹에 대해 모인 데이터의 종류는 명사와 형용사로 단순 빈도수가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 상위 50개의 키워드들이다. 이 키워드들에 대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자료의 수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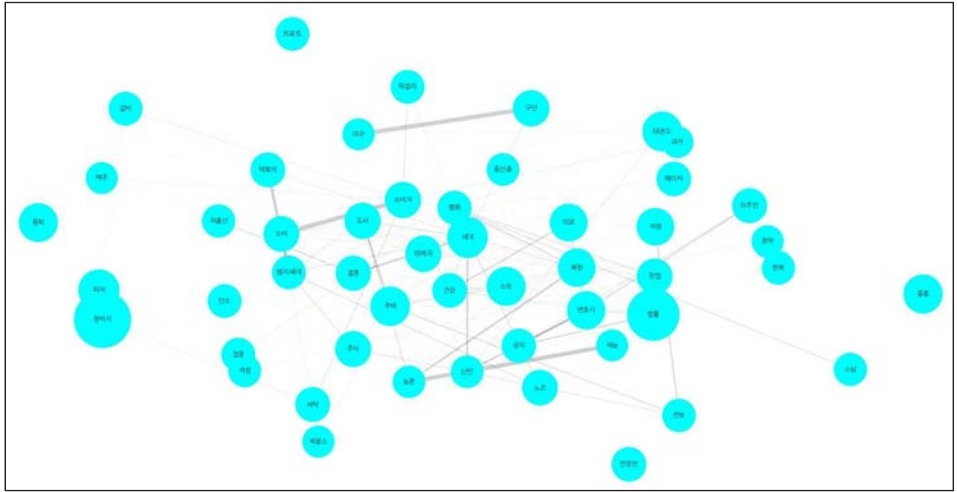
분석 대상		분석 자료의 수
뉴스 기사	보수 언론	3,009
	진보 언론	1,717
	개신교 언론	3,545
	전체	8,271
기사 댓글	보수 언론	61,389
	진보 언론	30,902
	개신교 언론	5,118
	전체	97,415

1. 뉴스 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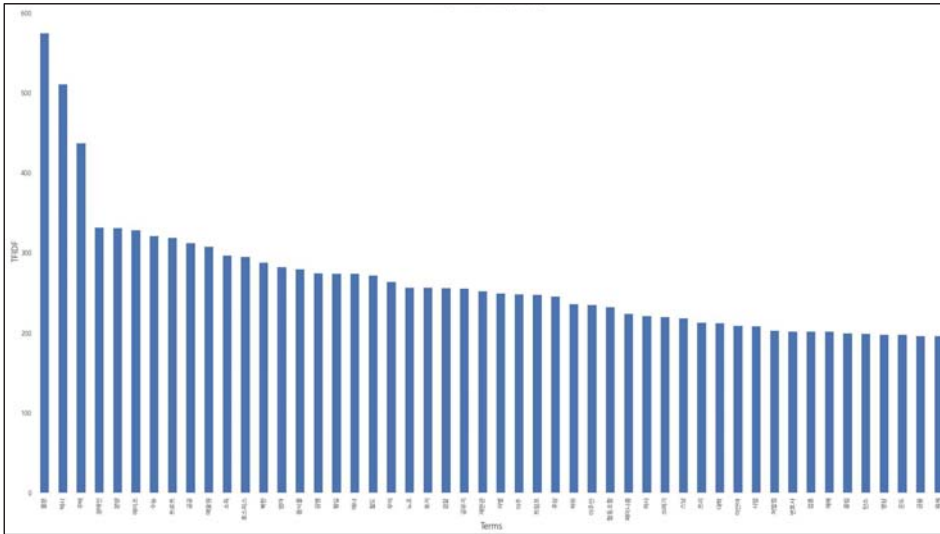
보수 언론의 기사에서는 청바지, 법률, 피자, 세대, 태권도, 주택, 중흥, 소득, 용퇴, 변호사, 의료 등의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단어들의 의미연결망은 보수 언론이 MZ세대와 평등의 문제를 함께 언급하는 기사에서 어떤 단어들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하는지를 다르게 보여주는데, 옛지의 수와 강도가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소득, 소비와 소비자, 주택, 도시와 농촌, 결혼, 저출산 등이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보수 언론에서는 MZ세대를 평등과 관련해서 다룰 때, 소비와 경제력, 도농 간의 격차 문제, 경제력의 불평등 문제로 인한 결과로서의 결혼과 저출산 문제 등과 관련시키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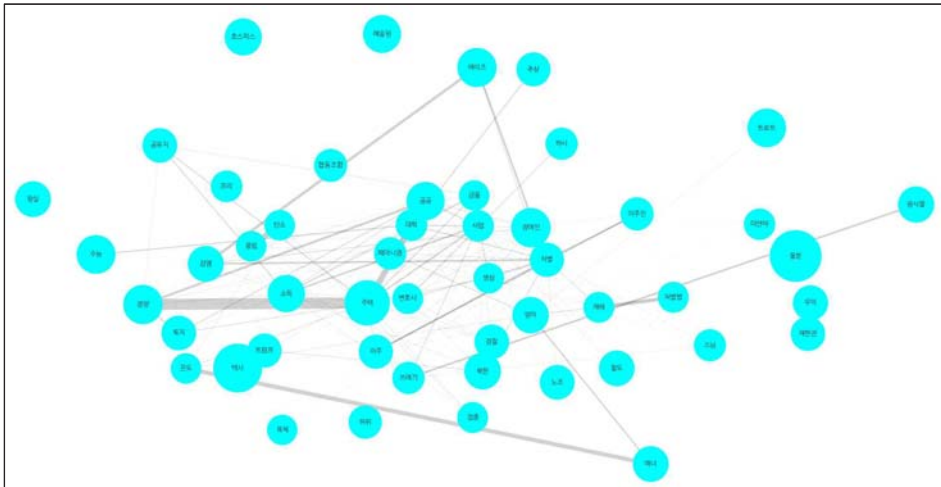
보수 언론



진보 언론의 기사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볼 때 주택, 분양, 토지, 소득, 금융과 사업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페미니즘의 문제, 장애인이나 이주민의 차별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탄소중립과 지구온난화 등도 MZ세대와 평등을 함께 다룰 때 두각을 나타내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진보 언론은 경제 문제를 다루더라도 이를 주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 격차라든지,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더 천착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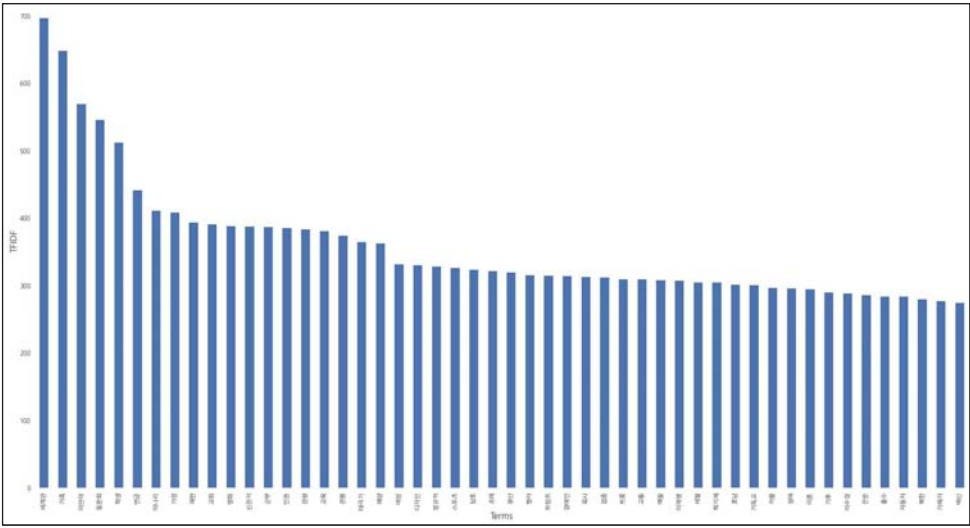


진보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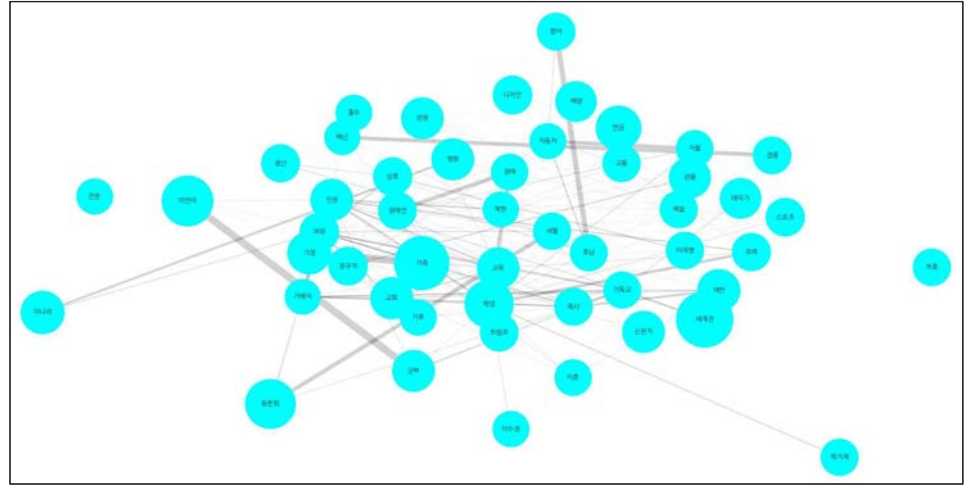


그렇다면, 개신교 언론사에서는 MZ세대와 평등을 함께 언급할 때 어떤 말들과 관련지을까? 개신교 언론사의 경우 교육과 가족을 중심으로 의미연결망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여성, 인권, 정규직, 기후, 교회, 장애인, 북한 등이 결합해 있다. 한편, 언급된 단어들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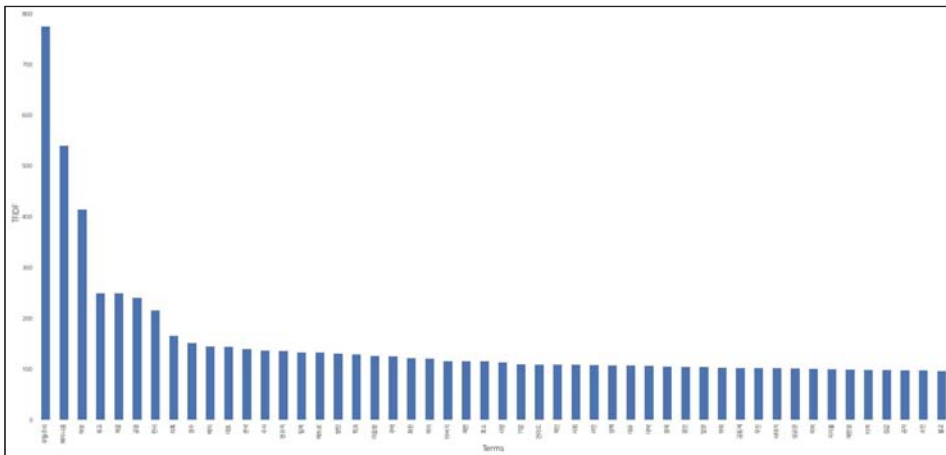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기독교 세계관과 미얀마 사태가 최상위 중요도에 올랐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경우 특정 기간에 이슈가 된 문제이므로 단일 사안으로 여러 번 언급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기독교와 세계관이 중요도에 있어서는 가장 최상위를 차지함에도 다른 단어들과의 연관성에 있어서는 비교적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실은, 이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며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언급되는 것이 아니고, MZ세대와 평등을 말함에 있어 그 자체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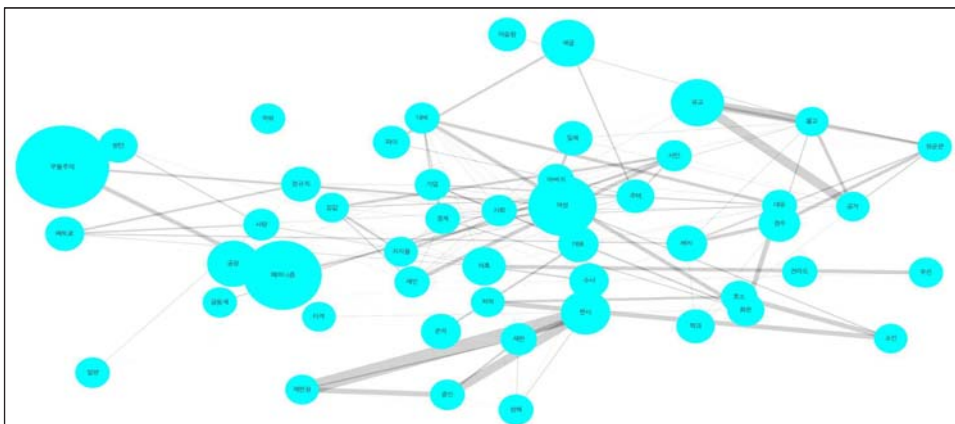
개신교 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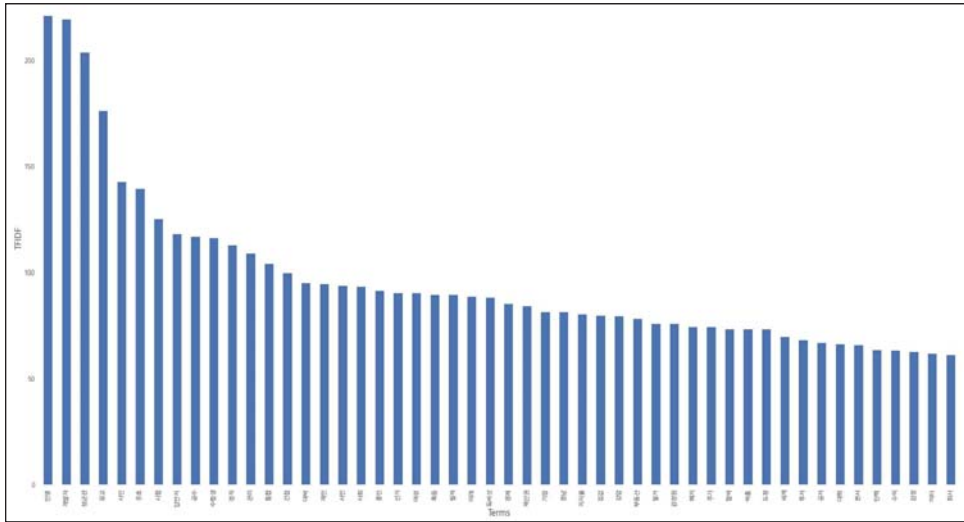
진보 언론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서는 우월주의, 페미니즘, 여성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단어로 나타났고, 유교, 채굴, 공장, 판사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의미연결망 분석은 이 중요도 높은 단어 중 ‘여성’이 가장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페미니즘과 우월주의가 여성과의 연결성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이 세 단어 자체는 다른 의미연결망과 복잡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월주의, 페미니즘, 여성의 삼각 연결은 독자적으로 부각한다. 다만, 정규직 문제가 우월주의와 여성을 이어주고 있다. 반면, 가장 의미연결망의 핵심에 놓인 것은 ‘경제’와 ‘사회’다. 경제와 사회는 집값, 주택, 기업, 문재인 지지율, 서민 등과 연결된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조국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최성해의 증언과 이 증언을 둘러싼 재판 과정이 더 초미의 관심사로 나타난다. 특이한 점은, 채굴이 대박과 주택에 연결되면서 중요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리하자면, MZ세대와 평등이 함께 언급될 때, 진보 언론에 달린 댓글들은 여성주의와 우월주의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며, 부동산과 비트코인을 통해 대박이 나서 부를 축적하는 문제, 조국 사태의 핵심에 놓여 있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의 증언과 이를 둘러싼 재판 과정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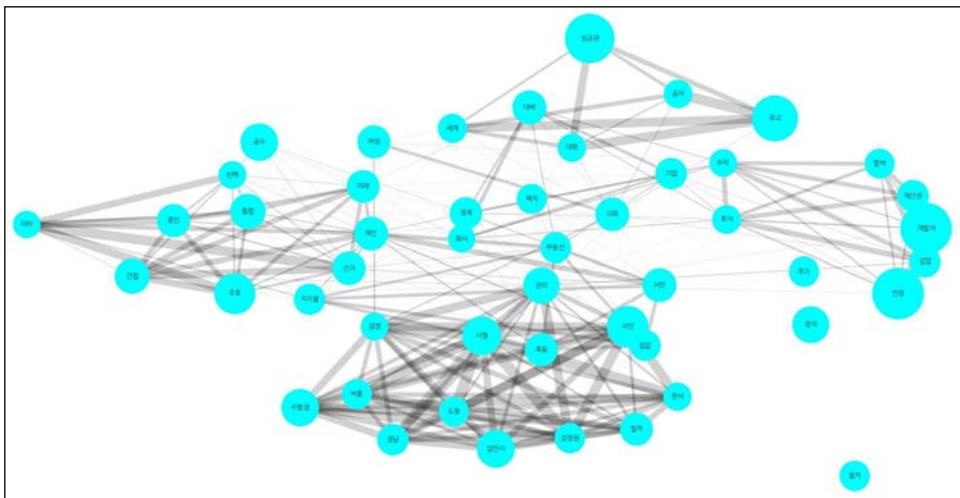
진보 언론 기사의 댓글



MZ세대와 평등과 관련하여 개신교 언론에 달린 댓글들에서는 민영, 개발자, 성균관, 유교 등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단어들로 나타났다. 의미연결망 분석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와 쌍둥이 시험 답안지 유출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대선과 관련된 의미연결망, 아마도 대장동 개발과 관련되어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 민영 개발자를 중심으로 한 단어들의 의미연결망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비록 강한 의미연결망은 아니지만, 부동산과 대박이 경제와 사회와 관련해서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개신교 언론 기사 댓글



3. 결론을 대신하며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음의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언론사의 기사들은 각 언론사의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보수 언론들의 기사에는 MZ세대와 관련한 평등의 문제를 경제력의 문제, 특히 소비력의 문제로 환원해서 보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반면, 진보 언론들의 기사는 이를 사회 구조적인 제반 문제들로 다루고 있다. 개신교 언론의 경우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토대로 가족과 교육을 중심으로 MZ세대와 평등의 문제를 다룬다. 기독교에 입각한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세대 문제를 푸는 키워드로 보고 있는 듯하다.

둘째, 기사를 접하는 독자들의 댓글은 MZ세대와 평등의 관계를 보는 시각이 민주시민의 가치와 소비주의의 가치를 두고서 분열되어 있다. 다시 말해, 여성의 사회적 위치나 조국 사태를 보는 시각이 비트코인과 부동산 등을 통해 대박 나기를 바라는 욕망, 더 나은 소비력을 갖추고자 하는 욕망과 함께 나타난다.

제 3 부. 설문 응답 및 그래프



Part1. 코로나19와 예배

I

온라인 예배 경험

1. 출석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

질문

귀하께서는 2021년에 출석하시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단수)



2021년 한 해 동안 출석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율은 89.3%로, 대부분의 개신교인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경험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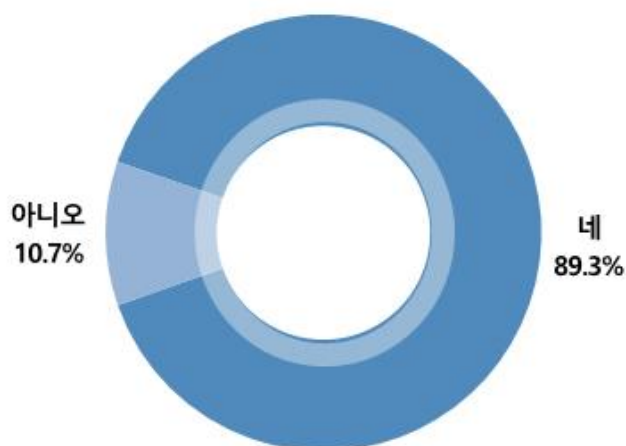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 경험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공식적인 예배를 주 1회 이상 드리는, 즉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에게서 92% 이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예배를 월 3회 이하 드리는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교회 규모로 보면 99명 이하 교회 출석자는 5명 가운데 1명 꼴인 20.9%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응답해서 소형 교회의 경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출석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출석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네	아니오	계
전체		(1000)	89.3	10.7	100.0
성별	남성	(427)	85.6	14.4	100.0
	여성	(573)	92.1	7.9	100.0
연령	19~29세	(137)	84.8	15.2	100.0
	30~39세	(147)	86.4	13.6	100.0
	40~49세	(193)	92.1	7.9	100.0
	50~59세	(190)	89.7	10.3	100.0
	60세 이상	(333)	90.7	9.3	100.0
지역	서울	(244)	90.1	9.9	100.0
	경기/인천	(347)	88.6	11.4	100.0
	대전/충청	(102)	90.9	9.1	100.0
	부산/울산/경남	(89)	92.7	7.3	100.0
	광주/전라	(120)	85.3	14.7	100.0
	대구/경북	(66)	94.5	5.5	100.0
	강원/제주	(32)	82.0	18.0	100.0
직업	자영업	(122)	86.4	13.6	100.0
	화이트칼라	(302)	90.4	9.6	100.0
	블루칼라	(156)	88.8	11.2	100.0
	주부	(251)	93.1	6.9	100.0
	학생	(78)	84.9	15.1	100.0
	무직/기타	(91)	84.2	15.8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90.1	9.9	100.0
	비정규직	(124)	89.5	10.5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86.6	13.4	100.0
	대재 이상	(794)	90.0	10.0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91.0	9.0	100.0
	미혼	(232)	83.9	16.1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85.3	14.7	100.0
	16~25년 이하	(220)	92.3	7.7	100.0
	26~35년 이하	(234)	89.3	10.7	100.0
	36년 이상	(330)	90.0	10.0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92.0	8.0	100.0
	주 1~2회	(652)	92.7	7.3	100.0
	월 3회 이하	(145)	76.6	23.4	100.0
	연 1~3회	(38)	68.7	31.3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90.1	9.9	100.0
	예장합동	(195)	88.8	11.2	100.0
	감리교	(117)	89.6	10.4	100.0
	기타장로교	(171)	87.4	12.6	100.0
	기타 교단	(173)	94.4	5.6	100.0
	잘 모름	(42)	72.7	27.3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79.1	20.9	100.0
	100~499명	(306)	93.6	6.4	100.0
	500~2999명	(244)	91.3	8.7	100.0
	3000명 이상	(189)	94.2	5.8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90.6	9.4	100.0
	보통	(137)	85.8	14.2	100.0
	중요함	(825)	89.9	10.1	100.0

2. 온라인 예배 형식

질문

귀하 교회의 온라인 예배 형식은 현장예배를 전체를 그대로 중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예배와 다른 형식입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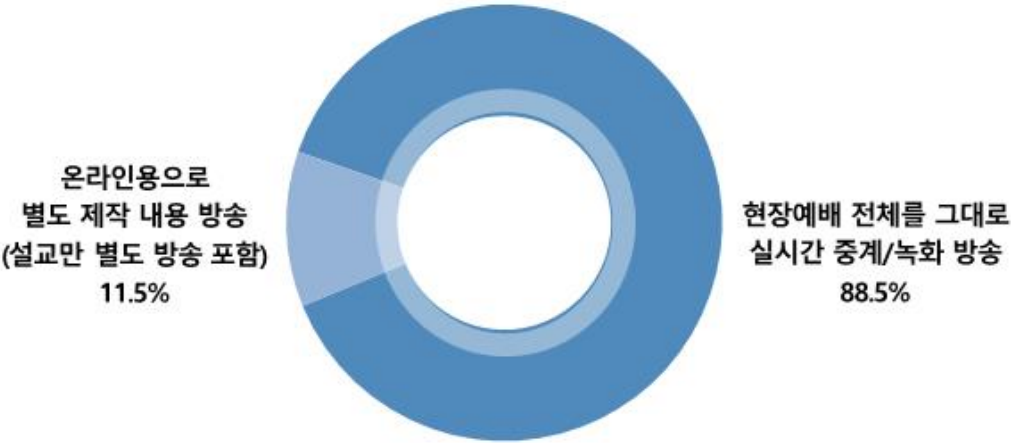


출석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송출(중계)하는 방식은 대부분이 ‘현장예배 전체를 그대로 중계’하는 방식이었다 (88.5%). ‘온라인용으로 별도 제작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는 11.5%였다.

교인 수가 500명 이상인 교회는 ‘현장예배 전체를 그대로 중계’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99명 이하에서는 ‘온라인용으로 별도 제작 내용 방송’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됐다. 499명 이하 교회는 14~16%가 ‘별도 제작 내용’을 방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형교회에서 실시간 중계 능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림] 온라인 예배 형식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표] 온라인 예배 형식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현장예배 전체를 그대로 실시간 중계/녹화 방송	온라인용으로 별도 제작 내용 방송(설교만 별도 방송 포함)	계
전체		(894)	88.5	11.5	100.0
성별	남성	(366)	88.0	12.0	100.0
	여성	(528)	88.9	11.1	100.0
연령	19~29세	(116)	94.7	5.3	100.0
	30~39세	(127)	92.0	8.0	100.0
	40~49세	(178)	87.5	12.5	100.0
	50~59세	(170)	88.6	11.4	100.0
	60세 이상	(302)	85.2	14.8	100.0
지역	서울	(220)	92.9	7.1	100.0
	경기/인천	(308)	91.0	9.0	100.0
	대전/충청	(93)	87.6	12.4	100.0
	부산/울산/경남	(82)	91.9	8.1	100.0
	광주/전라	(102)	71.2	28.8	100.0
	대구/경북	(62)	90.8	9.2	100.0
	강원/제주	(26)	77.0	23.0	100.0
직업	자영업	(105)	86.7	13.3	100.0
	화이트칼라	(273)	90.0	10.0	100.0
	블루칼라	(138)	84.6	15.4	100.0
	주부	(234)	90.7	9.3	100.0
	학생	(66)	94.1	5.9	100.0
	무직/기타	(77)	81.3	18.7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05)	90.7	9.3	100.0
	비정규직	(111)	80.4	19.6	100.0
학력	고졸 이하	(179)	91.1	8.9	100.0
	대재 이상	(715)	87.9	12.1	100.0
결혼여부	기혼	(699)	87.7	12.3	100.0
	미혼	(195)	91.4	8.6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84)	86.6	13.4	100.0
	16~25년 이하	(203)	88.3	11.7	100.0
	26~35년 이하	(209)	88.4	11.6	100.0
	36년 이상	(298)	89.9	10.1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52)	87.1	12.9	100.0
	주 1~2회	(605)	88.1	11.9	100.0
	월 3회 이하	(111)	92.7	7.3	100.0
	연 1~3회	(26)	87.2	12.8	100.0
교단	예장통합	(272)	93.6	6.4	100.0
	예장합동	(173)	86.2	13.8	100.0
	감리교	(105)	95.4	4.6	100.0
	기타장로교	(150)	91.8	8.2	100.0
	기타 교단	(163)	75.5	24.5	100.0
	잘 모름	(30)	85.2	14.8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06)	85.3	14.7	100.0
	100~499명	(286)	84.0	16.0	100.0
	500~2999명	(223)	93.1	6.9	100.0
	3000명 이상	(178)	93.7	6.3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4)	86.0	14.0	100.0
	보통	(118)	89.4	10.6	100.0
	중요함	(742)	88.5	11.5	100.0

3. 현장 예배 대비 온라인 예배 만족도

질문

이번에 온라인 예배 드렸을 때,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와 비교해 어떠셨습니까? (단수)



온라인 예배 경험자의 절반 이상은 온라인 예배에 대해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52.9%).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41.4%였으며, '현장 예배보다 좋았다'는 5.7%에 그쳤다.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2~30대 보다 4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나며,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높고, 주 3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신앙 생활 연수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현장 예배보다 더 만족했다'는 19~29세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19~29세 개신교인은 10명 중 1명 이상이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를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지난 조사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2020년 4월, 즉 온라인 예배가 도입된 지 얼마 안됐을 때는 '현장 예배보다 불만족'이 53.6%, '현장 예배보다 만족'이 6.9%였고, 2020년 12월, 대면 예배 인원이 제한되고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는 '불만족'이 51.0%로 소폭 낮아지고 '만족'이 12.6%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방식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경험이 긍정 인식을 높였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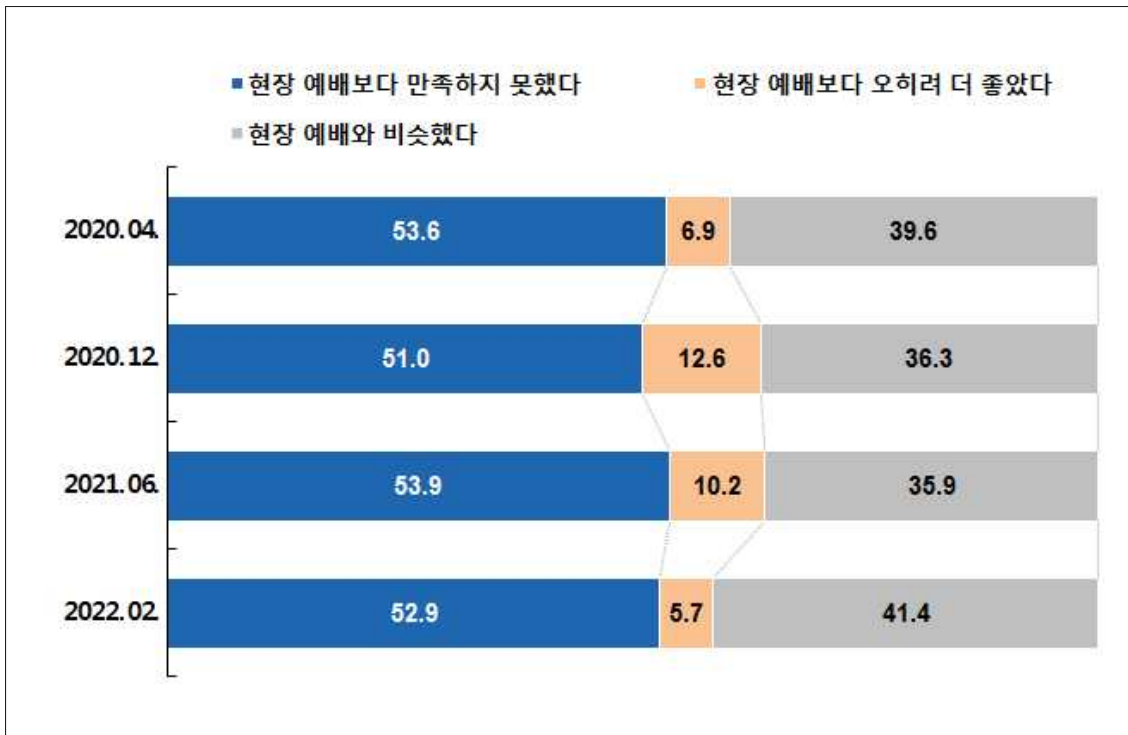
그러나 2021년 6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대면 예배 인원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시기에는 다시 '불만족' 비율이 이전만큼 올라갔고 '만족' 비율도 다소 하락했다.

금번 조사의 '불만족' 비율은 2021년 6월과 유사한 수준이고 '만족' 비율은 10.2%에서 5.7%로 내려앉았다. 즉, 2021년 6월에 비해 전체적으로는 온라인 예배 만족도가 다소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4차례의 조사 결과의 흐름을 보면, 온라인 예배가 '현장예배보다 못했다'는 불만은 53%대로 큰 변동 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현장예배보다 좋았다'는 비율은 늘었다가 다시 줄었지만 '현장예배와 비슷했다'와 합하면 온라인 예배 수용층도 47% 내외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온라인예배 수용층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 추세는 돌이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제는 온라인 예배 여부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예배를 온라인화 하면서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성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그림] 현장 예배 대비 온라인 예배 만족도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 2020.04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4.2.~4.6.

* 2020.1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6.17.~6.28.

** 이전 세 조사의 설문에서는 '온라인/방송/가정 예배'의 만족도를 물었으므로, 이 중 '출석 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자'의 '온라인 예배 만족도'만을 추출하여 재분석함.

[표] 현장 예배 대비 온라인 예배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현장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현장예배와 비슷했다.	현장예배보다 더 만족했다.	계
전체		(894)	52.9	41.4	5.7	100.0
성별	남성	(366)	54.7	38.7	6.6	100.0
	여성	(528)	51.6	43.3	5.1	100.0
연령	19~29세	(116)	37.5	51.2	11.3	100.0
	30~39세	(127)	49.4	49.0	1.5	100.0
	40~49세	(178)	55.3	36.4	8.4	100.0
	50~59세	(170)	62.8	33.7	3.5	100.0
	60세 이상	(302)	53.3	41.7	5.0	100.0
지역	서울	(220)	52.4	42.2	5.4	100.0
	경기/인천	(308)	49.5	44.4	6.1	100.0
	대전/충청	(93)	57.3	33.3	9.4	100.0
	부산/울산/경남	(82)	65.1	30.1	4.8	100.0
	광주/전라	(102)	50.8	43.3	6.0	100.0
	대구/경북	(62)	51.2	47.1	1.7	100.0
	강원/제주	(26)	54.9	43.3	1.8	100.0
직업	자영업	(105)	49.3	43.8	6.9	100.0
	화이트칼라	(273)	59.5	34.5	6.0	100.0
	블루칼라	(138)	52.5	41.2	6.2	100.0
	주부	(234)	53.3	43.6	3.1	100.0
	학생	(66)	33.6	54.9	11.5	100.0
	무직/기타	(77)	50.6	44.6	4.8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05)	56.6	37.8	5.6	100.0
	비정규직	(111)	58.4	34.4	7.2	100.0
학력	고졸 이하	(179)	55.7	38.4	5.9	100.0
	대재 이상	(715)	52.2	42.1	5.7	100.0
결혼여부	기혼	(699)	55.7	39.4	4.9	100.0
	미혼	(195)	42.8	48.7	8.5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84)	45.7	48.0	6.3	100.0
	16~25년 이하	(203)	50.4	43.6	6.0	100.0
	26~35년 이하	(209)	51.1	41.2	7.7	100.0
	36년 이상	(298)	60.2	35.9	3.8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52)	61.5	32.2	6.3	100.0
	주 1~2회	(605)	52.8	41.9	5.3	100.0
	월 3회 이하	(111)	42.4	50.0	7.5	100.0
	연 1~3회	(26)	50.7	46.3	3.0	100.0
교단	예장통합	(272)	47.2	46.0	6.8	100.0
	예장합동	(173)	61.8	35.6	2.6	100.0
	감리교	(105)	43.2	43.7	13.1	100.0
	기타장로교	(150)	63.4	34.2	2.4	100.0
	기타 교단	(163)	51.3	44.0	4.7	100.0
	잘 모름	(30)	43.6	47.1	9.3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06)	51.2	41.8	7.1	100.0
	100~499명	(286)	55.0	40.8	4.3	100.0
	500~2999명	(223)	56.2	39.3	4.5	100.0
	3000명 이상	(178)	47.4	44.7	7.9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4)	50.9	41.6	7.6	100.0
	보통	(118)	32.5	53.5	14.0	100.0
	중요함	(742)	56.2	39.5	4.3	100.0

4. 온라인 예배 불만족 이유

질문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기 힘들'을 꼽았다(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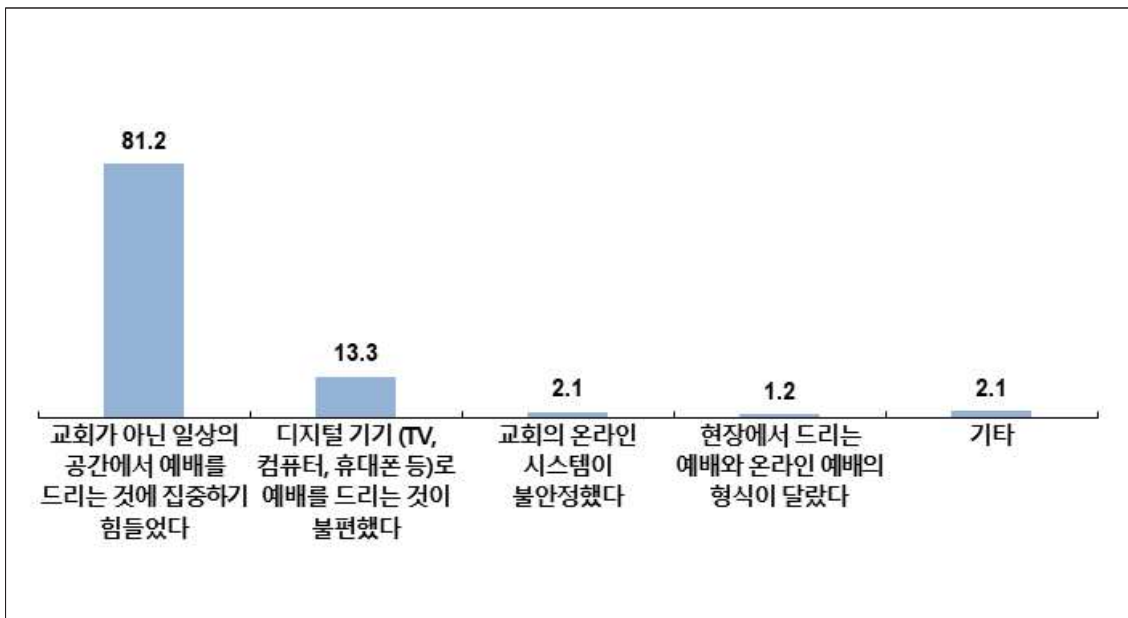
예배 '공간'은 단순히 예배를 위한 '물리적 장소'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 예전과 의식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 기능도 수행한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구별된 예전을 위해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공간도 일상의 공간과 구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의 두 번째는 '디지털 기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했다'는 13.3%였고, 기타 온라인 시스템이나 형식의 이유는 소수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단점은 예배당에서 온전히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환경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것이며, 예배드리는 자와 예배 사이에 다른 매개체(기기)가 존재하여 불편을 야기하는 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온라인 예배 불만족 이유

(Base=온라인 예배 불만족자, N=473, 단위 : %)



[표] 온라인 예배 불만족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예배 불만족자, N=473,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디지털 기기 (TV, 컴퓨터, 휴대폰 등)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했다.	교회의 온라인 시스템이 불안정했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형식이 달랐다.	기타	계
전체	(473)	81.2	13.3	2.1	1.2	2.1	100.0
성별	남성 (200)	78.3	15.5	2.0	1.9	2.4	100.0
	여성 (272)	83.4	11.8	2.1	0.7	2.0	100.0
연령	19~29세 (44)	83.0	13.2	2.8	0.0	1.0	100.0
	30~39세 (63)	76.1	21.2	2.7	0.0	0.0	100.0
	40~49세 (98)	85.8	6.2	4.0	1.5	2.6	100.0
	50~59세 (107)	76.8	14.6	2.2	1.6	4.7	100.0
	60세 이상 (161)	82.9	13.8	0.3	1.6	1.3	100.0
지역	서울 (115)	84.4	8.4	1.6	0.0	5.7	100.0
	경기/인천 (152)	84.4	8.3	3.2	2.4	1.6	100.0
	대전/충청 (53)	75.7	24.3	0.0	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54)	85.2	13.3	0.0	1.5	0.0	100.0
	광주/전라 (52)	69.5	21.4	4.5	2.3	2.3	100.0
	대구/경북 (32)	82.0	18.0	0.0	0.0	0.0	100.0
	강원/제주 (14)	68.3	26.2	5.5	0.0	0.0	100.0
직업	자영업 (52)	69.9	23.8	0.0	0.0	6.3	100.0
	화이트칼라 (162)	81.9	14.7	1.7	0.7	1.0	100.0
	블루칼라 (73)	78.2	14.7	3.6	3.5	0.0	100.0
	주부 (125)	86.8	6.8	1.9	1.0	3.5	100.0
	학생 (22)	89.3	5.2	5.5	0.0	0.0	100.0
	무직/기타 (39)	76.7	16.8	2.0	2.1	2.3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173)	79.6	16.0	3.1	0.7	0.6	100.0
	비정규직 (65)	84.4	10.7	0.0	4.0	0.9	100.0
학력	고졸 이하 (99)	78.0	15.7	3.0	0.6	2.7	100.0
	대재 이상 (373)	82.1	12.7	1.8	1.4	2.0	100.0
결혼여부	기혼 (389)	82.4	12.9	1.1	1.5	2.3	100.0
	미혼 (83)	75.9	15.6	6.8	0.0	1.6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84)	71.6	23.0	5.4	0.0	0.0	100.0
	16~25년 이하 (103)	87.5	8.3	1.7	1.9	0.5	100.0
	26~35년 이하 (107)	75.9	14.9	0.5	1.1	7.5	100.0
	36년 이상 (179)	85.3	10.8	1.6	1.4	0.8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93)	81.6	12.4	2.8	0.9	2.3	100.0
	주 1~2회 (319)	81.3	12.8	1.8	1.5	2.5	100.0
	월 3회 이하 (47)	79.8	20.2	0.0	0.0	0.0	100.0
	연 1~3회 (13)	81.7	8.1	10.2	0.0	0.0	100.0
교단	예장통합 (128)	82.6	10.4	1.8	1.8	3.4	100.0
	예장합동 (107)	80.3	15.3	0.6	2.4	1.5	100.0
	감리교 (45)	78.0	20.8	1.2	0.0	0.0	100.0
	기타장로교 (95)	85.5	8.8	4.8	0.8	0.0	100.0
	기타 교단 (84)	83.5	15.8	0.7	0.0	0.0	100.0
	잘 모름 (13)	41.2	18.1	9.3	0.0	31.5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105)	65.4	24.5	5.9	3.7	0.5	100.0
	100~499명 (157)	84.2	11.8	1.6	0.4	2.1	100.0
	500~2999명 (125)	89.9	6.8	0.4	1.0	1.9	100.0
	3000명 이상 (84)	82.7	12.0	0.7	0.0	4.6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7)	87.1	6.0	6.9	0.0	0.0	100.0
	보통 (38)	76.2	17.1	6.7	0.0	0.0	100.0
	중요함 (417)	81.4	13.3	1.4	1.4	2.4	100.0

5. 온라인 예배 만족 이유

질문

온라인 예배에 더 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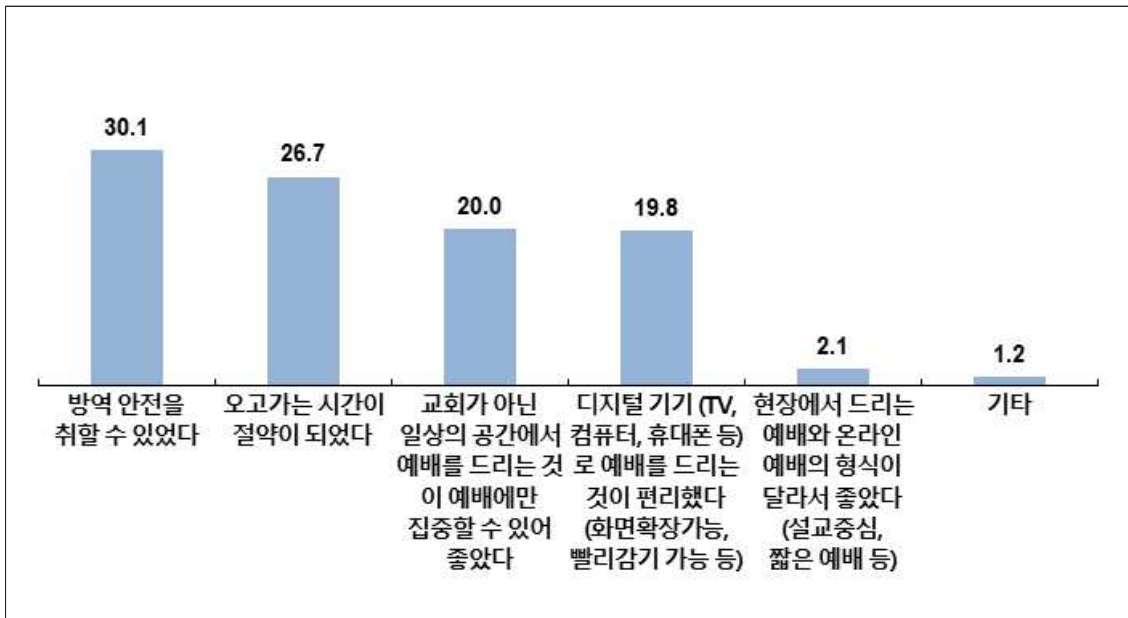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 예배가 더 좋았던 이유로는 '방역 안전'(30.1%)과 '시간 절약'(26.7%)의 이유가 크게 나타났다.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다'와 '디지털 기기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리했다'도 주요 이유로 나타났다.

여성은 '방역 안전', '시간 절약', '예배에 집중' 이유를 많이 꼽은 반면, 남성은 '디지털 기기 이용 편리함'을 가장 많이 응답한 특징을 보인다. (사례수 30 미만이므로 해석 시 주의)

[그림] 온라인 예배 만족 이유

(Base=온라인 예배 만족자, N=51, 단위 : %)



[표] 온라인 예배 만족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예배 만족자, N=51,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방역 안전을 취할 수 있었다.	오고가는 시간이 절약이 되었다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	디지털 기기 (TV, 컴퓨터, 휴대폰 등) 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리했다. (화면확장 가능, 빨리감기 가능 등)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형식이 달라서 좋았다. (설교중심, 짧은 예배 등)	기타	계
전체		(51)	30.1	26.7	20.0	19.8	2.1	1.2	100.0
성별	남성	(24)	24.8	22.0	12.0	38.5	2.7	0.0	100.0
	여성	(27)	34.8	31.0	27.2	3.1	1.6	2.3	100.0
연령	19~29세	(13)	8.7	39.2	13.4	38.7	0.0	0.0	100.0
	30~39세	(2)	0.0	100.0	0.0	0.0	0.0	0.0	100.0
	40~49세	(15)	38.2	30.6	13.8	17.4	0.0	0.0	100.0
	50~59세	(6)	36.7	8.0	40.5	7.4	7.4	0.0	100.0
	60세 이상	(15)	41.9	10.0	26.4	13.3	4.3	4.0	100.0
지역	서울	(12)	3.9	11.6	34.3	45.0	0.0	5.1	100.0
	경기/인천	(19)	28.5	22.5	20.3	25.3	3.5	0.0	100.0
	대전/충청	(9)	89.4	4.6	6.0	0.0	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4)	28.4	57.5	14.1	0.0	0.0	0.0	100.0
	광주/전라	(6)	10.2	62.4	20.2	0.0	7.2	0.0	100.0
	대구/경북	(1)	0.0	100.0	0.0	0.0	0.0	0.0	100.0
	강원/제주	(0)	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	자영업	(7)	100.0	0.0	0.0	0.0	0.0	0.0	100.0
	화이트칼라	(16)	20.1	27.9	36.5	5.1	6.6	3.7	100.0
	블루칼라	(9)	0.0	26.5	20.4	53.1	0.0	0.0	100.0
	주부	(7)	37.1	40.2	22.7	0.0	0.0	0.0	100.0
	학생	(8)	14.9	50.1	0.0	35.0	0.0	0.0	100.0
	무직/기타	(4)	24.6	0.0	21.4	54.1	0.0	0.0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17)	15.7	23.7	35.4	17.7	3.8	3.6	100.0
	비정규직	(8)	7.7	35.3	21.5	30.0	5.5	0.0	100.0
학력	고졸 이하	(11)	20.0	21.7	19.7	28.6	4.2	5.8	100.0
	대졸 이상	(40)	32.7	28.1	20.1	17.5	1.6	0.0	100.0
결혼여부	기혼	(34)	39.5	23.1	20.7	11.7	3.2	1.8	100.0
	미혼	(17)	10.6	34.2	18.7	36.6	0.0	0.0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2)	14.9	27.5	25.7	32.0	0.0	0.0	100.0
	16~25년 이하	(12)	44.5	20.4	23.3	8.2	3.6	0.0	100.0
	26~35년 이하	(16)	27.7	37.6	3.5	31.2	0.0	0.0	100.0
	36년 이상	(11)	33.5	17.5	34.1	3.9	5.7	5.4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0)	45.5	19.1	11.1	13.4	4.6	6.3	100.0
	주 1~2회	(32)	34.0	26.9	20.8	16.2	2.0	0.0	100.0
	월 3회 이하	(8)	0.0	37.4	19.6	42.9	0.0	0.0	100.0
	연 1~3회	(1)	0.0	0.0	100.0	0.0	0.0	0.0	100.0
교단	예장통합	(19)	40.0	27.5	13.9	18.5	0.0	0.0	100.0
	예장합동	(5)	24.9	60.8	14.2	0.0	0.0	0.0	100.0
	감리교	(14)	24.3	10.2	32.9	28.2	0.0	4.4	100.0
	기타장로교	(4)	81.7	0.0	0.0	0.0	18.3	0.0	100.0
	기타 교단	(8)	6.8	56.3	26.0	5.2	5.7	0.0	100.0
	잘 모름	(3)	0.0	0.0	15.5	84.5	0.0	0.0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15)	34.8	20.5	23.6	12.3	4.5	4.2	100.0
	100~499명	(12)	19.0	29.1	15.4	32.8	3.6	0.0	100.0
	500~2999명	(10)	20.0	28.9	38.4	12.7	0.0	0.0	100.0
	3000명 이상	(14)	41.9	29.5	7.1	21.5	0.0	0.0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	46.3	0.0	0.0	53.7	0.0	0.0	100.0
	보통	(17)	27.6	38.5	5.8	24.2	3.9	0.0	100.0
	중요함	(32)	30.0	22.8	29.0	14.8	1.4	1.9	100.0

6.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

질문

귀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프라인에서 가끔 모임을 갖는 식의 귀하가 마음에 드는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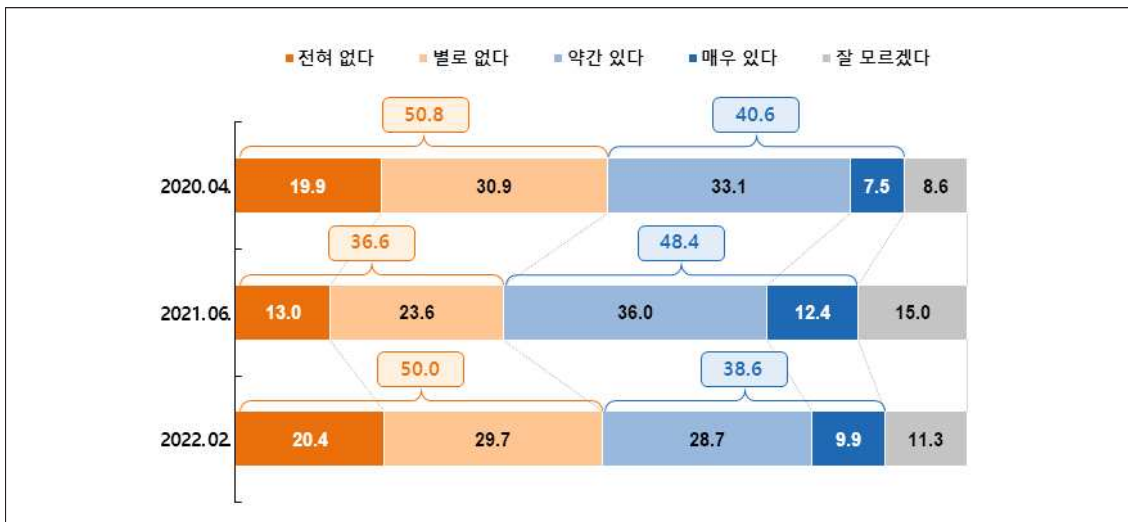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오프라인 모임을 갖는 형태의, 마음에 드는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을 물었다.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참여 의향이 없다'(전혀+별로)고 밝혔고, 4명 가량은 '참여 의향이 있다'(약간+매우)고 밝혔다.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이 있다(약간+매우)는 비율은 19~29세에서 가장 높고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젊은층은 '온라인'이라는 매체에 대한 익숙함에서 의향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은 집단은 현장 예배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에 대한 해결 및 대체 방안으로써 '온라인 교회 참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 '있음'(약간+매우) 비율은 2020년 4월 40.6%, 2021년 6월 48.4%, 금번 38.6%로 다소 들쭉날쭉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아직 '온라인 교회'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고 인식이 뚜렷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꾸준히 40%대에서 긍정적 수용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온라인 교회는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온라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신학적, 실천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

(Base=전체, N=1000, 단위 : %)



* 2020.04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4.2.~4.6.

*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6.17.~6.28

[표] 온라인 교회 참여 의향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약간 있다	매우 있다	잘 모르겠다	계	없다	있다
전체		(1000)	20.4	29.7	28.7	9.9	11.3	100.0	50.0	38.6
성별	남성	(427)	18.8	32.8	28.8	8.1	11.5	100.0	51.6	36.9
	여성	(573)	21.5	27.3	28.7	11.3	11.2	100.0	48.8	39.9
연령	19~29세	(137)	17.9	20.7	34.5	10.6	16.4	100.0	38.6	45.0
	30~39세	(147)	17.8	30.8	26.2	8.1	17.0	100.0	48.7	34.3
	40~49세	(193)	25.7	25.9	24.9	13.7	9.8	100.0	51.6	38.6
	50~59세	(190)	19.0	29.4	32.3	6.9	12.5	100.0	48.3	39.1
	60세 이상	(333)	20.2	35.2	27.7	10.0	7.0	100.0	55.4	37.6
지역	서울	(244)	20.2	22.7	29.9	12.5	14.8	100.0	42.8	42.4
	경기/인천	(347)	19.4	35.0	27.1	8.2	10.3	100.0	54.4	35.3
	대전/충청	(102)	22.0	23.7	34.1	10.9	9.3	100.0	45.7	45.0
	부산/울산/경남	(89)	20.2	26.8	32.8	8.4	11.8	100.0	47.0	41.3
	광주/전라	(120)	17.0	31.2	31.4	11.3	9.2	100.0	48.1	42.7
	대구/경북	(66)	29.3	33.4	16.3	7.8	13.2	100.0	62.7	24.1
	강원/제주	(32)	21.1	39.5	24.9	8.9	5.7	100.0	60.5	33.8
직업	자영업	(122)	22.1	27.7	29.2	10.6	10.4	100.0	49.8	39.8
	화이트칼라	(302)	17.0	28.5	30.5	12.3	11.6	100.0	45.5	42.8
	블루칼라	(156)	20.5	35.4	28.8	6.4	8.9	100.0	55.9	35.2
	주부	(251)	24.5	29.6	27.6	8.7	9.6	100.0	54.1	36.3
	학생	(78)	19.2	21.3	35.4	8.1	16.1	100.0	40.5	43.4
	무직/기타	(91)	18.4	33.7	19.4	11.9	16.6	100.0	52.1	31.3
고용 형태	정규직	(339)	18.0	29.0	30.4	10.1	12.5	100.0	46.9	40.5
	비정규직	(124)	17.9	37.8	28.0	10.5	5.8	100.0	55.7	38.5
학력	고졸 이하	(206)	29.6	28.3	18.7	9.3	14.2	100.0	57.9	27.9
	대졸 이상	(794)	17.9	30.0	31.3	10.1	10.6	100.0	48.0	41.4
결혼여부	기혼	(768)	20.6	31.5	27.8	10.1	10.1	100.0	52.0	37.9
	미혼	(232)	19.6	23.8	31.9	9.3	15.4	100.0	43.3	41.2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9.7	36.1	32.3	7.7	14.2	100.0	45.9	40.0
	16~25년 이하	(220)	24.5	23.9	26.1	13.4	12.1	100.0	48.4	39.5
	26~35년 이하	(234)	19.1	23.7	33.8	11.0	12.5	100.0	42.8	44.8
	36년 이상	(330)	25.4	33.6	24.6	8.3	8.2	100.0	59.0	32.9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34.3	28.6	19.4	13.0	4.9	100.0	62.8	32.3
	주 1~2회	(652)	18.6	29.9	28.9	8.9	13.7	100.0	48.5	37.8
	월 3회 이하	(145)	16.4	30.3	36.6	10.0	6.6	100.0	46.8	46.7
	연 1~3회	(38)	5.2	28.5	36.5	12.7	17.2	100.0	33.7	49.2
교단	예장통합	(302)	15.9	28.3	33.0	11.9	10.8	100.0	44.3	44.9
	예장합동	(195)	23.4	28.6	29.4	9.1	9.5	100.0	52.0	38.5
	감리교	(117)	17.4	31.2	30.7	10.2	10.5	100.0	48.6	40.9
	기타장로교	(171)	15.9	37.6	24.7	6.5	15.3	100.0	53.5	31.2
	기타 교단	(173)	30.3	29.2	20.9	12.2	7.3	100.0	59.6	33.2
	잘 모름	(42)	23.5	9.1	38.0	2.8	26.6	100.0	32.6	40.8
교인 수	99명 이하	(261)	19.8	26.5	28.5	10.6	14.6	100.0	46.2	39.1
	100~499명	(306)	19.5	34.2	29.4	8.0	8.8	100.0	53.7	37.5
	500~2999명	(244)	16.4	31.1	28.9	12.1	11.5	100.0	47.5	41.0
	3000명 이상	(189)	27.6	24.9	27.7	9.1	10.6	100.0	52.6	36.8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28.8	19.7	18.7	5.2	27.5	100.0	48.5	23.9
	보통	(137)	8.0	36.5	32.5	11.0	12.0	100.0	44.5	43.5
	중요함	(825)	22.0	29.0	28.6	9.9	10.5	100.0	51.0	38.5

II

온라인 예배 자세

1. 온라인 예배 시 찬양/기도 여부

질문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나요? (단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사람 중 3분의 2 정도는 '교회에서의 예배처럼 찬양할 때 직접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드렸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린 편'이라고 응답해, 찬양과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린 비율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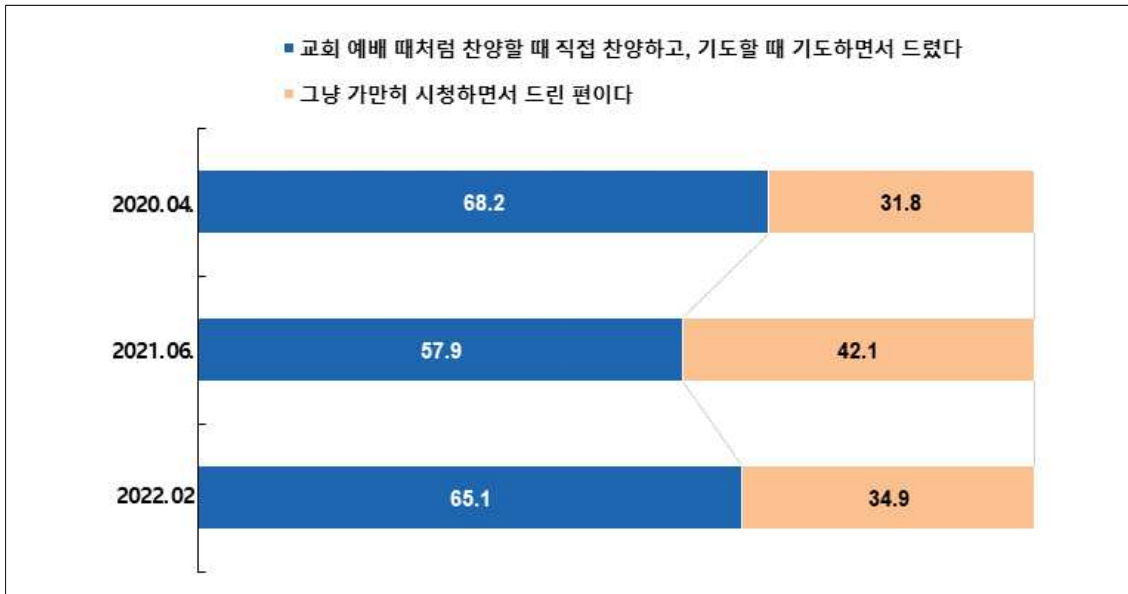
하지만 예배 순서에 동참하지 않고 시청만 한 비율이 30%가 넘는다는 점은 예배로의 몰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유의해야 할 점이다. 즉 온라인 예배를 '시청'하지 않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 시 찬양과 기도를 하며 드린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고,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월 3회 이하로 예배에 참석하는 집단은 절반 정도가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린 편'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온라인 예배 시 찬양/기도 여부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 2020.04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4.2.~4.6.

*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6.17.~6.28

[표] 온라인 예배 시 찬양/기도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교회 현장 예배 때처럼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드렸다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린 편이다	계
전체		(894)	65.1	34.9	100.0
성별	남성	(366)	62.1	37.9	100.0
	여성	(528)	67.2	32.8	100.0
연령	19~29세	(116)	66.0	34.0	100.0
	30~39세	(127)	60.8	39.2	100.0
	40~49세	(178)	64.9	35.1	100.0
	50~59세	(170)	68.9	31.1	100.0
	60세 이상	(302)	64.5	35.5	100.0
지역	서울	(220)	67.0	33.0	100.0
	경기/인천	(308)	64.9	35.1	100.0
	대전/충청	(93)	57.6	42.4	100.0
	부산/울산/경남	(82)	65.4	34.6	100.0
	광주/전라	(102)	66.1	33.9	100.0
	대구/경북	(62)	68.8	31.2	100.0
	강원/제주	(26)	63.6	36.4	100.0
직업	자영업	(105)	79.8	20.2	100.0
	화이트칼라	(273)	65.6	34.4	100.0
	블루칼라	(138)	51.9	48.1	100.0
	주부	(234)	68.3	31.7	100.0
	학생	(66)	59.8	40.2	100.0
	무직/기타	(77)	61.7	38.3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05)	62.2	37.8	100.0
	비정규직	(111)	57.9	42.1	100.0
학력	고졸 이하	(179)	63.6	36.4	100.0
	대재 이상	(715)	65.5	34.5	100.0
결혼여부	기혼	(699)	65.8	34.2	100.0
	미혼	(195)	62.7	37.3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84)	59.9	40.1	100.0
	16~25년 이하	(203)	60.9	39.1	100.0
	26~35년 이하	(209)	64.2	35.8	100.0
	36년 이상	(298)	71.9	28.1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52)	82.7	17.3	100.0
	주 1~2회	(605)	64.7	35.3	100.0
	월 3회 이하	(111)	46.1	53.9	100.0
	연 1~3회	(26)	51.8	48.2	100.0
교단	예장통합	(272)	62.3	37.7	100.0
	예장합동	(173)	70.2	29.8	100.0
	감리교	(105)	53.7	46.3	100.0
	기타장로교	(150)	64.6	35.4	100.0
	기타 교단	(163)	72.7	27.3	100.0
	잘 모름	(30)	62.2	37.8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06)	62.0	38.0	100.0
	100~499명	(286)	65.4	34.6	100.0
	500~2999명	(223)	66.6	33.4	100.0
	3000명 이상	(178)	66.4	33.6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4)	57.1	42.9	100.0
	보통	(118)	37.0	63.0	100.0
	중요함	(742)	69.9	30.1	100.0

2. 온라인 예배 시 집중 정도

질문

귀하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여 드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까? 다음 중 어떠한 행동을 하셨나요? (복수선택 가능)



이번에는 온라인 예배에 집중하는 자세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절반 이상은 '똑바른 자세를 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드렸다'고 응답했으며(55.1%), 40.4%는 '현장 예배와 같이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만 집중해서 드렸다'고 응답했다. '식사나 대화 등 예배 외의 행동'을 한 비율은 17.0%였다.

즉,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 10명 중 6명은 다소 편안한 자세를 취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며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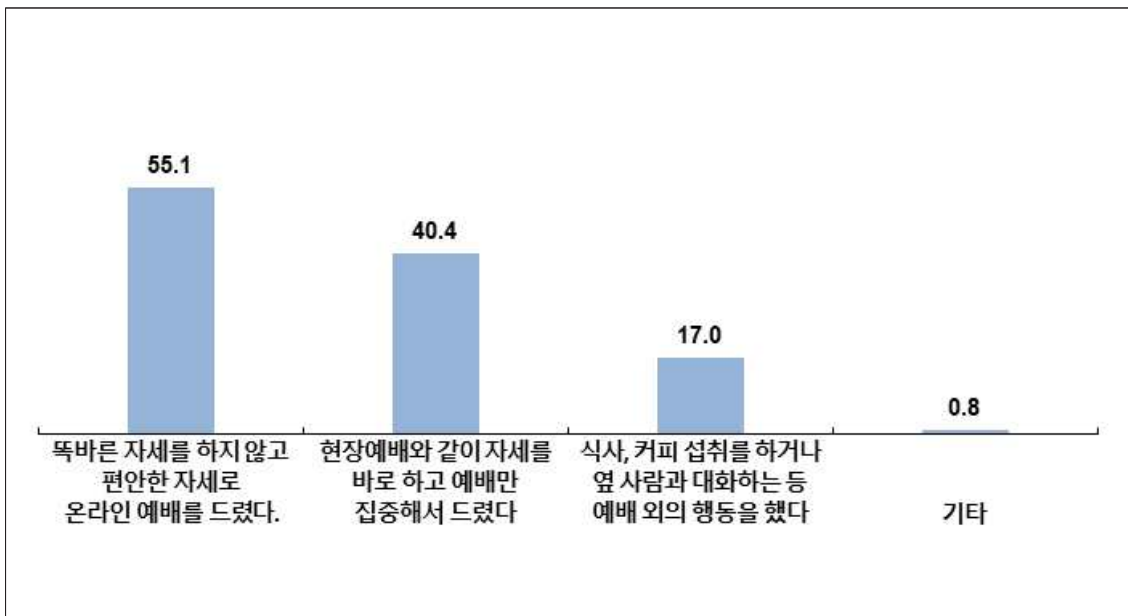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에만 집중'한 비율은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스스로 삶에서 종교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예배 외의 행동'을 한 비율은 신앙 생활 연수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온라인 예배 시 찬양/기도 여부'와 함께 이 항목을 종합해 보면,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형식에 걸맞는 예배 모범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그림] 온라인 예배 시 집중 정도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중복응답)



[표] 온라인 예배 시 집중 정도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명)	똑바른 자세를 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현장예배와 같이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만 집중해서 드렸다	식사, 커피 섭취를 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는 등 예배 외의 행동을 했다	기타
전체		(894)	55.1	40.4	17.0	0.8
성별	남성	(366)	56.8	39.7	17.8	0.8
	여성	(528)	53.8	40.8	16.4	0.7
연령	19~29세	(116)	58.1	41.5	25.7	2.0
	30~39세	(127)	59.1	29.2	31.7	0.0
	40~49세	(178)	54.4	38.5	23.4	0.8
	50~59세	(170)	54.1	42.5	11.2	0.0
	60세 이상	(302)	53.2	44.5	7.0	1.0
지역	서울	(220)	51.7	41.7	20.1	0.8
	경기/인천	(308)	54.3	39.2	16.2	1.0
	대전/충청	(93)	59.9	38.1	14.0	0.7
	부산/울산/경남	(82)	60.4	48.4	13.5	0.0
	광주/전라	(102)	59.3	36.3	17.1	0.0
	대구/경북	(62)	48.3	42.3	16.8	2.0
	강원/제주	(26)	57.8	37.1	21.9	0.0
직업	자영업	(105)	44.2	54.7	16.0	0.0
	화이트칼라	(273)	56.4	36.0	22.2	0.7
	블루칼라	(138)	55.3	34.8	22.6	0.0
	주부	(234)	54.8	44.9	7.9	0.7
	학생	(66)	66.1	30.8	24.3	3.6
	무직/기타	(77)	56.2	40.7	11.3	1.2
고용 형태	정규직	(305)	55.3	35.7	24.6	0.2
	비정규직	(111)	58.1	35.7	15.1	1.0
학력	고졸 이하	(179)	51.3	43.9	12.9	0.9
	대재 이상	(715)	56.0	39.5	18.0	0.7
결혼여부	기혼	(699)	54.0	41.1	15.3	0.5
	미혼	(195)	59.0	37.8	23.1	1.7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84)	55.5	35.0	22.9	0.9
	16~25년 이하	(203)	59.8	36.2	21.5	0.6
	26~35년 이하	(209)	56.7	41.6	16.6	0.6
	36년 이상	(298)	50.4	45.6	10.6	0.9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52)	50.9	54.9	9.9	0.4
	주 1~2회	(605)	54.3	39.3	17.8	1.0
	월 3회 이하	(111)	63.2	26.6	23.3	0.0
	연 1~3회	(26)	62.5	38.5	14.0	0.0
교단	예장통합	(272)	58.3	37.9	17.2	0.4
	예장합동	(173)	58.4	37.9	15.6	0.7
	감리교	(105)	55.4	39.4	21.1	0.0
	기타장로교	(150)	56.3	44.1	13.3	0.8
	기타 교단	(163)	45.4	47.4	15.7	1.4
교인 수	잘 모름	(30)	52.5	23.8	33.8	3.0
	99명 이하	(206)	53.5	43.4	18.3	0.0
	100~499명	(286)	58.8	36.3	16.4	1.2
	500~2999명	(223)	54.8	40.0	17.4	1.5
	3000명 이상	(178)	51.2	43.9	16.0	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4)	62.1	29.1	10.3	3.6
	보통	(118)	55.8	25.5	30.7	1.4
	중요함	(742)	54.6	43.2	15.1	0.5

3.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한 것

질문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경우 귀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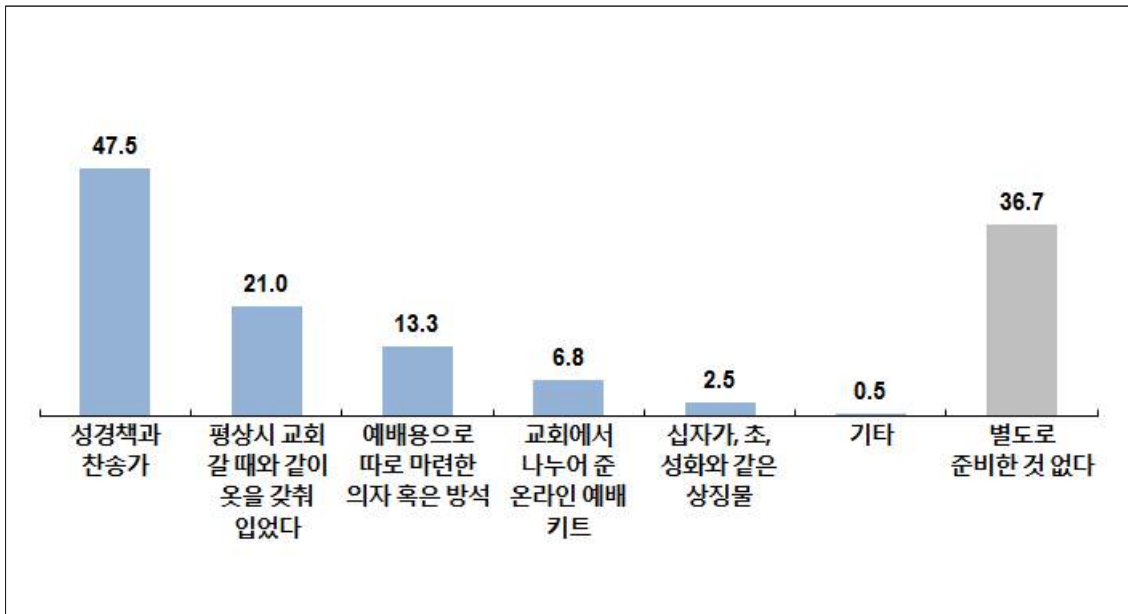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것이 없다'는 응답률이 36.7%였다. 즉, 63.3%는 온라인 예배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것인데,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교회 갈 때와 같이 옷을 갖춰 입은' 비율은 21.0%, '예배용 의자 혹은 방석' 13.3%, '온라인 예배 키트' 6.8% 등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옷을 갖춰 입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며, 주 3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집단에서는 '성경책/찬송가', '옷', '방석' 등을 준비하는 비율이 기타 집단에 비해 높았다.

또한, 교회 규모별로 볼 때, 3000명 이상 교회에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준비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별도로 준비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한 것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중복응답)



[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한 것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예배 경험자, N=894,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명)	성경책과 찬송가	평상시 교회 갈 때와 같이 옷을 갖춰 입었다	예배용으 로 따로 마련한 의자 혹은 방석	교회에서 나누어 준 온라인 예배 키트	십자가, 초, 성화와 같은 상징물	기타	별도로 준비한 것 없다
전체		(894)	47.5	21.0	13.3	6.8	2.5	0.5	36.7
성별	남성	(366)	42.3	26.7	12.7	7.6	2.5	0.2	39.4
	여성	(528)	51.2	17.0	13.7	6.2	2.5	0.7	34.9
연령	19~29세	(116)	43.6	21.4	14.2	11.9	5.3	0.9	38.8
	30~39세	(127)	40.8	15.9	7.6	5.9	3.2	1.3	44.2
	40~49세	(178)	46.0	22.5	10.8	6.0	2.9	0.3	38.7
	50~59세	(170)	51.1	21.6	10.2	4.5	0.0	0.8	32.9
	60세 이상	(302)	50.8	21.7	18.5	6.9	2.2	0.0	33.8
지역	서울	(220)	47.4	18.5	14.3	6.2	3.4	1.1	42.9
	경기/인천	(308)	45.6	14.9	11.7	5.8	1.8	0.3	39.6
	대전/충청	(93)	47.8	29.4	12.8	14.3	4.0	0.0	25.3
	부산/울산/경남	(82)	45.6	31.7	16.3	9.3	0.8	0.8	28.6
	광주/전라	(102)	51.4	29.0	14.4	5.2	1.8	0.4	30.1
	대구/경북	(62)	50.0	22.5	14.1	4.6	0.8	0.0	42.2
	강원/제주	(26)	56.4	15.8	9.2	0.0	9.7	0.0	29.5
직업	자영업	(105)	43.4	33.0	21.7	6.0	3.2	0.0	25.3
	화이트칼라	(273)	51.0	21.6	14.0	7.3	3.2	1.0	33.0
	블루칼라	(138)	34.3	19.2	6.7	5.0	1.4	0.0	51.0
	주부	(234)	54.7	18.0	13.9	7.1	1.2	0.6	34.9
	학생	(66)	43.2	16.9	13.3	10.4	5.7	0.0	41.7
	무직/기타	(77)	46.7	18.2	9.1	5.2	2.0	0.9	41.5
고용 형태	정규직	(305)	42.6	22.1	11.1	6.6	2.9	0.5	41.1
	비정규직	(111)	53.2	16.9	12.3	6.1	1.8	1.0	33.2
학력	고졸 이하	(179)	48.3	21.9	11.7	7.2	0.6	0.3	39.0
	대재 이상	(715)	47.3	20.8	13.7	6.7	3.0	0.6	36.2
결혼여부	기혼	(699)	50.2	21.0	14.1	6.4	2.2	0.4	35.0
	미혼	(195)	38.1	20.9	10.5	8.2	3.4	1.1	43.1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84)	41.8	22.6	14.9	12.3	3.3	0.6	36.4
	16~25년 이하	(203)	45.0	21.5	10.9	6.8	2.9	1.4	38.9
	26~35년 이하	(209)	50.8	19.8	13.3	5.4	4.2	0.3	35.7
	36년 이상	(298)	50.6	20.4	13.9	4.4	0.5	0.0	36.3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52)	58.2	32.2	21.3	5.0	0.8	1.2	17.1
	주 1~2회	(605)	46.0	20.9	11.9	7.5	3.1	0.5	38.7
	월 3회 이하	(111)	46.8	6.0	11.9	6.3	1.8	0.0	46.9
	연 1~3회	(26)	24.8	21.8	3.7	4.1	2.0	0.0	61.8
교단	예장통합	(272)	48.1	18.1	11.6	7.4	1.7	0.1	38.0
	예장합동	(173)	54.6	15.5	17.4	6.1	1.2	0.7	32.6
	감리교	(105)	47.1	12.2	9.3	5.6	5.3	0.0	41.1
	기타장로교	(150)	48.3	30.1	14.0	7.2	2.5	0.8	34.3
	기타 교단	(163)	42.6	31.4	15.7	7.4	3.8	1.1	32.5
	잘 모름	(30)	26.4	7.6	2.0	4.6	0.0	0.0	68.1
교인 수	99명 이하	(206)	50.0	24.3	14.8	8.6	2.2	0.5	30.7
	100~499명	(286)	57.3	18.4	14.6	6.6	3.2	0.0	29.4
	500~2999명	(223)	46.8	22.0	12.7	9.5	2.7	1.0	39.1
	3000명 이상	(178)	30.0	20.1	10.2	1.7	1.3	0.7	52.6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4)	60.4	19.9	13.3	14.2	0.0	0.0	33.2
	보통	(118)	37.8	10.0	7.1	5.7	3.4	0.0	52.9
	중요함	(742)	48.5	22.8	14.3	6.6	2.4	0.6	34.3

4.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물을 사용한 이유

질문

앞서 응답하신 준비물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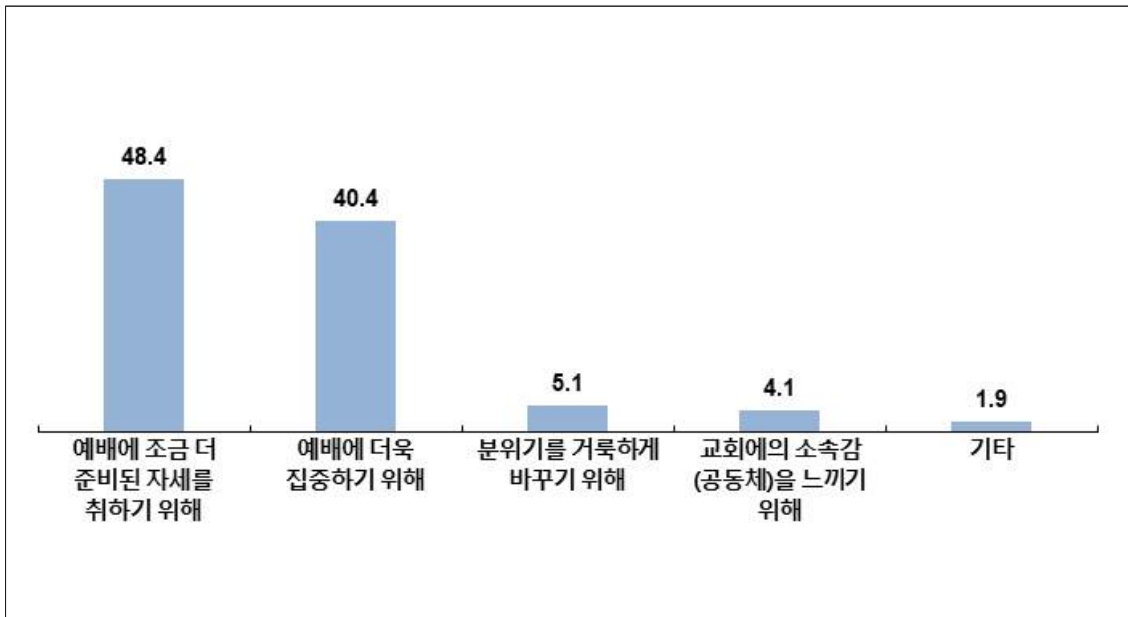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물을 사용한 이유로는 '예배에 조금 더 준비된 자세를 취하기 위해'가 48.4%로 가장 높았고, '예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40.4%)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비대면 상황에 대처하여 본인만의 준비와 집중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예배 분위기나 소속감의 이유와는 다소 먼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에 조금 더 준비된 자세를 취하기 위해'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됐다.

[그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물을 사용한 이유

(Base=온라인 예배를 위한 준비물 사용자, N=565, 단위 : %)



[표] 온라인 예배를 위해 준비물을 사용한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예배를 위한 준비물 사용자,
N=565,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예배에 조금 더 준비된 자세를 취하기 위해	예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분위기를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	교회에의 소속감 (공동체)을 느끼기 위해	기타	계
전체		(565)	48.4	40.4	5.1	4.1	1.9	100.0
성별	남성	(222)	42.3	41.2	6.6	6.6	3.3	100.0
	여성	(343)	52.4	39.9	4.2	2.5	1.0	100.0
연령	19~29세	(71)	42.6	45.3	4.6	4.9	2.5	100.0
	30~39세	(71)	54.1	34.0	5.0	6.9	0.0	100.0
	40~49세	(109)	44.3	42.2	7.5	4.8	1.2	100.0
	50~59세	(114)	43.3	47.2	4.9	1.9	2.7	100.0
	60세 이상	(200)	53.7	36.0	4.2	3.7	2.4	100.0
지역	서울	(125)	47.3	41.2	7.4	2.5	1.7	100.0
	경기/인천	(186)	59.1	34.6	3.5	0.8	2.0	100.0
	대전/충청	(69)	46.5	38.9	6.1	6.6	1.9	100.0
	부산/울산/경남	(59)	39.6	44.4	6.1	10.0	0.0	100.0
	광주/전라	(71)	36.9	46.3	3.1	8.4	5.4	100.0
	대구/경북	(36)	35.6	51.5	8.8	4.1	0.0	100.0
	강원/제주	(18)	54.1	42.1	0.0	3.8	0.0	100.0
직업	자영업	(79)	32.6	42.3	7.2	9.7	8.2	100.0
	화이트칼라	(183)	49.6	40.0	6.5	2.7	1.2	100.0
	블루칼라	(68)	46.0	47.7	0.0	6.3	0.0	100.0
	주부	(152)	54.5	37.0	5.8	2.8	0.0	100.0
	학생	(39)	52.0	44.4	0.0	0.0	3.6	100.0
	무직/기타	(45)	51.1	35.8	6.0	5.0	2.1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180)	48.4	42.2	6.1	2.7	0.6	100.0
	비정규직	(74)	48.4	43.1	1.2	5.8	1.5	100.0
학력	고졸 이하	(109)	46.4	44.1	5.3	3.7	0.5	100.0
	대재 이상	(456)	48.9	39.5	5.1	4.2	2.3	100.0
결혼여부	기혼	(454)	49.7	40.0	4.9	3.4	2.0	100.0
	미혼	(111)	43.4	42.1	5.9	7.0	1.6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17)	41.5	40.6	9.3	7.8	0.8	100.0
	16~25년 이하	(124)	51.4	37.5	5.5	5.6	0.0	100.0
	26~35년 이하	(134)	43.0	44.7	3.6	3.2	5.5	100.0
	36년 이상	(190)	54.6	39.1	3.4	1.5	1.4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26)	44.6	48.9	5.4	0.3	0.9	100.0
	주 1~2회	(371)	48.0	39.9	3.8	5.6	2.7	100.0
	월 3회 이하	(59)	62.5	21.2	12.6	3.6	0.0	100.0
	연 1~3회	(10)	30.2	64.2	5.6	0.0	0.0	100.0
교단	예장통합	(169)	45.0	42.1	6.0	5.1	1.8	100.0
	예장합동	(117)	48.7	44.8	5.1	1.1	0.3	100.0
	감리교	(62)	65.7	26.3	1.9	1.9	4.2	100.0
	기타장로교	(98)	47.2	38.4	5.5	8.9	0.0	100.0
	기타 교단	(110)	46.5	41.2	4.7	3.1	4.5	100.0
	잘 모름	(10)	28.6	59.4	12.0	0.0	0.0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143)	45.3	44.5	5.0	5.2	0.0	100.0
	100~499명	(202)	47.6	38.7	5.0	4.5	4.2	100.0
	500~2999명	(136)	46.8	43.8	6.8	1.5	1.2	100.0
	3000명 이상	(84)	58.4	32.0	2.9	5.6	1.1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23)	34.3	46.4	11.8	7.5	0.0	100.0
	보통	(55)	50.6	29.0	6.7	12.0	1.7	100.0
	중요함	(487)	48.8	41.4	4.6	3.1	2.1	100.0

Ⅲ

온라인 절기 예배

1.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기간 중 기독교 절기 예배/행사 진행 여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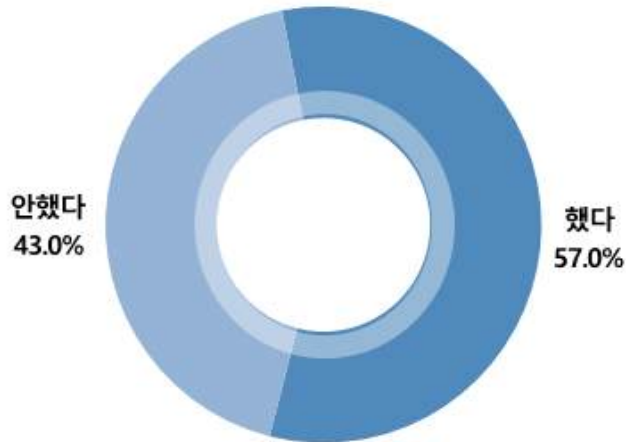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는 코로나19 동안 기독교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에 특별 예배 혹은 특별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단수)



출석 교회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절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특별 예배나 행사를 진행한 여부에 대해 57%가 '했다', 43%가 '안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중에도 절반 이상의 교회가 절기 특별 예배나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그림]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기간 중 기독교 절기 예배/행사 진행 여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기간 중 기독교 절기 예배/행사 진행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했다	안했다	계
전체		(1000)	57.0	43.0	100.0
성별	남성	(427)	60.6	39.4	100.0
	여성	(573)	54.3	45.7	100.0
연령	19~29세	(137)	64.5	35.5	100.0
	30~39세	(147)	65.9	34.1	100.0
	40~49세	(193)	63.4	36.6	100.0
	50~59세	(190)	48.9	51.1	100.0
	60세 이상	(333)	51.0	49.0	100.0
지역	서울	(244)	58.9	41.1	100.0
	경기/인천	(347)	58.6	41.4	100.0
	대전/충청	(102)	54.3	45.7	100.0
	부산/울산/경남	(89)	59.2	40.8	100.0
	광주/전라	(120)	58.1	41.9	100.0
	대구/경북	(66)	42.2	57.8	100.0
	강원/제주	(32)	54.1	45.9	100.0
직업	자영업	(122)	36.9	63.1	100.0
	화이트칼라	(302)	62.1	37.9	100.0
	블루칼라	(156)	58.8	41.2	100.0
	주부	(251)	54.6	45.4	100.0
	학생	(78)	71.3	28.7	100.0
	무직/기타	(91)	58.5	41.5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59.9	40.1	100.0
	비정규직	(124)	63.5	36.5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53.3	46.7	100.0
	대재 이상	(794)	58.0	42.0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54.8	45.2	100.0
	미혼	(232)	64.2	35.8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59.3	40.7	100.0
	16~25년 이하	(220)	68.0	32.0	100.0
	26~35년 이하	(234)	53.3	46.7	100.0
	36년 이상	(330)	50.8	49.2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55.1	44.9	100.0
	주 1~2회	(652)	57.7	42.3	100.0
	월 3회 이하	(145)	60.4	39.6	100.0
	연 1~3회	(38)	40.5	59.5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55.8	44.2	100.0
	예장합동	(195)	55.9	44.1	100.0
	감리교	(117)	57.6	42.4	100.0
	기타장로교	(171)	59.4	40.6	100.0
	기타 교단	(173)	55.6	44.4	100.0
	잘 모름	(42)	65.5	34.5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57.6	42.4	100.0
	100~499명	(306)	56.4	43.6	100.0
	500~2999명	(244)	58.8	41.2	100.0
	3000명 이상	(189)	55.0	45.0	100.0
	중요하지않음	(38)	71.8	28.2	100.0
종교 중요도	보통	(137)	55.7	44.3	100.0
	중요함	(825)	56.6	43.4	100.0

2. 온라인 기독교 절기 예배 경험 여부

질문

그러면 귀하께서는 기독교 절기 예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를 온라인으로 드리셨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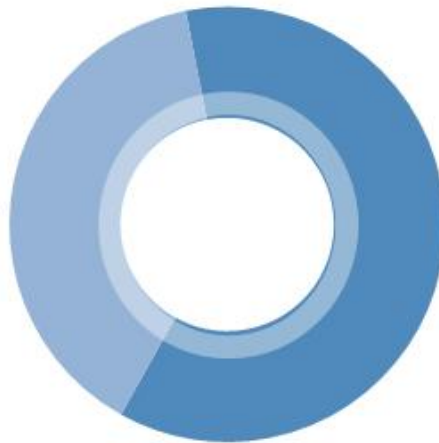
그렇다면 절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린 경험이 있는지 묻은 결과, 10명 중 6명(61.2%)이 '절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다'고 응답했다. 온라인 예배 경험율(89.3%)에 비해서는 낮지만 다수의 개신교인이 온라인 절기 예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절기 예배 경험 비율은 교회 규모(교인 수)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교인 수 99명 이하 교회는 절반이 온라인 절기 예배 경험이 없는 반면, 교인 수 3000명 이상 교회는 70% 가량이 온라인 절기 예배를 경험했다.

[그림] 온라인 기독교 절기 예배 경험 여부

(Base=출석 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 절기 예배 진행함, N=570, 단위 : %)

절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았다
38.8%



절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다
61.2%

[표] 온라인 기독교 절기 예배 경험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출석 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 절기 예배 진행함, N=57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절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다	절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았다	계
전체		(570)	61.2	38.8	100.0
성별	남성	(259)	61.7	38.3	100.0
	여성	(311)	60.7	39.3	100.0
연령	19~29세	(89)	57.7	42.3	100.0
	30~39세	(97)	61.7	38.3	100.0
	40~49세	(122)	69.6	30.4	100.0
	50~59세	(93)	57.2	42.8	100.0
	60세 이상	(170)	58.7	41.3	100.0
지역	서울	(144)	70.7	29.3	100.0
	경기/인천	(204)	68.7	31.3	100.0
	대전/충청	(55)	51.8	48.2	100.0
	부산/울산/경남	(53)	52.1	47.9	100.0
	광주/전라	(70)	44.3	55.7	100.0
	대구/경북	(28)	43.6	56.4	100.0
	강원/제주	(17)	47.2	52.8	100.0
직업	자영업	(45)	44.0	56.0	100.0
	화이트칼라	(187)	67.0	33.0	100.0
	블루칼라	(92)	60.5	39.5	100.0
	주부	(137)	63.9	36.1	100.0
	학생	(56)	62.8	37.2	100.0
	무직/기타	(53)	47.7	52.3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203)	69.0	31.0	100.0
	비정규직	(79)	53.1	46.9	100.0
학력	고졸 이하	(110)	53.8	46.2	100.0
	대재 이상	(460)	62.9	37.1	100.0
결혼여부	기혼	(421)	62.0	38.0	100.0
	미혼	(149)	58.9	41.1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28)	62.8	37.2	100.0
	16~25년 이하	(150)	68.1	31.9	100.0
	26~35년 이하	(125)	61.6	38.4	100.0
	36년 이상	(168)	53.4	46.6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91)	54.2	45.8	100.0
	주 1~2회	(377)	61.9	38.1	100.0
	월 3회 이하	(87)	68.2	31.8	100.0
	연 1~3회	(15)	44.8	55.2	100.0
교단	예장통합	(169)	65.7	34.3	100.0
	예장합동	(109)	59.9	40.1	100.0
	감리교	(67)	59.1	40.9	100.0
	기타장로교	(102)	52.8	47.2	100.0
	기타 교단	(96)	61.8	38.2	100.0
교인 수	잘 모름	(27)	72.2	27.8	100.0
	99명 이하	(150)	48.7	51.3	100.0
	100~499명	(173)	61.4	38.6	100.0
	500~2999명	(144)	67.9	32.1	100.0
	3000명 이상	(104)	69.5	30.5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27)	67.8	32.2	100.0
	보통	(76)	71.2	28.8	100.0
	중요함	(467)	59.1	40.9	100.0

3. 온라인 절기 예배 시 공간 꾸밈 여부

질문

온라인 절기 예배를 드릴 때, 본인이 예배를 드린 공간을 절기에 맞게 꾸미셨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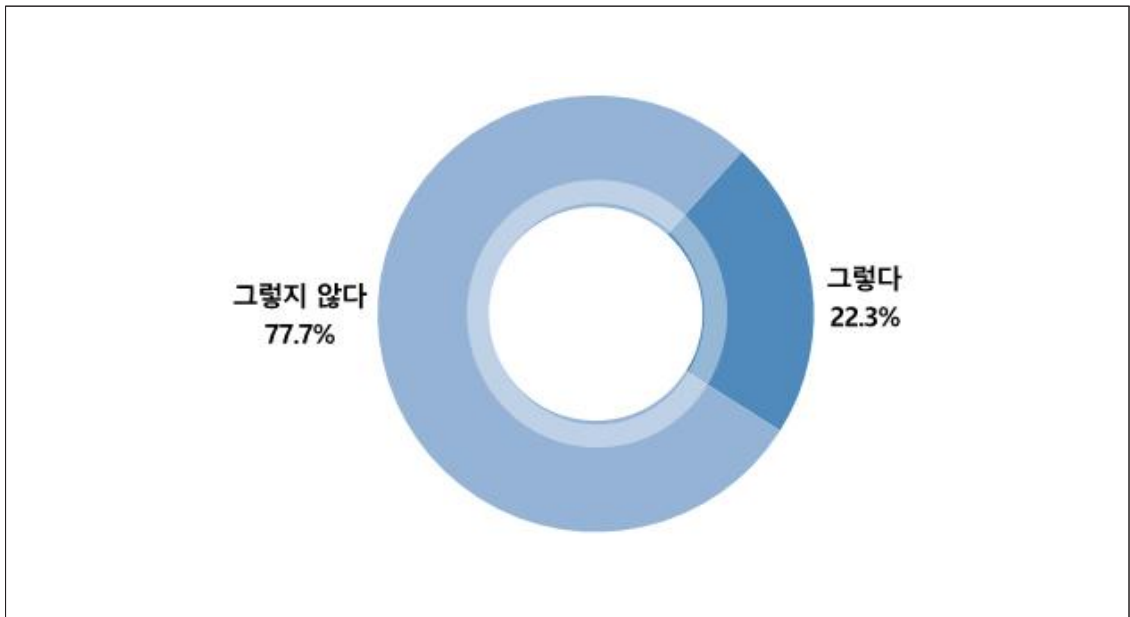


온라인 절기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공간을 절기에 맞게 꾸몄는지 조사한 결과, 4분의 3 이상은 '그렇지 않다' (꾸미지 않았다)고 했으며(77.7%), 절기에 맞게 공간을 꾸민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절기에 맞게 공간을 꾸민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고 19~29세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신앙 생활 연수가 짧을수록 공간 꾸민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적이다.

[그림] 온라인 절기 예배 시 공간 꾸밈 여부

(Base=온라인 절기 예배 드림, N=349, 단위 : %)



[표] 온라인 절기 예배 시 공간 꾸밈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절기 예배 드림, N=349,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계
전체		(349)	22.3	77.7	100.0
성별	남성	(160)	27.5	72.5	100.0
	여성	(189)	18.0	82.0	100.0
연령	19~29세	(51)	32.3	67.7	100.0
	30~39세	(60)	26.5	73.5	100.0
	40~49세	(85)	22.3	77.7	100.0
	50~59세	(53)	12.0	88.0	100.0
	60세 이상	(100)	20.2	79.8	100.0
지역	서울	(102)	21.8	78.2	100.0
	경기/인천	(140)	17.9	82.1	100.0
	대전/충청	(29)	30.9	69.1	100.0
	부산/울산/경남	(27)	37.6	62.4	100.0
	광주/전라	(31)	30.7	69.3	100.0
	대구/경북	(12)	3.5	96.5	100.0
	강원/제주	(8)	19.5	80.5	100.0
직업	자영업	(20)	36.2	63.8	100.0
	화이트칼라	(126)	26.4	73.6	100.0
	블루칼라	(55)	15.5	84.5	100.0
	주부	(88)	16.7	83.3	100.0
	학생	(35)	29.7	70.3	100.0
	무직/기타	(25)	15.4	84.6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140)	27.9	72.1	100.0
	비정규직	(42)	8.1	91.9	100.0
학력	고졸 이하	(59)	13.0	87.0	100.0
	대재 이상	(290)	24.2	75.8	100.0
결혼여부	기혼	(261)	19.7	80.3	100.0
	미혼	(88)	30.0	70.0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80)	32.3	67.7	100.0
	16~25년 이하	(102)	21.6	78.4	100.0
	26~35년 이하	(77)	17.4	82.6	100.0
	36년 이상	(90)	18.3	81.7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49)	34.5	65.5	100.0
	주 1~2회	(233)	20.4	79.6	100.0
	월 3회 이하	(60)	18.6	81.4	100.0
	연 1~3회	(7)	32.0	68.0	100.0
교단	예장통합	(111)	24.5	75.5	100.0
	예장합동	(65)	24.9	75.1	100.0
	감리교	(40)	17.4	82.6	100.0
	기타장로교	(54)	26.8	73.2	100.0
	기타 교단	(59)	14.2	85.8	100.0
	잘 모름	(20)	23.8	76.2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73)	31.8	68.2	100.0
	100~499명	(106)	17.6	82.4	100.0
	500~2999명	(97)	26.4	73.6	100.0
	3000명 이상	(72)	14.1	85.9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8)	21.0	79.0	100.0
	보통	(54)	14.1	85.9	100.0
	중요함	(276)	24.0	76.0	100.0

4. 교회에서의 절기 예배 경험 대비 스스로 꾸민 절기 예배 공간의 만족도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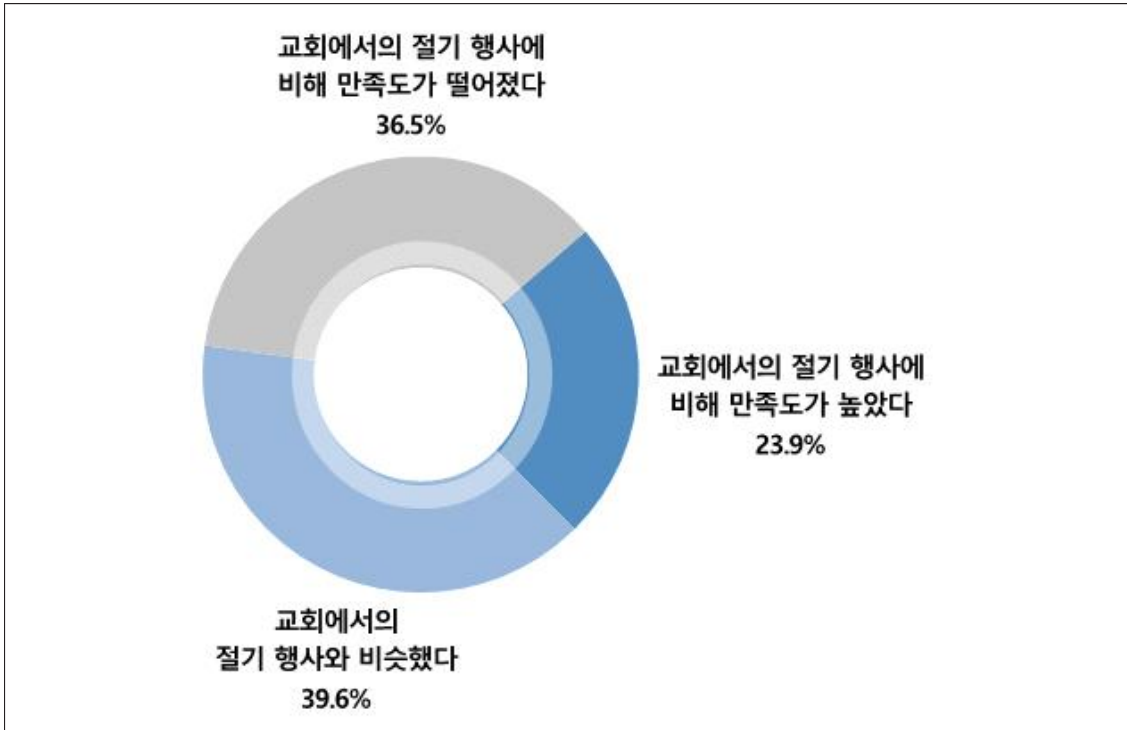
본인의 공간을 절기에 맞게 꾸민 것이 교회에서의 절기 경험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스스로 절기에 맞게 공간을 꾸민 것이 교회에서의 절기 경험에 비해 어땠는지에 대해, 39.6%는 '교회 절기 행사와 비슷했다'고 응답했으며, '교회 절기 행사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졌다' 36.5%, '교회 절기 행사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23.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회 절기 행사보다는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인다.

[그림] 교회에서의 절기 예배 경험 대비 스스로 꾸민 절기 예배 공간의 만족도

(Base=온라인 절기 예배 시 공간 꾸밈, N=78, 단위 : %)



[표] 교회에서의 절기 예배 경험 대비 스스로 꾸민 절기 예배 공간의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절기 예배 시 공간 꾸밈,
N=78,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교회에서의 절기 행사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교회에서의 절기 행사와 비슷했다.	교회에서의 절기 행사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졌다.	계
전체		(78)	23.9	39.6	36.5	100.0
성별	남성	(44)	32.3	39.9	27.8	100.0
	여성	(34)	13.1	39.1	47.7	100.0
연령	19~29세	(17)	28.3	47.5	24.2	100.0
	30~39세	(16)	32.0	27.2	40.8	100.0
	40~49세	(19)	11.9	38.9	49.2	100.0
	50~59세	(6)	10.8	45.0	44.2	100.0
	60세 이상	(20)	29.5	41.7	28.8	100.0
지역	서울	(22)	17.2	49.2	33.5	100.0
	경기/인천	(25)	8.2	35.3	56.5	100.0
	대전/충청	(9)	50.8	25.2	24.0	100.0
	부산/울산/경남	(10)	47.8	37.6	14.6	100.0
	광주/전라	(9)	18.5	52.2	29.4	100.0
	대구/경북	(0)	0.0	0.0	100.0	100.0
	강원/제주	(2)	100.0	0.0	0.0	100.0
직업	자영업	(7)	54.1	45.9	0.0	100.0
	화이트칼라	(33)	24.2	39.6	36.2	100.0
	블루칼라	(9)	18.4	51.5	30.0	100.0
	주부	(15)	10.3	30.3	59.4	100.0
	학생	(10)	12.5	38.0	49.5	100.0
	무직/기타	(4)	60.3	39.7	0.0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9)	24.6	42.7	32.7	100.0
	비정규직	(3)	0.0	45.7	54.3	100.0
학력	고졸 이하	(8)	33.9	21.5	44.6	100.0
	대졸 이상	(70)	22.8	41.5	35.6	100.0
결혼여부	기혼	(51)	23.1	35.8	41.1	100.0
	미혼	(26)	25.7	46.9	27.5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6)	38.9	37.9	23.3	100.0
	16~25년 이하	(22)	18.4	44.1	37.6	100.0
	26~35년 이하	(13)	33.6	20.5	45.9	100.0
	36년 이상	(16)	0.0	51.7	48.3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7)	23.6	33.9	42.5	100.0
	주 1~2회	(48)	22.1	44.0	33.9	100.0
	월 3회 이하	(11)	17.1	37.2	45.7	100.0
	연 1~3회	(2)	100.0	0.0	0.0	100.0
교단	예장통합	(27)	18.8	42.7	38.5	100.0
	예장합동	(16)	27.8	33.9	38.2	100.0
	감리교	(7)	9.4	56.1	34.5	100.0
	기타장로교	(14)	24.1	38.3	37.6	100.0
	기타 교단	(8)	32.1	21.2	46.7	100.0
교인 수	잘 모름	(5)	46.9	53.1	0.0	100.0
	99명 이하	(23)	33.5	36.0	30.6	100.0
	100~499명	(19)	16.8	30.8	52.5	100.0
	500~2999명	(26)	25.5	44.7	29.8	100.0
종교 중요도	3000명 이상	(10)	11.3	51.0	37.7	100.0
	중요하지않음	(4)	16.0	65.9	18.1	100.0
	보통	(8)	56.4	43.6	0.0	100.0
	중요함	(66)	20.7	37.6	41.8	100.0

IV

온라인 성찬 예배

1.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기간 중 성찬식 진행 여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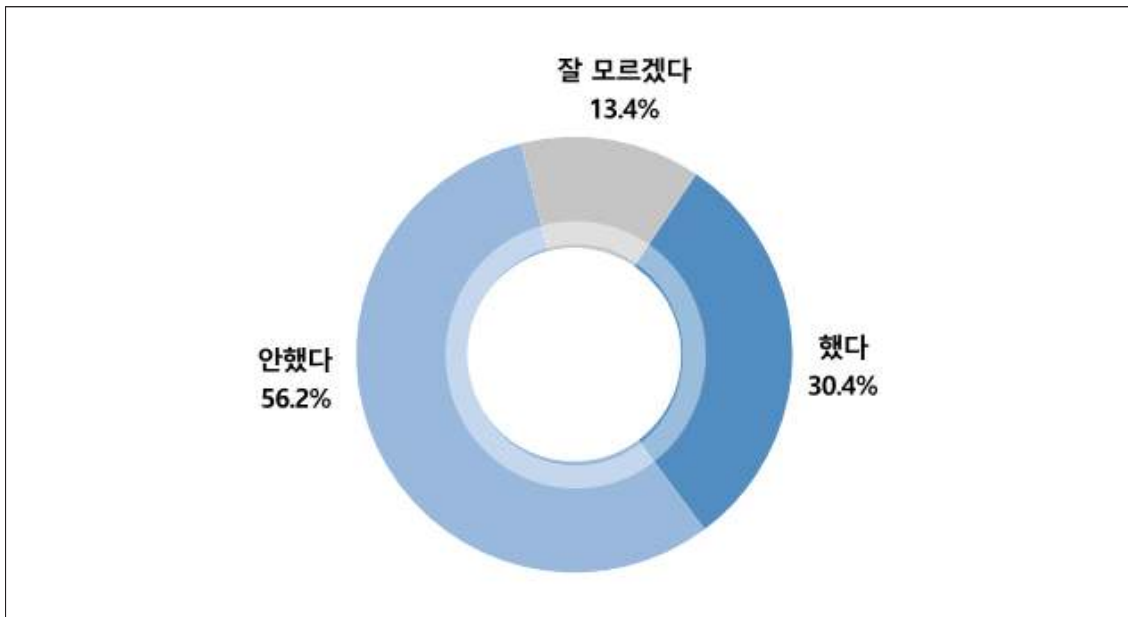
귀하의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동안에 현장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에서 성찬식을 했습니까? (단수)



코로나19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포함, 성찬식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의 교회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56.2%), 성찬식을 한 비율은 30.4%로 나타났다.

[그림]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기간 중 성찬식 진행 여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출석 교회의 코로나19 기간 중 성찬식 진행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했다	안했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0.4	56.2	13.4	100.0
성별	남성	(427)	31.6	52.9	15.5	100.0
	여성	(573)	29.5	58.7	11.8	100.0
연령	19~29세	(137)	38.8	36.6	24.6	100.0
	30~39세	(147)	29.7	51.8	18.5	100.0
	40~49세	(193)	34.5	50.3	15.2	100.0
	50~59세	(190)	28.4	62.2	9.4	100.0
	60세 이상	(333)	26.0	66.3	7.8	100.0
지역	서울	(244)	32.5	51.7	15.8	100.0
	경기/인천	(347)	25.8	59.4	14.8	100.0
	대전/충청	(102)	39.3	53.3	7.4	100.0
	부산/울산/경남	(89)	34.2	52.8	13.0	100.0
	광주/전라	(120)	28.9	61.2	9.8	100.0
	대구/경북	(66)	34.5	50.2	15.3	100.0
	강원/제주	(32)	21.3	70.5	8.2	100.0
직업	자영업	(122)	31.6	60.4	8.0	100.0
	화이트칼라	(302)	30.5	56.0	13.6	100.0
	블루칼라	(156)	29.7	50.9	19.4	100.0
	주부	(251)	26.8	62.9	10.3	100.0
	학생	(78)	42.9	35.5	21.5	100.0
	무직/기타	(91)	28.6	60.1	11.2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27.0	55.2	17.8	100.0
	비정규직	(124)	37.8	52.9	9.3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28.4	59.8	11.8	100.0
	대재 이상	(794)	30.9	55.3	13.8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28.9	60.5	10.6	100.0
	미혼	(232)	35.3	42.2	22.6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25.7	57.3	17.1	100.0
	16~25년 이하	(220)	40.4	45.0	14.6	100.0
	26~35년 이하	(234)	32.6	53.3	14.1	100.0
	36년 이상	(330)	25.2	65.1	9.7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39.7	56.4	3.8	100.0
	주 1~2회	(652)	31.1	57.2	11.7	100.0
	월 3회 이하	(145)	20.8	53.5	25.7	100.0
	연 1~3회	(38)	13.5	49.4	37.0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24.5	58.5	17.0	100.0
	예장합동	(195)	31.0	58.5	10.5	100.0
	감리교	(117)	34.3	52.8	13.0	100.0
	기타장로교	(171)	32.1	58.9	9.0	100.0
	기타 교단	(173)	38.8	54.0	7.2	100.0
	잘 모름	(42)	17.5	37.4	45.1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29.7	56.2	14.1	100.0
	100~499명	(306)	33.5	56.3	10.1	100.0
	500~2999명	(244)	31.1	53.2	15.7	100.0
	3000명 이상	(189)	25.2	60.2	14.6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36.9	48.1	15.0	100.0
	보통	(137)	18.2	49.2	32.7	100.0
	중요함	(825)	32.1	57.8	10.1	100.0

2. 성찬 예배 참석 여부

질문

그러면 귀하께서는 현장예배나 온라인 예배와 상관없이 성찬식이 있는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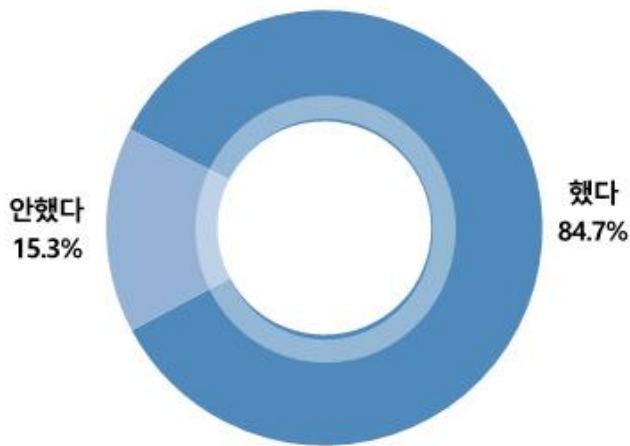


출석 교회에서 성찬식을 진행했다고 응답한 자에게 참석 여부를 묻은 결과, 84.7%가 '참석', 15.3%가 '불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전체 응답자(100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25.7%이다. 즉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성찬식에 참여한 비율이 25.7%에 불과한 것이다.

성찬식에 '참석'한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으며,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참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성찬 예배 참석 여부

(Base=출석 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 성찬식 진행함, N=304, 단위 : %)



[표] 성찬 예배 참석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출석 교회가 코로나 기간 중 성찬식 진행함, N=304,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했다	안했다	계
전체		(304)	84.7	15.3	100.0
성별	남성	(135)	88.1	11.9	100.0
	여성	(169)	82.0	18.0	100.0
연령	19~29세	(53)	83.5	16.5	100.0
	30~39세	(44)	79.6	20.4	100.0
	40~49세	(67)	83.2	16.8	100.0
	50~59세	(54)	83.2	16.8	100.0
	60세 이상	(87)	90.2	9.8	100.0
지역	서울	(79)	85.8	14.2	100.0
	경기/인천	(90)	81.4	18.6	100.0
	대전/충청	(40)	78.5	21.5	100.0
	부산/울산/경남	(30)	94.8	5.2	100.0
	광주/전라	(35)	90.3	9.7	100.0
	대구/경북	(23)	93.1	6.9	100.0
	강원/제주	(7)	52.1	47.9	100.0
직업	자영업	(39)	93.8	6.2	100.0
	화이트칼라	(92)	80.1	19.9	100.0
	블루칼라	(46)	81.3	18.7	100.0
	주부	(67)	83.3	16.7	100.0
	학생	(34)	88.8	11.2	100.0
	무직/기타	(26)	92.0	8.0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92)	80.9	19.1	100.0
	비정규직	(47)	79.8	20.2	100.0
학력	고졸 이하	(58)	86.7	13.3	100.0
	대재 이상	(245)	84.3	15.7	100.0
결혼여부	기혼	(222)	85.7	14.3	100.0
	미혼	(82)	82.1	17.9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55)	78.3	21.7	100.0
	16~25년 이하	(89)	86.7	13.3	100.0
	26~35년 이하	(76)	80.0	20.0	100.0
	36년 이상	(83)	91.2	8.8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66)	87.5	12.5	100.0
	주 1~2회	(203)	85.0	15.0	100.0
	월 3회 이하	(30)	81.1	18.9	100.0
	연 1~3회	(5)	56.6	43.4	100.0
교단	예장통합	(74)	88.8	11.2	100.0
	예장합동	(60)	86.4	13.6	100.0
	감리교	(40)	78.3	21.7	100.0
	기타장로교	(55)	93.5	6.5	100.0
	기타 교단	(67)	74.6	25.4	100.0
	잘 모름	(7)	92.4	7.6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77)	88.3	11.7	100.0
	100~499명	(103)	83.4	16.6	100.0
	500~2999명	(76)	83.3	16.7	100.0
	3000명 이상	(48)	84.0	16.0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4)	97.1	2.9	100.0
	보통	(25)	77.0	23.0	100.0
	중요함	(265)	84.8	15.2	100.0

3. 코로나19 발생 후 참여해 본 성찬 예배 방식

질문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찬 예식에는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참여해본 성찬 예식 방식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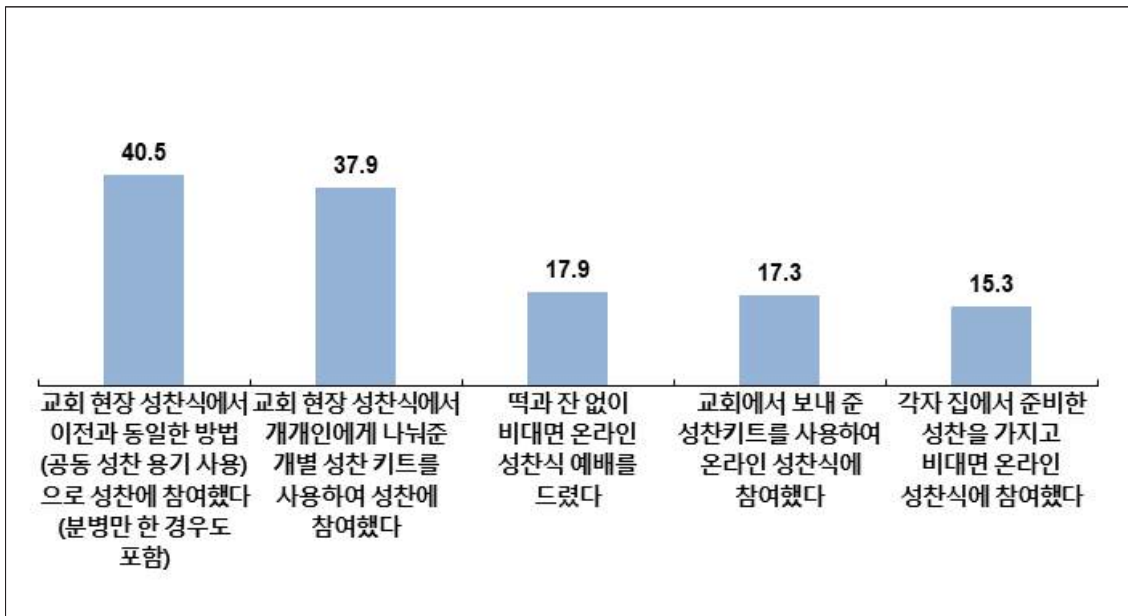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 중 성찬 예식에 참여한 방식으로는 '교회 현장 성찬식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공동 성찬 용기를 사용(분병만 한 경우 포함)'한 경우가 40.5%로 가장 많았고, '교회 현장 성찬식에서 개별 성찬 키트를 사용한 경우가 37.9%로 다음으로 높았다. 즉, 대부분의 경우가 교회 현장에서 성찬식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성찬식에 참여한 경우 가운데 '교회에서 보내 준 성찬키트를 사용하여 참여'한 경우(17.3%)와 '각자 집에서 준비한 성찬을 가지고 참여'(15.3%)한 경우 등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성찬 예식이 소수이기는 하지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교회 규모에 따라, 교인 수가 적은 교회일수록 '교회 현장에서 이전과 동일하게 공동 성찬 용기를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인 수 500명 이상 교회에서는 '떡과 잔 없이 비대면 온라인 성찬식'과 '교회에서 보내준 성찬키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성찬식'을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코로나19 발생 후 참여해 본 성찬 예배 방식

(Base=성찬식 예배 참석자, N=257, 단위 : %, 중복응답)



[표] 코로나19 발생 후 참여해 본 성찬 예배 방식 (응답자 특성별) (Base=성찬식 예배 참석자, N=257,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명)	교회 현장 성찬식에서 이전과 동일한 방법(공동 성찬 용기 사용)으로 성찬에 참여했다. (분명만 한 경우도 포함)	교회 현장 성찬식에서 개개인에게 나눠준 개별 성찬 키트를 사용하여 성찬에 참여했다.	떡과 잔 없이 비대면 온라인 성찬식 예배를 드렸다	교회에서 보내 준 성찬키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성찬식에 참여했다.	각자 집에서 준비한 성찬을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성찬식에 참여했다.	
전체	(257)	40.5	37.9	17.9	17.3	15.3	
성별	남성	(119)	47.4	37.4	19.2	18.2	16.9
	여성	(138)	34.5	38.3	16.9	16.6	13.9
연령	19~29세	(44)	37.2	41.7	32.0	24.5	20.2
	30~39세	(35)	33.7	38.1	22.2	10.0	19.1
	40~49세	(55)	31.2	44.9	22.4	22.1	15.3
	50~59세	(45)	40.8	38.3	7.0	9.4	10.1
	60세 이상	(78)	51.6	30.4	11.2	17.7	13.8
지역	서울	(68)	44.8	41.2	24.0	22.5	13.6
	경기/인천	(73)	26.6	38.4	24.8	8.4	19.1
	대전/충청	(31)	38.8	41.4	11.4	32.5	18.3
	부산/울산/경남	(29)	67.5	25.0	13.2	20.0	13.4
	광주/전라	(31)	43.3	26.8	8.9	21.3	18.1
	대구/경북	(21)	31.4	54.9	7.2	2.3	4.2
	강원/제주	(4)	66.5	33.5	0.0	0.0	0.0
직업	자영업	(36)	44.7	44.7	0.0	20.0	19.9
	화이트칼라	(74)	31.6	37.0	23.6	22.9	19.3
	블루칼라	(38)	57.7	29.8	16.8	17.5	16.3
	주부	(56)	36.5	41.3	16.0	10.4	6.8
	학생	(30)	37.6	42.6	24.7	21.7	12.6
	무직/기타	(24)	46.9	29.2	25.6	7.1	17.4
고용 형태	정규직	(74)	38.9	37.7	22.1	24.1	19.5
	비정규직	(37)	43.4	28.3	19.7	15.1	15.9
학력	고졸 이하	(51)	51.0	35.6	9.6	8.7	3.8
	대재 이상	(207)	37.9	38.5	20.0	19.5	18.1
결혼여부	기혼	(190)	41.3	36.4	14.4	16.7	14.1
	미혼	(67)	38.0	42.0	27.9	19.1	18.6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43)	33.1	42.3	25.8	30.3	23.1
	16~25년 이하	(77)	49.9	32.0	21.7	24.0	11.2
	26~35년 이하	(61)	32.9	36.4	18.2	14.8	24.7
	36년 이상	(76)	41.0	42.6	9.5	5.3	7.5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57)	36.0	49.0	7.1	13.6	12.6
	주 1~2회	(173)	43.3	33.6	19.3	17.7	16.3
	월 3회 이하	(24)	32.7	43.3	30.1	22.7	13.3
	연 1~3회	(3)	21.3	27.1	51.5	27.1	27.1
교단	예장통합	(66)	23.2	47.1	26.6	17.4	15.0
	예장합동	(52)	53.2	39.8	12.1	15.6	2.7
	감리교	(31)	19.2	42.5	25.7	25.8	23.9
	기타장로교	(51)	55.7	37.2	6.5	13.9	8.8
	기타 교단	(50)	43.1	25.6	20.8	19.6	31.0
	잘 모름	(7)	74.3	9.9	9.3	0.0	6.5
교인 수	99명 이하	(68)	49.5	32.9	15.9	12.5	9.9
	100~499명	(86)	40.1	36.0	14.9	16.7	23.3
	500~2999명	(63)	36.9	48.5	21.1	20.7	12.0
	3000명 이상	(40)	31.3	33.7	22.8	21.6	12.5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4)	54.1	20.6	14.2	0.0	23.2
	보통	(19)	38.8	31.7	23.8	12.6	14.5
	중요함	(225)	39.8	39.5	17.7	18.8	14.9

4. 교회 현장 성찬식 대비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

질문

교회 현장 성찬 예식과 온라인 성찬식을 비교하면 어떠했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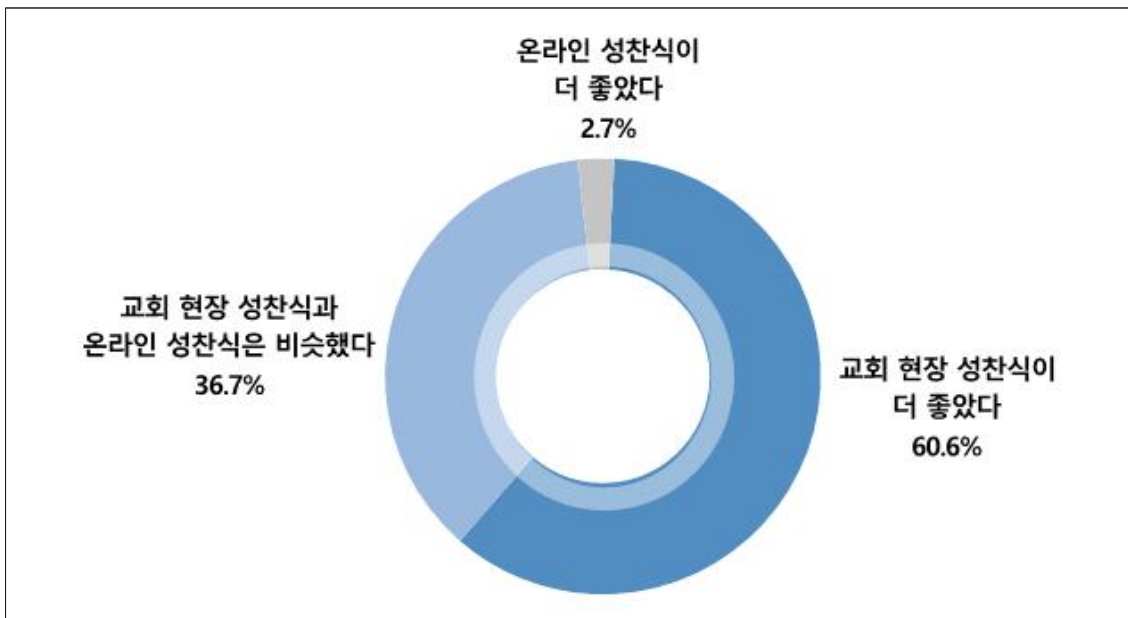
온라인 성찬식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회 현장 성찬식 대비 만족도를 묻은 결과, 3분의 2 가량은 '교회 현장 성찬식이 더 좋았다'고 응답했다(60.6%). '교회 현장 성찬식과 비슷했다'는 36.7%, '온라인 성찬식이 더 좋았다'는 비율은 2.7%에 그쳐 현장 성찬식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회 현장 성찬식과 온라인 성찬식은 비슷했다'가 36.7%나 되었다는 것은 온라인 성찬식이 일부에서라도 성찬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교회 현장 성찬식이 더 좋았다'는 응답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고, 남성은 '비슷했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교인 수 99명 이하 교회에서 '교회 현장 성찬식이 더 좋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사례 수 30 미만이므로 해석 시 주의)

[그림] 교회 현장 성찬식 대비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

(Base=온라인 성찬식 참여자, N=105, 단위 : %)



[표] 교회 현장 성찬식 대비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성찬식 참여자, N=105,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교회 현장 성찬식이 더 좋았다	교회 현장 성찬식과 온라인 성찬식은 비슷했다	온라인 성찬식이 더 좋았다	계
전체		(105)	60.6	36.7	2.7	100.0
성별	남성	(48)	55.0	41.2	3.8	100.0
	여성	(57)	65.2	33.0	1.8	100.0
연령	19~29세	(24)	73.1	26.9	0.0	100.0
	30~39세	(15)	63.7	36.3	0.0	100.0
	40~49세	(26)	65.3	27.5	7.1	100.0
	50~59세	(11)	36.3	54.9	8.9	100.0
	60세 이상	(29)	53.4	46.6	0.0	100.0
지역	서울	(30)	74.5	23.2	2.3	100.0
	경기/인천	(35)	68.0	32.0	0.0	100.0
	대전/충청	(14)	25.4	67.0	7.6	100.0
	부산/울산/경남	(8)	55.7	44.3	0.0	100.0
	광주/전라	(14)	50.5	46.3	3.2	100.0
직업	대구/경북	(3)	62.8	16.9	20.3	100.0
	자영업	(11)	0.0	100.0	0.0	100.0
	화이트칼라	(40)	64.7	28.2	7.1	100.0
	블루칼라	(11)	79.1	20.9	0.0	100.0
	주부	(19)	71.3	28.7	0.0	100.0
고용 형태	학생	(15)	65.2	34.8	0.0	100.0
	무직/기타	(9)	64.0	36.0	0.0	100.0
	정규직	(37)	64.6	27.7	7.7	100.0
	비정규직	(14)	76.2	23.8	0.0	100.0
	학력					
결혼여부	고졸 이하	(10)	84.2	11.6	4.3	100.0
	대제 이상	(94)	58.0	39.5	2.5	100.0
신앙 생활 연수	기혼	(73)	58.2	37.9	3.9	100.0
	미혼	(31)	66.1	33.9	0.0	100.0
예배 참석 빈도	15년 이하	(28)	61.5	34.5	4.0	100.0
	16~25년 이하	(35)	61.2	37.1	1.7	100.0
	26~35년 이하	(26)	58.1	37.6	4.3	100.0
	36년 이상	(16)	61.5	38.5	0.0	100.0
	주 3회 이상	(16)	61.0	39.0	0.0	100.0
교단	주 1~2회	(75)	59.2	38.5	2.2	100.0
	월 3회 이하	(12)	67.3	22.6	10.1	100.0
	연 1~3회	(2)	65.5	34.5	0.0	100.0
	예장통합	(29)	69.9	30.1	0.0	100.0
	예장합동	(15)	48.6	43.7	7.7	100.0
교인 수	감리교	(19)	57.0	43.0	0.0	100.0
	기타장로교	(12)	70.7	29.3	0.0	100.0
	기타 교단	(29)	58.0	37.8	4.2	100.0
	잘 모름	(1)	0.0	58.9	41.1	100.0
	99명 이하	(23)	77.2	22.8	0.0	100.0
종교 중요도	100~499명	(36)	48.1	50.3	1.6	100.0
	500~2999명	(26)	66.9	26.1	6.9	100.0
	3000명 이상	(19)	54.9	42.8	2.3	100.0
	중요하지않음	(5)	55.2	44.8	0.0	100.0
	보통	(8)	52.7	41.5	5.9	100.0
중요함	중요함	(92)	61.5	35.9	2.6	100.0

5. 온라인 성찬식 불만족 이유

질문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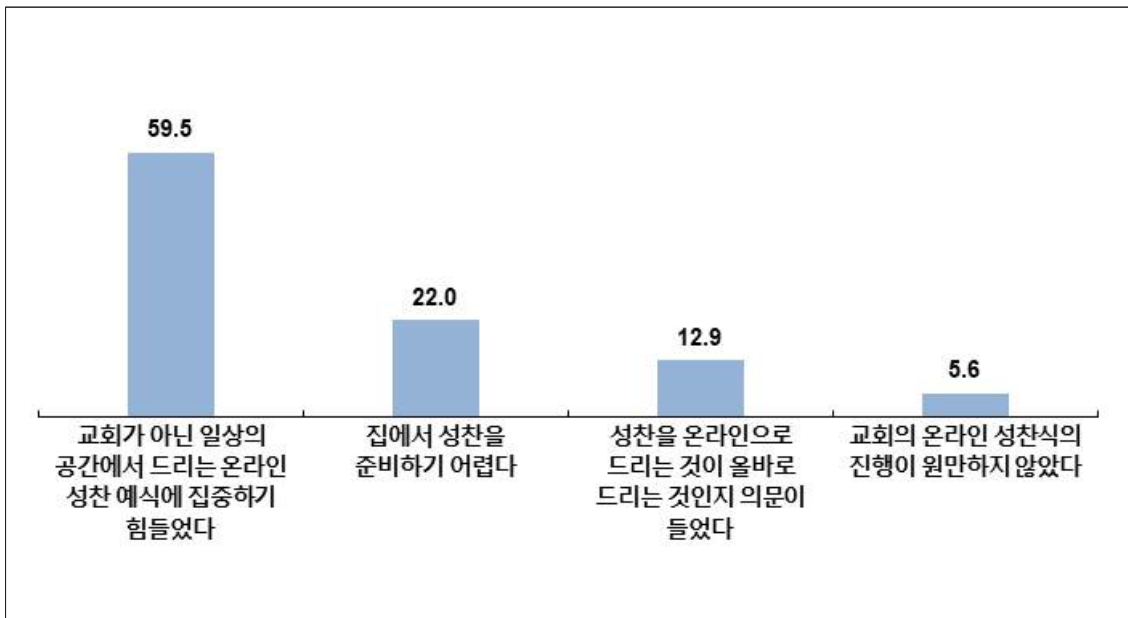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드리는 온라인 성찬 예식에 집중하기 힘들었다'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59.5%), '집에서 성찬을 준비하기 어렵다' 22.0%, '성찬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오히려 드리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12.9% 등으로 응답됐다. 온라인 성찬식의 신학적 타당성 보다는 실천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다.

남성은 '온라인 성찬식에 집중하기 어려움'을, 여성은 '집에서 성찬을 준비하기 어려움'을 각각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사례수 30 미만이므로 해석 시 주의)

[그림] 온라인 성찬식 불만족 이유

(Base=온라인 성찬식 불만족자, N=63, 단위 : %)



[표] 온라인 성찬식 불만족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성찬식 불만족자, N=63,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드리는 온라인 성찬 예식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집에서 성찬을 준비하기 어렵다	성찬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올바로 드리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교회의 온라인 성찬식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다	계
전체		(63)	59.5	22.0	12.9	5.6	100.0
성별	남성	(26)	62.5	18.4	14.2	4.9	100.0
	여성	(37)	57.4	24.5	12.0	6.1	100.0
연령	19~29세	(17)	49.3	31.5	11.8	7.4	100.0
	30~39세	(9)	59.1	27.5	13.3	0.0	100.0
	40~49세	(17)	67.9	25.0	7.1	0.0	100.0
	50~59세	(4)	85.7	14.3	0.0	0.0	100.0
	60세 이상	(16)	55.3	6.4	23.6	14.7	100.0
지역	서울	(22)	51.4	37.9	10.7	0.0	100.0
	경기/인천	(24)	60.6	20.2	13.8	5.4	100.0
	대전/충청	(4)	50.0	0.0	5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5)	72.5	13.7	13.7	0.0	100.0
	광주/전라	(7)	67.1	0.0	0.0	32.9	100.0
	대구/경북	(2)	100.0	0.0	0.0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26)	59.1	13.8	27.2	0.0	100.0
	블루칼라	(9)	21.5	51.9	0.0	26.5	100.0
	주부	(13)	89.4	10.6	0.0	0.0	100.0
	학생	(10)	38.6	36.1	12.0	13.3	100.0
	무직/기타	(6)	83.4	16.6	0.0	0.0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24)	65.2	12.4	22.4	0.0	100.0
	비정규직	(11)	15.2	47.6	15.9	21.4	100.0
학력	고졸 이하	(9)	45.3	0.0	13.5	41.2	100.0
	대재 이상	(55)	61.7	25.4	12.8	0.0	100.0
결혼여부	기혼	(43)	62.1	19.8	12.8	5.3	100.0
	미혼	(21)	54.1	26.5	13.1	6.2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7)	62.9	19.4	10.2	7.4	100.0
	16~25년 이하	(21)	63.8	25.5	10.7	0.0	100.0
	26~35년 이하	(15)	53.5	20.8	10.7	15.1	100.0
	36년 이상	(10)	53.1	20.6	26.2	0.0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0)	65.8	5.8	28.5	0.0	100.0
	주 1~2회	(44)	61.4	21.0	9.5	8.1	100.0
	월 3회 이하	(8)	33.3	51.9	14.8	0.0	100.0
	연 1~3회	(2)	100.0	0.0	0.0	0.0	100.0
교단	예장통합	(20)	55.5	24.0	9.2	11.2	100.0
	예장합동	(7)	49.3	16.7	34.0	0.0	100.0
	감리교	(11)	46.3	32.6	21.1	0.0	100.0
	기타장로교	(8)	92.1	7.9	0.0	0.0	100.0
	기타 교단	(17)	61.5	21.8	8.9	7.7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18)	58.1	6.7	15.5	19.7	100.0
	100~499명	(17)	52.8	37.3	9.8	0.0	100.0
	500~2999명	(17)	71.9	13.9	14.2	0.0	100.0
	3000명 이상	(11)	52.3	36.3	11.4	0.0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	53.9	0.0	0.0	46.1	100.0
	보통	(4)	34.7	35.7	29.6	0.0	100.0
	중요함	(57)	61.5	22.1	12.4	4.0	100.0

6. 온라인 성찬식 만족 이유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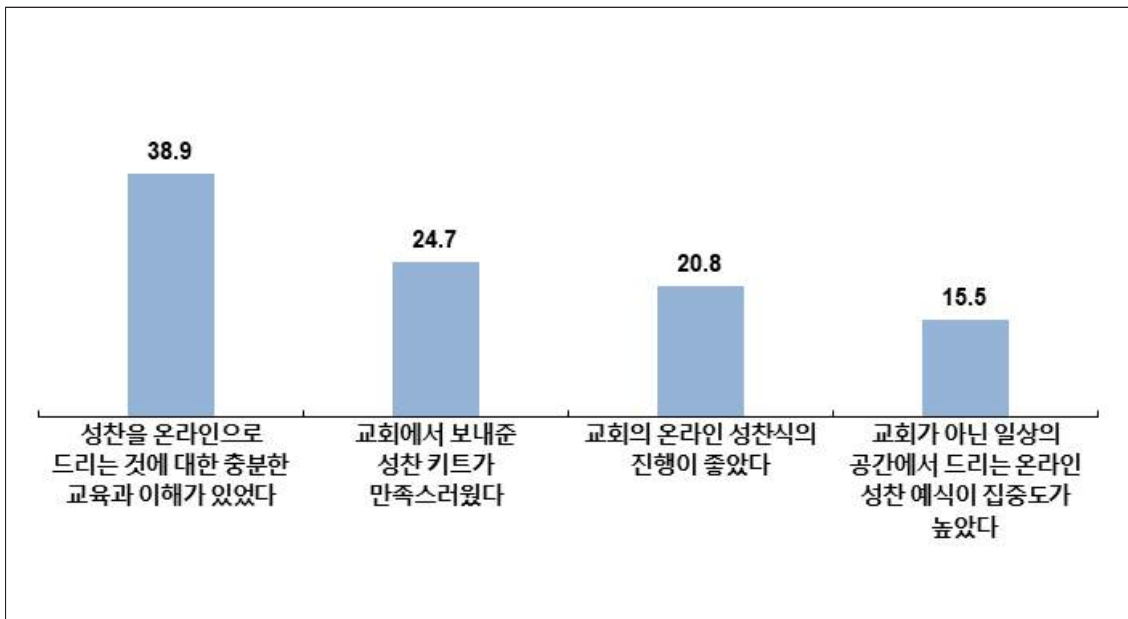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온라인 성찬식이 교회 현장 성찬식보다 더 좋았던 이유로는 '온라인 성찬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가장 높았으며, '교회에서 보내준 성찬키트에 대한 만족', '교회의 온라인 성찬식 진행의 원활함', '일상 공간에서의 성찬식에 집중도 높음'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사례수 극히 적으므로 해석 시 주의)

[그림]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

(Base=온라인 성찬식 만족자, N=3, 단위 : %)



[표]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Base=온라인 성찬식 만족자, N=3,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성찬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있었다	교회에서 보내준 성찬 키트가 만족스러웠다	교회의 온라인 성찬식의 진행이 좋았다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드리는 온라인 성찬 예식이 집중도가 높았다	계
전체		(3)	38.9	24.7	20.8	15.5	100.0
성별	남성	(2)	28.7	38.7	32.6	0.0	100.0
	여성	(1)	56.9	0.0	0.0	43.1	100.0
연령	40~49세	(2)	31.0	37.4	31.6	0.0	100.0
	50~59세	(1)	54.2	0.0	0.0	45.8	100.0
지역	서울	(1)	0.0	100.0	0.0	0.0	100.0
	대전/충청	(1)	100.0	0.0	0.0	0.0	100.0
	광주/전라	(0)	0.0	0.0	0.0	100.0	100.0
	대구/경북	(1)	0.0	0.0	100.0	0.0	100.0
직업	화이트칼라	(3)	38.9	24.7	20.8	15.5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	38.9	24.7	20.8	15.5	100.0
학력	고졸 이하	(0)	0.0	0.0	0.0	100.0	100.0
	대재 이상	(2)	46.0	29.3	24.7	0.0	100.0
결혼여부	기혼	(3)	38.9	24.7	20.8	15.5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	0.0	61.4	0.0	38.6	100.0
	16~25년 이하	(1)	100.0	0.0	0.0	0.0	100.0
	26~35년 이하	(1)	46.8	0.0	53.2	0.0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1~2회	(2)	31.3	42.2	0.0	26.5	100.0
	월 3회 이하	(1)	49.6	0.0	50.4	0.0	100.0
교단	예장합동	(1)	49.6	0.0	50.4	0.0	100.0
	기타 교단	(1)	42.6	57.4	0.0	0.0	100.0
	잘 모름	(0)	0.0	0.0	0.0	100.0	100.0
교인 수	100~499명	(1)	0.0	0.0	100.0	0.0	100.0
	500~2999명	(2)	61.1	38.9	0.0	0.0	100.0
	3000명 이상	(0)	0.0	0.0	0.0	100.0	100.0
종교 중요도	보통	(0)	0.0	0.0	0.0	100.0	100.0
	중요함	(2)	46.0	29.3	24.7	0.0	100.0

V

공간의 변화와 개인 신앙 생활

1. 일상적 공간 내 신앙 생활 관련 물건 여부

질문

다음 중 귀하의 가정 혹은 일상의 공간에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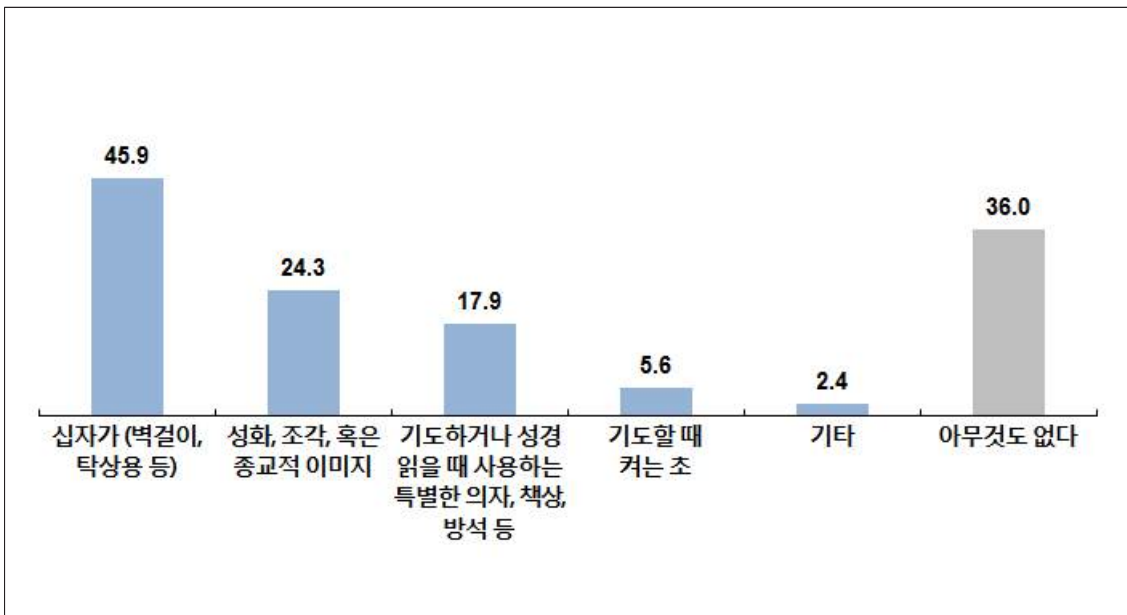
가정 혹은 일상의 공간에 신앙과 관련한 물건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아무것도 없다'가 36.0%로 응답됐다. 즉, 64.0%는 일상의 공간에 신앙 관련 물건이 있다는 것으로, 개신교인 3분의 2가 일상 공간에 신앙과 관련한 물건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십자가(벽걸이, 탁상용 등)'(45.9%)였으며, '성화, 조각, 혹은 종교적 이미지'(24.3%),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의자, 책상, 방석 등'(17.9%), '기도할 때 켜는 초'(5.6) 등의 순서로 응답됐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신앙 관련 물건을 소유, 배치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주 3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집단에서 신앙 물건 배치 비율이 높았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다'는 비율은 주 1~2회 이하 참석자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무것도 없다'는 비율이 교인 수 3000명 이상 교회에서 42.1%로 가장 높은 점도 특징적이다.

[그림] 일상적 공간 내 신앙 생활 관련 물건 여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일상적 공간 내 신앙 생활 관련 물건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십자가 (벽걸이, 탁상용 등)	성화, 조각, 혹은 종교적 이미지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의자, 책상, 방석 등	기도할 때 켜는 초	기타	아무것도 없다
전체		(1000)	45.9	24.3	17.9	5.6	2.4	36.0
성별	남성	(427)	47.0	26.7	20.2	6.0	2.1	34.6
	여성	(573)	45.1	22.5	16.2	5.3	2.7	37.1
연령	19~29세	(137)	40.9	21.9	17.5	5.5	4.1	39.2
	30~39세	(147)	37.9	18.2	9.2	4.7	4.7	45.0
	40~49세	(193)	41.2	22.5	18.1	3.8	2.1	40.2
	50~59세	(190)	47.5	21.3	17.0	7.4	2.7	34.6
	60세 이상	(333)	53.2	30.8	22.3	6.1	0.8	29.1
지역	서울	(244)	54.7	27.7	19.6	8.9	1.6	28.2
	경기/인천	(347)	44.3	22.9	16.3	2.9	2.8	41.1
	대전/충청	(102)	43.5	28.2	14.7	8.0	4.8	28.9
	부산/울산/경남	(89)	35.4	21.5	20.6	3.3	0.7	41.9
	광주/전라	(120)	43.5	24.3	18.2	3.0	0.6	38.1
	대구/경북	(66)	38.0	16.1	17.6	7.7	0.9	45.0
	강원/제주	(32)	58.2	26.9	24.5	13.5	11.9	20.7
직업	자영업	(122)	51.2	31.8	18.6	10.7	2.1	28.0
	화이트칼라	(302)	45.0	26.5	18.3	6.3	2.0	36.9
	블루칼라	(156)	48.8	19.7	13.2	6.2	1.3	39.5
	주부	(251)	45.5	21.4	17.9	2.9	1.1	39.5
	학생	(78)	48.9	24.7	16.4	3.4	6.6	28.3
고용 형태	무직/기타	(91)	35.2	22.7	25.0	4.6	6.4	34.7
	정규직	(339)	46.9	25.2	16.5	7.1	2.3	37.0
학력	비정규직	(124)	43.3	21.1	17.9	4.3	1.0	39.2
	고졸 이하	(206)	48.3	21.9	22.6	4.7	1.1	32.4
결혼여부	대재 이상	(794)	45.3	24.9	16.7	5.8	2.8	37.0
	기혼	(768)	48.1	25.8	18.6	6.0	2.0	34.0
신앙 생활 연수	미혼	(232)	38.5	19.5	15.5	4.1	4.0	42.8
	15년 이하	(216)	40.5	20.2	16.9	10.4	2.3	38.1
	16~25년 이하	(220)	47.2	22.7	13.9	6.4	1.0	39.4
	26~35년 이하	(234)	40.6	20.7	16.9	5.8	4.6	37.4
	36년 이상	(330)	52.2	30.6	21.9	1.7	1.9	31.4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49.8	32.5	20.6	2.3	2.4	26.3
	주 1~2회	(652)	46.0	23.8	18.2	6.0	2.5	37.4
	월 3회 이하	(145)	42.5	17.8	15.2	8.7	1.0	40.2
	연 1~3회	(38)	40.1	21.6	11.9	1.3	7.2	38.3
교단	예장통합	(302)	52.0	22.7	19.2	6.5	2.8	31.1
	예장합동	(195)	38.2	28.4	17.4	3.5	2.0	40.8
	감리교	(117)	60.5	25.4	17.8	5.2	5.0	28.8
	기타장로교	(171)	37.2	25.9	14.5	7.0	0.3	41.9
	기타 교단	(173)	42.8	25.1	21.2	5.7	1.4	38.0
교인 수	잘 모름	(42)	44.3	4.4	11.5	3.3	7.9	37.1
	99명 이하	(261)	41.3	26.6	21.9	5.3	2.6	36.4
	100~499명	(306)	48.9	23.8	15.4	7.2	2.8	34.2
	500~2999명	(244)	48.4	26.8	17.2	6.5	2.5	33.2
	3000명 이상	(189)	44.2	18.7	17.4	2.3	1.6	42.1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42.8	25.4	22.2	6.7	1.1	36.4
	보통	(137)	34.6	14.7	11.6	6.3	3.4	45.6
	중요함	(825)	47.9	25.9	18.7	5.4	2.3	34.4

2. 일상적 공간에 신앙 생활을 위해 변화준 것

질문

귀하께서는 가정 (혹은 일상의 공간)에서의 신앙 생활을 위해 공간에 변화를 주신 것이 있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가정 또는 일상의 공간에서 신앙 생활을 위해 공간에 변화를 준 것이 있는지에 대해 78.6%의 응답자가 '특별히 변화 준 것이 없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1.4%는 공간에 변화를 주었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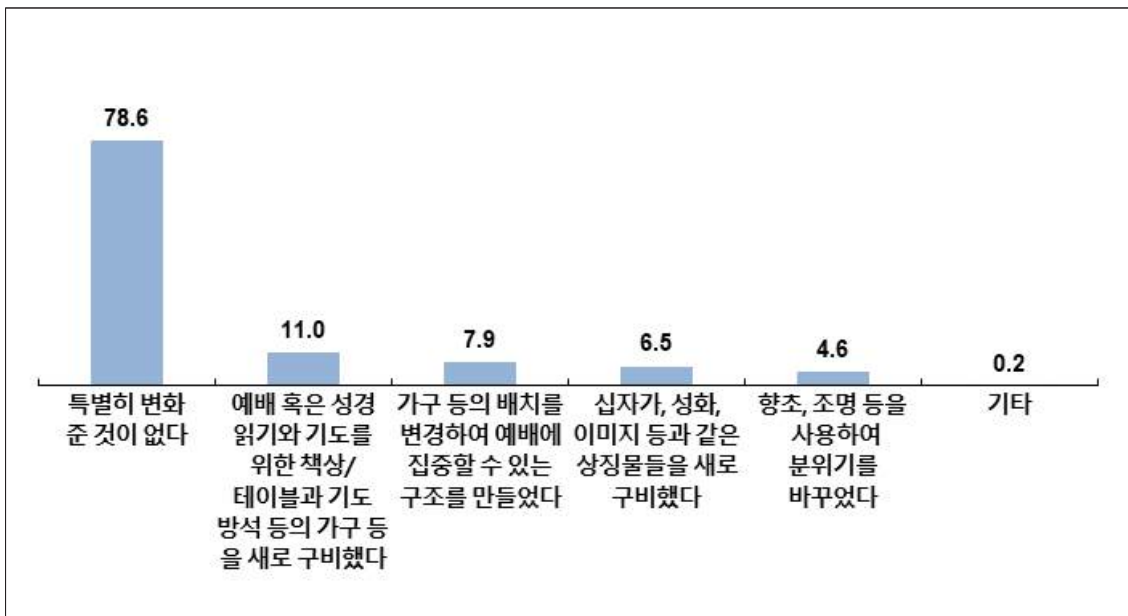
공간에 변화를 준 내용으로는 '예배 혹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위한 책상/테이블과 방석 등의 가구 구비'가 11.0%, '가구 등의 배치를 변경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만들기'가 7.9%, '십자가, 성화, 이미지 등과 같은 상징물 구비'가 6.5%, '향초, 조명 등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바꿈'이 4.6% 등으로 응답됐다.

'예배/성경읽기/기도를 위한 책상이나 방석 등 구비' 비율은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온라인 절기 예배 시 절기에 맞게 공간을 꾸민 비율'도 남성(27.5%)이 여성(18.0%)보다 높았는데, 일상 공간의 변화 비율도 남성에서 더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남성은 특히 '책상/테이블 방석 등 가구 구비'와 '가구 배치 등을 통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을 한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일상적 공간에 신앙 생활을 위해 변화준 것

(Base=전체, N=1000, 단위 : %, 중복응답)



[표] 일상적 공간에 신앙 생활을 위해 변화준 것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명)	특별히 변화 준 것이 없다	예배 혹은 성경읽기와 기도를 위한 책상/테이블 과 기도 방석 등의 가구 등을 새로 구비했다	가구 등의 배치를 변경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심자가, 성화, 이미지 등과 같은 상징물들을 새로 구비했다	향초, 조명 등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바꾸었다	기타
전체		(1000)	78.6	11.0	7.9	6.5	4.6	0.2
성별	남성	(427)	74.2	14.1	11.0	9.2	5.4	0.1
	여성	(573)	81.8	8.7	5.6	4.5	4.0	0.2
연령	19~29세	(137)	77.9	10.8	10.6	9.4	4.5	0.0
	30~39세	(147)	80.5	7.6	7.6	6.8	4.8	1.2
	40~49세	(193)	77.4	11.5	8.9	5.8	6.5	0.0
	50~59세	(190)	81.9	10.6	4.8	5.9	3.3	0.0
	60세 이상	(333)	76.8	12.5	8.2	5.9	4.2	0.0
지역	서울	(244)	77.0	8.9	9.1	11.3	4.9	0.2
	경기/인천	(347)	83.6	10.2	5.3	3.4	3.0	0.3
	대전/충청	(102)	73.9	12.7	11.9	5.5	5.8	0.0
	부산/울산/경남	(89)	73.9	18.9	8.4	6.8	3.4	0.0
	광주/전라	(120)	68.8	13.9	12.3	9.4	7.8	0.0
	대구/경북	(66)	90.7	4.3	2.1	4.3	2.9	0.0
직업	강원/제주	(32)	74.6	10.1	9.7	0.0	11.8	0.0
	자영업	(122)	72.6	14.0	6.3	10.6	5.4	0.0
	화이트칼라	(302)	75.6	12.8	10.4	8.7	5.7	0.6
	블루칼라	(156)	81.2	6.7	7.8	3.9	5.3	0.0
	주부	(251)	82.6	9.1	5.9	3.4	2.9	0.0
	학생	(78)	82.9	9.8	8.3	7.4	3.4	0.0
고용 형태	무직/기타	(91)	77.0	14.5	7.4	5.8	4.7	0.0
	정규직	(339)	76.5	13.0	9.9	7.6	6.5	0.5
학력	비정규직	(124)	80.1	5.2	8.5	5.4	3.5	0.0
	고졸 이하	(206)	81.0	8.1	7.1	7.2	1.5	0.0
결혼여부	대재 이상	(794)	77.9	11.7	8.1	6.3	5.4	0.2
	기혼	(768)	78.2	11.1	7.9	6.3	4.8	0.1
신앙 생활 연수	미혼	(232)	79.7	10.6	7.9	7.2	4.0	0.5
	15년 이하	(216)	68.3	15.8	13.7	10.3	6.1	0.2
	16~25년 이하	(220)	79.7	10.6	8.2	7.0	6.8	0.0
	26~35년 이하	(234)	78.9	9.8	7.6	5.1	4.4	0.0
예배 참석 빈도	36년 이상	(330)	84.3	8.9	4.1	4.7	2.3	0.4
	주 3회 이상	(165)	75.1	14.8	10.5	4.8	0.5	0.7
	주 1~2회	(652)	79.8	10.5	7.5	7.2	5.1	0.1
	월 3회 이하	(145)	76.9	9.9	6.2	5.0	7.2	0.0
교단	연 1~3회	(38)	78.6	6.9	11.0	7.7	3.9	0.0
	예장통합	(302)	78.0	8.7	8.4	9.9	3.6	0.0
	예장합동	(195)	81.2	11.1	5.0	3.9	5.5	0.0
	감리교	(117)	87.2	10.1	2.1	1.6	4.5	0.0
	기타장로교	(171)	74.1	14.6	9.3	6.6	4.2	0.0
	기타 교단	(173)	72.8	13.1	14.5	7.2	6.2	1.0
교인 수	잘 모름	(42)	88.3	5.4	1.5	4.8	3.3	0.0
	99명 이하	(261)	72.9	13.1	8.9	9.8	4.3	0.0
	100~499명	(306)	77.3	12.5	9.1	6.0	5.1	0.2
	500~2999명	(244)	78.6	10.4	7.0	5.5	6.5	0.4
종교 중요도	3000명 이상	(189)	88.2	6.3	5.9	4.1	1.9	0.0
	중요하지않음	(38)	80.0	7.8	8.1	8.0	7.6	0.0
	보통	(137)	87.7	7.6	2.6	2.4	4.0	0.0
중요함	중요함	(825)	77.0	11.7	8.8	7.1	4.6	0.2

3. 공간의 변화가 신앙 생활에 미친 영향

질문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귀하의 신앙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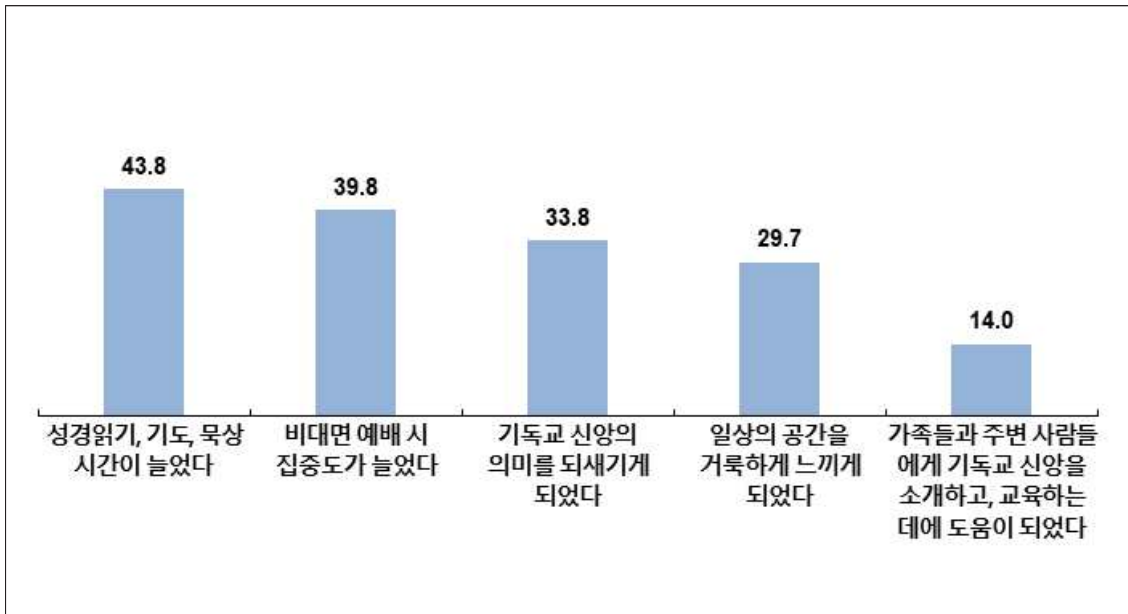
가정 또는 일상의 공간을 신앙 생활에 맞게 변화시켰더니 '성경읽기, 기도, 묵상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이 43.8%였고, '비대면 예배 시 집중도가 늘었다' 39.8%,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33.8%, '일상의 공간을 거룩하게 느끼게 되었다' 29.7%, '주위에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14.0% 등으로 응답되었다. 공간의 변화가 신앙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남성에서 '책상/테이블 방석 등 가구 구비', '가구 배치 등을 통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남성들은 이를 통해 '성경읽기, 기도, 묵상 시간이 늘고', '일상의 공간을 거룩하게 느끼며', '주위에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교육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공간의 변화가 신앙 생활에 미친 영향

(Base=일상적 공간에 신앙 생활을 위한 변화 줌, N=214,

단위 : %, 중복응답)



[표] 공간의 변화가 신앙 생활에 미친 영향 (응답자 특성별)

(Base=일상적 공간에 신앙 생활을 위한 변화 중, N=214,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명)	성경읽기, 기도, 묵상 시간이 늘었다	비대면 예배 시 집중도가 늘었다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일상의 공간을 거룩하게 느끼게 되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전체		(214)	43.8	39.8	33.8	29.7	14.0
성별	남성	(110)	50.5	40.1	36.7	31.7	18.9
	여성	(104)	36.6	39.5	30.8	27.6	8.8
연령	19~29세	(30)	57.9	32.7	38.8	39.1	19.3
	30~39세	(29)	52.7	35.3	35.0	35.3	8.6
	40~49세	(44)	21.6	57.7	28.3	39.9	11.6
	50~59세	(34)	51.9	32.6	24.6	13.7	16.8
	60세 이상	(77)	43.8	37.3	38.6	25.4	14.0
지역	서울	(56)	41.9	43.3	36.6	32.1	14.4
	경기/인천	(57)	42.8	40.1	32.2	31.5	9.0
	대전/충청	(27)	54.3	33.9	29.0	14.9	9.8
	부산/울산/경남	(23)	59.7	39.1	32.8	42.4	20.2
	광주/전라	(37)	37.7	37.9	27.6	30.2	18.1
	대구/경북	(6)	15.3	30.7	69.2	45.0	8.4
직업	강원/제주	(8)	32.4	50.8	45.4	0.0	27.6
	자영업	(33)	61.7	42.6	28.4	11.2	11.5
	화이트칼라	(74)	42.9	43.6	40.7	37.9	16.0
	블루칼라	(29)	39.3	35.1	27.6	29.8	12.5
	주부	(44)	29.3	43.6	26.7	27.5	12.5
	학생	(13)	48.2	39.1	23.3	47.0	20.0
고용 형태	무직/기타	(21)	52.0	21.2	48.1	24.3	12.3
	정규직	(80)	43.3	43.0	37.5	40.5	18.6
학력	비정규직	(25)	37.4	36.0	35.7	20.0	2.3
	고졸 이하	(39)	56.2	19.4	29.4	27.9	11.8
	대제 이상	(175)	41.0	44.4	34.8	30.1	14.5
결혼여부	기혼	(167)	44.0	38.4	33.4	29.4	13.9
	미혼	(47)	42.8	44.7	35.2	30.9	14.1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68)	46.3	39.1	25.9	28.7	15.6
	16~25년 이하	(45)	39.6	44.9	30.7	46.5	16.2
	26~35년 이하	(49)	52.5	35.7	37.4	18.0	10.3
	36년 이상	(52)	35.8	40.2	43.4	27.7	13.5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41)	56.4	34.2	22.1	19.4	15.5
	주 1~2회	(132)	42.5	42.4	40.1	32.4	14.2
	월 3회 이하	(33)	26.9	39.9	22.8	36.2	13.3
	연 1~3회	(8)	70.5	26.0	35.9	12.7	6.4
교단	예장통합	(66)	40.6	39.9	36.5	30.3	14.9
	예장합동	(37)	52.4	52.7	25.7	39.0	5.3
	감리교	(15)	44.2	24.5	37.1	20.1	13.0
	기타장로교	(44)	44.1	36.1	38.3	25.6	13.1
	기타 교단	(47)	37.9	37.5	31.8	28.9	22.1
교인 수	잘 모름	(5)	73.6	45.2	26.4	28.4	0.0
	99명 이하	(71)	51.3	34.1	29.4	31.4	9.8
	100~499명	(69)	40.0	38.1	40.5	31.2	18.0
	500~2999명	(52)	34.8	50.2	29.8	23.2	16.0
	3000명 이상	(22)	53.0	38.8	36.4	35.2	9.8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8)	84.5	28.7	32.6	44.1	12.0
	보통	(17)	50.4	58.9	16.4	44.0	12.5
	중요함	(190)	41.6	38.5	35.4	27.9	14.2

VI

코로나19와 개인 신앙 생활 I

1.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 생활

질문

귀하께서 집에서 하고 계신 개인 신앙 생활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가정에서 하고 있는 개인 신앙 생활로는 '정기적인 성경 읽기, 묵상, 필사 또는 큐티'가 51.9%로 가장 많았고, '정기적인 개인 기도(통성, 묵상 등)'가 48.6%로 두 번째로 많았다. '주기적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15.8%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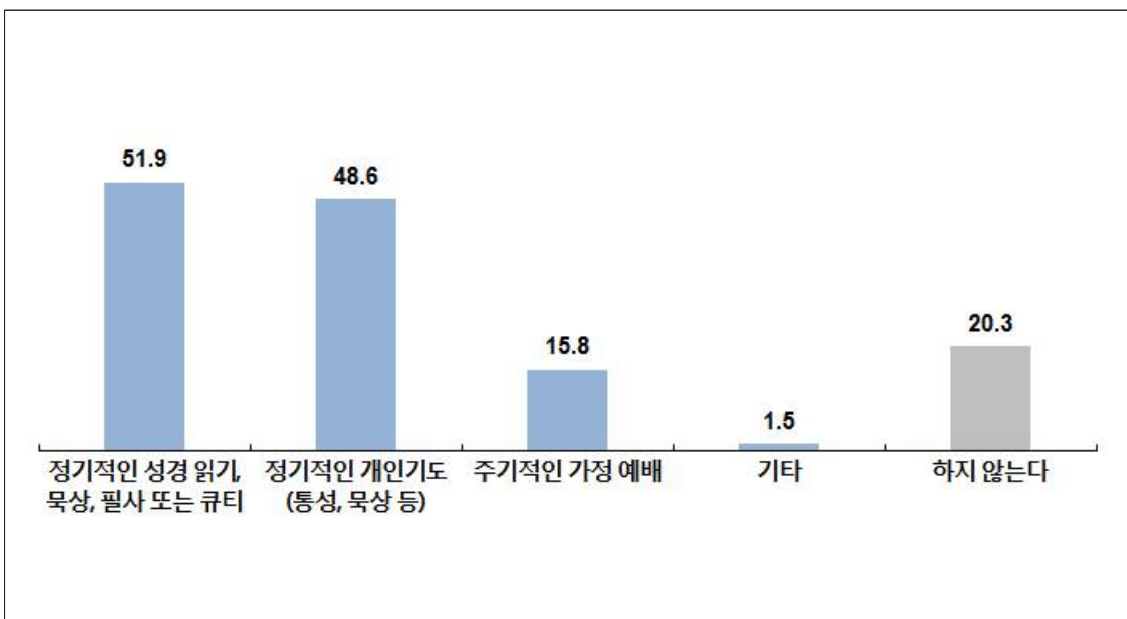
개인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비율은 20.3%로, 다시 말하면, 79.7%의 개신교인은 정기적인 개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경 읽기, 묵상, 필사, 큐티'를 하는 비율은 여성과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아진다. '개인 기도' 비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가장 높고, 이 역시 신앙 생활 연수 및 예배 참석 빈도와 상관 관계를 보인다. '성경 읽기 등'과 '기도를 비교하면 4~50대는 60세 이상에 비해 기도 생활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비율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고, 2~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데, 2~30대 개신교인의 30% 가량은 개인 신앙 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 생활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신앙 생활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정기적인 성경 읽기, 묵상, 필사 또는 큐티	정기적인 개인기도 (통성, 묵상 등)	주기적인 가정 예배	기타	하지 않는다
전체		(1000)	51.9	48.6	15.8	1.5	20.3
성별	남성	(427)	44.9	46.8	18.1	1.2	25.4
	여성	(573)	57.1	50.0	14.1	1.8	16.5
연령	19~29세	(137)	42.9	44.9	14.0	0.8	33.1
	30~39세	(147)	47.9	49.5	14.1	0.4	25.6
	40~49세	(193)	53.2	44.1	19.1	1.8	17.8
	50~59세	(190)	57.8	45.9	16.8	0.6	17.1
	60세 이상	(333)	53.3	54.0	14.9	2.6	16.0
지역	서울	(244)	55.1	49.8	16.9	1.5	20.6
	경기/인천	(347)	49.6	48.5	16.6	1.5	21.5
	대전/충청	(102)	47.1	55.9	13.5	1.3	15.7
	부산/울산/경남	(89)	60.3	49.6	22.1	2.0	11.1
	광주/전라	(120)	51.9	46.7	11.0	0.0	20.1
	대구/경북	(66)	47.9	41.1	14.7	0.0	28.2
	강원/제주	(32)	52.9	38.8	9.6	9.7	29.5
직업	자영업	(122)	48.1	59.5	13.1	0.0	21.8
	화이트칼라	(302)	53.2	50.8	17.4	0.6	19.9
	블루칼라	(156)	34.3	39.1	18.6	2.7	24.4
	주부	(251)	65.6	47.9	14.4	2.3	14.0
	학생	(78)	40.2	47.2	12.6	1.4	35.4
	무직/기타	(91)	55.0	46.5	15.9	2.2	17.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47.3	47.5	17.0	1.5	22.9
	비정규직	(124)	44.5	46.3	20.0	1.8	16.6
학력	고졸 이하	(206)	51.2	49.0	10.8	1.8	18.0
	대재 이상	(794)	52.1	48.6	17.1	1.4	20.9
결혼여부	기혼	(768)	53.6	49.6	16.1	1.8	17.7
	미혼	(232)	46.3	45.3	14.9	0.5	28.9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42.2	40.3	15.7	1.5	23.4
	16~25년 이하	(220)	48.8	46.6	17.3	0.7	18.5
	26~35년 이하	(234)	54.7	53.0	16.0	1.6	21.6
	36년 이상	(330)	58.3	52.3	14.7	2.0	18.6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81.0	63.3	23.2	1.6	7.1
	주 1~2회	(652)	49.5	48.1	15.0	1.5	20.4
	월 3회 이하	(145)	35.7	35.7	14.3	0.4	30.1
	연 1~3회	(38)	29.0	43.6	3.1	5.2	39.6
교단	예장통합	(302)	48.6	51.0	12.0	2.3	19.0
	예장합동	(195)	59.2	51.4	18.1	0.0	15.9
	감리교	(117)	47.3	45.0	13.2	2.2	29.5
	기타장로교	(171)	60.0	45.8	20.5	2.0	16.5
	기타 교단	(173)	50.0	48.5	19.7	1.0	18.3
교인 수	잘 모름	(42)	29.1	41.2	4.8	1.5	49.1
	99명 이하	(261)	46.8	57.3	18.1	0.9	17.4
	100~499명	(306)	53.9	44.9	11.9	0.9	19.6
	500~2999명	(244)	51.3	47.8	21.4	1.9	22.7
	3000명 이상	(189)	56.5	43.9	11.9	2.9	22.5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42.3	43.6	18.8	0.0	26.2
	보통	(137)	25.0	20.4	12.9	0.4	48.7
	중요함	(825)	56.8	53.6	16.2	1.8	15.3

2.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

질문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단수)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 생활과 관련하여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32.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예배에 집중하는 것'(24.2%),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23.9%)이 20% 이상의 응답율을 보였다.

'개인의 신앙 성숙'(9.3%), '자녀의 신앙 교육'(5.1%), '교역자와의 상담 및 소통'(4.0%)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교제'와 '예배 집중'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고, 남성은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았다.

'예배 집중 어려움'과 '개인의 신앙 성숙'은 연령이 낮을수록 어려운 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제'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40대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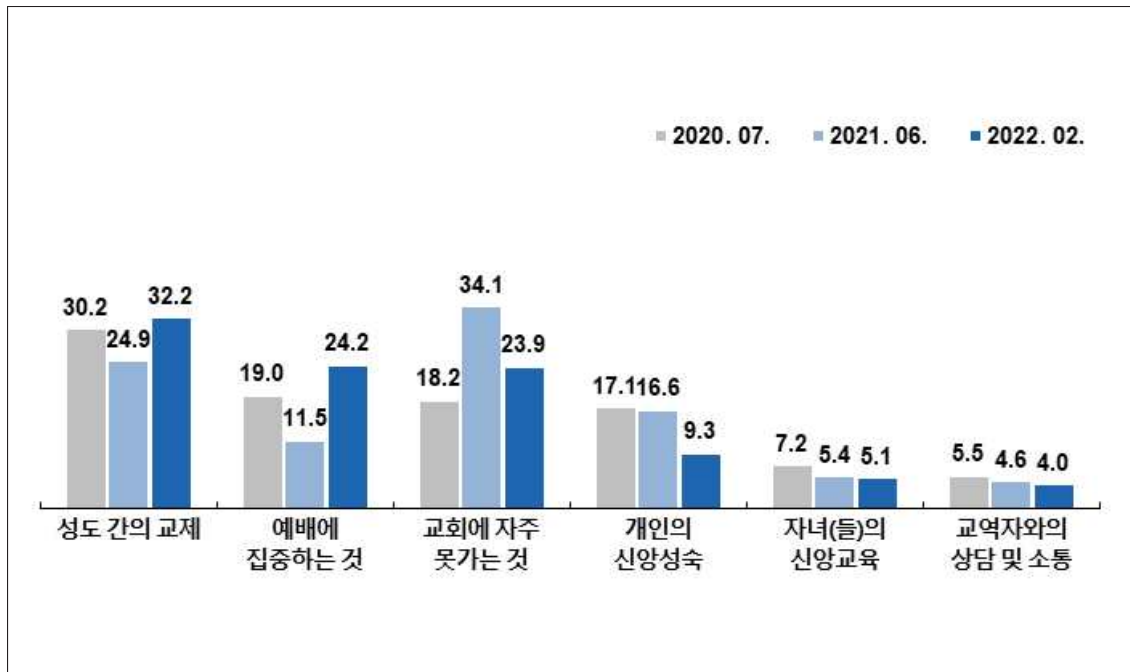
신앙 생활 연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15년 이하의 집단에서는 '대면 예배 제한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여 개인 신앙이 저하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신앙 생활 연수가 길고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교제'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응답했다.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성도 간의 교제'가 계속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했다.

앞서 온라인 예배의 불만족 이유에서 '예배에 집중 어려움'(81.2%)이 가장 컸던 것을 보면,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 '예배에 집중'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인한 집중도 부족과 교제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

(Base=전체, N=1000, 단위 : %)



* 2020.07.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조사', 2020.10.15.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07.21.~07.29)

*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6.17.~6.28.

[표]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 생활에 가장 어려운 점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성도 간의 교제	예배에 집중하는 것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	개인의 신앙성숙	자녀(들) 의 신앙교육	교역자와 의 상담 및 소통	기타	계
전체		(1000)	32.2	24.2	23.9	9.3	5.1	4.0	1.4	100.0
성별	남성	(427)	29.7	21.2	26.5	10.8	4.6	5.2	2.0	100.0
	여성	(573)	34.0	26.4	22.0	8.2	5.4	3.1	0.9	100.0
연령	19~29세	(137)	23.1	34.7	19.2	13.8	0.0	7.7	1.5	100.0
	30~39세	(147)	26.1	32.0	23.2	12.6	2.4	2.5	1.2	100.0
	40~49세	(193)	25.3	30.9	17.9	9.2	10.8	5.3	0.6	100.0
	50~59세	(190)	35.0	18.5	28.0	7.3	6.4	3.6	1.1	100.0
	60세 이상	(333)	40.9	15.8	27.3	7.2	4.2	2.6	2.0	100.0
지역	서울	(244)	24.6	27.9	29.8	5.6	6.1	5.1	0.9	100.0
	경기/인천	(347)	33.4	26.5	22.9	9.0	2.7	3.2	2.3	100.0
	대전/충청	(102)	35.8	22.6	24.0	8.1	5.2	3.9	0.4	100.0
	부산/울산/경남	(89)	36.8	17.4	21.2	13.6	6.0	4.4	0.5	100.0
	광주/전라	(120)	39.0	14.8	20.2	15.1	5.9	4.8	0.3	100.0
	대구/경북	(66)	23.7	27.4	22.5	11.1	8.2	3.8	3.4	100.0
직업	강원/제주	(32)	43.1	23.9	13.9	8.8	10.3	0.0	0.0	100.0
	자영업	(122)	38.1	13.7	32.4	7.6	5.1	0.0	3.1	100.0
	화이트칼라	(302)	29.1	30.0	20.6	8.4	5.2	4.7	2.0	100.0
	블루칼라	(156)	24.4	24.0	25.4	15.6	6.4	4.2	0.0	100.0
	주부	(251)	39.1	19.1	20.7	8.8	7.1	4.1	1.1	100.0
	학생	(78)	25.2	36.2	19.6	9.6	0.0	7.9	1.6	100.0
고용 형태	무직/기타	(91)	34.4	23.2	33.1	5.2	1.0	3.1	0.0	100.0
	정규직	(339)	27.8	27.4	21.9	11.6	4.7	5.1	1.4	100.0
학력	비정규직	(124)	27.8	28.9	23.5	8.5	7.9	2.6	0.9	100.0
	고졸 이하	(206)	32.7	21.2	25.8	12.5	3.2	3.0	1.6	100.0
결혼여부	대재 이상	(794)	32.0	25.0	23.4	8.5	5.5	4.2	1.3	100.0
	기혼	(768)	34.3	22.3	23.9	8.4	6.6	3.1	1.4	100.0
	미혼	(232)	25.2	30.5	23.8	12.3	0.0	6.8	1.4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19.5	28.8	27.1	13.0	2.1	8.7	0.9	100.0
	16~25년 이하	(220)	31.5	28.2	24.6	7.1	3.6	3.3	1.7	100.0
	26~35년 이하	(234)	36.8	24.3	22.2	7.2	4.5	3.4	1.5	100.0
	36년 이상	(330)	37.5	18.5	22.5	9.9	8.3	1.8	1.4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40.0	22.9	25.3	5.8	3.0	2.9	0.2	100.0
	주 1~2회	(652)	33.6	25.8	22.3	8.6	5.4	3.2	1.1	100.0
	월 3회 이하	(145)	17.5	18.7	25.7	18.4	6.3	9.6	3.8	100.0
	연 1~3회	(38)	29.3	24.0	37.6	3.1	3.1	1.2	1.7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27.7	26.7	24.5	10.6	3.9	6.1	0.5	100.0
	예장합동	(195)	33.7	25.2	24.3	8.6	4.4	3.0	0.9	100.0
	감리교	(117)	39.2	20.6	18.2	10.5	4.2	2.7	4.6	100.0
	기타장로교	(171)	38.9	22.3	20.4	6.7	5.9	4.0	1.8	100.0
	기타 교단	(173)	31.2	21.8	27.0	8.3	8.3	2.5	0.8	100.0
교인 수	잘 모름	(42)	13.9	29.3	35.4	15.5	1.7	2.8	1.5	100.0
	99명 이하	(261)	33.7	21.4	25.7	9.7	4.9	3.7	0.9	100.0
	100~499명	(306)	31.1	24.9	20.1	12.2	6.0	4.6	1.2	100.0
	500~2999명	(244)	34.1	22.7	28.1	5.8	3.1	3.8	2.4	100.0
	3000명 이상	(189)	29.3	29.0	22.0	8.6	6.4	3.7	0.9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17.5	39.7	17.0	2.6	8.7	8.1	6.4	100.0
	보통	(137)	24.0	16.5	24.2	19.6	4.9	6.7	4.3	100.0
	중요함	(825)	34.2	24.8	24.2	7.9	4.9	3.4	0.7	100.0

3. 대면/비대면 신앙 생활에 대한 견해

질문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단수)



코로나19 이후 대면/비대면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46.4%)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도 신앙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도 40.6%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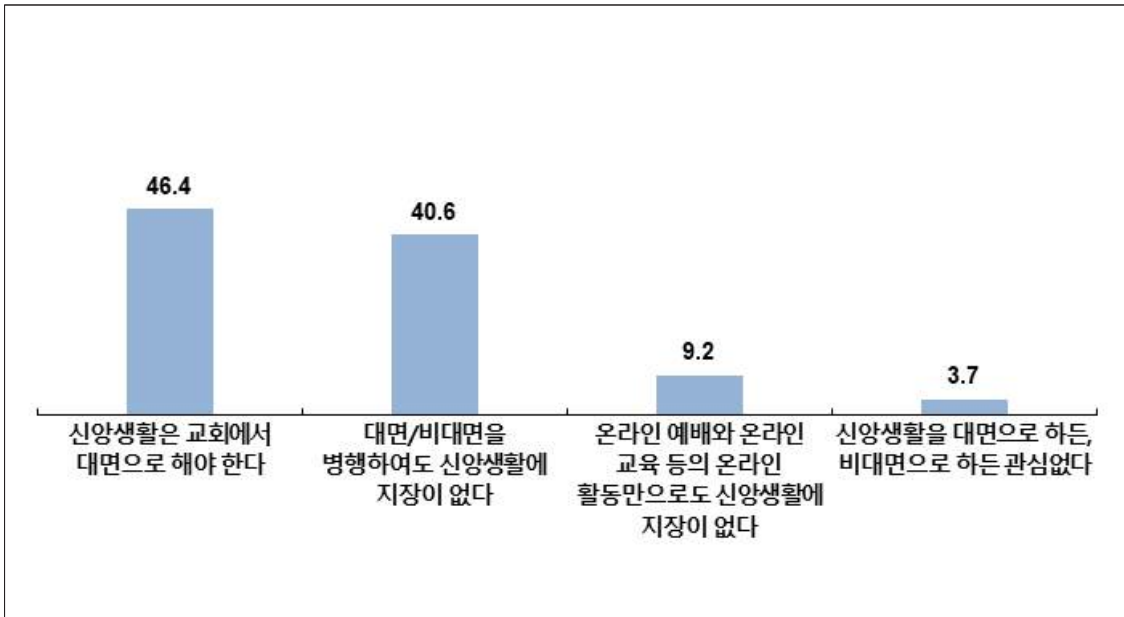
한편, 대면 활동 없이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육 등의 온라인 활동만으로도 신앙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은 9.2%에 그쳤다. 최소한 대면 예배 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교회에서 대면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은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온라인 활동으로도 신앙 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견은 신앙 생활 연수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대면/비대면 신앙 생활에 대한 견해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대면/비대면 신앙 생활에 대한 견해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도 신앙 생활에 지장이 없다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육 등의 온라인 활동만으로도 신앙 생활에 지장이 없다	신앙 생활을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관심없다	계
전체		(1000)	46.4	40.6	9.2	3.7	100.0
성별	남성	(427)	45.7	41.5	8.2	4.6	100.0
	여성	(573)	46.9	40.0	10.0	3.1	100.0
연령	19~29세	(137)	43.4	35.5	15.1	6.1	100.0
	30~39세	(147)	40.3	48.2	6.5	5.0	100.0
	40~49세	(193)	49.4	35.5	11.9	3.2	100.0
	50~59세	(190)	55.1	33.5	7.2	4.2	100.0
	60세 이상	(333)	43.7	46.5	7.6	2.3	100.0
지역	서울	(244)	49.8	38.1	8.2	3.9	100.0
	경기/인천	(347)	43.8	45.9	7.6	2.7	100.0
	대전/충청	(102)	46.9	30.3	16.0	6.8	100.0
	부산/울산/경남	(89)	54.3	35.8	4.8	5.1	100.0
	광주/전라	(120)	41.6	43.2	11.1	4.0	100.0
	대구/경북	(66)	40.2	44.1	15.6	0.0	100.0
	강원/제주	(32)	56.0	31.8	5.0	7.2	100.0
직업	자영업	(122)	45.4	36.7	15.4	2.5	100.0
	화이트칼라	(302)	45.4	41.7	7.7	5.1	100.0
	블루칼라	(156)	43.8	45.0	9.7	1.5	100.0
	주부	(251)	48.1	41.1	8.1	2.6	100.0
	학생	(78)	45.2	35.3	14.6	4.9	100.0
	무직/기타	(91)	52.0	37.8	3.5	6.7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43.6	42.6	8.8	5.1	100.0
	비정규직	(124)	48.7	43.7	7.1	0.5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51.4	36.7	7.1	4.8	100.0
	대재 이상	(794)	45.1	41.7	9.8	3.5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47.3	41.1	8.4	3.2	100.0
	미혼	(232)	43.5	39.0	11.9	5.6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41.1	38.6	13.8	6.5	100.0
	16~25년 이하	(220)	41.9	43.1	12.3	2.8	100.0
	26~35년 이하	(234)	43.1	44.8	7.8	4.3	100.0
	36년 이상	(330)	55.2	37.3	5.2	2.3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63.4	29.5	6.1	1.0	100.0
	주 1~2회	(652)	44.8	43.1	8.3	3.8	100.0
	월 3회 이하	(145)	34.9	42.4	17.6	5.1	100.0
	연 1~3회	(38)	44.6	39.6	6.9	9.0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37.7	48.4	10.1	3.9	100.0
	예장합동	(195)	59.3	31.2	7.0	2.6	100.0
	감리교	(117)	30.3	56.3	10.8	2.5	100.0
	기타장로교	(171)	51.9	37.8	5.0	5.2	100.0
	기타 교단	(173)	53.9	31.4	10.4	4.2	100.0
교인 수	잘 모름	(42)	41.0	34.4	20.7	3.9	100.0
	99명 이하	(261)	45.7	38.9	12.5	2.9	100.0
	100~499명	(306)	45.1	42.7	6.6	5.5	100.0
	500~2999명	(244)	46.8	44.2	6.0	3.0	100.0
	3000명 이상	(189)	49.1	35.0	12.9	3.0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31.5	34.8	17.6	16.1	100.0
	보통	(137)	19.8	50.2	19.9	10.1	100.0
	중요함	(825)	51.5	39.3	7.0	2.1	100.0

4. 코로나19 종식 후 신앙 생활 예상

질문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귀하의 신앙 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단수응답)



코로나19 종식 후의 신앙 생활에 대해, 개신교인 4명 중 3명은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드릴 것'이라고 응답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드리겠다'는 비율은 18.5%,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드리겠다'는 5.8% 응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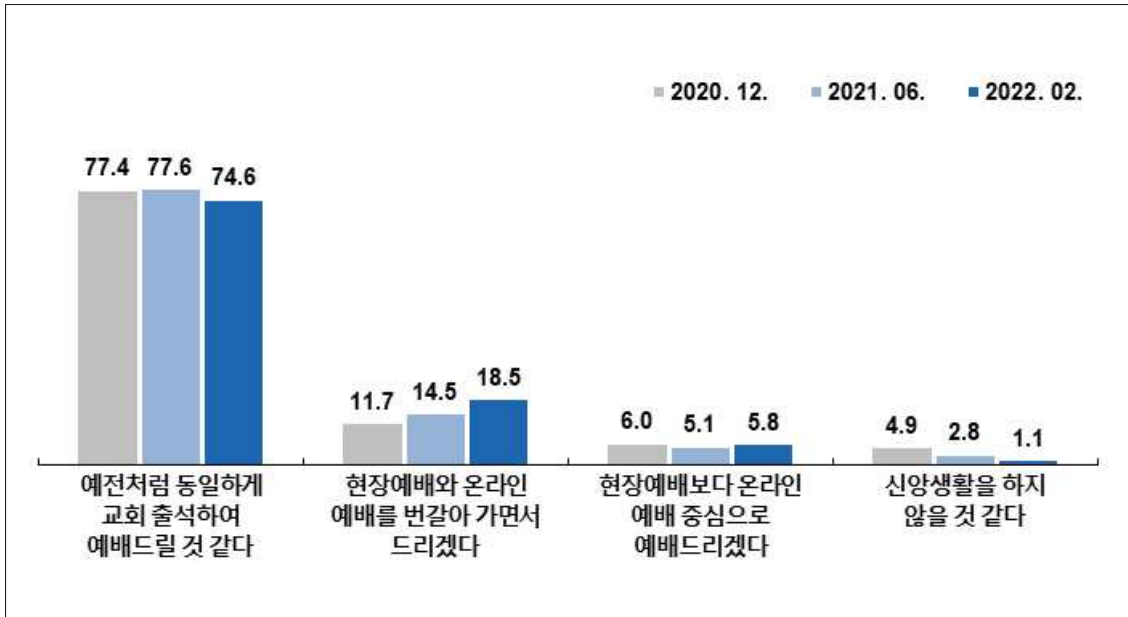
남성은 '현장 예배 중심'을, 여성은 '현장과 온라인 병행'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높으며, '현장 예배 중심'은 50대 이상에서, '현장과 온라인 병행'은 3~4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지만 2~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장 예배 중심'은 신앙 생활 연수 36년 이상과 주 3회 이상 예배 참석 집단에서 가장 높고, '현장과 온라인 병행'은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온라인 중심'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조사에서도 '현장 예배 중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소폭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며, 반면 '현장과 온라인 병행' 비율은 소폭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현장과 온라인 병행' 비율은 2020년 12월 11.7%에서 금번 18.5%로 상승해, 약 1년여 동안 6.8%p, 상승률로는 58%의 상승률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19 종식 후 신앙 생활 예상

(Base=전체, N=1000, 단위 : %)



* 2020.1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및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11.23.

* 2021.06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조사, 2021.6.17.~6.28.

[표] 코로나19 종식 후 신앙 생활 예상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릴 것 같다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겠다	현장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예배드리겠다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계
전체		(1000)	74.6	18.5	5.8	1.1	100.0
성별	남성	(427)	77.8	14.0	6.0	2.2	100.0
	여성	(573)	72.3	21.8	5.6	0.4	100.0
연령	19~29세	(137)	69.4	17.8	9.2	3.6	100.0
	30~39세	(147)	70.0	23.3	4.1	2.6	100.0
	40~49세	(193)	69.6	22.3	8.0	0.0	100.0
	50~59세	(190)	78.8	17.0	3.8	0.5	100.0
	60세 이상	(333)	79.3	15.2	5.0	0.5	100.0
지역	서울	(244)	66.9	25.4	7.0	0.7	100.0
	경기/인천	(347)	75.5	17.5	5.8	1.2	100.0
	대전/충청	(102)	70.6	17.2	8.8	3.4	100.0
	부산/울산/경남	(89)	89.1	9.3	1.7	0.0	100.0
	광주/전라	(120)	76.5	16.7	6.3	0.5	100.0
	대구/경북	(66)	79.6	17.7	0.9	1.8	100.0
	강원/제주	(32)	80.2	13.3	6.5	0.0	100.0
직업	자영업	(122)	76.0	16.3	7.8	0.0	100.0
	화이트칼라	(302)	73.1	19.4	6.1	1.4	100.0
	블루칼라	(156)	79.1	12.2	7.1	1.6	100.0
	주부	(251)	74.2	20.6	5.2	0.0	100.0
	학생	(78)	67.5	22.5	5.3	4.7	100.0
	무직/기타	(91)	77.7	19.5	1.8	1.0	100.0
	정규직	(339)	74.4	17.4	6.1	2.0	100.0
고용 형태	비정규직	(124)	76.1	16.9	7.0	0.0	100.0
	고졸 이하	(206)	78.9	15.2	4.7	1.3	100.0
학력	대재 이상	(794)	73.5	19.3	6.1	1.1	100.0
	기혼	(768)	76.2	17.7	5.4	0.7	100.0
결혼여부	미혼	(232)	69.4	21.0	7.0	2.7	100.0
	15년 이하	(216)	64.6	26.4	7.6	1.5	100.0
신앙 생활 연수	16~25년 이하	(220)	73.9	18.6	6.2	1.3	100.0
	26~35년 이하	(234)	67.4	22.2	8.4	2.1	100.0
	36년 이상	(330)	86.8	10.6	2.5	0.2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84.2	12.3	3.5	0.0	100.0
	주 1~2회	(652)	76.7	17.8	4.6	0.9	100.0
	월 3회 이하	(145)	57.4	29.5	11.0	2.1	100.0
	연 1~3회	(38)	63.0	13.8	16.5	6.8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68.5	25.4	5.5	0.6	100.0
	예장합동	(195)	80.9	14.9	3.9	0.3	100.0
	감리교	(117)	71.3	14.5	12.0	2.2	100.0
	기타장로교	(171)	77.7	17.4	3.7	1.2	100.0
	기타 교단	(173)	79.1	14.0	5.4	1.4	100.0
	잘 모름	(42)	68.3	18.7	9.1	3.8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78.6	14.4	6.1	0.9	100.0
	100~499명	(306)	72.2	23.6	3.4	0.8	100.0
	500~2999명	(244)	72.9	19.1	5.6	2.3	100.0
	3000명 이상	(189)	75.2	14.9	9.4	0.4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52.2	27.4	7.8	12.5	100.0
	보통	(137)	50.1	31.0	15.0	3.9	100.0
	중요함	(825)	79.7	16.0	4.2	0.1	100.0

Part2. 코로나19와 영성

I

코로나19 상황 속 출석 교회 평가

1. 코로나19 기간 중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평가

질문

코로나 기간 동안 귀하는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코로나19 기간 동안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36.6%가 '보통', 32.5%가 '그렇지 않다', 30.9%가 '그렇다'고 응답해,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개신교인이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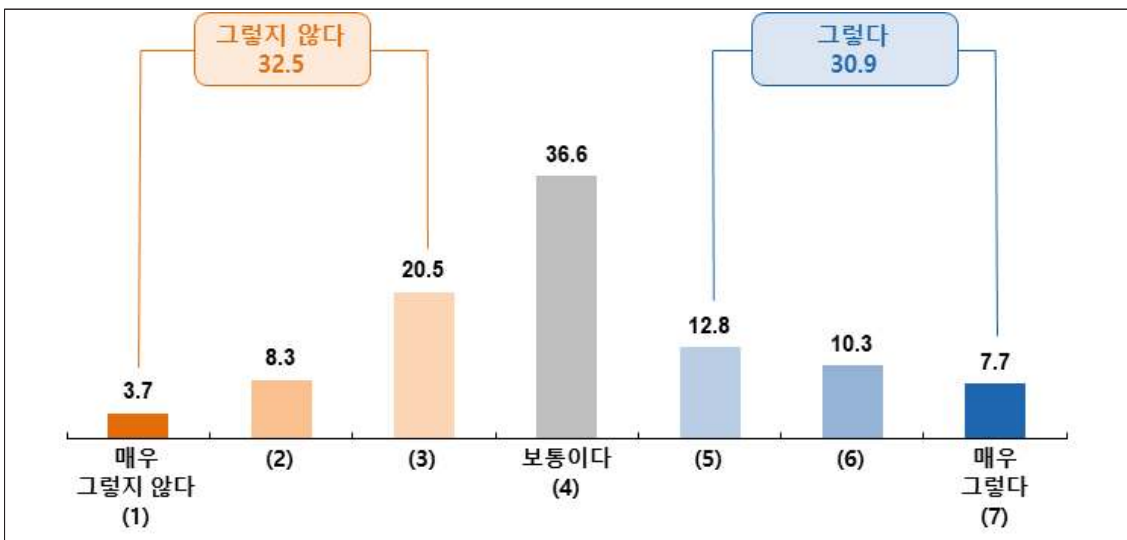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낮고 기타 연령층에서는 30% 이상 응답됐다. 또한 신앙 생활 연수가 15년 이하로 짧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응답돼, 신앙 생활 기간이 길지 않고 연령이 낮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지도와 돌봄에 더 갈증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예배 참석 빈도별로는,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그렇다'(잘 이루어졌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예배에 자주 참석하는 만큼 목회자와의 접촉이 많았을 것이므로 이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한편, 교회 규모별로는 교인 수 99명 이하의 소형교회에서 '그렇지 않다'(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100명 이상 교회에서 '그렇다'(잘 이루어졌다) 비율이 높았다. 이는 비대면이 주가 될 수 밖에 없는 팬데믹 시대에, 소형교회는 온라인 시스템을 비롯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p.13 참고 : 99명 이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불만족 이유로 '디지털 기기의 불편함'과 '교회의 온라인 시스템 불안정' 높게 응답됨)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평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평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 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체		(1000)	3.7	8.3	20.5	36.6	12.8	10.3	7.7	100.0	32.5	36.6	30.9
성별	남성	(427)	2.2	7.1	22.1	37.8	12.5	9.9	8.4	100.0	31.4	37.8	30.8
	여성	(573)	4.8	9.2	19.3	35.7	13.1	10.7	7.2	100.0	33.3	35.7	31.0
연령	19~29세	(137)	3.1	10.4	22.5	37.4	9.7	10.3	6.6	100.0	36.0	37.4	26.6
	30~39세	(147)	1.6	8.1	25.1	33.1	11.2	11.2	9.7	100.0	34.8	33.1	32.1
	40~49세	(193)	5.4	8.8	17.3	34.7	13.1	9.8	10.9	100.0	31.6	34.7	33.8
	50~59세	(190)	4.1	9.3	22.6	38.0	12.6	11.4	1.9	100.0	36.0	38.0	26.0
	60세 이상	(333)	3.6	6.7	18.4	38.1	14.8	9.7	8.7	100.0	28.6	38.1	33.3
지역	서울	(244)	6.1	7.1	26.4	30.1	16.5	8.2	5.5	100.0	39.7	30.1	30.2
	경기/인천	(347)	2.9	7.4	18.3	38.1	12.0	12.6	8.7	100.0	28.6	38.1	33.3
	대전/충청	(102)	3.6	9.4	16.2	41.0	12.9	12.0	5.0	100.0	29.1	41.0	29.9
	부산/울산/경남	(89)	2.9	6.6	20.4	33.9	10.8	14.4	11.0	100.0	29.9	33.9	36.2
	광주/전라	(120)	1.0	10.0	22.3	34.6	13.4	7.3	11.5	100.0	33.2	34.6	32.2
	대구/경북	(66)	3.9	14.8	16.4	46.8	8.7	5.5	3.9	100.0	35.1	46.8	18.1
	강원/제주	(32)	6.2	8.6	15.7	49.5	6.2	7.1	6.8	100.0	30.4	49.5	20.0
직업	자영업	(122)	5.6	10.7	24.4	29.3	14.3	6.8	8.8	100.0	40.8	29.3	30.0
	화이트칼라	(302)	3.4	7.8	20.1	36.8	13.2	11.3	7.4	100.0	31.3	36.8	31.9
	블루칼라	(156)	4.1	8.1	14.1	45.2	10.3	8.9	9.3	100.0	26.3	45.2	28.5
	주부	(251)	4.1	7.4	22.8	35.0	15.3	9.5	5.9	100.0	34.3	35.0	30.7
	학생	(78)	3.2	11.0	23.5	35.9	10.9	9.5	6.1	100.0	37.7	35.9	26.4
	무직/기타	(91)	0.7	7.2	18.8	36.0	8.9	17.5	10.9	100.0	26.7	36.0	37.3
고용 형태	정규직	(339)	3.0	7.0	20.4	42.7	11.1	9.5	6.4	100.0	30.4	42.7	27.0
	비정규직	(124)	5.2	10.8	10.9	31.9	15.4	12.8	12.9	100.0	26.9	31.9	41.2
학력	고졸 이하	(206)	5.3	4.7	12.0	44.8	12.2	7.7	13.3	100.0	21.9	44.8	33.2
	대재 이상	(794)	3.3	9.3	22.7	34.5	13.0	11.0	6.3	100.0	35.3	34.5	30.3
결혼여부	기혼	(768)	4.1	7.7	20.6	36.6	13.5	10.2	7.3	100.0	32.3	36.6	31.1
	미혼	(232)	2.4	10.4	20.3	36.7	10.6	10.7	9.0	100.0	33.1	36.7	30.3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1.1	10.7	32.8	27.9	8.2	10.2	9.2	100.0	44.5	27.9	27.6
	16~25년 이하	(220)	3.4	4.5	15.8	41.6	15.3	13.2	6.2	100.0	23.7	41.6	34.7
	26~35년 이하	(234)	5.5	7.4	18.7	37.7	15.4	8.0	7.3	100.0	31.6	37.7	30.7
	36년 이상	(330)	4.3	9.9	16.9	38.2	12.4	10.2	8.0	100.0	31.2	38.2	30.6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4.6	9.9	21.3	28.8	8.1	14.5	12.8	100.0	35.9	28.8	35.3
	주 1~2회	(652)	2.8	8.6	19.5	38.9	12.6	10.5	7.1	100.0	30.9	38.9	30.2
	월 3회 이하	(145)	5.1	6.9	23.4	34.3	18.7	6.2	5.4	100.0	35.3	34.3	30.4
	연 1~3회	(38)	10.2	1.8	23.7	39.6	14.2	5.1	5.4	100.0	35.7	39.6	24.7
교단	예장통합	(302)	6.1	6.5	22.3	38.6	12.0	9.6	4.9	100.0	35.0	38.6	26.5
	예장합동	(195)	3.4	8.9	22.0	37.1	13.9	8.5	6.3	100.0	34.3	37.1	28.6
	감리교	(117)	2.2	8.6	14.3	41.0	12.3	13.7	7.9	100.0	25.1	41.0	33.9
	기타장로교	(171)	2.5	6.0	24.5	34.6	11.2	9.3	11.9	100.0	33.1	34.6	32.3
	기타 교단	(173)	2.6	11.4	17.7	32.5	12.0	12.6	11.1	100.0	31.7	32.5	35.7
	잘 모름	(42)	1.5	13.6	13.2	32.8	26.3	9.7	2.8	100.0	28.4	32.8	38.9
교인 수	99명 이하	(261)	5.3	8.3	22.9	36.0	10.4	8.1	8.9	100.0	36.5	36.0	27.5
	100~499명	(306)	2.3	8.4	21.7	35.9	12.3	11.1	8.3	100.0	32.4	35.9	31.7
	500~2999명	(244)	2.5	8.1	19.6	37.5	17.1	10.7	4.6	100.0	30.1	37.5	32.4
	3000명 이상	(189)	5.3	8.6	16.4	37.4	11.4	11.7	9.1	100.0	30.3	37.4	32.3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5.9	5.5	12.9	36.4	17.9	12.2	9.2	100.0	24.3	36.4	39.3
	보통	(137)	3.4	4.4	20.5	53.4	8.9	7.4	1.9	100.0	28.4	53.4	18.2
	중요함	(825)	3.6	9.1	20.9	33.8	13.3	10.7	8.6	100.0	33.6	33.8	32.6

2. 목회자에게 받은 영적 지도와 돌봄

질문

코로나 기간 동안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면, 귀하는 어떤 영적 지도와 돌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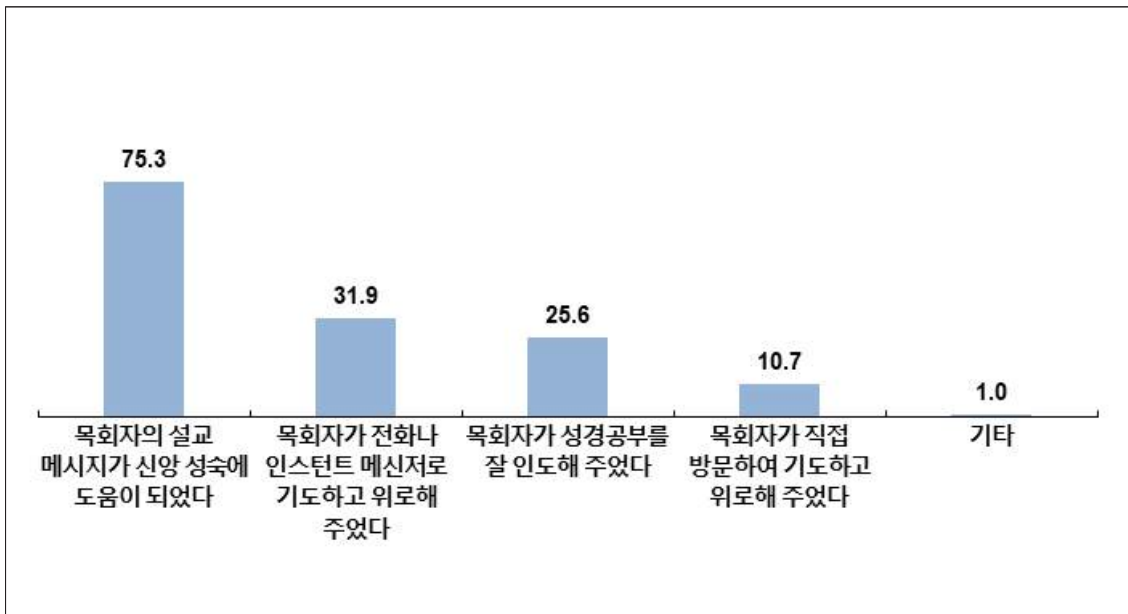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 동안 목회자에게 받은 영적 지도와 돌봄의 내용으로는 4명 중 3명이 '목회자의 설교 메시지가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돌봄을 느낀 개신교인이 가장 많았다. '목회자가 전화나 인스턴트 메시지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31.9%, '목회자가 성경공부를 잘 인도해 주었다'는 25.6%, '목회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는 10.7%로 나타났다.

남성은 '목회자의 설교'와 '성경공부 인도' 등 신앙 활동 부분에서 돌봄을 많이 느꼈고, 여성은 '전화나 메시지로 기도/위로', 즉 소통을 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돌봄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화나 메시지로 기도/위로'는 교인 수 99명 이하 교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접 방문하여 기도/위로' 역시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응답되었다. 규모가 작은 만큼 목회자가 교인 개개인과 직접 소통하며 지도하고 돌보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한편, '목회자가 성경공부를 잘 인도해 주었다'는 응답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그림] 목회자에게 받은 영적 지도와 돌봄

(Base=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잘 이루어짐, N=309, 단위 : %)



[표] 목회자에게 받은 영적 지도와 돌봄 (응답자 특성별)

(Base=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 잘 이루어짐, N=309,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목회자의 설교 메시지가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	목회자가 전화나 인스턴트 메신저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	목회자가 성경공부를 잘 인도해 주었다	목회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	기타
전체		(309)	75.3	31.9	25.6	10.7	1.0
성별	남성	(131)	80.4	26.5	29.3	12.3	1.4
	여성	(177)	71.4	36.0	22.9	9.6	0.7
연령	19~29세	(36)	70.6	41.1	32.1	30.7	3.6
	30~39세	(47)	76.8	17.1	32.8	10.4	0.0
	40~49세	(65)	72.3	29.2	29.1	9.5	1.9
	50~59세	(49)	86.6	31.1	19.5	9.3	1.0
	60세 이상	(111)	72.9	37.2	21.1	5.7	0.0
지역	서울	(74)	84.5	22.3	23.1	7.7	1.7
	경기/인천	(116)	79.2	30.9	23.3	8.8	0.4
	대전/충청	(30)	50.2	47.8	33.6	20.3	4.3
	부산/울산/경남	(32)	70.3	39.6	38.9	14.4	0.0
	광주/전라	(39)	70.4	35.6	28.2	14.5	0.0
	대구/경북	(12)	80.0	23.5	3.2	7.6	0.0
	강원/제주	(6)	61.9	39.5	15.8	0.0	0.0
직업	자영업	(37)	74.0	31.6	29.6	13.7	0.0
	화이트칼라	(96)	76.2	33.9	28.5	12.5	1.8
	블루칼라	(44)	74.9	29.2	21.0	4.2	0.0
	주부	(77)	75.3	32.0	22.1	5.8	0.0
	학생	(21)	76.6	29.8	23.6	23.7	6.4
고용 형태	무직/기타	(34)	73.7	31.5	28.2	14.5	0.0
	정규직	(91)	74.6	33.8	35.7	13.9	0.7
학력	비정규직	(51)	78.7	28.8	8.0	2.4	2.2
	고졸 이하	(69)	86.1	23.2	27.1	7.2	0.0
결혼여부	대제 이상	(240)	72.2	34.4	25.2	11.7	1.3
	기혼	(239)	75.1	32.5	25.1	8.3	0.5
신앙 생활 연수	미혼	(70)	75.7	30.1	27.2	19.0	2.7
	15년 이하	(60)	70.3	25.9	34.7	17.8	0.0
	16~25년 이하	(76)	76.9	24.8	29.1	15.7	1.7
	26~35년 이하	(72)	78.0	24.1	19.4	0.5	0.7
예배 참석 빈도	36년 이상	(101)	75.1	46.5	22.0	10.1	1.2
	주 3회 이상	(58)	78.6	34.6	30.5	14.0	0.0
	주 1~2회	(197)	79.9	33.4	24.4	10.7	0.3
	월 3회 이하	(44)	60.6	14.0	25.8	7.8	5.8
교단	연 1~3회	(9)	26.5	69.3	19.1	4.2	0.0
	예장통합	(80)	71.4	28.4	26.7	14.4	0.0
	예장합동	(56)	84.1	35.8	12.5	9.8	2.2
	감리교	(40)	70.7	30.1	39.2	9.9	0.0
	기타장로교	(55)	74.3	34.1	31.9	11.1	2.4
	기타 교단	(62)	79.7	31.4	21.4	7.5	0.0
교인 수	잘 모름	(16)	61.8	35.1	25.7	9.0	3.1
	99명 이하	(72)	71.2	42.4	20.9	15.6	1.8
	100~499명	(97)	81.6	24.9	22.8	13.6	0.0
	500~2999명	(79)	69.8	36.6	22.9	8.8	1.4
	3000명 이상	(61)	77.1	24.7	39.0	2.9	1.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5)	87.7	18.2	17.5	21.9	0.0
	보통	(25)	41.1	33.2	39.8	11.0	5.3
	중요함	(269)	77.8	32.6	24.7	10.1	0.6

3. 코로나19 기간 중 교인 간 사귄과 돌봄 평가

질문

코로나 기간 동안 평신도 교인 간 사귄과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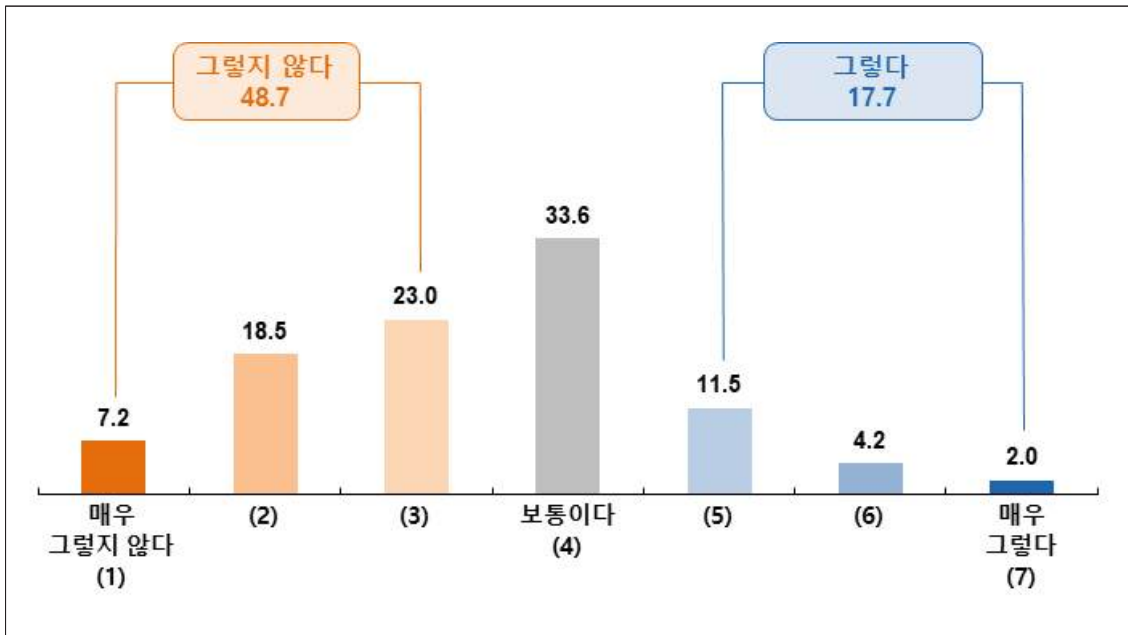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인 간 사귄과 돌봄에 대해 '그렇지 않다'(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48.7%로 절반 가까이 나타났으며, '보통'은 33.6%, '그렇다'(잘 이루어졌다)는 17.7% 응답되었다. 개신교인 6명 중 1명만이 팬데믹 기간 중 교인 간 사귄과 돌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교인 간 사귄과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는 비율은 2~3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온라인을 통한 교제에 익숙한 젊은 연령층이기에 교제 공백을 상대적으로 덜 느낀 것으로 보인다.

예배 참석 빈도별로는 연 1~3회 참석 집단을 제외한, 상대적으로 자주 참석하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다'(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율이 높았으며, 교인 수 3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에서 교인 간 사귄/돌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교인 간 사귄과 돌봄 평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교인 간 사귄다와 돌봄 평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 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체		(1000)	7.2	18.5	23.0	33.6	11.5	4.2	2.0	100.0	48.7	33.6	17.7
성별	남성	(427)	7.2	16.7	23.3	35.2	12.0	3.0	2.7	100.0	47.1	35.2	17.7
	여성	(573)	7.2	19.8	22.9	32.5	11.1	5.1	1.5	100.0	49.9	32.5	17.7
연령	19~29세	(137)	4.1	14.7	21.6	38.9	13.6	5.2	1.9	100.0	40.4	38.9	20.7
	30~39세	(147)	5.0	11.5	28.3	32.0	13.5	6.4	3.3	100.0	44.8	32.0	23.2
	40~49세	(193)	12.5	15.3	21.5	31.1	10.8	4.5	4.3	100.0	49.3	31.1	19.6
	50~59세	(190)	5.2	24.0	29.3	25.4	13.0	2.0	1.1	100.0	58.5	25.4	16.1
	60세 이상	(333)	7.5	21.8	18.6	38.3	9.2	4.0	0.6	100.0	47.9	38.3	13.8
지역	서울	(244)	9.8	17.7	20.6	33.2	13.8	3.7	1.1	100.0	48.2	33.2	18.6
	경기/인천	(347)	5.9	17.3	28.7	31.8	9.7	4.1	2.6	100.0	51.8	31.8	16.3
	대전/충청	(102)	5.9	23.5	11.3	40.2	13.0	4.8	1.2	100.0	40.8	40.2	19.0
	부산/울산/경남	(89)	7.3	14.9	24.1	32.1	13.1	6.1	2.3	100.0	46.4	32.1	21.5
	광주/전라	(120)	1.0	24.7	20.7	36.4	12.0	2.4	3.0	100.0	46.3	36.4	17.4
	대구/경북	(66)	13.0	19.4	28.3	27.0	8.0	2.1	2.2	100.0	60.7	27.0	12.4
	강원/제주	(32)	16.5	5.3	12.5	43.1	9.4	13.3	0.0	100.0	34.3	43.1	22.6
직업	자영업	(122)	11.3	25.6	24.1	32.0	5.0	2.0	0.0	100.0	61.0	32.0	7.0
	화이트칼라	(302)	5.6	16.2	22.9	33.4	14.6	4.7	2.6	100.0	44.7	33.4	21.9
	블루칼라	(156)	7.4	9.6	26.2	40.9	7.6	3.6	4.7	100.0	43.2	40.9	15.9
	주부	(251)	8.2	23.2	23.4	26.8	12.6	5.3	0.5	100.0	54.8	26.8	18.4
	학생	(78)	5.3	17.7	15.4	38.6	17.7	3.9	1.4	100.0	38.5	38.6	23.0
	무직/기타	(91)	5.2	19.2	22.3	38.8	8.0	3.8	2.7	100.0	46.7	38.8	14.5
고용 형태	정규직	(339)	5.7	15.7	23.1	36.1	11.8	4.6	3.1	100.0	44.4	36.1	19.5
	비정규직	(124)	7.4	9.2	26.5	35.4	13.6	4.2	3.8	100.0	43.0	35.4	21.6
학력	고졸 이하	(206)	12.1	15.1	20.1	39.7	7.2	1.6	4.3	100.0	47.3	39.7	13.1
	대재 이상	(794)	5.9	19.4	23.8	32.1	12.6	4.9	1.4	100.0	49.1	32.1	18.9
결혼여부	기혼	(768)	8.2	20.3	22.6	31.9	11.0	3.9	2.0	100.0	51.1	31.9	16.9
	미혼	(232)	3.9	12.5	24.4	39.1	12.9	5.2	2.1	100.0	40.7	39.1	20.1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3.8	19.8	31.7	26.2	11.1	5.2	2.3	100.0	55.2	26.2	18.6
	16~25년 이하	(220)	5.4	15.1	20.8	37.8	13.6	5.6	1.7	100.0	41.4	37.8	20.9
	26~35년 이하	(234)	9.5	18.6	22.9	34.4	10.2	2.2	2.2	100.0	51.0	34.4	14.6
	36년 이상	(330)	9.0	19.8	18.9	35.2	11.2	4.1	1.9	100.0	47.7	35.2	17.2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6.5	21.8	24.3	25.6	12.2	4.6	5.0	100.0	52.6	25.6	21.8
	주 1~2회	(652)	7.1	17.7	23.2	35.3	11.0	4.3	1.4	100.0	48.0	35.3	16.7
	월 3회 이하	(145)	8.5	21.2	21.1	32.3	13.2	2.6	1.2	100.0	50.8	32.3	16.9
	연 1~3회	(38)	6.9	6.1	22.2	45.1	10.6	7.3	1.7	100.0	35.3	45.1	19.6
교단	예장통합	(302)	9.0	18.2	22.6	35.8	10.0	3.7	0.7	100.0	49.8	35.8	14.4
	예장합동	(195)	8.7	22.5	26.1	26.6	13.2	2.4	0.6	100.0	57.2	26.6	16.1
	감리교	(117)	7.5	15.7	14.7	45.5	9.7	2.7	4.2	100.0	37.9	45.5	16.6
	기타장로교	(171)	4.6	17.9	19.1	33.6	15.4	6.1	3.4	100.0	41.6	33.6	24.9
	기타 교단	(173)	5.3	17.9	27.1	29.7	9.8	7.1	3.1	100.0	50.3	29.7	20.0
	잘 모름	(42)	5.1	13.9	34.7	33.4	10.3	1.1	1.5	100.0	53.7	33.4	12.9
교인 수	99명 이하	(261)	7.8	12.5	24.8	35.9	12.5	3.8	2.7	100.0	45.1	35.9	19.1
	100~499명	(306)	8.5	18.5	22.2	31.3	12.7	5.3	1.6	100.0	49.2	31.3	19.5
	500~2999명	(244)	3.0	23.1	21.9	36.5	10.5	3.5	1.5	100.0	48.0	36.5	15.5
	3000명 이상	(189)	9.6	20.7	23.4	30.5	9.3	4.0	2.4	100.0	53.8	30.5	15.7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7.2	13.9	29.5	24.2	20.1	3.1	2.1	100.0	50.5	24.2	25.3
	보통	(137)	7.8	17.4	20.1	39.0	12.4	2.2	1.0	100.0	45.4	39.0	15.6
	중요함	(825)	7.1	18.9	23.2	33.1	10.9	4.6	2.2	100.0	49.2	33.1	17.7

4. 코로나19 기간 중 경험한 사감과 돌봄

질문

코로나 기간 동안 평신도 교인 상호간 사감과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면, 귀하는 사감과 돌봄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험한 교인 간 사감과 돌봄으로는 ‘가까운 교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위안을 얻음’이 62.4%로 가장 높았고, ‘소그룹 리더가 전화/메시지로 기도/위로’ 40.7%, ‘소그룹 리더가 직접 방문하여 기도/위로’ 19.4%, ‘어려움 겪을 때 교인이 직접 찾아와 물질적 도움 줌’ 15.3%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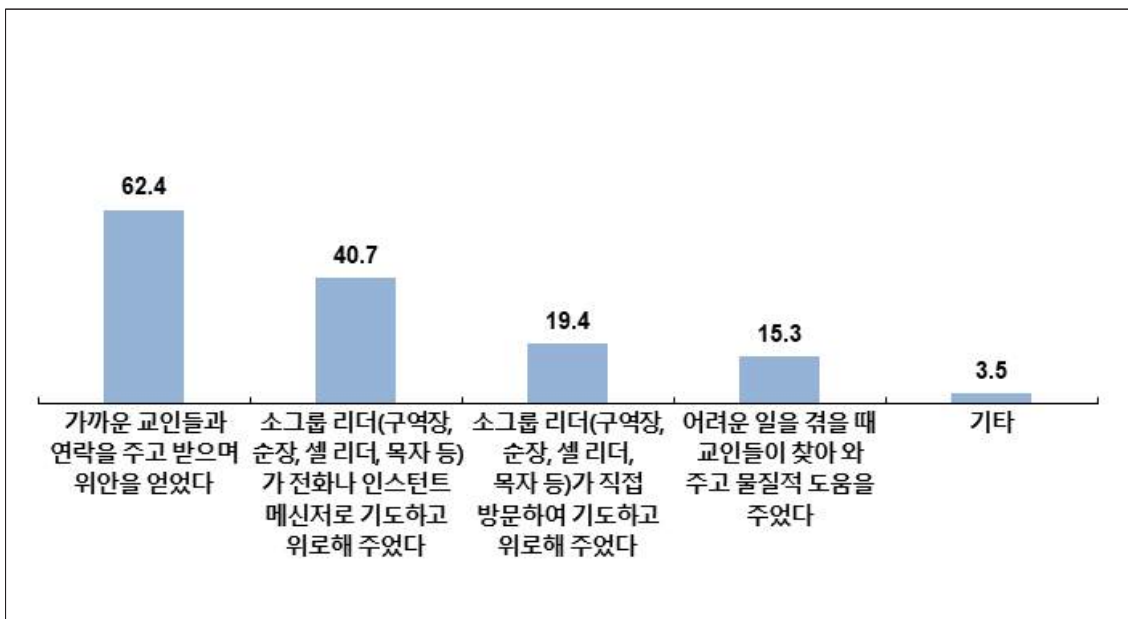
남성은 ‘소그룹 리더의 직접 방문 기도/위로’와 ‘어려울 때 직접 도움 줌’을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했고, 여성은 ‘소그룹 리더의 전화/메시지 기도/위로’를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했다.

또한, ‘가까운 교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위안’은 19~29세에서 가장 높아, 20대가 팬데믹 속에서도 소통과 교제가 가장 활발한 연령대임을 알 수 있으며(사례수 30 미만이므로 해석 시 주의), ‘어려울 때 직접 도움을 줬다’는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그룹 리더의 전화/메시지를 통한 기도/위로’ 응답율은 교인 수 500이상 교회에서 월등히 높아, 교회 규모가 클수록 소그룹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했음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경험한 사감과 돌봄

(Base=교인 간 사감과 돌봄 잘 이루어짐, N=177,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경험한 사감과 돌봄 (응답자 특성별)

(Base=교인 간 사감과 돌봄 잘 이루어짐, N=177,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가까운 교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위안을 얻었다	소그룹 리더(구역장, 순장, 셀 리더, 목자 등)가 전화나 인스턴트 메신저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	소그룹 리더(구역장, 순장, 셀 리더, 목자 등)가 직접 방문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교인들이 찾아 와 주고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	기타
전체		(177)	62.4	40.7	19.4	15.3	3.5
성별	남성	(76)	62.1	38.7	24.4	26.5	1.6
	여성	(101)	62.6	42.2	15.6	7.0	4.9
연령	19~29세	(28)	72.1	36.6	25.5	12.0	0.0
	30~39세	(34)	45.0	42.3	21.0	12.9	3.4
	40~49세	(38)	68.8	47.0	10.7	12.3	4.9
	50~59세	(31)	61.7	37.0	21.8	14.8	0.0
	60세 이상	(46)	64.4	39.3	19.9	22.1	6.8
지역	서울	(45)	68.7	48.9	12.7	7.6	7.6
	경기/인천	(57)	53.8	39.8	21.4	18.0	4.8
	대전/충청	(19)	72.5	34.9	19.8	4.9	0.0
	부산/울산/경남	(19)	53.5	68.7	32.7	23.4	0.0
	광주/전라	(21)	62.7	20.0	14.7	14.2	0.0
	대구/경북	(8)	55.5	7.1	33.7	10.8	0.0
	강원/제주	(7)	93.5	34.9	6.5	58.6	0.0
직업	자영업	(9)	36.1	0.0	63.9	0.0	0.0
	화이트칼라	(66)	60.0	48.4	22.4	9.7	4.6
	블루칼라	(25)	69.3	25.9	17.8	53.4	0.0
	주부	(46)	57.1	46.9	12.1	3.1	6.8
	학생	(18)	78.6	30.1	0.0	0.0	0.0
고용 형태	무직/기타	(13)	74.3	48.6	30.2	45.4	0.0
	정규직	(66)	60.4	51.1	22.9	13.2	3.6
학력	비정규직	(27)	70.5	17.7	15.5	41.1	2.3
	고졸 이하	(27)	68.0	41.3	14.2	31.9	2.3
결혼여부	대재 이상	(150)	61.4	40.6	20.3	12.4	3.7
	기혼	(130)	58.8	42.9	18.8	16.3	3.8
신앙 생활 연수	미혼	(47)	72.4	34.6	21.0	12.7	2.6
	15년 이하	(40)	61.1	23.2	17.3	14.4	5.7
	16~25년 이하	(46)	57.8	56.0	26.5	13.6	0.0
	26~35년 이하	(34)	75.6	39.7	10.7	8.5	3.4
예배 참석 빈도	36년 이상	(57)	59.0	41.3	20.3	21.6	4.8
	주 3회 이상	(36)	57.5	50.0	28.9	14.8	3.3
	주 1~2회	(109)	62.0	43.3	20.5	17.5	2.1
	월 3회 이하	(25)	70.0	14.8	6.5	9.6	11.0
교단	연 1~3회	(7)	65.7	43.0	0.0	5.2	0.0
	예장통합	(44)	69.7	40.1	18.9	9.1	6.2
	예장합동	(31)	58.3	27.4	27.2	26.4	1.9
	감리교	(19)	61.1	50.0	7.6	18.3	0.0
	기타장로교	(42)	60.4	39.2	14.4	17.6	1.4
	기타 교단	(35)	59.1	49.9	25.7	11.3	6.5
교인 수	잘 모름	(5)	67.3	43.0	19.0	0.0	0.0
	99명 이하	(50)	58.3	23.9	23.7	25.6	4.5
	100~499명	(60)	78.2	36.4	15.8	18.7	1.1
	500~2999명	(38)	53.1	61.1	12.0	4.5	1.5
	3000명 이상	(30)	49.0	51.3	28.8	5.3	9.2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0)	57.7	23.2	32.9	18.7	6.6
	보통	(21)	67.7	35.7	6.4	10.1	0.0
	중요함	(146)	61.9	42.6	20.4	15.9	3.8

5.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의 성경공부 평가

질문

코로나 기간 동안 귀하의 교회에서는 성경공부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코로나19 기간 동안 성경공부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그렇지 않다', 36.3%가 '그렇다', 21.9%가 '그렇다'고 응답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만 교회의 성경공부는 교인 간 사귀고 돌봄(17.7%) 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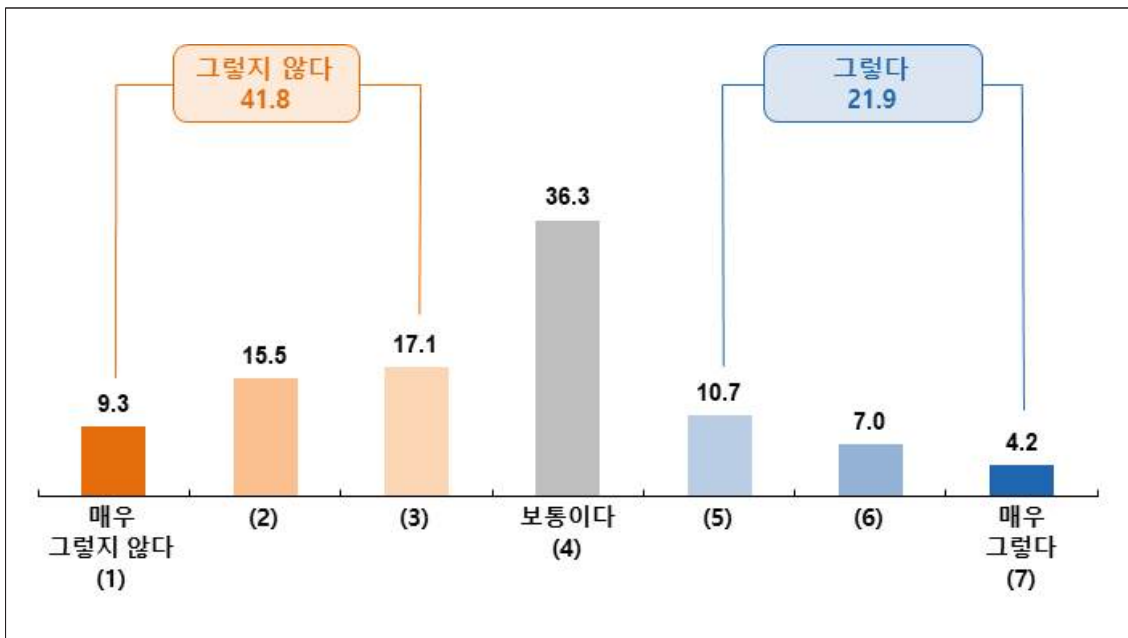
성경공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컸으며,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30대 이하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인 수 100~2999명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많고, 교인 수 30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앞서 목회자에게 받은 영적 지도와 돌봄 내용 중 '목회자가 성경공부를 잘 인도해 주었다'는 응답도 3000명 이상 대형 교회에서 가장 높았는데, 비대면 시스템 및 교육 시스템의 구축 차이에서 온 결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의 성경공부 평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의 성경공부 평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그렇지 않다 (1)	(2)	(3)	보통 이다 (4)	(5)	(6)	매우 그렇다 (7)	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전체		(1000)	9.3	15.5	17.1	36.3	10.7	7.0	4.2	100.0	41.8	36.3	21.9
성별	남성	(427)	7.4	13.1	16.1	43.2	10.7	6.0	3.6	100.0	36.6	43.2	20.2
	여성	(573)	10.6	17.3	17.8	31.2	10.7	7.7	4.7	100.0	45.7	31.2	23.1
연령	19~29세	(137)	5.6	10.9	13.4	50.0	11.8	5.8	2.5	100.0	29.9	50.0	20.1
	30~39세	(147)	3.0	10.5	15.5	44.9	8.9	10.7	6.5	100.0	29.0	44.9	26.0
	40~49세	(193)	14.7	11.3	18.4	31.3	13.3	5.9	5.1	100.0	44.4	31.3	24.3
	50~59세	(190)	7.9	17.7	22.5	32.4	13.1	3.6	2.9	100.0	48.1	32.4	19.5
	60세 이상	(333)	11.2	20.8	15.4	32.0	8.1	8.4	4.2	100.0	47.3	32.0	20.7
지역	서울	(244)	9.4	12.1	15.6	38.0	14.1	8.3	2.5	100.0	37.1	38.0	24.9
	경기/인천	(347)	7.7	18.1	20.8	33.0	8.6	8.2	3.7	100.0	46.5	33.0	20.5
	대전/충청	(102)	9.1	24.5	12.5	32.1	13.3	6.3	2.2	100.0	46.1	32.1	21.9
	부산/울산/경남	(89)	7.8	17.5	16.8	31.9	8.6	10.9	6.5	100.0	42.1	31.9	26.0
	광주/전라	(120)	11.7	9.3	19.4	44.0	6.5	2.8	6.2	100.0	40.5	44.0	15.5
	대구/경북	(66)	8.7	14.4	13.1	35.4	15.0	2.2	11.2	100.0	36.1	35.4	28.4
	강원/제주	(32)	21.7	5.3	2.5	58.3	10.7	0.0	1.5	100.0	29.5	58.3	12.2
직업	자영업	(122)	10.7	26.0	17.6	28.8	5.6	5.6	5.7	100.0	54.3	28.8	16.9
	화이트칼라	(302)	7.7	11.9	17.1	37.9	14.9	5.8	4.7	100.0	36.7	37.9	25.4
	블루칼라	(156)	4.3	13.2	10.1	43.9	13.6	7.7	7.2	100.0	27.6	43.9	28.5
	주부	(251)	14.2	17.9	21.4	29.5	7.2	7.3	2.3	100.0	53.6	29.5	16.9
	학생	(78)	6.4	11.7	15.6	49.6	10.8	4.5	1.5	100.0	33.6	49.6	16.7
	무직/기타	(91)	9.5	14.2	17.3	35.3	7.8	12.7	3.3	100.0	40.9	35.3	23.8
고용 형태	정규직	(339)	7.2	11.4	14.7	43.6	14.9	4.8	3.5	100.0	33.2	43.6	23.2
	비정규직	(124)	5.5	15.1	14.6	29.6	12.8	10.9	11.5	100.0	35.2	29.6	35.2
학력	고졸 이하	(206)	12.8	14.3	18.7	33.9	8.4	8.4	3.6	100.0	45.7	33.9	20.4
	대졸 이상	(794)	8.3	15.8	16.6	36.9	11.3	6.6	4.4	100.0	40.8	36.9	22.3
결혼여부	기혼	(768)	10.6	16.3	17.8	33.2	10.4	7.3	4.4	100.0	44.7	33.2	22.1
	미혼	(232)	4.7	13.0	14.6	46.6	11.6	5.9	3.6	100.0	32.4	46.6	21.1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3.3	12.3	21.0	37.9	9.9	9.4	6.3	100.0	36.6	37.9	25.6
	16~25년 이하	(220)	8.4	12.8	13.6	36.5	16.1	8.5	4.1	100.0	34.8	36.5	28.7
	26~35년 이하	(234)	7.8	16.1	16.1	39.2	11.3	5.8	3.7	100.0	40.0	39.2	20.8
	36년 이상	(330)	14.7	19.0	17.5	33.2	7.2	5.2	3.3	100.0	51.2	33.2	15.7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12.5	16.8	22.3	25.2	6.6	7.3	9.3	100.0	51.5	25.2	23.3
	주 1~2회	(652)	9.1	15.7	14.5	38.0	10.7	8.1	3.8	100.0	39.4	38.0	22.6
	월 3회 이하	(145)	6.9	14.6	22.5	36.8	16.1	2.3	0.7	100.0	44.1	36.8	19.1
	연 1~3회	(38)	6.6	9.4	17.2	53.3	7.4	4.4	1.7	100.0	33.2	53.3	13.5
교단	예장통합	(302)	6.4	16.0	17.7	36.7	14.9	7.0	1.3	100.0	40.1	36.7	23.2
	예장합동	(195)	15.5	15.8	18.4	37.7	7.0	3.5	2.1	100.0	49.7	37.7	12.6
	감리교	(117)	13.3	20.2	10.0	38.8	6.1	10.6	1.1	100.0	43.4	38.8	17.7
	기타장로교	(171)	9.4	10.8	23.0	32.9	11.0	8.1	4.9	100.0	43.2	32.9	23.9
	기타 교단	(173)	6.2	19.6	13.9	29.5	10.0	8.2	12.5	100.0	39.7	29.5	30.8
	잘 모름	(42)	1.5	0.0	14.7	61.5	11.9	3.6	6.9	100.0	16.1	61.5	22.4
교인 수	99명 이하	(261)	11.9	13.2	13.6	41.0	11.2	6.3	2.8	100.0	38.7	41.0	20.2
	100~499명	(306)	11.2	17.7	22.6	28.8	10.5	5.1	4.1	100.0	51.5	28.8	19.7
	500~2999명	(244)	6.2	15.8	21.7	35.3	8.9	8.8	3.2	100.0	43.7	35.3	21.0
	3000명 이상	(189)	6.3	14.7	6.8	43.3	12.5	8.7	7.6	100.0	27.9	43.3	28.8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14.4	11.1	15.0	18.9	22.5	18.0	0.0	100.0	40.5	18.9	40.5
	보통	(137)	5.7	10.6	13.9	59.3	5.9	3.6	0.9	100.0	30.2	59.3	10.4
	중요함	(825)	9.6	16.5	17.7	33.3	10.9	7.0	5.0	100.0	43.8	33.3	22.9

6.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 목회자의 주력 사항

질문

코로나 시기 귀하의 교회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주력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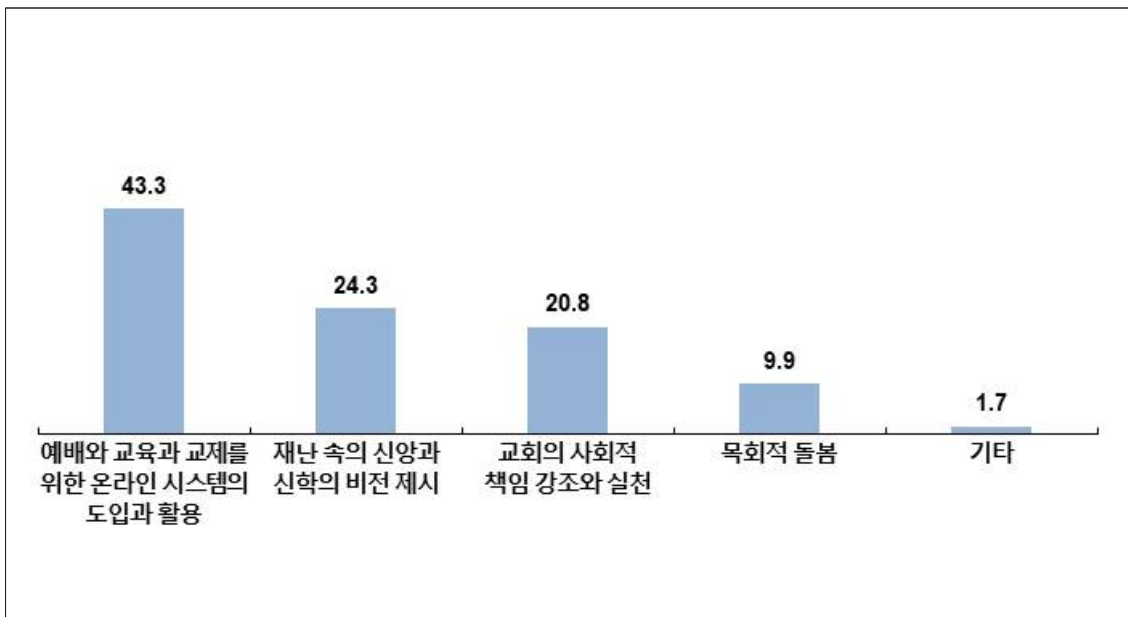


코로나19 시기에 출석 교회의 목회자가 가장 주력한다고 생각되는 목회 사항으로는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이 43.3%로 가장 높게 응답됐다. '재난 속의 신앙과 신학의 비전 제시'는 24.3%,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실천'은 20.8%였으며, '목회적 돌봄'에 가장 주력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은 9.9%로 나타났다.

교인 수 100명 이상 교회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에 주력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은 반면, 99명 이하 교회에서는 '재난 속의 신앙과 신학의 비전 제시'에 주력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아, 교회 규모에 따라 목회 주력 사항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 목회자의 주력 사항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 목회자의 주력 사항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예배와 교육과 교제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	재난 속의 신앙과 신학의 비전 제시	교회의 사회적 책임 강조와 실천	목회적 돌봄	기타	계
전체		(1000)	43.3	24.3	20.8	9.9	1.7	100.0
성별	남성	(427)	36.7	24.6	23.0	13.4	2.3	100.0
	여성	(573)	48.3	24.1	19.1	7.3	1.2	100.0
연령	19~29세	(137)	35.6	24.0	24.1	15.6	0.6	100.0
	30~39세	(147)	40.4	23.4	25.6	8.3	2.2	100.0
	40~49세	(193)	47.8	17.6	25.1	7.6	2.0	100.0
	50~59세	(190)	50.6	22.7	17.0	7.8	1.9	100.0
	60세 이상	(333)	41.1	29.5	16.9	10.9	1.5	100.0
지역	서울	(244)	48.0	18.4	19.5	12.1	2.0	100.0
	경기/인천	(347)	45.6	22.0	22.5	8.9	0.9	100.0
	대전/충청	(102)	36.7	35.2	15.9	9.6	2.6	100.0
	부산/울산/경남	(89)	40.4	28.5	25.1	3.5	2.6	100.0
	광주/전라	(120)	39.5	26.1	20.2	13.6	0.5	100.0
	대구/경북	(66)	33.5	34.3	21.4	6.2	4.6	100.0
	강원/제주	(32)	46.4	19.4	16.5	17.7	0.0	100.0
직업	자영업	(122)	35.2	30.0	13.5	18.7	2.7	100.0
	화이트칼라	(302)	46.7	24.9	19.9	6.6	1.9	100.0
	블루칼라	(156)	28.8	25.0	30.3	12.9	3.0	100.0
	주부	(251)	54.4	21.5	18.1	5.4	0.6	100.0
	학생	(78)	36.9	24.3	24.4	14.4	0.0	100.0
고용 형태	무직/기타	(91)	42.9	21.0	21.2	12.9	1.9	100.0
	정규직	(339)	43.2	24.7	22.0	8.2	1.9	100.0
학력	비정규직	(124)	33.9	25.7	26.7	10.6	3.1	100.0
	고졸 이하	(206)	39.7	28.9	20.3	8.7	2.3	100.0
결혼여부	대재 이상	(794)	44.3	23.1	20.9	10.3	1.5	100.0
	기혼	(768)	44.8	24.4	19.6	9.5	1.6	100.0
신앙 생활 연수	미혼	(232)	38.3	23.8	24.8	11.3	1.8	100.0
	15년 이하	(216)	42.0	24.9	24.1	7.8	1.2	100.0
	16~25년 이하	(220)	45.0	25.5	20.4	8.8	0.4	100.0
	26~35년 이하	(234)	42.2	23.1	18.2	13.9	2.6	100.0
예배 참석 빈도	36년 이상	(330)	43.9	23.9	20.7	9.3	2.2	100.0
	주 3회 이상	(165)	49.8	25.8	14.0	8.1	2.4	100.0
	주 1~2회	(652)	41.3	24.7	22.4	10.8	0.8	100.0
	월 3회 이하	(145)	41.2	24.7	21.0	8.2	5.0	100.0
교단	연 1~3회	(38)	58.9	9.3	21.1	9.5	1.2	100.0
	예장통합	(302)	46.3	21.7	23.3	6.9	1.7	100.0
	예장합동	(195)	45.9	24.8	18.2	9.5	1.5	100.0
	감리교	(117)	42.1	21.9	13.2	20.7	2.2	100.0
	기타장로교	(171)	32.9	33.3	25.0	7.3	1.6	100.0
	기타 교단	(173)	49.5	19.4	22.1	7.2	1.9	100.0
교인 수	잘 모름	(42)	29.9	30.6	13.0	26.5	0.0	100.0
	99명 이하	(261)	30.1	31.4	24.1	13.1	1.3	100.0
	100~499명	(306)	45.5	21.7	18.7	13.7	0.4	100.0
	500~2999명	(244)	50.2	23.7	20.7	4.3	1.1	100.0
	3000명 이상	(189)	49.2	19.4	19.7	6.8	5.0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43.2	25.9	24.3	5.3	1.2	100.0
	보통	(137)	33.7	32.0	16.6	14.7	3.0	100.0
	중요함	(825)	44.9	22.9	21.3	9.4	1.5	100.0

II

코로나19와 교회 내 의사결정

1.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 내 의사 결정자 비중 변화

질문

귀하의 교회 의사 결정과 실행은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서 응답해 주세요.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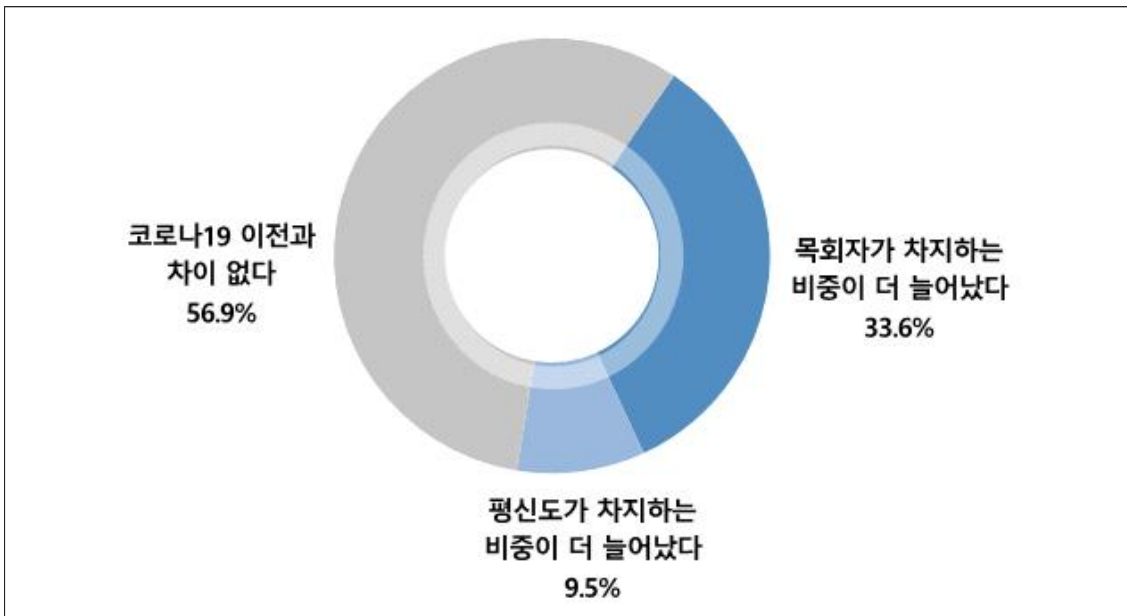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현재 교회의 의사 결정과 실행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물어보았다.

절반 이상의 개신교인은 '코로나19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응답했으며(56.9%),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었다'는 비율은 33.6%로, 전체 교회의 3분의 1 정도에서 목회자의 의사 결정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다'는 비율은 9.5% 응답됐다.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의사 결정과 실행의 중심이 목회자로 조금 더 옮겨졌으며, 평신도의 의사 결정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 내 의사 결정자 비중 변화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이전 대비 교회 내 의사 결정자 비중 변화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다	평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늘어났다	코로나19 이전과 차이 없다	계
전체		(1000)	33.6	9.5	56.9	100.0
성별	남성	(427)	32.9	11.2	55.9	100.0
	여성	(573)	34.2	8.3	57.6	100.0
연령	19~29세	(137)	30.1	10.7	59.3	100.0
	30~39세	(147)	32.8	8.8	58.4	100.0
	40~49세	(193)	34.1	14.0	51.9	100.0
	50~59세	(190)	32.5	9.0	58.5	100.0
	60세 이상	(333)	35.9	7.0	57.1	100.0
지역	서울	(244)	34.0	10.5	55.5	100.0
	경기/인천	(347)	33.0	9.1	58.0	100.0
	대전/충청	(102)	36.6	4.9	58.4	100.0
	부산/울산/경남	(89)	36.1	14.0	49.9	100.0
	광주/전라	(120)	37.9	10.7	51.4	100.0
	대구/경북	(66)	20.1	9.2	70.7	100.0
	강원/제주	(32)	34.0	4.7	61.3	100.0
직업	자영업	(122)	40.4	2.7	56.9	100.0
	화이트칼라	(302)	37.2	9.5	53.3	100.0
	블루칼라	(156)	30.2	18.5	51.3	100.0
	주부	(251)	28.0	9.8	62.2	100.0
	학생	(78)	38.4	6.5	55.2	100.0
	무직/기타	(91)	30.3	5.1	64.6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36.1	11.6	52.3	100.0
	비정규직	(124)	32.6	15.2	52.2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29.9	10.9	59.2	100.0
	대재 이상	(794)	34.6	9.1	56.2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35.0	9.1	55.9	100.0
	미혼	(232)	29.1	10.8	60.1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32.5	14.8	52.7	100.0
	16~25년 이하	(220)	31.9	11.3	56.8	100.0
	26~35년 이하	(234)	36.6	7.8	55.6	100.0
	36년 이상	(330)	33.5	6.0	60.5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36.9	8.1	55.0	100.0
	주 1~2회	(652)	33.3	9.5	57.2	100.0
	월 3회 이하	(145)	28.9	11.7	59.4	100.0
	연 1~3회	(38)	43.1	8.0	49.0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33.7	8.9	57.4	100.0
	예장합동	(195)	31.7	9.6	58.7	100.0
	감리교	(117)	43.4	4.4	52.3	100.0
	기타장로교	(171)	32.7	13.3	53.9	100.0
	기타 교단	(173)	34.8	10.6	54.6	100.0
	잘 모름	(42)	14.3	7.4	78.3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33.2	11.6	55.2	100.0
	100~499명	(306)	34.7	10.5	54.8	100.0
	500~2999명	(244)	34.2	5.4	60.4	100.0
	3000명 이상	(189)	31.8	10.3	57.9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30.4	17.0	52.6	100.0
	보통	(137)	31.6	10.2	58.2	100.0
	중요함	(825)	34.1	9.0	56.8	100.0

2.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역할 강화 이유

질문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귀하의 교회 목회자의 역할이 강화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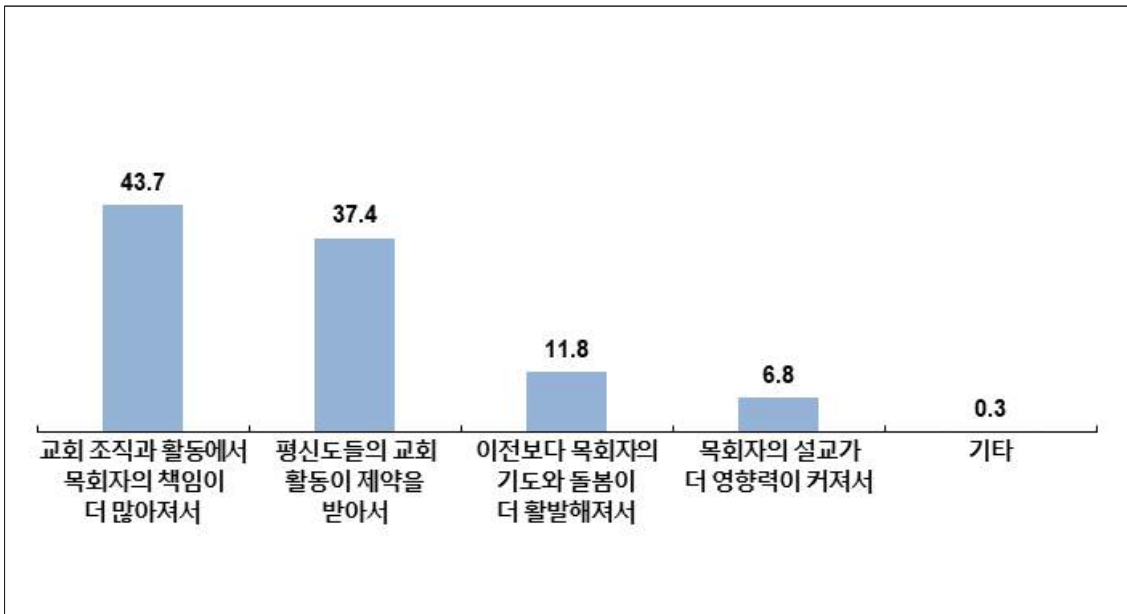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대비 목회자의 역할이 강화된 이유로는, '교회 조직과 활동에서 목회자의 책임이 더 많아져서'가 43.7%로 가장 높았고, '평신도들의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가 37.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즉, 대면 예배 제한으로 교인들의 교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책임이 더 늘어난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교회 조직과 활동에서 목회자의 책임이 많아져서'와 '이전보다 목회자의 기도와 돌봄이 활발해져서'는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평신도들의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는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역할 강화 이유

(Base=의사 결정에서 목회자 비중 늘어남, N=336, 단위 : %)



[표]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역할 강화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의사 결정에서 목회자 비중 늘어남, N=336,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교회 조직과 활동에서 목회자의 책임이 더 많아져서	평신도들의 교회 활동이 제약을 받아서	이전보다 목회자의 기도와 돌봄이 더 활발해져서	목회자의 설교가 더 영향력이 커져서	기타	계
전체	(336)	43.7	37.4	11.8	6.8	0.3	100.0
성별	남성 (141)	37.5	38.1	14.0	10.4	0.0	100.0
	여성 (196)	48.2	36.9	10.1	4.1	0.6	100.0
연령	19~29세 (41)	56.1	26.1	13.7	4.1	0.0	100.0
	30~39세 (48)	30.8	42.2	11.1	14.7	1.2	100.0
	40~49세 (66)	42.5	39.1	16.1	2.3	0.0	100.0
	50~59세 (62)	37.4	45.2	4.2	13.2	0.0	100.0
	60세 이상 (120)	48.6	34.5	12.9	3.6	0.5	100.0
지역	서울 (83)	40.7	42.3	7.7	8.6	0.7	100.0
	경기/인천 (114)	49.8	32.6	11.3	5.8	0.5	100.0
	대전/충청 (37)	23.1	57.7	16.5	2.7	0.0	100.0
	부산/울산/경남 (32)	45.7	13.7	26.9	13.7	0.0	100.0
	광주/전라 (45)	48.5	40.7	7.2	3.5	0.0	100.0
	대구/경북 (13)	65.2	7.6	16.2	11.0	0.0	100.0
	강원/제주 (11)	21.5	74.1	0.0	4.3	0.0	100.0
직업	자영업 (49)	21.4	57.9	14.5	6.2	0.0	100.0
	화이트칼라 (112)	35.7	39.2	13.9	10.2	1.0	100.0
	블루칼라 (47)	57.1	32.5	4.4	6.0	0.0	100.0
	주부 (70)	55.2	31.2	8.5	5.1	0.0	100.0
	학생 (30)	57.1	30.3	12.6	0.0	0.0	100.0
	무직/기타 (28)	49.4	25.7	18.4	6.5	0.0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122)	39.5	39.4	11.3	8.9	0.9	100.0
	비정규직 (40)	50.4	31.7	9.3	8.5	0.0	100.0
학력	고졸 이하 (62)	50.8	24.2	8.5	15.5	0.9	100.0
	대재 이상 (275)	42.1	40.4	12.5	4.8	0.2	100.0
결혼여부	기혼 (269)	40.4	40.6	11.5	7.0	0.4	100.0
	미혼 (68)	56.9	24.6	12.8	5.7	0.0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70)	50.5	16.9	22.1	10.5	0.0	100.0
	16~25년 이하 (70)	46.6	34.1	10.4	8.1	0.8	100.0
	26~35년 이하 (86)	38.1	47.6	7.9	6.5	0.0	100.0
	36년 이상 (111)	42.0	44.6	9.1	3.8	0.5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61)	37.5	34.6	19.4	8.6	0.0	100.0
	주 1~2회 (217)	47.0	35.5	10.3	6.6	0.5	100.0
	월 3회 이하 (42)	40.2	43.7	10.0	6.1	0.0	100.0
	연 1~3회 (16)	32.9	57.0	6.6	3.5	0.0	100.0
교단	예장통합 (102)	38.4	41.4	14.1	6.1	0.0	100.0
	예장합동 (62)	48.5	35.3	14.4	0.9	0.9	100.0
	감리교 (51)	42.3	49.7	4.2	3.8	0.0	100.0
	기타장로교 (56)	35.4	37.2	11.0	15.4	1.0	100.0
	기타 교단 (60)	54.5	24.9	13.3	7.4	0.0	100.0
	잘 모름 (6)	65.8	16.9	0.0	17.4	0.0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87)	51.5	27.3	15.4	5.2	0.7	100.0
	100~499명 (106)	42.1	37.8	12.6	7.0	0.5	100.0
	500~2999명 (84)	40.5	41.9	8.7	9.0	0.0	100.0
	3000명 이상 (60)	39.9	45.0	9.3	5.7	0.0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1)	41.9	18.4	4.6	35.1	0.0	100.0
	보통 (43)	35.7	43.2	15.0	4.8	1.3	100.0
	중요함 (282)	45.0	37.3	11.6	5.9	0.2	100.0

3.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역할 약화 이유

질문

코로나 이후에 귀하의 교회 목회자의 역할이 약화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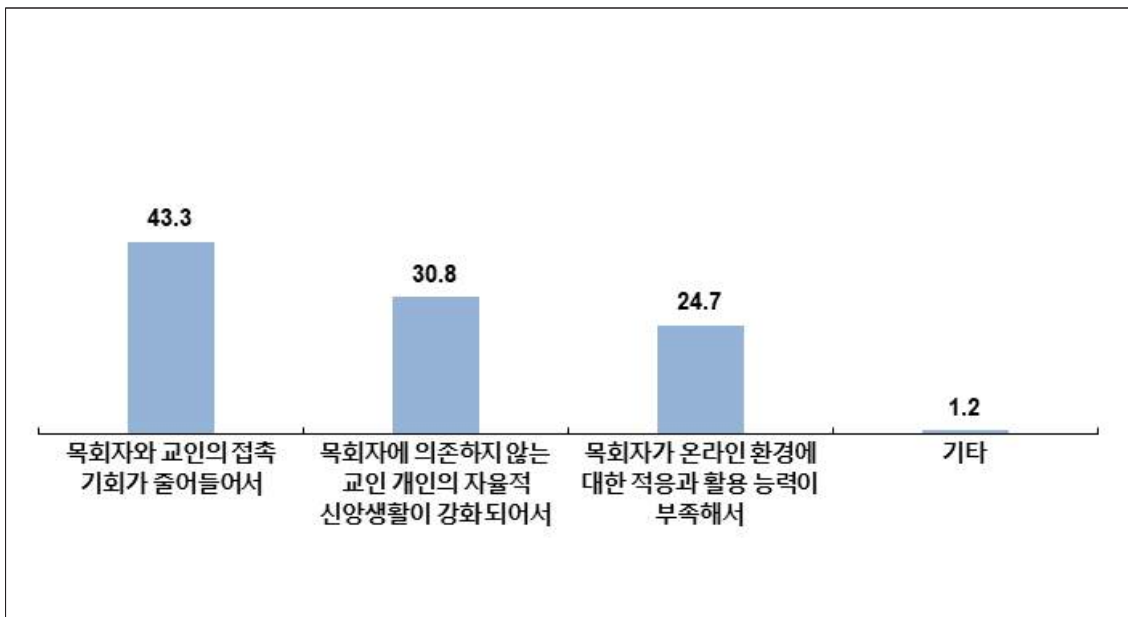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대비 목회자의 역할이 약화되고 평신도의 비중이 늘어난 이유로는 ‘목회자와 교인의 접촉 기회가 줄어들어서’가 43.3%로 가장 높았다.

‘목회자에 의존하지 않는 교인 개인의 자율적 신앙 생활이 강화 되어서’는 30.8%, ‘목회자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는 24.7%로 나타났다.

남성은 ‘목회자와 접촉 기회 감소’와 ‘목회자의 온라인 환경 적응 및 활용 부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성은 ‘개인의 자율적 신앙 생활 강화’ 인식이 높았다. 즉, 남성은 목회자 역할 약화의 원인이 목회자 자체에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목회자보다 교인 개개인에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역할 약화 이유

(Base=의사 결정에서 평신도 비중 늘어남, N=95, 단위 : %)



[표] 코로나19 이후 목회자 역할 약화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의사 결정에서 평신도 비중 늘어남, N=95,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목회자와 교인의 접촉 기회가 줄어들어서	목회자에 의존하지 않는 교인 개인의 자율적 신앙 생활이 강화 되어서	목회자가 온라인 환경에 대한 적응과 활용 능력이 부족해서	기타	계
전체		(95)	43.3	30.8	24.7	1.2	100.0
성별	남성	(48)	47.9	18.2	34.0	0.0	100.0
	여성	(47)	38.8	43.5	15.3	2.4	100.0
연령	19~29세	(15)	35.1	23.7	33.4	7.8	100.0
	30~39세	(13)	55.1	17.9	27.1	0.0	100.0
	40~49세	(27)	35.1	41.5	23.4	0.0	100.0
	50~59세	(17)	29.9	44.7	25.4	0.0	100.0
	60세 이상	(23)	61.3	19.9	18.7	0.0	100.0
지역	서울	(26)	45.6	29.6	24.8	0.0	100.0
	경기/인천	(32)	41.4	34.7	20.3	3.6	100.0
	대전/충청	(5)	50.9	0.0	49.1	0.0	100.0
	부산/울산/경남	(12)	47.4	31.2	21.4	0.0	100.0
	광주/전라	(13)	43.8	17.5	38.7	0.0	100.0
	대구/경북	(6)	14.4	75.9	9.7	0.0	100.0
직업	강원/제주	(2)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3)	0.0	0.0	100.0	0.0	100.0
	화이트칼라	(29)	46.6	29.1	24.3	0.0	100.0
	블루칼라	(29)	47.9	28.6	23.5	0.0	100.0
	주부	(25)	42.4	39.9	17.8	0.0	100.0
	학생	(5)	25.5	24.4	27.5	22.6	100.0
고용 형태	무직/기타	(5)	50.2	35.3	14.4	0.0	100.0
	정규직	(39)	38.4	31.4	30.2	0.0	100.0
학력	비정규직	(19)	64.1	25.9	10.0	0.0	100.0
	고졸 이하	(22)	65.3	24.5	10.2	0.0	100.0
결혼여부	대제 이상	(73)	36.5	32.7	29.2	1.6	100.0
	기혼	(70)	47.3	32.4	20.3	0.0	100.0
신앙 생활 연수	미혼	(25)	32.4	26.3	36.8	4.5	100.0
	15년 이하	(32)	28.2	26.1	42.2	3.6	100.0
	16~25년 이하	(25)	36.7	40.3	22.9	0.0	100.0
	26~35년 이하	(18)	58.1	28.2	13.7	0.0	100.0
	36년 이상	(20)	62.5	28.8	8.7	0.0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3)	58.1	18.1	23.8	0.0	100.0
	주 1~2회	(62)	45.6	23.8	28.8	1.8	100.0
	월 3회 이하	(17)	31.3	53.8	14.9	0.0	100.0
	연 1~3회	(3)	0.0	100.0	0.0	0.0	100.0
교단	예장통합	(27)	51.9	27.5	20.6	0.0	100.0
	예장합동	(19)	47.1	35.7	17.2	0.0	100.0
	감리교	(5)	22.3	66.1	11.5	0.0	100.0
	기타장로교	(23)	41.3	27.1	31.7	0.0	100.0
	기타 교단	(18)	39.4	28.2	26.2	6.2	100.0
	잘 모름	(3)	19.9	14.1	66.0	0.0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30)	43.9	25.5	30.6	0.0	100.0
	100~499명	(32)	43.3	28.3	28.4	0.0	100.0
	500~2999명	(13)	38.8	48.0	13.2	0.0	100.0
	3000명 이상	(19)	45.6	31.3	17.3	5.9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6)	9.9	60.6	29.5	0.0	100.0
	보통	(14)	12.7	39.1	48.2	0.0	100.0
	중요함	(75)	52.0	26.7	19.8	1.5	100.0

Ⅲ

교회와 경제적 도움

1.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의 경제적 취약 교인 도움 여부

질문

귀하의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을 물질적으로 돕는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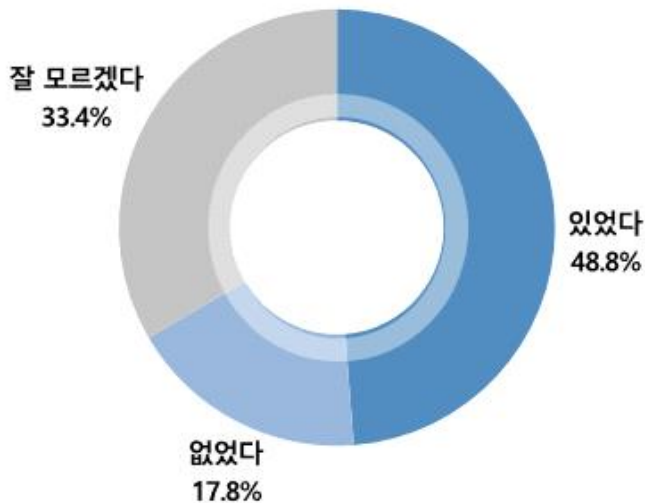


출석 교회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교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활동이 있었는지에 대해, 절반 정도가 '있었다'(48.8%)고 응답했으며, 17.8%는 '없었다'고 응답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을 물질적으로 도운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고, 반대로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돕지 못한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의 경제적 취약 교인 도움 여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출석 교회의 경제적 취약 교인 도움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있었다	없었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48.8	17.8	33.4	100.0
성별	남성	(427)	44.1	22.6	33.4	100.0
	여성	(573)	52.3	14.3	33.5	100.0
연령	19~29세	(137)	46.7	10.6	42.7	100.0
	30~39세	(147)	50.5	17.5	32.0	100.0
	40~49세	(193)	48.2	18.8	33.0	100.0
	50~59세	(190)	45.6	25.7	28.7	100.0
	60세 이상	(333)	51.0	15.8	33.2	100.0
지역	서울	(244)	52.4	11.0	36.6	100.0
	경기/인천	(347)	47.2	16.0	36.8	100.0
	대전/충청	(102)	56.2	18.0	25.8	100.0
	부산/울산/경남	(89)	51.0	23.6	25.4	100.0
	광주/전라	(120)	45.0	24.9	30.1	100.0
	대구/경북	(66)	48.7	26.1	25.2	100.0
	강원/제주	(32)	22.5	29.3	48.3	100.0
직업	자영업	(122)	53.6	19.0	27.4	100.0
	화이트칼라	(302)	50.0	18.7	31.3	100.0
	블루칼라	(156)	37.7	27.1	35.2	100.0
	주부	(251)	52.2	12.8	35.0	100.0
	학생	(78)	51.5	9.7	38.8	100.0
	무직/기타	(91)	45.2	18.4	36.3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46.3	20.8	32.8	100.0
	비정규직	(124)	44.7	24.5	30.8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45.0	18.9	36.1	100.0
	대재 이상	(794)	49.7	17.5	32.7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49.8	18.5	31.7	100.0
	미혼	(232)	45.4	15.6	39.0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47.4	20.9	31.6	100.0
	16~25년 이하	(220)	48.1	19.0	33.0	100.0
	26~35년 이하	(234)	50.4	16.1	33.6	100.0
	36년 이상	(330)	49.0	16.2	34.8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62.1	14.7	23.2	100.0
	주 1~2회	(652)	50.7	16.9	32.4	100.0
	월 3회 이하	(145)	31.3	23.3	45.4	100.0
	연 1~3회	(38)	24.4	26.0	49.6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45.9	19.8	34.3	100.0
	예장합동	(195)	47.6	19.0	33.4	100.0
	감리교	(117)	47.0	17.4	35.6	100.0
	기타장로교	(171)	49.7	22.3	28.1	100.0
	기타 교단	(173)	58.8	12.3	28.9	100.0
	잘 모름	(42)	34.4	4.1	61.6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43.2	23.1	33.7	100.0
	100~499명	(306)	45.7	19.0	35.3	100.0
	500~2999명	(244)	51.0	15.2	33.8	100.0
	3000명 이상	(189)	58.6	12.0	29.4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43.5	20.6	35.9	100.0
	보통	(137)	25.3	26.4	48.4	100.0
	중요함	(825)	52.9	16.3	30.8	100.0

2.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제적 취약 교인 도움 활동 정도

질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교회 내 경제적 취약 계층 교인을 돕는 활동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단수)



출석 교회에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교인을 돕는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묻은 결과, 41.8%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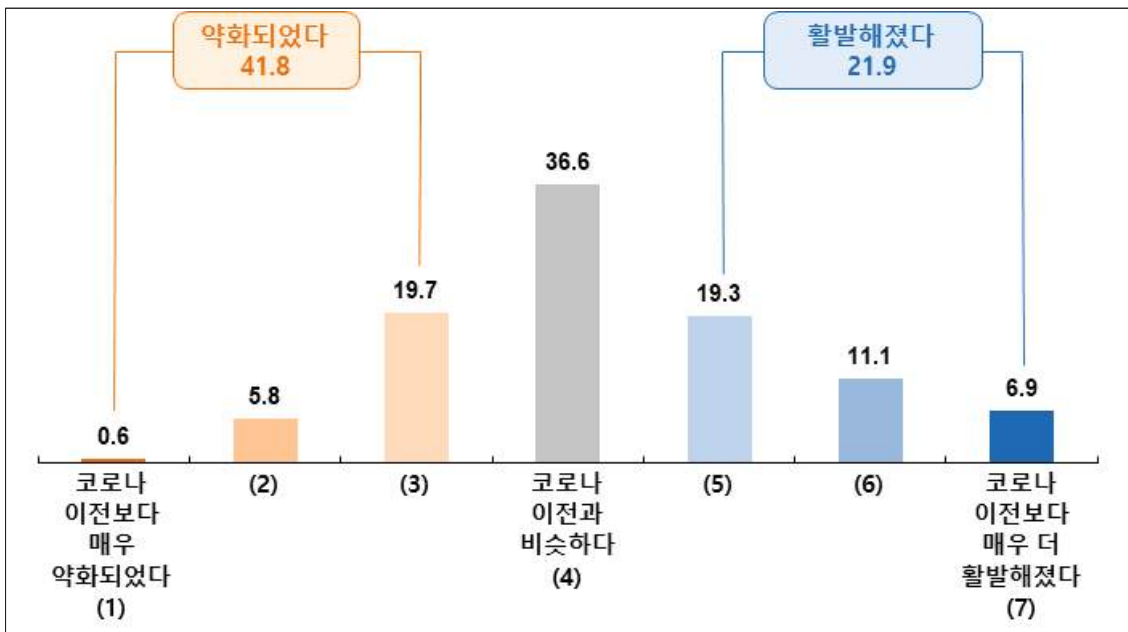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보다 경제적 취약 교인을 돕는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비율은 21.9%였다. '활발해졌다' 비율을 전체 응답자(1000명) 기준으로 환산하면 10.7%로, 10개 교회 중 1개 정도만이 코로나 이전 대비 경제 취약 교인을 돕는 활동이 활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인 수 99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악화됐다'는 비율과 '활발해졌다'는 비율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형교회의 재정 형편이 양극화되고 있거나, 어려움 속에서도 교인을 돕는 소형교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활발해졌다'는 비율은 99명 이하 교회 외에 3000명 이상 대형 교회에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앞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인 돕는 활동 비율에서도 3000명 이상 대형교회가 높게 응답된 것으로 보아, 대형교회에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모두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제 도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제적 취약 교인 도움 활동 정도

(Base=출석 교회의 경제적 취약 교인 돕는 활동 있음, N=488, 단위 : %)



[표] 코로나19 이전 대비 경제적 취약 교인 도움 활동 정도 (응답자 특성별)

(Base=출석 교회의 경제적 취약 교인 돕는 활동 있음, N=488,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코로나 이전 보다 매우 약화 되었다 (1)	(2)	(3)	코로나 이전과 비슷 하다 (4)	(5)	(6)	코로나 이전 보다 매우 더 활발해 졌다 (7)	계	약화	비슷	활발
전체		(488)	0.6	5.8	19.7	36.6	19.3	11.1	6.9	100.0	26.2	36.6	37.2
성별	남성	(188)	0.6	5.7	16.9	34.3	21.2	12.9	8.2	100.0	23.3	34.3	42.4
	여성	(299)	0.6	5.9	21.5	38.0	18.1	9.9	6.0	100.0	28.0	38.0	34.0
연령	19~29세	(64)	0.0	6.8	17.0	27.1	19.5	21.6	7.9	100.0	23.8	27.1	49.1
	30~39세	(74)	0.9	6.7	23.4	31.3	13.7	5.4	18.7	100.0	31.0	31.3	37.7
	40~49세	(93)	0.0	9.6	17.5	43.0	16.9	5.5	7.5	100.0	27.1	43.0	29.9
	50~59세	(87)	1.1	4.6	24.8	31.3	20.5	13.7	4.0	100.0	30.5	31.3	38.2
	60세 이상	(170)	0.9	3.6	17.8	41.6	22.3	11.3	2.4	100.0	22.3	41.6	36.1
지역	서울	(128)	0.5	5.7	21.9	35.0	23.3	9.9	3.7	100.0	28.2	35.0	36.8
	경기/인천	(164)	0.0	9.2	17.5	34.4	16.8	15.1	6.9	100.0	26.7	34.4	38.9
	대전/충청	(57)	0.0	3.9	24.5	30.8	24.5	9.1	7.4	100.0	28.3	30.8	40.9
	부산/울산/경남	(45)	0.0	2.5	20.8	34.2	12.4	12.1	17.9	100.0	23.3	34.2	42.4
	광주/전라	(54)	3.7	3.9	21.5	45.2	18.0	3.9	3.9	100.0	29.1	45.2	25.8
	대구/경북	(32)	1.3	1.6	11.8	56.1	16.7	5.9	6.4	100.0	14.8	56.1	29.1
직업	강원/제주	(7)	0.0	0.0	7.5	24.1	27.0	27.4	13.9	100.0	7.5	24.1	68.4
	자영업	(65)	0.0	4.3	25.8	31.2	15.3	17.7	5.7	100.0	30.1	31.2	38.7
	화이트칼라	(151)	1.0	4.6	17.9	35.3	24.5	9.6	7.1	100.0	23.5	35.3	41.2
	블루칼라	(59)	0.0	11.1	19.5	35.6	14.1	12.1	7.7	100.0	30.6	35.6	33.9
	주부	(131)	1.1	4.5	18.9	42.4	21.3	7.5	4.3	100.0	24.5	42.4	33.0
	학생	(40)	0.0	6.7	21.3	23.8	9.7	25.3	13.2	100.0	28.0	23.8	48.2
	무직/기타	(41)	0.0	8.3	18.4	45.2	17.1	2.4	8.6	100.0	26.7	45.2	28.1
고용 형태	정규직	(157)	0.7	8.5	18.7	35.5	24.0	7.8	4.7	100.0	28.0	35.5	36.5
학력	비정규직	(55)	0.8	2.0	16.3	36.3	13.7	16.8	14.3	100.0	19.0	36.3	44.7
	고졸 이하	(93)	1.6	3.5	19.7	44.5	14.9	7.5	8.3	100.0	24.8	44.5	30.7
	대재 이상	(395)	0.4	6.4	19.7	34.7	20.3	11.9	6.5	100.0	26.5	34.7	38.8
결혼여부	기혼	(382)	0.8	5.1	19.8	38.9	20.5	9.6	5.2	100.0	25.8	38.9	35.3
	미혼	(105)	0.0	8.3	19.2	28.0	15.0	16.6	12.8	100.0	27.5	28.0	44.5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02)	1.5	9.0	27.4	30.2	10.9	7.4	13.6	100.0	37.9	30.2	31.9
	16~25년 이하	(106)	1.0	6.4	25.6	34.3	16.8	7.7	8.2	100.0	33.0	34.3	32.7
	26~35년 이하	(118)	0.0	6.4	22.1	33.9	20.4	12.4	4.9	100.0	28.4	33.9	37.7
	36년 이상	(162)	0.3	3.0	9.3	44.1	25.4	14.7	3.2	100.0	12.6	44.1	43.3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02)	1.1	1.8	16.5	34.5	22.6	11.8	11.7	100.0	19.4	34.5	46.1
	주 1~2회	(331)	0.6	4.3	21.1	36.5	19.5	11.9	6.1	100.0	26.0	36.5	37.5
	월 3회 이하	(45)	0.0	21.9	18.5	41.5	12.4	4.7	1.0	100.0	40.4	41.5	18.1
	연 1~3회	(9)	0.0	23.5	13.5	39.5	8.5	5.5	9.5	100.0	37.1	39.5	23.4
교단	예장통합	(139)	0.8	4.3	18.2	45.5	20.1	9.5	1.6	100.0	23.3	45.5	31.2
	예장합동	(93)	0.5	6.4	23.2	30.1	20.9	13.3	5.6	100.0	30.2	30.1	39.7
	감리교	(55)	0.0	12.5	24.6	28.2	18.6	6.9	9.3	100.0	37.1	28.2	34.8
	기타장로교	(85)	1.8	6.4	16.6	37.8	17.4	4.3	15.7	100.0	24.8	37.8	37.5
	기타 교단	(102)	0.0	3.5	17.7	36.4	18.5	16.4	7.6	100.0	21.1	36.4	42.5
	잘 모름	(14)	0.0	3.8	26.3	19.1	20.1	30.8	0.0	100.0	30.1	19.1	50.8
교인 수	99명 이하	(113)	0.5	6.0	27.1	26.4	23.8	9.4	6.8	100.0	33.6	26.4	40.0
	100~499명	(140)	1.1	2.9	19.0	43.8	21.0	10.0	2.3	100.0	22.9	43.8	33.3
	500~2999명	(125)	0.3	9.4	15.5	41.6	16.3	9.3	7.6	100.0	25.2	41.6	33.2
	3000명 이상	(111)	0.6	5.3	17.9	32.2	15.8	16.2	11.9	100.0	23.8	32.2	44.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6)	0.0	0.0	31.4	44.8	16.5	7.3	0.0	100.0	31.4	44.8	23.8
	보통	(35)	0.0	15.8	26.5	37.1	13.2	4.0	3.4	100.0	42.3	37.1	20.6
	중요함	(437)	0.7	5.2	18.7	36.2	19.9	11.8	7.4	100.0	24.7	36.2	39.1

3.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로부터의 도움 예상

질문

귀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귀하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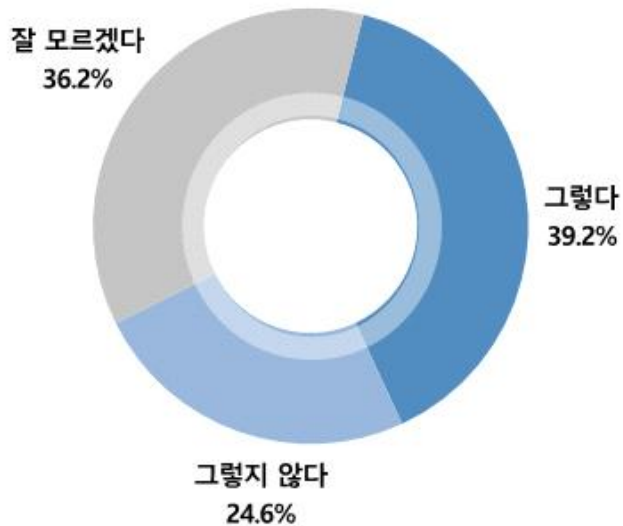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출석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39.2%가 '그렇다', 24.6%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교회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교회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며, 반대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으나, 20대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과 50대가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의 수준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로부터의 도움 예상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교회로부터의 도움 예상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39.2	24.6	36.2	100.0
성별	남성	(427)	35.9	24.3	39.8	100.0
	여성	(573)	41.7	24.7	33.6	100.0
연령	19~29세	(137)	46.5	8.3	45.2	100.0
	30~39세	(147)	42.3	21.0	36.7	100.0
	40~49세	(193)	40.1	23.4	36.5	100.0
	50~59세	(190)	33.1	33.2	33.8	100.0
	60세 이상	(333)	37.8	28.6	33.6	100.0
지역	서울	(244)	36.0	25.7	38.3	100.0
	경기/인천	(347)	40.1	22.2	37.7	100.0
	대전/충청	(102)	38.7	33.4	27.9	100.0
	부산/울산/경남	(89)	52.8	17.9	29.2	100.0
	광주/전라	(120)	36.6	23.5	39.9	100.0
	대구/경북	(66)	34.6	25.2	40.2	100.0
	강원/제주	(32)	37.3	34.5	28.2	100.0
직업	자영업	(122)	25.6	49.6	24.8	100.0
	화이트칼라	(302)	41.6	22.0	36.4	100.0
	블루칼라	(156)	36.5	23.9	39.6	100.0
	주부	(251)	41.3	22.0	36.7	100.0
	학생	(78)	55.7	5.5	38.8	100.0
	무직/기타	(91)	34.3	23.8	41.9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38.1	24.1	37.8	100.0
	비정규직	(124)	43.9	19.0	37.1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37.6	30.8	31.6	100.0
	대재 이상	(794)	39.6	22.9	37.4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37.5	27.1	35.4	100.0
	미혼	(232)	44.9	16.1	39.1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38.1	32.2	29.7	100.0
	16~25년 이하	(220)	38.6	20.9	40.5	100.0
	26~35년 이하	(234)	37.0	18.6	44.3	100.0
	36년 이상	(330)	41.9	26.2	31.9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47.7	29.1	23.1	100.0
	주 1~2회	(652)	40.7	21.3	38.0	100.0
	월 3회 이하	(145)	27.7	32.6	39.7	100.0
	연 1~3회	(38)	20.8	30.7	48.5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36.7	25.8	37.5	100.0
	예장합동	(195)	39.0	22.1	38.9	100.0
	감리교	(117)	42.0	26.5	31.5	100.0
	기타장로교	(171)	41.1	26.1	32.8	100.0
	기타 교단	(173)	42.9	24.3	32.8	100.0
	잘 모름	(42)	27.4	16.1	56.5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40.9	23.6	35.5	100.0
	100~499명	(306)	36.9	25.4	37.6	100.0
	500~2999명	(244)	40.6	23.9	35.5	100.0
	3000명 이상	(189)	38.8	25.4	35.8	100.0
	중요하지않음	(38)	32.3	23.2	44.5	100.0
종교 중요도	보통	(137)	21.7	38.5	39.8	100.0
	중요함	(825)	42.4	22.3	35.3	100.0

IV

코로나19와 개인 신앙 생활 II

1.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신앙 생활에서 중요해진 것

질문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개인의 신앙 생활에서 더 중요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단수)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개인 신앙 생활에서 더 중요해진 것으로, 개신교인 5명 중 3명이 '기도'를 꼽았다 (58.7%). 그만큼 생활 속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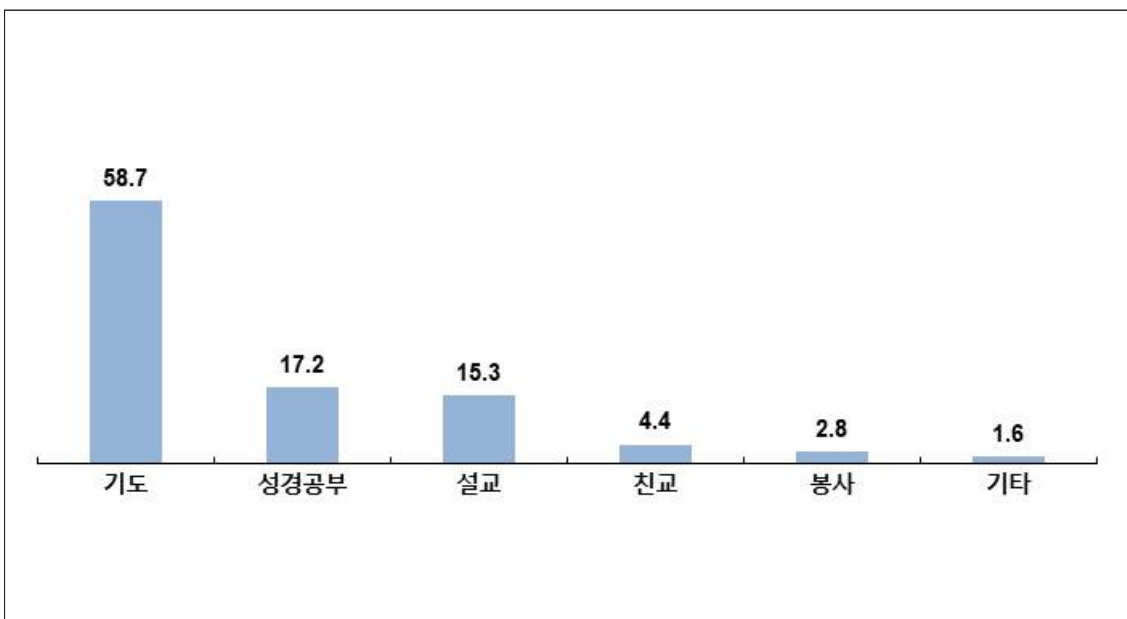
'기도' 다음으로는 '성경공부' 17.2%, '설교' 15.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친교'와 '봉사'가 더 중요해졌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친교와 봉사의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것은 코로나 시기에 친교와 봉사에 제약이 많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성도 간의 교제'(32.2%)가 가장 많이 꼽힌 것으로 보면(p.56), '친교'는 상황적 이유 때문에 상대적 중요도가 떨어진 것이지 절대적으로는 교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설교'가 더 중요해졌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기도'가 중요해졌다는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경공부'가 더 중요해졌다는 비율은 교회 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신앙 생활에서 중요해진 것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신앙 생활에서 중요해진 것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기도	성경공부	설교	찬교	봉사	기타	계
전체		(1000)	58.7	17.2	15.3	4.4	2.8	1.6	100.0
성별	남성	(427)	55.6	14.9	18.6	5.7	4.0	1.2	100.0
	여성	(573)	61.0	18.9	12.9	3.3	1.9	1.9	100.0
연령	19~29세	(137)	55.7	18.1	13.5	8.8	2.7	1.3	100.0
	30~39세	(147)	61.3	11.2	17.4	3.0	3.5	3.7	100.0
	40~49세	(193)	58.9	18.0	19.8	1.5	0.7	1.1	100.0
	50~59세	(190)	59.9	19.2	13.2	4.6	1.4	1.7	100.0
	60세 이상	(333)	58.1	17.9	13.8	4.7	4.5	1.1	100.0
지역	서울	(244)	59.2	15.6	13.0	7.4	2.8	2.0	100.0
	경기/인천	(347)	60.7	14.4	18.2	2.8	2.2	1.7	100.0
	대전/충청	(102)	55.2	26.8	8.5	5.1	3.7	0.7	100.0
	부산/울산/경남	(89)	66.8	13.0	17.0	3.2	0.0	0.0	100.0
	광주/전라	(120)	54.3	22.2	13.1	3.2	6.8	0.5	100.0
	대구/경북	(66)	49.7	18.8	18.8	4.0	2.3	6.4	100.0
	강원/제주	(32)	56.8	19.9	19.8	3.5	0.0	0.0	100.0
직업	자영업	(122)	58.8	12.8	19.7	2.7	6.1	0.0	100.0
	화이트칼라	(302)	60.5	15.0	15.7	3.6	2.7	2.4	100.0
	블루칼라	(156)	56.2	23.7	17.1	0.0	1.6	1.3	100.0
	주부	(251)	60.2	18.0	14.2	5.9	1.2	0.6	100.0
	학생	(78)	59.3	12.5	11.5	13.7	3.0	0.0	100.0
	무직/기타	(91)	52.5	21.0	11.7	4.2	4.8	5.8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59.9	18.3	14.8	2.8	2.8	1.4	100.0
	비정규직	(124)	57.1	16.9	19.4	1.3	1.6	3.7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58.9	15.7	18.3	4.4	2.5	0.3	100.0
	대재 이상	(794)	58.7	17.6	14.6	4.3	2.9	2.0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59.2	17.9	15.0	3.8	2.8	1.3	100.0
	미혼	(232)	57.0	14.7	16.3	6.3	2.8	2.8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54.1	22.8	14.1	3.6	3.2	2.2	100.0
	16~25년 이하	(220)	60.7	17.3	16.9	3.4	1.5	0.2	100.0
	26~35년 이하	(234)	59.7	16.8	10.0	5.2	5.9	2.5	100.0
	36년 이상	(330)	59.7	13.8	18.9	4.9	1.2	1.6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58.2	18.7	15.9	4.2	2.1	0.8	100.0
	주 1~2회	(652)	59.6	16.4	16.0	3.5	2.9	1.6	100.0
	월 3회 이하	(145)	55.6	19.9	13.4	5.4	3.2	2.5	100.0
	연 1~3회	(38)	57.7	14.6	8.6	15.7	1.7	1.7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54.1	16.4	17.7	6.0	4.5	1.2	100.0
	예장합동	(195)	64.1	16.4	13.2	4.1	0.8	1.4	100.0
	감리교	(117)	60.8	12.8	17.7	3.4	3.8	1.5	100.0
	기타장로교	(171)	64.8	16.4	16.3	0.9	0.8	0.7	100.0
	기타 교단	(173)	52.5	23.2	12.7	5.2	3.3	3.0	100.0
	잘 모름	(42)	61.6	17.5	8.2	6.6	2.4	3.7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59.3	18.1	13.3	4.6	3.7	1.0	100.0
	100~499명	(306)	59.8	15.0	15.6	3.5	3.9	2.1	100.0
	500~2999명	(244)	60.6	15.0	16.3	3.7	2.6	1.9	100.0
	3000명 이상	(189)	53.6	22.4	16.5	6.2	0.0	1.4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53.6	27.7	6.0	6.5	5.1	1.1	100.0
	보통	(137)	46.4	17.7	22.9	6.7	4.4	2.0	100.0
	중요함	(825)	61.0	16.6	14.5	3.9	2.4	1.6	100.0

2.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기도 시간 변화

질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귀하의 개인 기도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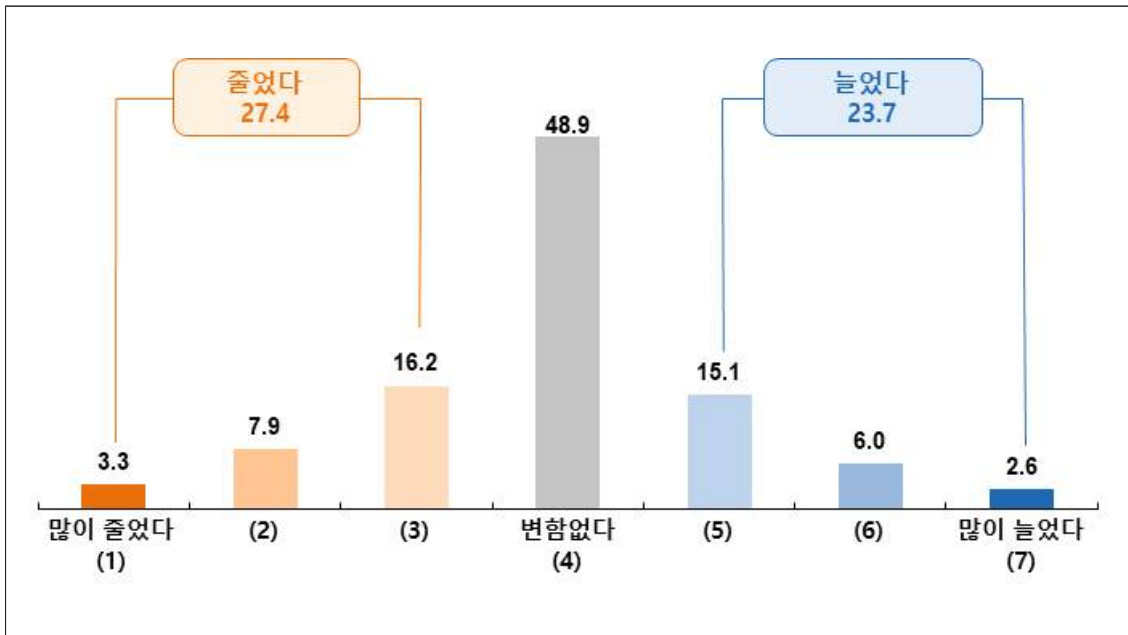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기도 시간 변화에 대해, 절반 가까이는 '변함없다'고 응답했으며(48.9%), '줄었다' 27.4%, '늘었다' 23.7%로 전체적인 기도 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개인 기도 시간이 '늘었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빈도가 낮을수록 기도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이 높아진다.

앞서 살펴본 '코로나19 이전 대비 신앙 생활에서 더 중요해진 것'으로 '기도'를 꼽은 응답자들은 기도 시간이 '늘었다'는 비율이 29.4%로 기타 응답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줄었다'는 비율도 '기도'를 꼽은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도를 중요시하게 된 이유가 '기도 시간이 줄어서 기도를 더 중요시하게 된 경우'와 '기도를 더 중요시하게 되어 기도 시간이 늘어난 경우'로 나뉜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기도 시간 변화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이전 대비 개인 기도 시간 변화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줄었다 (1)	(2)	(3)	변함 없다 (4)	(5)	(6)	많이 늘었다 (7)	계	줄었다	변함 없다	늘었다
전체		(1000)	3.3	7.9	16.2	48.9	15.1	6.0	2.6	100.0	27.4	48.9	23.7
성별	남성	(427)	1.8	6.7	18.2	49.6	14.3	6.8	2.6	100.0	26.7	49.6	23.7
	여성	(573)	4.4	8.8	14.7	48.4	15.7	5.4	2.6	100.0	27.9	48.4	23.7
연령	19~29세	(137)	5.2	5.5	22.4	46.9	9.7	6.5	3.8	100.0	33.1	46.9	20.0
	30~39세	(147)	5.9	7.2	15.6	44.8	14.7	6.1	5.8	100.0	28.6	44.8	26.5
	40~49세	(193)	3.8	11.9	14.5	47.3	15.4	3.1	4.1	100.0	30.1	47.3	22.6
	50~59세	(190)	2.7	8.3	17.7	45.3	17.0	7.8	1.3	100.0	28.6	45.3	26.1
	60세 이상	(333)	1.5	6.8	14.0	54.5	16.3	6.5	0.4	100.0	22.2	54.5	23.2
지역	서울	(244)	3.6	8.2	16.9	42.2	18.7	7.8	2.5	100.0	28.8	42.2	29.0
	경기/인천	(347)	3.6	9.3	14.6	49.7	14.6	5.4	2.8	100.0	27.5	49.7	22.8
	대전/충청	(102)	2.2	3.9	16.9	54.0	15.7	4.7	2.7	100.0	22.9	54.0	23.1
	부산/울산/경남	(89)	5.4	9.7	21.0	37.3	10.5	14.8	1.3	100.0	36.1	37.3	26.6
	광주/전라	(120)	1.5	4.0	17.6	52.5	16.8	2.9	4.6	100.0	23.1	52.5	24.3
	대구/경북	(66)	3.9	10.5	16.7	65.0	3.0	0.9	0.0	100.0	31.1	65.0	3.8
	강원/제주	(32)	0.0	7.9	6.1	60.7	21.9	1.8	1.7	100.0	14.0	60.7	25.3
직업	자영업	(122)	3.0	0.0	16.1	51.3	22.5	7.1	0.0	100.0	19.1	51.3	29.6
	화이트칼라	(302)	3.9	8.5	15.2	48.6	14.8	4.9	4.0	100.0	27.6	48.6	23.7
	블루칼라	(156)	3.9	12.1	14.2	43.7	15.4	8.1	2.7	100.0	30.2	43.7	26.1
	주부	(251)	1.9	9.4	13.6	51.8	15.7	5.9	1.8	100.0	24.8	51.8	23.4
	학생	(78)	6.3	1.6	28.4	45.9	8.1	6.1	3.6	100.0	36.3	45.9	17.8
	무직/기타	(91)	2.0	10.5	19.7	50.2	10.0	5.0	2.5	100.0	32.3	50.2	17.5
고용 형태	정규직	(339)	3.2	7.8	16.1	52.5	12.9	3.7	3.9	100.0	27.0	52.5	20.5
	비정규직	(124)	5.7	16.2	11.0	31.8	20.2	12.9	2.3	100.0	32.8	31.8	35.4
학력	고졸 이하	(206)	1.9	9.4	12.8	50.8	17.9	6.0	1.2	100.0	24.0	50.8	25.1
	대재 이상	(794)	3.7	7.5	17.1	48.4	14.3	6.1	2.9	100.0	28.3	48.4	23.3
결혼여부	기혼	(768)	2.4	8.4	14.9	49.3	16.4	6.3	2.3	100.0	25.6	49.3	25.1
	미혼	(232)	6.3	6.3	20.5	47.7	10.8	5.0	3.4	100.0	33.2	47.7	19.2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5.8	9.1	21.3	41.4	14.6	6.0	1.8	100.0	36.2	41.4	22.4
	16~25년 이하	(220)	3.5	6.4	15.7	49.1	15.6	7.1	2.5	100.0	25.6	49.1	25.2
	26~35년 이하	(234)	1.6	9.3	19.2	45.2	15.3	4.4	5.1	100.0	30.1	45.2	24.7
	36년 이상	(330)	2.8	7.1	11.0	56.3	14.9	6.5	1.3	100.0	20.9	56.3	22.8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0.0	5.9	11.6	43.1	23.1	10.9	5.4	100.0	17.5	43.1	39.4
	주 1~2회	(652)	3.1	7.6	16.6	50.8	13.7	5.9	2.2	100.0	27.4	50.8	21.8
	월 3회 이하	(145)	6.3	11.7	18.2	46.1	15.1	2.2	0.3	100.0	36.2	46.1	17.7
	연 1~3회	(38)	8.8	6.9	21.2	51.8	4.4	2.1	4.8	100.0	36.8	51.8	11.4
교단	예장통합	(302)	4.9	6.5	15.7	50.5	17.2	3.6	1.6	100.0	27.1	50.5	22.4
	예장합동	(195)	3.4	11.8	18.0	42.2	14.5	6.4	3.8	100.0	33.2	42.2	24.6
	감리교	(117)	1.4	9.0	14.8	60.6	9.8	2.7	1.8	100.0	25.1	60.6	14.2
	기타장로교	(171)	2.7	6.8	19.2	44.2	14.1	10.5	2.4	100.0	28.8	44.2	27.0
	기타 교단	(173)	1.8	6.7	14.7	48.2	16.1	8.6	3.9	100.0	23.2	48.2	28.5
	잘 모름	(42)	5.2	6.6	9.0	57.7	17.3	2.7	1.5	100.0	20.7	57.7	21.5
교인 수	99명 이하	(261)	2.9	3.5	15.3	48.3	21.6	4.7	3.8	100.0	21.7	48.3	30.0
	100~499명	(306)	2.5	9.1	20.9	46.0	13.2	7.6	0.7	100.0	32.5	46.0	21.5
	500~2999명	(244)	1.8	8.3	14.4	51.7	14.5	5.7	3.6	100.0	24.5	51.7	23.8
	3000명 이상	(189)	6.9	11.6	12.2	50.9	9.9	5.8	2.7	100.0	30.7	50.9	18.4
코로나 이전 대비 더 중요해진 것	설교	(153)	2.0	8.8	13.4	62.3	9.1	3.1	1.4	100.0	24.1	62.3	13.5
	기도	(587)	3.4	8.4	16.6	42.2	18.8	7.9	2.8	100.0	28.4	42.2	29.4
	성경공부	(172)	3.3	6.9	17.4	54.8	9.6	4.5	3.5	100.0	27.6	54.8	17.6
	봉사	(28)	.0	1.7	16.6	60.7	16.3	4.6	.0	100.0	18.4	60.7	20.9
종교 중요도	친교	(44)	4.0	3.5	17.1	58.5	12.7	1.1	3.1	100.0	24.6	58.5	16.9
	중요하지않음	(38)	5.7	20.2	10.2	38.4	15.5	9.9	0.0	100.0	36.2	38.4	25.4
	보통	(137)	3.4	8.8	14.9	65.3	4.7	2.9	0.0	100.0	27.1	65.3	7.6
	중요함	(825)	3.2	7.2	16.7	46.7	16.8	6.4	3.1	100.0	27.0	46.7	26.3

3. 코로나19 기간 중 일상 속 기도 빈도

질문

코로나 시기 귀하가 개인 기도 생활(식사 기도 제외)을 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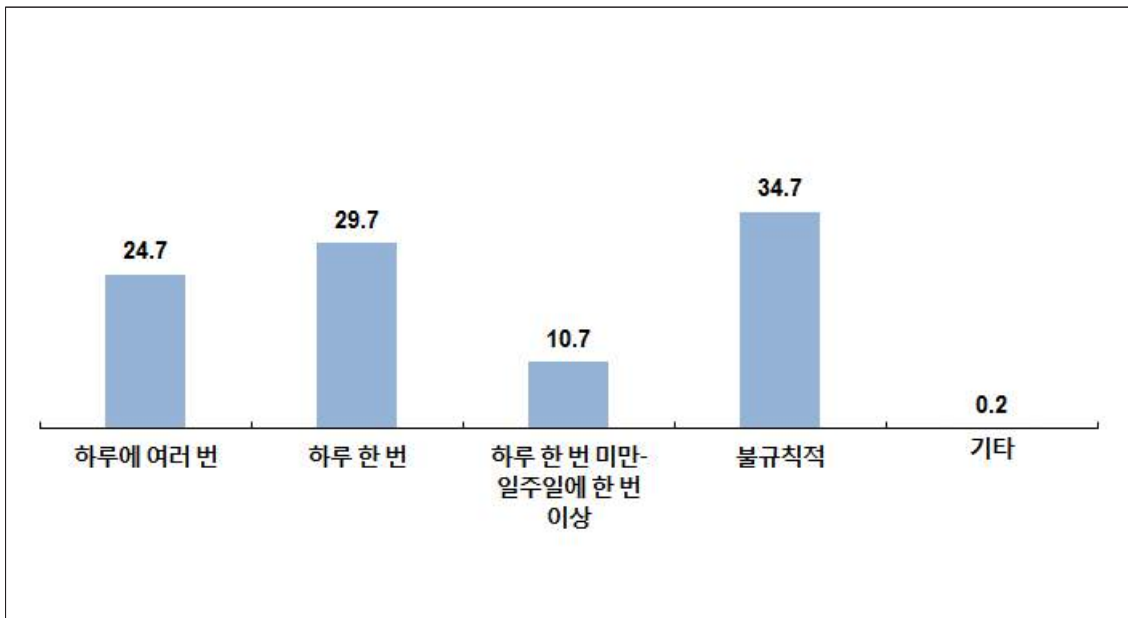


코로나19 시기에 개인 기도 생활을 하는 빈도는, '하루에 여러 번' 24.7%, '하루 한 번' 29.7%로 절반 이상의 개신교인이 하루 한 번 이상 기도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54.4%). '하루 한 번 미만~1주 한 번 이상'은 10.7%, '불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34.7%로 나타났다.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는 비율은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또한 '하루 한 번 미만~1주 한 번 이상' 기도하는 비율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합해볼 때, 연령이 낮을수록 기도 생활을 덜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일상 속 기도 빈도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일상 속 기도 빈도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하루에 여러 번	하루 한 번	하루 한 번 미만-일주 일에 한 번 이상	불규칙적	기타	계
전체		(1000)	24.7	29.7	10.7	34.7	0.2	100.0
성별	남성	(427)	24.6	28.3	11.9	35.2	0.0	100.0
	여성	(573)	24.8	30.7	9.9	34.4	0.3	100.0
연령	19~29세	(137)	18.8	24.7	17.7	38.1	0.7	100.0
	30~39세	(147)	20.0	32.4	11.3	36.3	0.0	100.0
	40~49세	(193)	28.7	26.8	10.1	34.1	0.3	100.0
	50~59세	(190)	23.4	30.2	11.8	34.6	0.0	100.0
	60세 이상	(333)	27.7	31.9	7.3	33.1	0.0	100.0
지역	서울	(244)	26.7	28.6	9.3	35.3	0.0	100.0
	경기/인천	(347)	22.2	31.4	10.5	35.8	0.1	100.0
	대전/충청	(102)	20.4	38.6	9.7	30.7	0.6	100.0
	부산/울산/경남	(89)	39.8	24.2	12.0	23.4	0.6	100.0
	광주/전라	(120)	26.7	27.2	8.4	37.7	0.0	100.0
	대구/경북	(66)	17.6	24.2	20.4	37.9	0.0	100.0
	강원/제주	(32)	16.0	26.3	12.3	45.4	0.0	100.0
직업	자영업	(122)	24.7	32.3	7.4	35.6	0.0	100.0
	화이트칼라	(302)	25.7	31.2	10.3	32.5	0.3	100.0
	블루칼라	(156)	17.9	38.0	10.8	33.3	0.0	100.0
	주부	(251)	28.7	26.6	10.8	33.9	0.0	100.0
	학생	(78)	19.0	17.5	18.3	45.2	0.0	100.0
	무직/기타	(91)	27.3	25.9	9.4	36.8	0.6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22.5	32.6	10.5	34.5	0.0	100.0
	비정규직	(124)	24.9	35.9	10.0	28.3	0.8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26.0	30.9	8.7	34.5	0.0	100.0
	대재 이상	(794)	24.4	29.3	11.2	34.8	0.2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27.0	30.1	9.2	33.6	0.1	100.0
	미혼	(232)	17.2	28.2	15.7	38.5	0.4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19.1	26.0	19.4	35.0	0.4	100.0
	16~25년 이하	(220)	22.7	24.9	10.9	41.1	0.3	100.0
	26~35년 이하	(234)	26.5	30.7	10.6	32.2	0.0	100.0
	36년 이상	(330)	28.5	34.4	5.0	32.1	0.0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47.7	26.4	7.2	18.7	0.0	100.0
	주 1~2회	(652)	22.6	33.3	10.6	33.4	0.1	100.0
	월 3회 이하	(145)	13.3	17.4	13.7	54.9	0.7	100.0
	연 1~3회	(38)	5.7	27.5	16.6	50.2	0.0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24.2	29.4	10.1	36.3	0.0	100.0
	예장합동	(195)	21.8	35.6	9.4	33.3	0.0	100.0
	감리교	(117)	15.7	36.6	11.8	35.4	0.5	100.0
	기타장로교	(171)	32.1	29.1	9.6	29.2	0.0	100.0
	기타 교단	(173)	28.8	24.4	13.6	33.1	0.0	100.0
교인 수	잘 모름	(42)	20.9	8.3	10.8	57.7	2.3	100.0
	99명 이하	(261)	25.0	34.3	10.7	30.0	0.0	100.0
	100~499명	(306)	26.6	27.0	11.0	35.0	0.3	100.0
	500~2999명	(244)	26.8	29.9	11.2	32.2	0.0	100.0
	3000명 이상	(189)	18.6	27.4	9.6	44.1	0.3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16.9	17.0	14.0	52.1	0.0	100.0
	보통	(137)	6.2	15.5	17.5	60.5	0.3	100.0
	중요함	(825)	28.2	32.6	9.4	29.7	0.1	100.0

4.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질문

코로나 시기 기도 생활에서 귀하는 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많이 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3순위 필수응답)



코로나19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은 '가족의 평안'으로 나타났다.

1+2+3순위 응답률 기준으로, '가족의 평안'(82.0%) 다음으로 '몸의 건강'(67.0%), '마음의 평화'(52.2%), '경제적 안정'(42.6%), '교회 공동체의 평안'(27.3%), '사회적 약자의 안녕'(16.8%) 순으로 응답됐다.

'가족의 평안'은 30대 이상에서 응답률이 높았고, 20대는 '마음의 평화'를 기도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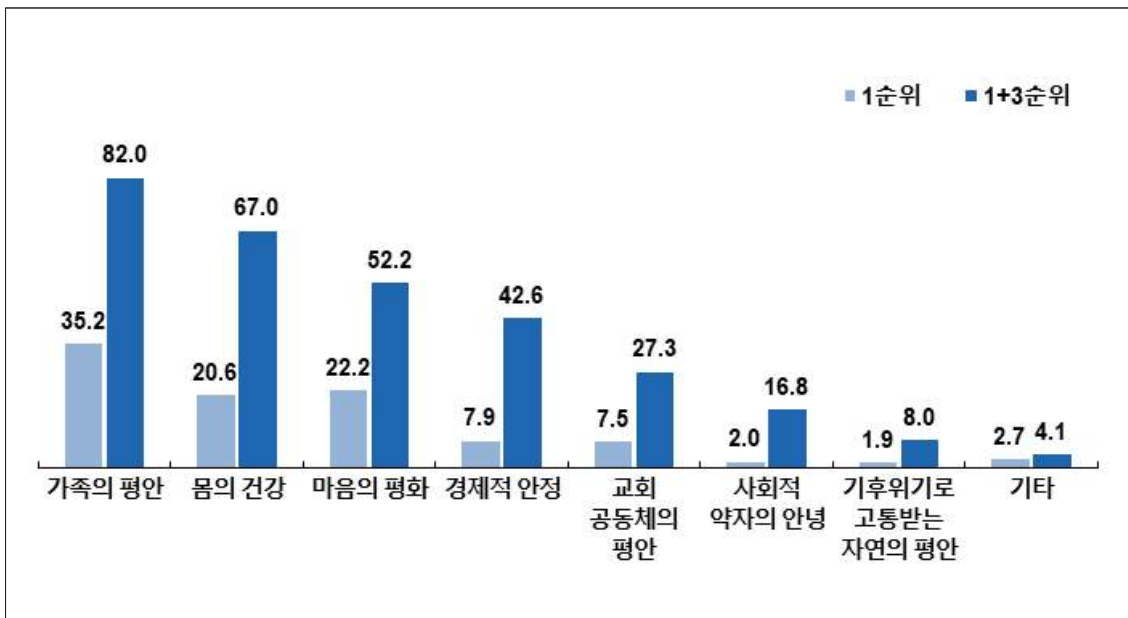
'몸의 건강'은 60세 이상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고, 59세 이하에서는 '경제적 안정' 응답률이 60세 이상 대비 월등히 높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또한, 기혼자는 '가족의 평안', 미혼자는 '마음의 평화',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기도하는 비율이 각각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반적으로 30대 이상과 기혼자는 '가족'을, 20대와 미혼자는 '개인'을 더 중시함을 알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는 비율은 신앙 생활 연수가 높을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고, 교인 수 99명 이하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1순위,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가족의 평안	마음의 평화	몸의 건강	경제적 안정	교회 공동체 의 평안	기타	사회적 약자의 안녕	기후 위기로 교통받 는 자연의 평안	계
전체		(1000)	35.2	22.2	20.6	7.9	7.5	2.7	2.0	1.9	100.0
성별	남성	(427)	34.1	24.7	18.3	8.9	6.0	3.2	3.3	1.4	100.0
	여성	(573)	36.0	20.3	22.4	7.1	8.6	2.4	1.1	2.3	100.0
연령	19~29세	(137)	24.1	34.4	14.1	14.4	5.9	1.4	3.9	1.8	100.0
	30~39세	(147)	36.6	26.1	16.0	9.9	6.2	2.8	0.0	2.3	100.0
	40~49세	(193)	39.4	18.6	24.4	4.3	5.8	3.1	3.1	1.3	100.0
	50~59세	(190)	34.0	19.1	20.6	7.6	10.3	5.0	2.0	1.5	100.0
	60세 이상	(333)	37.4	19.3	23.2	6.4	8.1	1.8	1.5	2.3	100.0
지역	서울	(244)	37.7	24.7	19.7	10.6	2.6	1.6	1.5	1.6	100.0
	경기/인천	(347)	32.5	19.5	21.5	7.8	8.7	5.4	3.6	1.1	100.0
	대전/충청	(102)	34.6	24.8	18.0	4.8	8.6	2.9	1.9	4.5	100.0
	부산/울산/경남	(89)	23.4	24.3	24.7	11.8	7.3	1.2	1.2	6.0	100.0
	광주/전라	(120)	39.7	21.4	18.6	4.9	13.6	0.7	0.4	0.6	100.0
	대구/경북	(66)	51.8	20.0	15.0	3.1	9.3	0.0	0.8	0.0	100.0
	강원/제주	(32)	28.4	25.8	34.4	7.2	2.9	0.0	0.0	1.4	100.0
직업	자영업	(122)	41.0	21.4	18.6	5.7	10.8	2.5	0.0	0.0	100.0
	화이트칼라	(302)	31.9	26.8	20.9	8.3	6.4	2.7	2.6	0.4	100.0
	블루칼라	(156)	43.9	20.7	19.4	5.9	2.5	1.7	4.3	1.6	100.0
	주부	(251)	36.9	14.5	23.1	6.2	11.4	3.4	0.5	4.1	100.0
	학생	(78)	19.1	34.3	15.8	14.9	5.9	3.5	3.4	3.1	100.0
고용 형태	무직/기타	(91)	32.3	21.5	21.9	10.9	6.0	2.6	2.0	2.7	100.0
	정규직	(339)	35.4	26.3	20.9	6.0	4.9	2.7	2.5	1.1	100.0
학력	비정규직	(124)	36.8	20.7	19.3	11.2	5.8	1.4	4.8	0.0	100.0
	고졸 이하	(206)	36.9	13.7	22.9	11.0	7.9	3.0	2.5	2.3	100.0
결혼여부	대재 이상	(794)	34.7	24.4	20.0	7.0	7.4	2.7	1.9	1.8	100.0
	기혼	(768)	37.4	20.5	21.5	6.0	7.9	2.8	1.9	2.0	100.0
신앙 생활 연수	미혼	(232)	27.9	27.6	17.8	14.0	6.3	2.7	2.3	1.4	100.0
	15년 이하	(216)	34.5	23.8	19.7	10.9	4.8	1.6	2.9	1.8	100.0
	16~25년 이하	(220)	33.5	26.2	19.4	9.6	4.5	1.3	2.0	3.5	100.0
	26~35년 이하	(234)	32.3	23.0	20.7	7.4	10.4	2.4	2.3	1.4	100.0
예배 참석 빈도	36년 이상	(330)	38.8	17.8	21.9	5.0	9.3	4.7	1.2	1.2	100.0
	주 3회 이상	(165)	27.1	20.5	20.6	4.3	17.7	3.7	2.0	4.1	100.0
	주 1~2회	(652)	35.7	21.7	20.1	8.5	6.7	3.3	2.3	1.7	100.0
	월 3회 이하	(145)	39.8	27.1	23.1	8.4	0.4	0.0	0.7	0.5	100.0
교단	연 1~3회	(38)	43.6	18.5	20.1	10.5	4.8	0.0	2.4	0.0	100.0
	예장통합	(302)	37.4	23.5	23.3	8.3	4.8	1.0	1.4	0.3	100.0
	예장합동	(195)	34.1	24.0	18.5	7.5	7.7	2.2	3.1	3.0	100.0
	감리교	(117)	33.8	18.5	23.9	10.3	2.8	4.1	2.2	4.3	100.0
	기타장로교	(171)	40.3	20.0	16.5	9.2	9.3	1.5	1.6	1.6	100.0
	기타 교단	(173)	27.0	22.3	19.9	4.4	15.2	6.5	2.3	2.5	100.0
교인 수	잘 모름	(42)	40.6	22.8	21.9	8.6	1.1	3.7	1.2	0.0	100.0
	99명 이하	(261)	38.5	18.3	19.2	8.1	11.2	2.0	2.1	0.7	100.0
	100~499명	(306)	31.1	23.6	22.8	8.9	7.1	2.9	1.8	1.9	100.0
	500~2999명	(244)	37.3	19.4	24.1	6.0	5.2	3.7	1.0	3.3	100.0
종교 중요도	3000명 이상	(189)	34.5	28.8	14.7	8.3	6.2	2.3	3.7	1.6	100.0
	중요하지않음	(38)	36.4	31.0	5.6	5.7	4.9	0.0	16.4	0.0	100.0
	보통	(137)	41.8	16.4	23.5	15.1	0.9	0.0	0.4	1.9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함	(825)	34.0	22.7	20.8	6.7	8.7	3.3	1.6	2.0	100.0

[표]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1+3순위,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가족의 평안	몸의 건강	마음의 평화	경제적 안정	교회 공동체의 평안	사회적 약자의 안녕	기후위기 로 고통받는 자연의 평안	기타
전체		(1000)	82.0	67.0	52.2	42.6	27.3	16.8	8.0	4.1
성별	남성	(427)	79.6	64.2	58.1	45.6	25.2	17.8	5.8	3.8
	여성	(573)	83.9	69.1	47.9	40.3	28.8	16.0	9.6	4.3
연령	19~29세	(137)	69.7	64.1	69.7	50.5	23.9	12.5	6.5	3.0
	30~39세	(147)	87.0	63.8	54.0	52.3	18.2	15.6	5.0	4.1
	40~49세	(193)	82.2	66.2	54.3	45.6	22.0	16.6	8.3	4.7
	50~59세	(190)	85.4	67.1	40.4	50.7	31.3	13.0	4.6	7.4
	60세 이상	(333)	82.9	70.1	49.8	28.6	33.5	21.3	11.6	2.2
지역	서울	(244)	83.4	67.5	56.5	45.0	22.5	15.7	7.2	2.2
	경기/인천	(347)	82.2	69.7	49.9	42.7	26.8	17.1	4.6	7.1
	대전/충청	(102)	76.3	60.7	55.7	33.8	37.6	21.8	10.7	3.4
	부산/울산/경남	(89)	74.4	66.4	52.1	47.2	29.2	14.3	14.5	1.9
	광주/전라	(120)	85.1	61.1	48.6	42.6	29.9	19.8	11.6	1.3
	대구/경북	(66)	85.1	71.1	52.4	38.3	29.5	15.4	6.5	1.6
	강원/제주	(32)	91.5	70.8	47.9	45.7	17.5	3.6	13.2	9.7
직업	자영업	(122)	80.9	64.3	63.4	39.9	23.6	19.8	5.6	2.5
	화이트칼라	(302)	82.9	66.0	55.3	45.1	26.1	14.7	6.0	3.8
	블루칼라	(156)	85.2	68.1	50.4	53.1	20.1	14.2	6.0	2.9
	주부	(251)	87.6	72.0	39.0	30.1	36.9	18.2	11.2	5.0
	학생	(78)	68.6	62.8	67.9	53.8	21.9	10.4	8.2	6.3
	무직/기타	(91)	71.2	62.1	53.3	44.5	26.4	25.5	11.9	5.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84.2	64.5	55.0	46.8	24.4	14.5	6.3	4.2
	비정규직	(124)	82.2	72.0	50.7	49.6	24.0	15.2	5.1	1.4
학력	고졸 이하	(206)	82.4	74.0	43.9	43.4	29.9	11.2	11.8	3.3
	대재 이상	(794)	81.9	65.2	54.4	42.3	26.6	18.2	7.0	4.3
결혼여부	기혼	(768)	84.7	67.5	49.0	39.6	28.5	18.3	8.5	3.8
	미혼	(232)	73.2	65.5	63.0	52.3	23.2	11.6	6.1	5.2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81.3	68.3	57.7	51.1	20.1	13.5	5.7	2.3
	16~25년 이하	(220)	81.0	65.0	60.8	47.2	22.4	12.1	8.8	2.7
	26~35년 이하	(234)	80.8	64.7	50.3	38.6	31.6	21.2	8.7	3.9
	36년 이상	(330)	84.0	69.3	44.3	36.7	32.2	18.8	8.4	6.3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75.6	66.1	37.3	30.7	54.1	19.8	10.6	5.8
	주 1~2회	(652)	82.5	67.6	52.1	42.8	24.9	16.7	8.8	4.5
	월 3회 이하	(145)	86.6	67.4	67.1	51.3	10.9	14.4	2.3	0.0
	연 1~3회	(38)	84.4	60.7	62.6	55.9	14.7	13.0	3.4	5.2
교단	예장통합	(302)	81.6	69.9	57.5	46.6	20.2	16.3	5.4	2.5
	예장합동	(195)	86.1	64.4	47.8	35.1	34.8	20.4	7.4	4.1
	감리교	(117)	79.3	70.9	55.6	41.9	27.3	12.2	7.8	5.1
	기타장로교	(171)	84.4	65.4	46.8	48.3	31.3	13.9	7.6	2.2
	기타 교단	(173)	77.5	59.9	50.9	35.8	30.3	22.3	15.5	7.7
교인 수	잘 모름	(42)	82.7	84.5	53.8	54.0	14.7	5.0	0.0	5.4
	99명 이하	(261)	83.9	67.1	45.6	41.2	34.2	18.3	6.7	3.1
	100~499명	(306)	79.1	68.5	55.8	45.9	21.9	14.3	10.0	4.4
	500~2999명	(244)	82.3	68.2	49.7	40.1	28.8	18.1	8.5	4.2
	3000명 이상	(189)	83.8	63.1	58.9	42.1	24.6	17.1	5.7	4.7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69.2	68.5	67.1	54.4	12.9	24.8	3.2	0.0
	보통	(137)	80.8	78.3	59.8	57.9	12.6	7.4	2.5	0.6
	중요함	(825)	82.8	65.1	50.3	39.5	30.4	18.0	9.1	4.9

5. 코로나19 이전 대비 성서 읽는 시간 변화

질문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성서 읽는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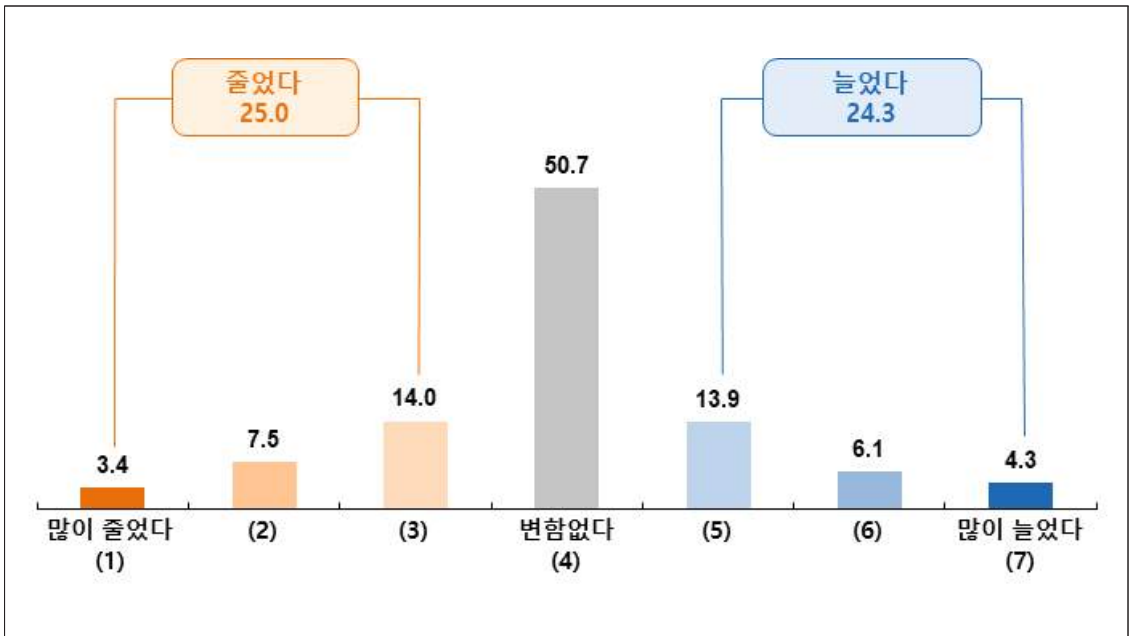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 대비 지난 2년 간 성서 읽는 시간은 '줄었다' 25.0%, '늘었다' 24.3%, '변함없다' 50.7%로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서 읽는 시간이 '늘었다'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고,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다. 성서 읽는 시간이 '줄었다'는 비율은 신앙 생활 연수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더 중요해진 것'으로 '성경공부'를 꼽은 응답자들은 37.9%가 성서 읽는 시간이 '늘었다'고 응답해,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느끼고 더 성서를 더 많이 읽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성서 읽는 시간 변화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이전 대비 성서 읽는 시간 변화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많이 줄었다 (1)	(2)	(3)	변함 없다 (4)	(5)	(6)	많이 늘었다 (7)	계	줄었다	변함 없다	늘었다
전체	(1000)	3.4	7.5	14.0	50.7	13.9	6.1	4.3	100.0	25.0	50.7	24.3
성별	남성	(427)	2.9	7.4	15.2	55.4	11.5	4.7	2.9	100.0	25.5	19.1
	여성	(573)	3.9	7.6	13.1	47.2	15.7	7.1	5.3	100.0	24.6	28.2
연령	19~29세	(137)	4.4	5.5	16.9	50.3	15.0	4.1	3.7	100.0	26.9	22.8
	30~39세	(147)	4.5	6.4	13.2	54.1	11.2	3.6	7.0	100.0	24.1	21.8
	40~49세	(193)	2.5	10.2	13.0	47.1	14.6	7.6	5.1	100.0	25.7	27.2
	50~59세	(190)	1.9	10.0	12.5	48.6	16.8	6.1	4.2	100.0	24.4	27.0
	60세 이상	(333)	4.0	5.9	14.6	52.7	12.7	7.1	3.0	100.0	24.5	22.8
지역	서울	(244)	2.9	7.9	13.4	45.0	18.6	6.2	6.0	100.0	24.2	30.9
	경기/인천	(347)	3.8	7.9	15.6	51.0	12.3	5.4	3.9	100.0	27.3	21.7
	대전/충청	(102)	3.1	8.0	14.5	50.8	9.3	8.4	5.9	100.0	25.6	23.6
	부산/울산/경남	(89)	6.5	13.2	11.4	38.1	21.2	7.6	2.0	100.0	31.1	30.8
	광주/전라	(120)	2.9	2.6	6.5	66.2	9.1	8.5	4.3	100.0	11.9	21.9
	대구/경북	(66)	2.9	6.9	17.4	55.5	14.7	2.0	0.6	100.0	27.2	17.3
직업	강원/제주	(32)	0.0	3.4	27.9	58.4	7.1	0.0	3.2	100.0	31.3	10.3
	자영업	(122)	3.0	9.5	11.1	63.5	7.5	5.4	0.0	100.0	23.6	12.9
	화이트칼라	(302)	4.5	5.8	13.6	50.2	15.2	5.7	5.0	100.0	23.9	25.9
	블루칼라	(156)	2.9	9.2	12.2	53.7	12.2	5.5	4.3	100.0	24.3	22.0
	주부	(251)	2.4	8.0	14.5	44.0	16.9	8.7	5.5	100.0	24.9	31.1
	학생	(78)	4.8	4.9	15.9	52.3	17.0	3.0	2.0	100.0	25.7	22.0
고용 형태	무직/기타	(91)	3.2	8.7	19.4	47.4	10.5	4.6	6.3	100.0	31.2	21.4
	정규직	(339)	3.2	5.6	15.2	53.2	14.1	4.7	4.0	100.0	24.0	22.8
학력	비정규직	(124)	5.8	10.8	9.7	44.5	13.8	8.7	6.7	100.0	26.3	29.2
	고졸 이하	(206)	2.9	11.0	11.3	52.6	10.2	7.3	4.7	100.0	25.2	22.2
결혼여부	대재 이상	(794)	3.6	6.6	14.7	50.2	14.9	5.8	4.2	100.0	24.9	24.8
	기혼	(768)	2.8	8.3	13.5	50.0	14.5	6.5	4.4	100.0	24.6	25.4
신앙 생활 연수	미혼	(232)	5.6	5.1	15.7	53.0	12.0	4.8	3.9	100.0	26.4	20.6
	15년 이하	(216)	6.0	10.8	20.6	42.8	11.9	4.0	3.9	100.0	37.4	19.8
	16~25년 이하	(220)	3.4	8.0	12.4	54.3	13.9	5.2	2.9	100.0	23.8	21.9
	26~35년 이하	(234)	1.1	6.6	13.6	53.2	14.7	5.8	5.0	100.0	21.4	25.5
예배 참석 빈도	36년 이상	(330)	3.5	5.7	11.1	51.8	14.8	8.2	5.0	100.0	20.3	28.0
	주 3회 이상	(165)	0.6	2.5	18.0	36.5	19.1	11.9	11.4	100.0	21.0	42.4
	주 1~2회	(652)	2.9	7.9	12.2	55.2	13.9	4.3	3.6	100.0	22.9	21.9
	월 3회 이하	(145)	6.5	12.9	18.9	44.6	8.8	8.1	0.3	100.0	38.3	17.1
교단	연 1~3회	(38)	14.4	3.0	9.7	58.8	10.9	3.3	0.0	100.0	27.1	14.1
	예장통합	(302)	4.6	6.0	15.4	49.3	15.6	5.8	3.2	100.0	26.0	24.6
	예장합동	(195)	4.5	6.2	13.9	49.8	11.9	8.9	4.7	100.0	24.6	25.6
	감리교	(117)	1.0	3.8	11.5	67.5	6.2	6.2	3.9	100.0	16.3	16.2
	기타장로교	(171)	3.1	13.7	13.2	41.5	19.2	4.5	4.8	100.0	30.0	28.5
	기타 교단	(173)	2.0	9.8	16.1	47.2	13.1	5.7	6.2	100.0	27.8	25.0
교인 수	잘 모름	(42)	4.9	0.0	6.1	70.2	14.5	2.7	1.5	100.0	11.0	18.8
	99명 이하	(261)	3.1	2.6	10.8	57.4	13.3	6.5	6.3	100.0	16.6	26.1
	100~499명	(306)	1.7	9.6	16.8	49.8	13.7	6.1	2.3	100.0	28.0	22.1
	500~2999명	(244)	3.2	7.9	14.4	48.3	16.6	5.3	4.3	100.0	25.5	26.2
코로나 이전 대비 더 중요해진 것	3000명 이상	(189)	7.0	10.6	13.4	46.1	11.9	6.5	4.6	100.0	31.0	22.9
	설교	(153)	3.3	6.6	11.2	61.3	10.0	4.6	3.0	100.0	21.2	17.5
	기도	(587)	3.8	7.7	14.9	50.2	13.7	5.8	3.9	100.0	26.4	23.3
	성경공부	(172)	2.4	5.3	13.8	40.6	22.0	7.9	8.0	100.0	21.5	37.9
	봉사	(28)	.0	3.3	20.8	58.4	4.8	12.7	.0	100.0	24.1	17.5
종교 중요도	친교	(44)	4.0	15.1	9.3	55.0	9.1	4.9	2.7	100.0	28.4	16.6
	중요하지않음	(38)	6.9	20.2	6.6	32.0	28.7	5.5	0.0	100.0	33.8	34.2
	보통	(137)	6.3	4.5	13.3	71.3	3.0	1.1	0.5	100.0	24.1	4.6
	중요함	(825)	2.8	7.5	14.5	48.2	15.1	6.9	5.1	100.0	24.7	27.1

6. 성서 읽는 방식

질문

귀하가 성서를 읽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성서를 읽는 방식으로는 '그냥 통독'(65.8%)이 가장 많았고, 'QT 등 묵상과 함께'하는 비율이 30.1%, '해석 자료와 공부'가 20.6%, '교인들과 토론'이 7.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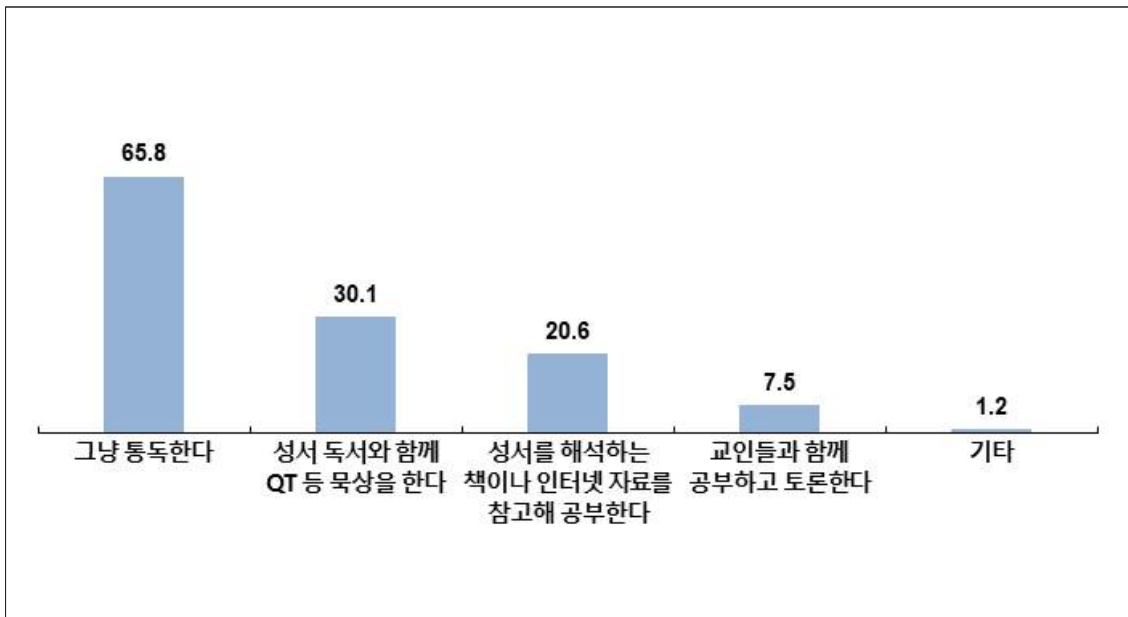
'그냥 통독한다'는 비율은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QT 등 묵상을 한다'는 비율은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더 중요해진 것으로 '성경공부'를 응답한 집단은 '해석 자료와 함께 공부한다'는 비율이 35.3%로 높았다.

또한, 코로나19 이전 대비 성서 읽는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자에서 'QT 등 묵상'을 하는 비율과 '해석 자료와 함께 공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성경공부를 중시하고 성서 읽는 시간이 긴 개신교인일수록 통독에 그치지 않고 묵상이나 해석 공부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다.

[그림] 성서 읽는 방식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성서 읽는 방식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냥 통독한다	성서 독서와 함께 QT 등 묵상을 한다	성서를 해석하는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 공부한다	교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다.	기타	
전체	(1000)	65.8	30.1	20.6	7.5	1.2	
성별	남성	(427)	63.6	33.6	21.0	7.9	1.4
	여성	(573)	67.5	27.4	20.3	7.2	1.1
연령	19~29세	(137)	68.1	35.7	22.4	9.6	0.9
	30~39세	(147)	68.7	30.7	12.7	8.7	1.8
	40~49세	(193)	61.9	30.9	17.5	9.7	1.4
	50~59세	(190)	69.7	26.0	16.7	2.9	0.4
	60세 이상	(333)	63.7	29.4	27.4	7.5	1.4
지역	서울	(244)	73.0	25.5	24.4	9.2	0.3
	경기/인천	(347)	66.2	33.4	15.6	5.2	2.1
	대전/충청	(102)	55.1	35.2	33.1	9.9	0.0
	부산/울산/경남	(89)	65.1	28.4	22.0	4.5	0.6
	광주/전라	(120)	59.9	28.1	20.5	11.2	2.1
	대구/경북	(66)	60.7	32.9	18.7	1.5	0.8
	강원/제주	(32)	77.0	19.5	7.1	19.1	1.5
	자영업	(122)	65.4	30.0	29.2	11.4	0.0
	화이트칼라	(302)	61.6	34.0	20.1	7.4	2.3
	블루칼라	(156)	74.1	22.0	11.2	8.5	0.0
	주부	(251)	66.9	30.5	22.0	3.5	0.6
	학생	(78)	70.0	31.8	20.3	10.2	1.7
	무직/기타	(91)	60.1	28.4	23.4	9.7	2.7
	정규직	(339)	65.6	31.0	19.8	7.7	1.2
고용 형태	비정규직	(124)	66.6	26.3	9.6	7.8	2.3
학력	고졸 이하	(206)	72.2	21.6	21.7	5.7	1.9
	대졸 이상	(794)	64.2	32.3	20.3	8.0	1.0
결혼여부	기혼	(768)	65.0	29.5	21.2	7.3	1.1
	미혼	(232)	68.8	32.0	18.8	8.1	1.5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62.2	26.7	24.5	9.7	1.1
	16~25년 이하	(220)	67.9	27.8	18.0	8.6	1.1
	26~35년 이하	(234)	66.0	29.1	20.6	7.9	0.5
	36년 이상	(330)	66.8	34.5	19.8	5.1	1.9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62.9	38.3	33.8	4.0	0.7
	주 1~2회	(652)	64.8	30.9	18.1	8.9	1.6
	월 3회 이하	(145)	70.8	20.1	19.3	6.2	0.4
	연 1~3회	(38)	77.8	18.5	11.1	4.1	0.0
교단	예장통합	(302)	66.6	27.6	19.3	6.9	1.2
	예장합동	(195)	63.4	41.1	20.1	8.3	1.9
	감리교	(117)	66.6	28.6	19.3	7.9	0.9
	기타장로교	(171)	67.9	27.9	20.8	5.3	0.5
	기타 교단	(173)	62.1	27.5	26.4	10.1	1.4
	잘 모름	(42)	76.9	20.4	12.0	5.5	1.7
교인 수	99명 이하	(261)	63.6	33.6	22.1	7.5	1.4
	100~499명	(306)	67.2	29.5	19.2	7.3	1.0
	500~2999명	(244)	66.4	30.8	22.0	8.8	1.2
	3000명 이상	(189)	66.2	25.3	19.0	6.2	1.4
코로나 이전 대비 더 중요해진 것	설교	(153)	71.3	24.8	18.2	10.5	.8
	기도	(587)	67.4	32.6	16.9	6.1	1.4
	성경공부	(172)	51.4	29.6	35.3	9.1	1.5
	봉사	(28)	67.4	11.7	39.8	11.5	.0
코로나 이전 대비 성서 읽는 시간	친교	(44)	78.4	30.7	12.6	7.5	.0
	즐거움	(250)	63.1	30.0	18.2	6.6	.5
	변화없음	(507)	67.1	25.0	18.5	7.6	1.7
	늘었음	(243)	66.0	40.9	27.6	8.3	.9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74.7	18.9	14.6	10.6	1.7
	보통	(137)	77.2	15.3	14.5	9.3	0.6
	중요함	(825)	63.6	33.1	21.9	7.1	1.3

7.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공감한 설교 내용

질문

코로나 시기 동안 예배 설교에서 귀하가 가장 공감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코로나19 기간 동안 설교에서 가장 공감한 내용을 물어보았다.

38.1%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응답했으며, '고난을 헤쳐 나가는 믿음' 27.9%, '교회의 사회적 책임' 14.6%, '위로' 11.0%, '공동체적 삶' 7.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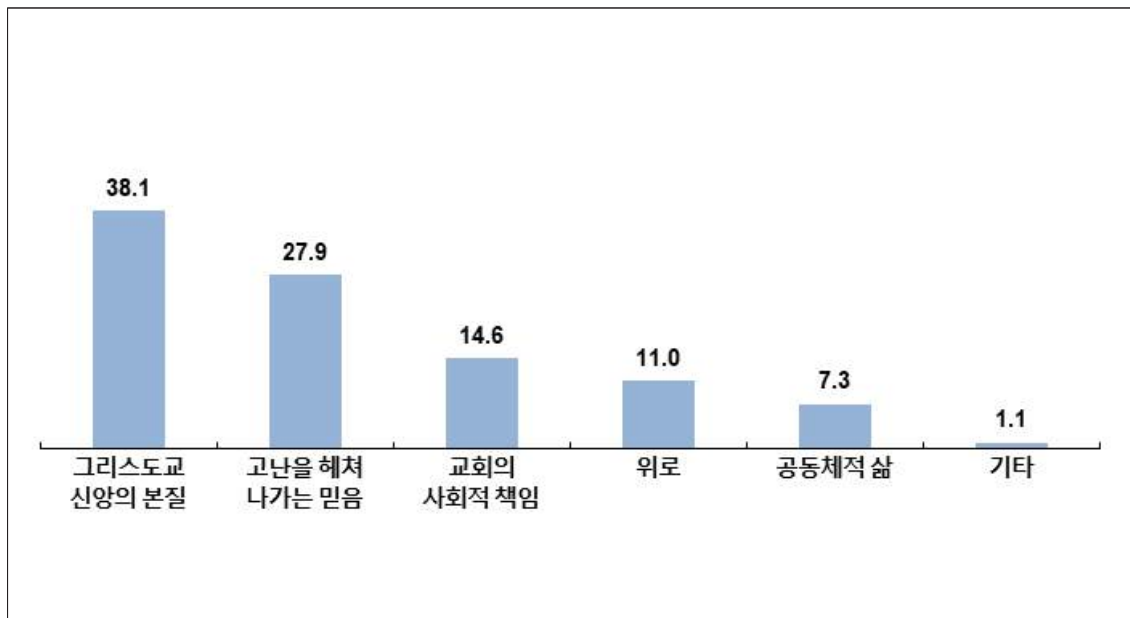
남성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여성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공감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고난을 헤쳐 나가는 믿음'에 공감한 비율이 높았고, 19~29세의 젊은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동체적 삶'에 공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 응답률은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고, '위로'는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예배 참석 빈도가 신앙의 깊이와 어느정도 비례한다고 가정할 때, 신앙이 깊을수록 '신앙의 본질'에, 신앙이 상대적으로 얕을수록 '개인적 위로'에 집중함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공감한 설교 내용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공감한 설교 내용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그리스도 교 신앙의 본질	고난을 헤쳐 나가는 믿음	교회의 사회적 책임	위로	공동체적 삶	기타	계
전체		(1000)	38.1	27.9	14.6	11.0	7.3	1.1	100.0
성별	남성	(427)	30.7	28.9	18.2	11.8	8.4	2.1	100.0
	여성	(573)	43.7	27.2	11.9	10.4	6.4	0.4	100.0
연령	19~29세	(137)	30.8	22.8	18.4	14.0	12.4	1.7	100.0
	30~39세	(147)	44.2	22.1	13.6	14.4	4.4	1.2	100.0
	40~49세	(193)	40.0	23.6	16.2	11.9	8.0	0.3	100.0
	50~59세	(190)	35.8	30.4	12.1	14.5	4.7	2.5	100.0
	60세 이상	(333)	38.6	33.7	14.0	5.7	7.5	0.5	100.0
지역	서울	(244)	39.3	24.3	12.1	13.2	9.0	2.0	100.0
	경기/인천	(347)	37.3	29.7	14.6	11.9	5.9	0.7	100.0
	대전/충청	(102)	37.1	25.2	12.2	9.2	15.4	0.9	100.0
	부산/울산/경남	(89)	40.7	33.4	12.3	7.7	5.3	0.6	100.0
	광주/전라	(120)	44.0	27.0	19.9	5.8	3.3	0.0	100.0
	대구/경북	(66)	28.7	31.1	18.8	14.3	3.6	3.5	100.0
직업	강원/제주	(32)	31.4	28.1	19.1	10.0	11.4	0.0	100.0
	자영업	(122)	23.8	29.5	19.0	11.2	13.7	2.7	100.0
	화이트칼라	(302)	40.9	24.7	12.9	14.5	5.3	1.6	100.0
	블루칼라	(156)	37.4	33.0	13.8	7.3	8.4	0.0	100.0
	주부	(251)	46.0	27.5	13.3	8.8	4.3	0.0	100.0
	학생	(78)	28.4	22.1	18.2	16.8	12.9	1.6	100.0
고용 형태	무직/기타	(91)	35.7	34.0	16.0	6.1	6.6	1.7	100.0
	정규직	(339)	42.0	26.4	11.9	14.2	5.0	0.7	100.0
학력	비정규직	(124)	33.2	31.1	16.4	5.8	11.3	2.2	100.0
	고졸 이하	(206)	35.4	31.9	18.8	8.0	5.9	0.0	100.0
결혼여부	대재 이상	(794)	38.8	26.9	13.5	11.7	7.6	1.4	100.0
	기혼	(768)	39.9	29.2	14.0	9.5	6.4	0.9	100.0
	미혼	(232)	32.1	23.8	16.6	15.8	10.0	1.7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27.2	33.2	16.2	12.5	10.7	0.2	100.0
	16~25년 이하	(220)	36.7	28.4	15.0	12.3	7.0	0.7	100.0
	26~35년 이하	(234)	40.0	23.1	14.0	13.5	7.4	1.9	100.0
	36년 이상	(330)	44.9	27.6	13.7	7.3	5.2	1.4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53.3	27.5	8.2	2.5	7.2	1.3	100.0
	주 1~2회	(652)	38.4	26.3	16.0	11.2	7.4	0.7	100.0
	월 3회 이하	(145)	24.0	34.6	16.6	14.8	6.8	3.2	100.0
	연 1~3회	(38)	20.4	31.7	11.1	29.2	7.5	0.0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34.3	27.4	15.4	15.5	5.9	1.5	100.0
	예장합동	(195)	42.0	27.6	14.6	7.5	7.2	1.2	100.0
	감리교	(117)	43.0	25.9	14.5	10.3	6.4	0.0	100.0
	기타장로교	(171)	42.3	24.3	14.5	9.9	7.9	1.1	100.0
	기타 교단	(173)	37.0	31.6	13.3	6.8	10.1	1.2	100.0
교인 수	잘 모름	(42)	21.8	38.9	15.7	18.0	5.5	0.0	100.0
	99명 이하	(261)	39.3	27.3	14.8	7.8	10.3	0.5	100.0
	100~499명	(306)	35.3	28.5	19.0	11.3	4.9	0.9	100.0
	500~2999명	(244)	36.0	27.4	12.6	15.5	7.3	1.1	100.0
	3000명 이상	(189)	43.8	28.5	9.8	8.9	6.8	2.2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30.7	24.3	7.1	23.7	10.9	3.2	100.0
	보통	(137)	21.3	28.4	23.7	16.9	8.3	1.5	100.0
	중요함	(825)	41.3	28.0	13.4	9.4	6.9	0.9	100.0

8. 작년 한 해 동안 읽은 신앙 및 신학 도서 권수

질문

2021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신앙 및 신학 도서를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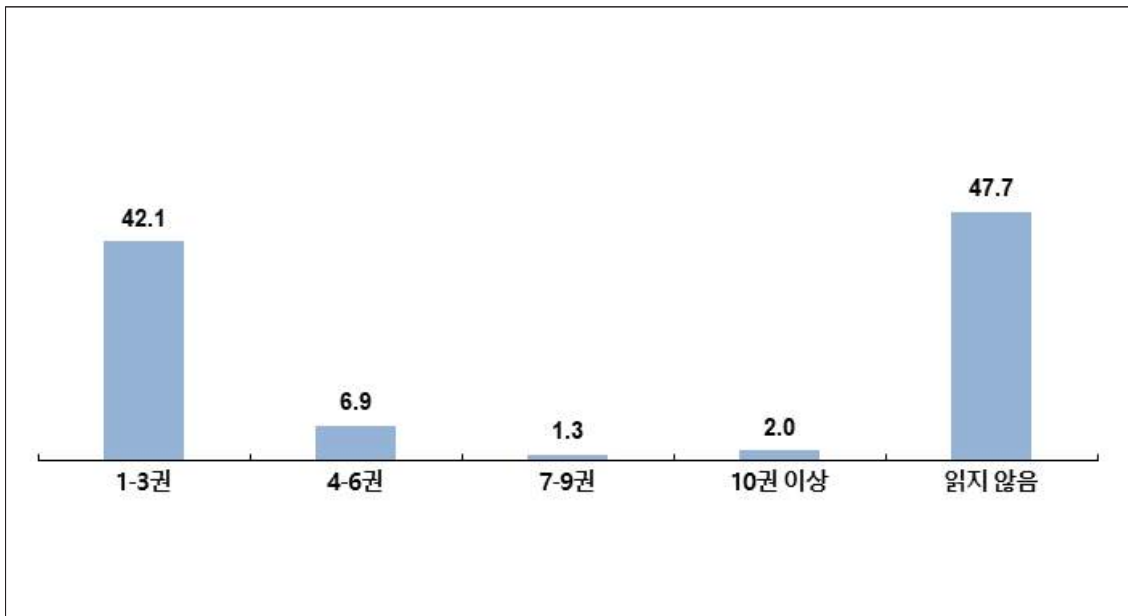
2021년 한 해 동안 읽은 신앙 및 신학 도서 권수를 묻은 결과, 47.7%가 '읽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즉, 작년 한 해 동안 신앙/신학 서적을 읽은 개신교인과 읽지 않은 개신교인이 절반 정도씩 나뉘는 모습을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신앙/신학 서적을 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 서적 읽은 비율이 높아진다.

또한, 교회 규모별로는 교인 수 3000명 이상 교회에서 '읽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전에 살펴본 데이터에 따르면, 교인 수 3000명 이상 교회에서 '코로나 기간 중 교인 간 사귀고 돌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율이 53.8%로 가장 높고(코로나 이전 대비 교인 간 교제가 줄었음을, 즉 코로나 이전에는 교인간 교제가 활발했음을 의미), '목회자가 성경공부를 잘 인도해 주었다'는 응답율도 3000명 이상 교회에서 가장 높았다. 대형교회 교인의 신앙 생활은 상대적으로 교회 활동이나 교인간 교제, 교회 프로그램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 작년 한 해 동안 읽은 신앙 및 신학 도서 권수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작년 한 해 동안 읽은 신앙 및 신학 도서 권수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1-3권	4-6권	7-9권	10권 이상	읽지 않음	계
전체		(1000)	42.1	6.9	1.3	2.0	47.7	100.0
성별	남성	(427)	39.6	8.5	0.6	3.0	48.3	100.0
	여성	(573)	44.0	5.6	1.7	1.3	47.3	100.0
연령	19~29세	(137)	33.1	9.7	1.2	2.9	53.2	100.0
	30~39세	(147)	35.7	5.9	2.2	1.7	54.5	100.0
	40~49세	(193)	35.5	9.0	0.4	2.7	52.5	100.0
	50~59세	(190)	42.3	6.0	1.3	0.8	49.5	100.0
	60세 이상	(333)	52.4	5.4	1.4	2.1	38.8	100.0
지역	서울	(244)	40.9	7.9	1.6	1.0	48.6	100.0
	경기/인천	(347)	40.1	4.8	0.9	2.0	52.2	100.0
	대전/충청	(102)	44.9	8.1	5.1	2.4	39.5	100.0
	부산/울산/경남	(89)	57.2	12.6	0.0	0.0	30.2	100.0
	광주/전라	(120)	42.3	6.8	0.3	2.9	47.7	100.0
	대구/경북	(66)	38.3	5.0	0.0	6.4	50.3	100.0
	강원/제주	(32)	29.7	6.2	0.0	1.5	62.7	100.0
직업	자영업	(122)	46.1	5.4	2.7	3.0	42.8	100.0
	화이트칼라	(302)	44.0	7.6	1.4	1.1	45.9	100.0
	블루칼라	(156)	33.0	6.6	0.0	1.2	59.2	100.0
	주부	(251)	47.4	6.5	1.6	1.8	42.8	100.0
	학생	(78)	29.5	9.9	1.6	1.7	57.3	100.0
	무직/기타	(91)	42.6	5.1	0.0	5.9	46.4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41.6	8.4	0.9	1.6	47.7	100.0
	비정규직	(124)	36.8	4.0	1.0	0.0	58.2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44.4	7.0	0.8	0.0	47.9	100.0
	대재 이상	(794)	41.5	6.8	1.4	2.5	47.7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44.7	6.2	1.3	2.0	45.7	100.0
	미혼	(232)	33.5	9.0	1.2	2.0	54.4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40.5	9.2	0.2	1.0	49.1	100.0
	16~25년 이하	(220)	42.8	8.4	2.4	0.2	46.2	100.0
	26~35년 이하	(234)	38.7	5.6	2.7	1.6	51.4	100.0
	36년 이상	(330)	45.1	5.2	0.2	4.2	45.3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49.5	16.2	2.5	4.3	27.5	100.0
	주 1~2회	(652)	42.3	5.4	1.2	1.5	49.6	100.0
	월 3회 이하	(145)	35.9	3.9	0.5	1.0	58.7	100.0
	연 1~3회	(38)	31.1	3.1	0.0	4.8	61.0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40.8	6.8	0.5	2.4	49.6	100.0
	예장합동	(195)	46.0	3.9	0.9	4.0	45.2	100.0
	감리교	(117)	38.5	5.2	2.9	0.8	52.6	100.0
	기타장로교	(171)	48.3	9.5	2.2	0.8	39.3	100.0
	기타 교단	(173)	41.8	9.9	1.3	1.3	45.6	100.0
	잘 모름	(42)	19.9	2.7	0.0	1.1	76.3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39.4	10.6	0.5	2.5	47.1	100.0
	100~499명	(306)	46.9	4.8	2.0	2.9	43.4	100.0
	500~2999명	(244)	42.6	8.1	1.1	0.8	47.5	100.0
	3000명 이상	(189)	37.6	3.5	1.4	1.5	56.0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42.8	1.7	0.0	0.0	55.5	100.0
	보통	(137)	23.4	6.1	0.0	0.0	70.5	100.0
	중요함	(825)	45.2	7.2	1.5	2.4	43.6	100.0

9. 읽은 신앙/신학 도서의 주제

질문

신앙 및 신학 도서를 읽으셨다면, 주로 어떤 주제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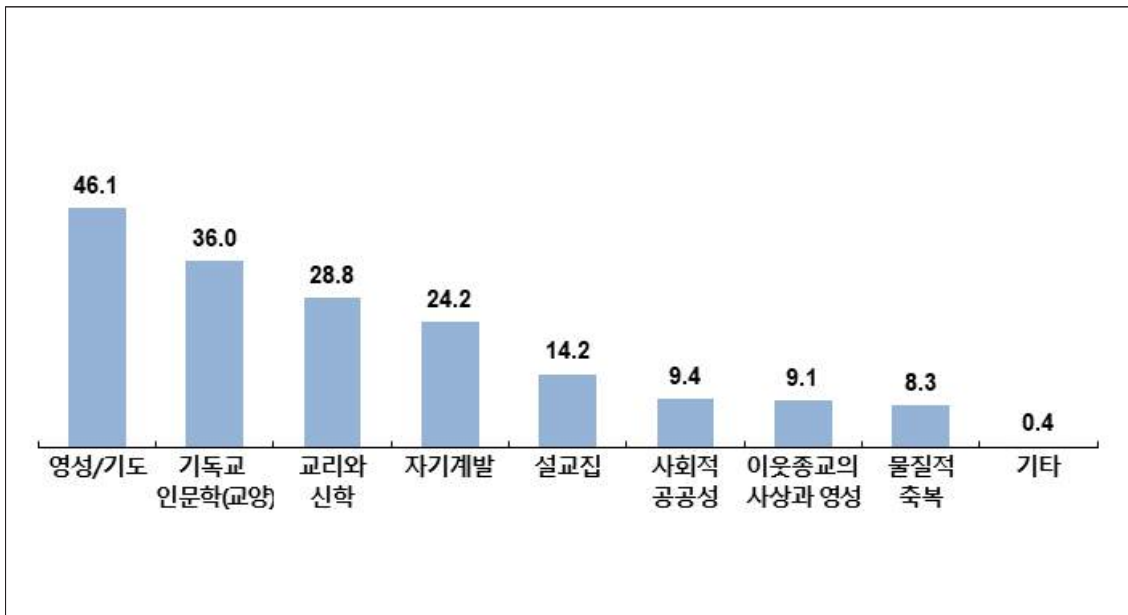
지난 1년간 읽은 신앙/신학 도서의 주제는 ‘영성/기도’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고(46.1%), ‘기독교 인문학(교양)’ 36.0%, ‘교리와 신학’ 28.8%, ‘자기 계발’ 2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 인문학’과 ‘교리와 신학’ 주제의 서적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기도’ 주제는 40대 이상에서 읽은 비율이 높고, ‘기독교 인문학’은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19~29세는 ‘사회적 공공성’을 주제로 하는 서적을 읽은 비율이 타 연령대 대비 가장 높는데, 앞서 코로나19 기간 중 가장 공감가는 설교 내용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꼽은 비율이 20대에서 18.4%로 가장 높았던 것과 연관지어 보면 20대 젊은 개신교인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영성/기도’ 주제의 서적은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읽은 비율이 높고, ‘교리와 신학’은 신앙 생활 연수가 짧을수록 읽은 비율이 높아진다. ‘물질적 축복’을 주제로 한 서적을 읽은 비율은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그림] 읽은 신앙/신학 도서의 주제

(Base=신앙/신학 도서 읽음, N=523, 단위 : %)



[표] 읽은 신앙/신학 도서의 주제 (응답자 특성별)

(Base=신앙/신학 도서 읽음, N=523,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영성/기 도	기독교 인문학 (교양)	교리와 신학	자기계 발	설교집	사회적 공공성	이웃 종교의 사상과 영성	물질적 축복	기타
전체		(523)	46.1	36.0	28.8	24.2	14.2	9.4	9.1	8.3	0.4
성별	남성	(221)	45.3	39.4	34.3	26.3	13.9	11.9	11.4	10.2	0.6
	여성	(302)	46.6	33.5	24.9	22.6	14.5	7.6	7.5	7.0	0.3
연령	19~29세	(64)	28.1	41.1	33.9	27.9	12.1	14.8	10.7	8.8	0.0
	30~39세	(67)	52.0	44.3	28.0	27.4	15.4	7.9	5.7	16.4	0.0
	40~49세	(92)	49.4	37.6	21.4	31.5	11.1	7.3	6.6	10.0	0.0
	50~59세	(96)	50.4	31.4	33.8	16.3	19.6	8.7	9.7	4.1	1.4
	60세 이상	(204)	46.3	33.1	28.5	22.3	13.4	9.5	10.6	6.7	0.4
지역	서울	(125)	50.2	37.8	34.2	25.7	14.6	13.2	10.6	6.0	0.4
	경기/인천	(166)	42.0	31.4	30.0	23.6	16.0	6.4	8.0	9.2	0.0
	대전/충청	(62)	43.4	42.5	33.6	20.8	10.9	5.5	7.7	11.5	2.5
	부산/울산/경남	(62)	54.3	42.2	11.4	25.4	11.3	13.4	11.1	11.8	0.0
	광주/전라	(63)	36.3	35.8	28.8	26.9	21.8	9.6	10.9	5.9	0.0
	대구/경북	(33)	52.7	31.0	22.0	20.7	0.0	11.8	6.6	6.0	0.0
	강원/제주	(12)	63.0	29.6	41.2	22.5	18.8	4.7	4.7	4.7	0.0
직업	자영업	(70)	47.1	27.8	34.1	24.7	8.7	5.1	5.4	14.9	0.0
	화이트칼라	(163)	48.4	40.7	33.2	23.4	15.9	10.9	10.1	9.2	0.3
	블루칼라	(64)	52.7	34.5	28.1	28.7	6.5	2.9	10.6	10.4	0.0
	주부	(144)	43.9	35.7	19.2	25.9	19.1	9.0	10.1	3.7	0.0
	학생	(33)	30.0	26.2	46.8	19.0	15.9	15.9	7.9	7.6	0.0
	무직/기타	(49)	45.4	41.5	24.0	18.2	11.4	16.1	7.4	7.1	3.2
고용 형태	정규직	(177)	46.5	40.2	31.2	27.0	14.7	11.1	10.9	9.2	0.3
	비정규직	(52)	58.0	34.1	32.3	17.9	7.5	0.0	10.3	10.3	1.6
학력	고졸 이하	(108)	42.8	34.7	25.9	16.1	16.3	11.9	14.5	7.3	0.8
	대재 이상	(415)	46.9	36.3	29.6	26.2	13.7	8.8	7.7	8.6	0.3
결혼여부	기혼	(417)	49.2	35.6	28.3	23.3	14.7	9.1	9.2	7.8	0.5
	미혼	(106)	33.8	37.6	31.0	27.7	12.5	10.6	8.7	10.2	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10)	39.7	40.6	33.7	27.3	10.8	14.0	10.1	14.2	0.0
	16~25년 이하	(119)	44.2	31.7	32.9	25.2	16.6	7.3	14.5	6.9	0.0
	26~35년 이하	(114)	42.8	42.6	26.4	24.3	12.9	11.1	5.6	10.1	1.4
	36년 이상	(181)	53.2	31.9	24.8	21.5	15.6	7.0	7.2	4.6	0.3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20)	58.8	33.7	32.1	18.7	16.3	8.0	6.5	4.8	0.6
	주 1~2회	(328)	42.7	37.7	30.2	24.6	14.1	9.9	9.6	10.0	0.2
	월 3회 이하	(60)	45.2	33.0	16.6	32.2	10.7	9.5	12.0	7.2	0.0
	연 1~3회	(15)	21.6	29.3	20.9	26.6	14.7	9.1	8.2	3.5	3.8
교단	예장통합	(152)	36.6	40.4	25.7	24.4	12.3	13.8	9.1	6.7	0.9
	예장합동	(107)	55.7	29.0	28.6	29.5	15.7	5.8	5.2	3.8	0.0
	감리교	(55)	41.7	33.5	24.2	33.3	4.1	6.2	14.0	15.1	0.0
	기타장로교	(104)	59.2	40.7	30.8	22.3	13.5	9.6	10.5	10.0	0.0
	기타 교단	(94)	40.2	32.7	34.8	14.1	23.9	7.7	8.7	11.0	0.8
	잘 모름	(10)	28.7	39.2	28.1	28.0	0.0	14.0	15.0	0.0	0.0
교인 수	99명 이하	(138)	46.6	31.4	38.5	23.9	19.7	9.9	8.5	7.1	0.0
	100~499명	(173)	46.5	38.8	21.4	25.6	13.7	9.7	12.1	10.2	0.8
	500~2999명	(128)	44.5	37.2	29.3	25.7	9.3	8.8	10.0	7.0	0.6
	3000명 이상	(83)	46.6	35.7	27.6	19.3	14.0	9.0	2.7	8.5	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7)	49.6	39.8	27.2	30.4	8.6	16.7	16.8	11.1	0.0
	보통	(41)	36.9	27.0	36.0	37.6	3.2	10.1	24.7	18.8	0.0
	중요함	(465)	46.7	36.6	28.3	22.8	15.4	9.1	7.5	7.3	0.5

10.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의 깊이 평가

질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귀하의 신앙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코로나19를 겪으며 신앙의 깊이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절반 정도는 '차이가 없다'(47.4%)고 응답했고, '약화됨' 29.0%, '깊어짐' 23.6% 응답으로, 전체적으로 개신교인의 신앙이 코로나를 겪으며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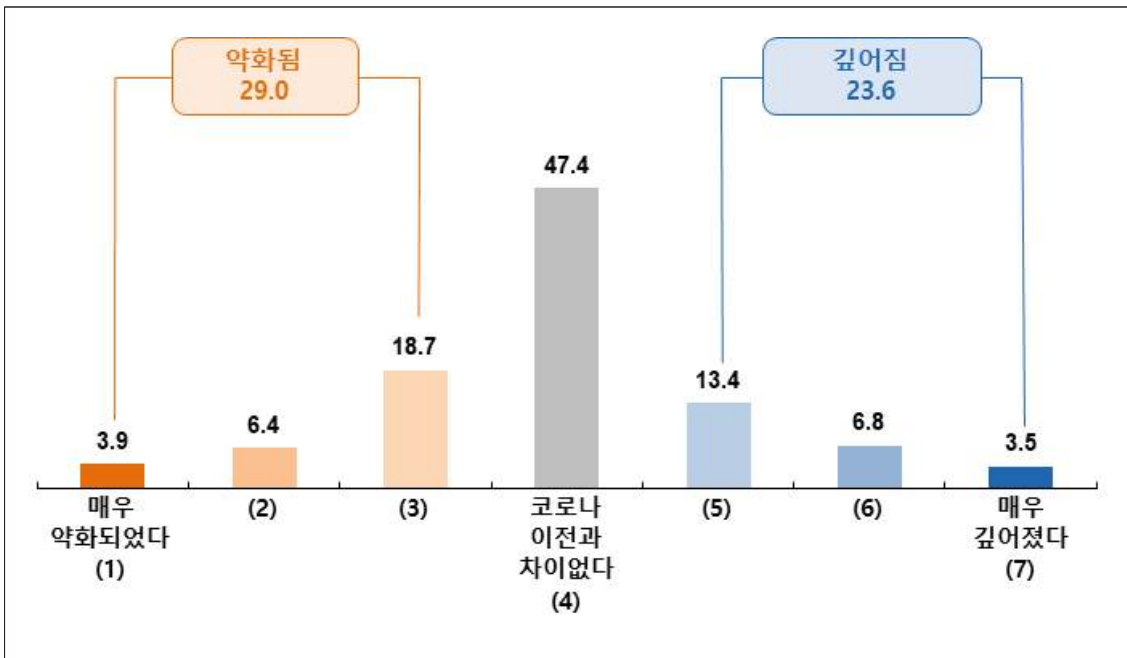
남성은 '차이 없다'는 비율이 높고, 여성은 남성보다 '약화됨'과 '깊어짐' 비율이 높는데 이는 즉, 코로나로 인한 신앙의 양극화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음을 말해준다.

코로나를 겪으며 신앙이 '깊어졌다'는 비율은 19~29세에서 30.7%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이며, '약해졌다'는 비율은 신앙 생활 연수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또한,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깊어진' 비율이 높고, 빈도가 낮을수록 '약해진'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의 깊이 평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의 깊이 평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약화 되었다 (1)	(2)	(3)	코로나 이전과 차이 없다 (4)	(5)	(6)	매우 깊어 졌다 (7)	계	약화됨	차이 없음	깊어짐
전체		(1000)	3.9	6.4	18.7	47.4	13.4	6.8	3.5	100.0	29.0	47.4	23.6
성별	남성	(427)	2.0	5.4	19.5	52.0	12.7	4.2	4.2	100.0	26.9	52.0	21.1
	여성	(573)	5.3	7.2	18.1	43.9	13.9	8.7	2.9	100.0	30.6	43.9	25.5
연령	19~29세	(137)	2.5	7.1	21.5	38.2	15.1	13.3	2.3	100.0	31.1	38.2	30.7
	30~39세	(147)	6.3	8.9	17.2	47.3	10.4	3.7	6.3	100.0	32.3	47.3	20.4
	40~49세	(193)	5.9	5.7	23.0	43.4	11.7	6.3	4.0	100.0	34.6	43.4	22.0
	50~59세	(190)	2.8	6.3	23.4	42.5	18.1	4.6	2.3	100.0	32.5	42.5	25.0
	60세 이상	(333)	2.8	5.6	13.0	56.2	12.4	6.9	3.1	100.0	21.4	56.2	22.3
지역	서울	(244)	3.8	10.5	19.0	41.6	13.6	7.7	3.8	100.0	33.3	41.6	25.1
	경기/인천	(347)	4.5	5.3	19.0	50.1	11.2	6.1	3.9	100.0	28.8	50.1	21.1
	대전/충청	(102)	2.7	3.3	17.0	54.5	15.1	4.1	3.3	100.0	23.1	54.5	22.5
	부산/울산/경남	(89)	2.6	8.1	20.7	40.5	10.1	14.0	3.9	100.0	31.4	40.5	28.1
	광주/전라	(120)	3.1	3.5	15.9	47.4	20.4	6.2	3.5	100.0	22.5	47.4	30.1
	대구/경북	(66)	7.7	4.9	15.7	55.8	11.2	3.8	0.9	100.0	28.3	55.8	15.9
	강원/제주	(32)	0.0	7.8	29.0	40.6	17.9	3.2	1.5	100.0	36.8	40.6	22.6
직업	자영업	(122)	0.0	2.3	15.8	50.6	18.1	7.3	5.8	100.0	18.2	50.6	31.2
	화이트칼라	(302)	4.1	7.4	17.7	48.4	13.5	5.1	3.8	100.0	29.2	48.4	22.4
	블루칼라	(156)	2.7	5.6	16.1	53.9	11.9	5.8	4.1	100.0	24.4	53.9	21.7
	주부	(251)	6.4	6.4	22.2	44.8	11.4	6.9	1.8	100.0	35.1	44.8	20.0
	학생	(78)	3.4	8.4	22.2	31.7	15.9	13.9	4.4	100.0	33.9	31.7	34.3
	무직/기타	(91)	3.6	8.7	17.3	48.8	13.0	6.8	1.9	100.0	29.6	48.8	21.6
고용 형태	정규직	(339)	3.8	6.9	17.5	51.5	12.5	3.9	3.8	100.0	28.3	51.5	20.2
	비정규직	(124)	3.0	6.0	16.7	46.2	15.1	8.9	4.1	100.0	25.7	46.2	28.1
학력	고졸 이하	(206)	2.7	4.2	18.7	55.2	8.7	7.4	3.0	100.0	25.6	55.2	19.1
	대제 이상	(794)	4.2	7.0	18.7	45.3	14.6	6.6	3.6	100.0	29.9	45.3	24.8
결혼여부	기혼	(768)	3.9	6.5	17.9	48.8	14.0	5.6	3.3	100.0	28.4	48.8	22.8
	미혼	(232)	3.6	6.1	21.2	42.6	11.6	10.7	4.1	100.0	31.0	42.6	26.4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3.4	6.0	27.4	37.6	17.4	5.4	2.7	100.0	36.8	37.6	25.6
	16~25년 이하	(220)	5.7	7.3	17.4	49.3	8.6	9.2	2.4	100.0	30.4	49.3	20.2
	26~35년 이하	(234)	3.3	6.6	15.0	52.7	11.9	4.7	5.8	100.0	24.9	52.7	22.4
	36년 이상	(330)	3.4	6.0	16.5	48.6	15.1	7.4	3.0	100.0	25.8	48.6	25.5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0.5	5.7	12.2	45.9	15.9	12.2	7.5	100.0	18.5	45.9	35.6
	주 1~2회	(652)	3.8	5.0	18.9	48.8	14.4	6.4	2.7	100.0	27.7	48.8	23.5
	월 3회 이하	(145)	6.0	11.5	26.4	43.6	7.8	3.9	0.7	100.0	44.0	43.6	12.4
	연 1~3회	(38)	11.7	15.4	12.9	43.9	6.4	0.0	9.8	100.0	39.9	43.9	16.2
교단	예장통합	(302)	4.9	5.6	22.6	46.8	13.6	3.4	3.0	100.0	33.1	46.8	20.1
	예장합동	(195)	3.9	7.9	18.0	48.6	10.9	6.9	3.9	100.0	29.8	48.6	21.6
	감리교	(117)	1.7	4.5	15.3	61.7	12.6	2.8	1.4	100.0	21.5	61.7	16.8
	기타장로교	(171)	4.6	6.6	19.6	42.5	12.6	10.0	4.0	100.0	30.8	42.5	26.7
	기타 교단	(173)	3.2	7.3	15.9	37.8	17.8	12.8	5.1	100.0	26.4	37.8	35.7
	잘 모름	(42)	2.4	6.8	11.3	64.3	11.0	2.7	1.5	100.0	20.5	64.3	15.2
교인 수	99명 이하	(261)	2.7	4.4	13.5	53.3	16.1	8.1	1.8	100.0	20.6	53.3	26.1
	100~499명	(306)	5.2	7.0	26.2	40.1	12.3	6.4	2.8	100.0	38.4	40.1	21.5
	500~2999명	(244)	1.7	7.9	16.3	46.4	15.2	5.7	6.8	100.0	25.9	46.4	27.7
	3000명 이상	(189)	6.1	6.4	16.9	52.2	9.2	6.7	2.5	100.0	29.4	52.2	18.4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8.2	21.5	12.0	39.9	12.6	5.7	0.0	100.0	41.7	39.9	18.4
	보통	(137)	5.4	8.4	18.5	61.8	4.9	1.1	0.0	100.0	32.2	61.8	5.9
	중요함	(825)	3.4	5.4	19.0	45.3	14.9	7.7	4.2	100.0	27.9	45.3	26.8

11.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이 깊어진 이유

질문

코로나 이전보다 귀하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수응답)



코로나19 이전보다 신앙이 더 깊어진 이유로, 절반 가량은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에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49.8%). 그 다음으로 '비대면 상황에서도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지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 25.6%, '목회자의 영적 지도나 교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 생활을 했어야 하기 때문'이 20.0%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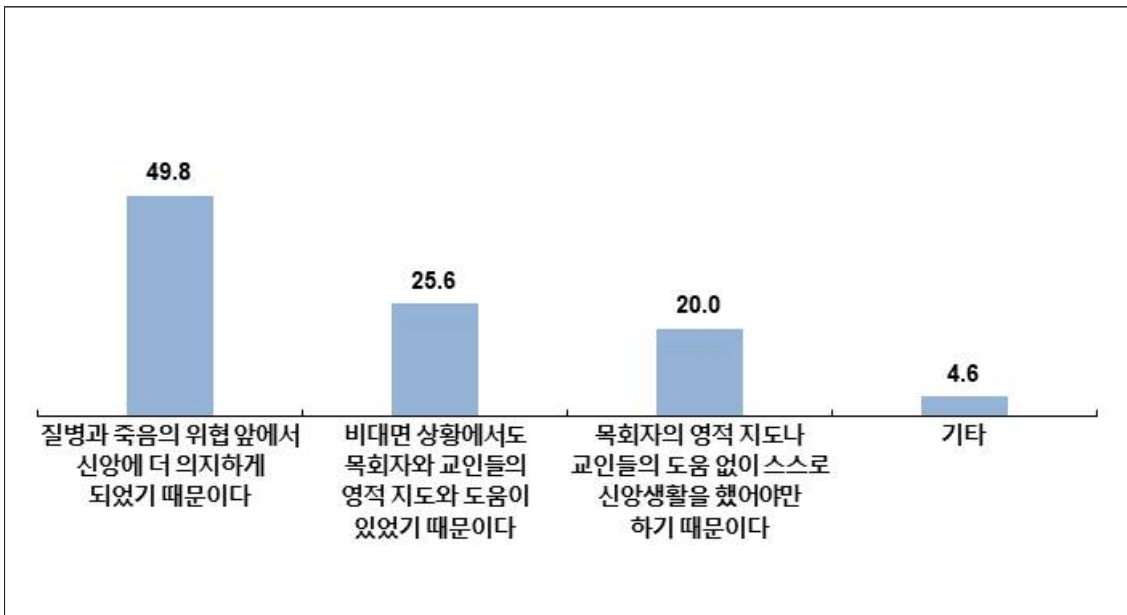
'질병과 죽음 앞에서 신앙에 의지' 응답율은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고, 19~29세에서는 '목회자와 교인의 영적 지도와 도움',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해야함' 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앙 생활 연수 36년 이상 응답자에서 '질병과 죽음 앞에서 신앙에 의지' 응답율이 월등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35년 이하 응답자에서는 '목회자와 교인의 영적 지도와 도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 상황에서도 목회자의 교인의 영적 지도와 도움' 응답률은 교인 수 99명 이하 교회에서 가장 높고,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해야해서' 응답율은 교인 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정 반대의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교회 규모에 따라 목회자의 성도 개인에 대한 돌봄과 지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이 깊어진 이유

(Base=코로나 중 신앙이 깊어짐, N=236,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이 깊어진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코로나 중 신앙이 깊어짐, N=236,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에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지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영적 지도나 교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 생활을 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타	계
전체		(236)	49.8	25.6	20.0	4.6	100.0
성별	남성	(90)	48.2	26.5	17.3	8.1	100.0
	여성	(146)	50.8	25.1	21.7	2.4	100.0
연령	19~29세	(42)	21.8	40.0	30.8	7.4	100.0
	30~39세	(30)	53.6	19.1	27.3	0.0	100.0
	40~49세	(42)	37.9	37.6	21.9	2.6	100.0
	50~59세	(47)	66.8	20.6	11.6	1.1	100.0
	60세 이상	(74)	60.1	16.4	15.2	8.3	100.0
지역	서울	(61)	41.8	25.8	30.0	2.3	100.0
	경기/인천	(73)	49.1	29.5	15.9	5.6	100.0
	대전/충청	(23)	46.2	42.3	8.6	2.9	100.0
	부산/울산/경남	(25)	70.4	13.8	15.7	0.0	100.0
	광주/전라	(36)	55.4	16.3	16.6	11.7	100.0
	대구/경북	(10)	20.5	39.0	40.5	0.0	100.0
	강원/제주	(7)	78.9	0.0	14.5	6.5	100.0
직업	자영업	(38)	76.2	13.8	0.0	10.1	100.0
	화이트칼라	(68)	42.6	30.5	21.3	5.5	100.0
	블루칼라	(34)	51.1	30.5	18.4	0.0	100.0
	주부	(50)	56.2	20.1	23.7	0.0	100.0
	학생	(27)	20.9	31.7	39.0	8.5	100.0
	무직/기타	(20)	44.3	29.1	21.5	5.1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68)	45.4	28.9	22.0	3.8	100.0
	비정규직	(35)	46.0	34.6	16.1	3.3	100.0
학력	고졸 이하	(39)	57.7	29.8	12.6	0.0	100.0
	대재 이상	(197)	48.2	24.8	21.5	5.5	100.0
결혼여부	기혼	(175)	56.0	21.7	17.9	4.4	100.0
	미혼	(61)	32.1	36.7	26.1	5.1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55)	32.0	38.9	26.6	2.5	100.0
	16~25년 이하	(45)	44.2	29.5	21.2	5.1	100.0
	26~35년 이하	(52)	37.6	32.4	21.8	8.1	100.0
	36년 이상	(84)	71.9	10.7	13.9	3.5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59)	56.1	25.9	14.6	3.4	100.0
	주 1~2회	(153)	46.2	24.4	23.7	5.8	100.0
	월 3회 이하	(18)	55.7	33.6	10.7	0.0	100.0
	연 1~3회	(6)	62.8	29.9	7.3	0.0	100.0
교단	예장통합	(61)	56.2	15.8	28.0	0.0	100.0
	예장합동	(42)	40.5	36.9	18.5	4.2	100.0
	감리교	(20)	51.1	20.1	23.1	5.8	100.0
	기타장로교	(46)	57.0	24.6	18.4	0.0	100.0
	기타 교단	(62)	49.3	25.7	13.2	11.9	100.0
	잘 모름	(6)	0.0	68.3	21.8	9.9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68)	50.1	34.1	13.3	2.6	100.0
	100~499명	(66)	56.9	15.6	20.0	7.5	100.0
	500~2999명	(68)	46.7	27.8	22.1	3.4	100.0
	3000명 이상	(35)	41.8	23.7	29.1	5.3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7)	50.8	15.1	34.1	0.0	100.0
	보통	(8)	55.8	0.0	44.2	0.0	100.0
	중요함	(221)	49.5	26.9	18.7	4.9	100.0

12.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이 약해진 이유

질문

코로나 이전보다 귀하의 신앙이 더 약화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수응답)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이 더 약화된 이유로는 '예배 참석이나 모임 참여 등의 기회가 줄었기 때문에'가 71.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교회가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이고 이를 통해 신앙이 성숙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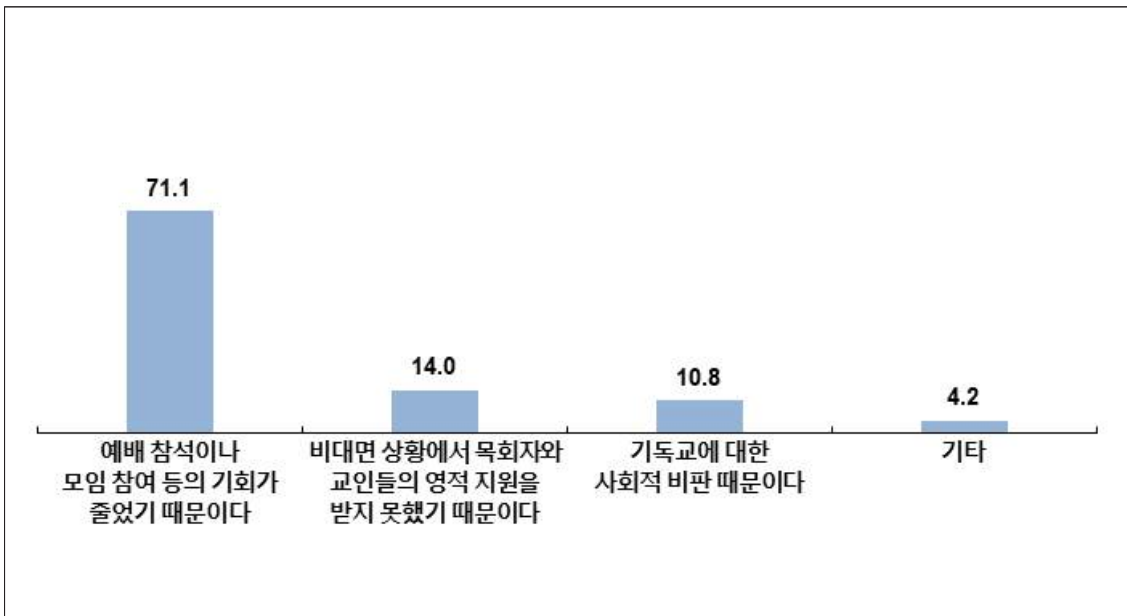
'비대면 상황에서 목회자와 교인의 영적 지원을 받지 못함'은 14.0%,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은 10.8% 응답되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은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에서 월등히 높고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은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신앙 연수가 짧은 사람이 사회적 시선을 더 많이 의식함을 보여준다.

한편 '예배 참석/모임 기회 줄었기 때문'은 교인 수 500명 이상의 교회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앞서 언급한 것(p.104)과 같이 대형교회일수록 교인들이 교제나 교회 활동을 통해 받는 신앙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이 약해진 이유

(Base=코로나 중 신앙이 약해짐, N=29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신앙이 약해진 이유 (응답자 특성별)

(Base=코로나 중 신앙이 약해짐, N=29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예배 참석이나 모임 참여 등의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비대면 상황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이다	기타	계
전체		(290)	71.1	14.0	10.8	4.2	100.0
성별	남성	(115)	68.7	14.2	12.1	5.0	100.0
	여성	(175)	72.6	13.8	9.9	3.7	100.0
연령	19~29세	(43)	70.1	16.3	9.5	4.2	100.0
	30~39세	(47)	77.2	14.7	6.8	1.3	100.0
	40~49세	(67)	60.8	18.1	17.8	3.3	100.0
	50~59세	(62)	74.6	11.5	10.6	3.3	100.0
	60세 이상	(71)	74.1	10.4	7.7	7.8	100.0
지역	서울	(81)	72.4	13.2	8.6	5.7	100.0
	경기/인천	(100)	72.7	12.1	12.5	2.6	100.0
	대전/충청	(23)	82.2	9.8	3.9	4.0	100.0
	부산/울산/경남	(28)	71.7	13.8	12.2	2.4	100.0
	광주/전라	(27)	67.4	15.9	14.1	2.7	100.0
	대구/경북	(19)	45.0	28.1	19.3	7.6	100.0
	강원/제주	(12)	73.7	16.7	0.0	9.6	100.0
직업	자영업	(22)	83.6	16.4	0.0	0.0	100.0
	화이트칼라	(88)	72.2	12.5	13.2	2.1	100.0
	블루칼라	(38)	64.4	17.1	18.5	0.0	100.0
	주부	(88)	71.7	12.5	9.2	6.6	100.0
	학생	(27)	71.4	19.1	5.2	4.3	100.0
	무직/기타	(27)	63.9	12.3	11.5	12.3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96)	69.0	12.7	17.1	1.2	100.0
	비정규직	(32)	73.7	17.0	7.1	2.2	100.0
학력	고졸 이하	(53)	74.1	13.2	7.1	5.5	100.0
	대재 이상	(237)	70.4	14.2	11.6	3.9	100.0
결혼여부	기혼	(218)	70.3	14.4	10.9	4.4	100.0
	미혼	(72)	73.3	12.9	10.3	3.5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79)	65.6	11.0	20.1	3.3	100.0
	16~25년 이하	(67)	78.3	16.0	5.6	0.0	100.0
	26~35년 이하	(58)	69.0	14.3	9.8	6.9	100.0
	36년 이상	(85)	71.9	14.9	6.8	6.4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30)	66.6	15.0	8.5	9.9	100.0
	주 1~2회	(181)	73.0	14.7	9.0	3.3	100.0
	월 3회 이하	(64)	68.9	12.7	16.9	1.6	100.0
	연 1~3회	(15)	65.8	9.3	11.0	13.9	100.0
교단	예장통합	(100)	68.9	15.1	13.8	2.2	100.0
	예장합동	(58)	62.7	19.3	10.8	7.2	100.0
	감리교	(25)	75.8	13.5	2.3	8.5	100.0
	기타장로교	(53)	78.7	5.6	14.5	1.3	100.0
	기타 교단	(46)	73.5	16.1	5.5	4.9	100.0
	잘 모름	(9)	79.0	7.2	5.4	8.4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54)	57.7	19.5	16.3	6.5	100.0
	100~499명	(118)	68.5	14.4	12.9	4.2	100.0
	500~2999명	(63)	81.5	11.7	5.7	1.0	100.0
	3000명 이상	(56)	77.6	10.3	6.7	5.5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16)	51.4	11.6	37.1	0.0	100.0
	보통	(44)	70.0	4.0	15.8	10.3	100.0
	중요함	(230)	72.6	16.1	8.0	3.3	100.0

V

코로나19와 성가대

1. 코로나19 이전 출석 교회의 성가대 유무

질문

코로나 이전에 귀하의 교회는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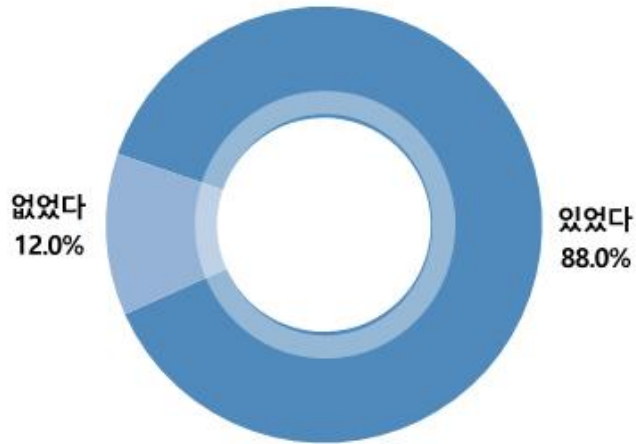


코로나19 이전에 대부분의 교회에는 성가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88.0%).

교인 수 100명 이상의 교회에는 거의 모두(91% 이상) 성가대가 있었고, 99명 이하 교회에서는 69.4%만 성가대가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출석 교회의 성가대 유무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이전 출석 교회의 성가대 유무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있었다	없었다	계
전체		(1000)	88.0	12.0	100.0
성별	남성	(427)	87.7	12.3	100.0
	여성	(573)	88.2	11.8	100.0
연령	19~29세	(137)	87.9	12.1	100.0
	30~39세	(147)	83.4	16.6	100.0
	40~49세	(193)	87.9	12.1	100.0
	50~59세	(190)	92.0	8.0	100.0
	60세 이상	(333)	87.9	12.1	100.0
지역	서울	(244)	92.7	7.3	100.0
	경기/인천	(347)	87.1	12.9	100.0
	대전/충청	(102)	89.4	10.6	100.0
	부산/울산/경남	(89)	86.2	13.8	100.0
	광주/전라	(120)	81.4	18.6	100.0
	대구/경북	(66)	94.9	5.1	100.0
	강원/제주	(32)	73.8	26.2	100.0
직업	자영업	(122)	88.4	11.6	100.0
	화이트칼라	(302)	88.5	11.5	100.0
	블루칼라	(156)	86.4	13.6	100.0
	주부	(251)	87.6	12.4	100.0
	학생	(78)	92.0	8.0	100.0
	무직/기타	(91)	86.2	13.8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88.8	11.2	100.0
	비정규직	(124)	85.6	14.4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90.6	9.4	100.0
	대재 이상	(794)	87.3	12.7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88.6	11.4	100.0
	미혼	(232)	86.1	13.9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86.7	13.3	100.0
	16~25년 이하	(220)	92.1	7.9	100.0
	26~35년 이하	(234)	86.1	13.9	100.0
	36년 이상	(330)	87.4	12.6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86.2	13.8	100.0
	주 1~2회	(652)	87.1	12.9	100.0
	월 3회 이하	(145)	94.4	5.6	100.0
	연 1~3회	(38)	87.5	12.5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90.6	9.4	100.0
	예장합동	(195)	83.0	17.0	100.0
	감리교	(117)	89.8	10.2	100.0
	기타장로교	(171)	90.2	9.8	100.0
	기타 교단	(173)	88.5	11.5	100.0
	잘 모름	(42)	76.3	23.7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69.4	30.6	100.0
	100~499명	(306)	91.8	8.2	100.0
	500~2999명	(244)	97.5	2.5	100.0
	3000명 이상	(189)	95.2	4.8	100.0
	중요하지않음	(38)	90.2	9.8	100.0
종교 중요도	보통	(137)	92.7	7.3	100.0
	중요함	(825)	87.1	12.9	100.0

2. 코로나19 이후 성가대 비중에 대한 의견

질문

코로나 이후 교회 예배 중 성가대 찬양의 비중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수)



코로나19 이후 예배 중 성가대 찬양의 비중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고, ‘독창이나 중창 등 다양한 형태의 찬양으로 전환해도 괜찮다’가 32.3%, ‘별도 찬양 없이 교인의 합창으로 충분하다’는 16.4% 응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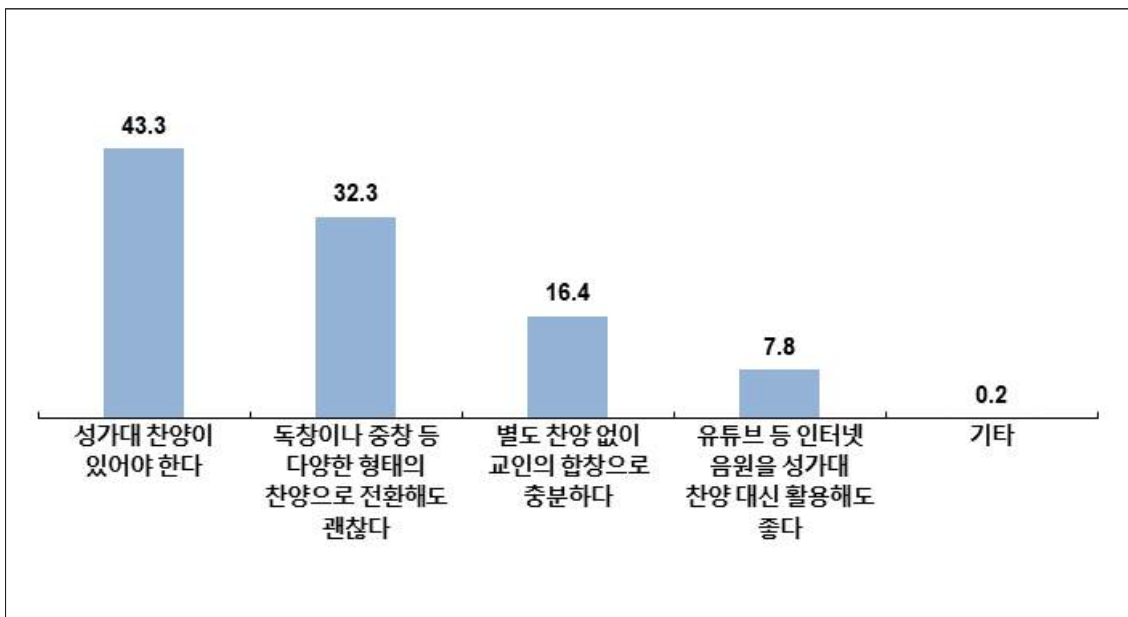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비율은 60세 이상에서 가장 높고, ‘독창/중창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해도 괜찮다’는 비율은 19~29세에서 가장 높아 연령별 인식 차이를 보인다.

또한, 예배 참석 빈도에 따라, 주 3회 이상 참석 집단은 ‘성가대가 있어야 한다’, 주 1~2회 참석 집단은 ‘독창/중창 등으로 전환도 괜찮다’, 연 1~3회 참석 집단은 ‘별도 찬양 없이 교인의 합창으로 충분하다’가 각각 높게 응답된 특징을 보인다.

교회 규모별로는 교인 수가 많을수록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한다’ 비율이 높아지는데, 3000명 이상 교회는 절반이 이에 동의했다. 앞서 3000명 이상 교회의 95.2%가 코로나 이전 성가대가 있었음에 유의해볼 때,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가대에 익숙하고 중요시하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성가대 비중에 대한 의견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이후 성가대 비중에 대한 의견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한다	독창이나 중창 등 다양한 형태의 찬양으로 전환해도 괜찮다	별도 찬양 없이 교인의 합창으로 충분하다	유튜브 등 인터넷 음원을 성가대 찬양 대신 활용해도 좋다	기타	계
전체		(1000)	43.3	32.3	16.4	7.8	0.2	100.0
성별	남성	(427)	45.0	29.1	16.3	9.3	0.3	100.0
	여성	(573)	42.0	34.7	16.6	6.7	0.1	100.0
연령	19~29세	(137)	40.1	37.2	15.0	7.6	0.0	100.0
	30~39세	(147)	36.4	35.9	17.8	9.5	0.4	100.0
	40~49세	(193)	38.4	35.6	14.9	11.1	0.0	100.0
	50~59세	(190)	44.6	35.1	14.0	6.3	0.0	100.0
	60세 이상	(333)	49.7	25.2	18.8	6.0	0.4	100.0
지역	서울	(244)	47.7	31.7	15.1	5.1	0.3	100.0
	경기/인천	(347)	41.4	32.5	18.9	7.1	0.2	100.0
	대전/충청	(102)	44.3	37.0	3.7	14.3	0.7	100.0
	부산/울산/경남	(89)	43.4	32.3	18.5	5.7	0.0	100.0
	광주/전라	(120)	39.1	29.6	23.1	8.2	0.0	100.0
	대구/경북	(66)	43.7	39.5	10.8	6.0	0.0	100.0
	강원/제주	(32)	41.0	14.9	21.4	22.6	0.0	100.0
직업	자영업	(122)	48.0	24.9	13.5	13.6	0.0	100.0
	화이트칼라	(302)	39.6	32.7	17.9	9.2	0.6	100.0
	블루칼라	(156)	46.6	28.7	20.3	4.4	0.0	100.0
	주부	(251)	42.0	37.5	14.8	5.7	0.0	100.0
	학생	(78)	39.3	36.4	14.5	9.8	0.0	100.0
	무직/기타	(91)	50.6	29.5	14.9	5.0	0.0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37.6	36.2	16.9	8.8	0.6	100.0
	비정규직	(124)	55.8	17.2	23.1	4.0	0.0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50.8	28.3	17.7	3.0	0.3	100.0
	대재 이상	(794)	41.3	33.3	16.1	9.0	0.2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43.3	31.8	16.4	8.3	0.2	100.0
	미혼	(232)	43.3	33.8	16.7	6.0	0.3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41.6	26.6	19.8	12.1	0.0	100.0
	16~25년 이하	(220)	47.4	27.2	15.5	9.8	0.0	100.0
	26~35년 이하	(234)	36.9	37.9	18.2	6.7	0.3	100.0
	36년 이상	(330)	46.2	35.5	13.6	4.4	0.4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54.0	30.6	12.5	2.5	0.4	100.0
	주 1~2회	(652)	41.5	35.9	14.9	7.7	0.1	100.0
	월 3회 이하	(145)	38.4	20.7	24.2	16.3	0.4	100.0
	연 1~3회	(38)	46.5	22.3	31.2	0.0	0.0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42.4	35.0	12.3	10.2	0.0	100.0
	예장합동	(195)	44.8	30.3	16.1	7.9	1.0	100.0
	감리교	(117)	35.0	33.0	24.3	7.8	0.0	100.0
	기타장로교	(171)	47.0	31.1	17.3	4.6	0.0	100.0
	기타 교단	(173)	48.4	30.0	15.7	5.9	0.0	100.0
	잘 모름	(42)	29.8	34.7	25.3	10.2	0.0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37.1	30.2	24.1	8.4	0.2	100.0
	100~499명	(306)	43.6	32.5	15.5	8.2	0.2	100.0
	500~2999명	(244)	44.2	33.3	12.1	10.1	0.3	100.0
	3000명 이상	(189)	50.1	33.5	13.1	3.3	0.0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40.3	37.8	9.3	12.6	0.0	100.0
	보통	(137)	23.5	30.6	26.4	18.7	0.9	100.0
	중요함	(825)	46.7	32.3	15.1	5.7	0.1	100.0

VI

코로나19와 유튜브

1. 코로나19 기간 중 유튜브를 통한 신앙 콘텐츠 경험 여부

질문

코로나 기간 동안 귀하는 유튜브에서 음악(찬양), 설교, 예배, 방송 등 신앙 콘텐츠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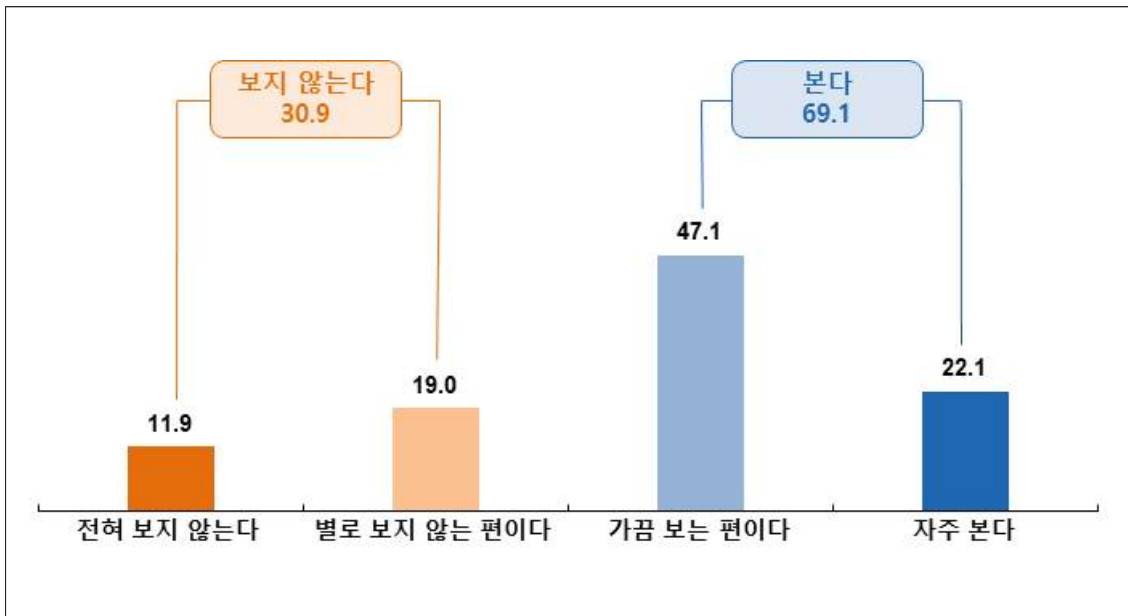


코로나19 기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 신앙 관련 콘텐츠를 시청한 비율은 69.1%로, 개신교인 10명 중 7명은 유튜브를 통해 신앙 콘텐츠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한 신앙 콘텐츠 접촉 경험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험율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신앙 생활 연수가 길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경험율이 높아지고, 교인 수 99명 이하 교회보다 100명 이상 교회에서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코로나19 기간 중 유튜브를 통한 신앙 콘텐츠 경험 여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코로나19 기간 중 유튜브를 통한 신앙 콘텐츠 경험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전혀 보지 않는다	별로 보지 않는 편이다	가끔 보는 편이다	자주 본다	계	보지 않는다	본다
전체		(1000)	11.9	19.0	47.1	22.1	100.0	30.9	69.1
성별	남성	(427)	15.3	21.3	47.0	16.4	100.0	36.6	63.4
	여성	(573)	9.3	17.3	47.1	26.3	100.0	26.6	73.4
연령	19~29세	(137)	26.7	19.7	39.7	13.9	100.0	46.4	53.6
	30~39세	(147)	15.8	24.1	47.4	12.6	100.0	40.0	60.0
	40~49세	(193)	9.5	22.2	46.8	21.5	100.0	31.7	68.3
	50~59세	(190)	12.5	15.4	49.4	22.7	100.0	27.9	72.1
	60세 이상	(333)	5.0	16.7	48.8	29.5	100.0	21.7	78.3
지역	서울	(244)	11.8	19.7	43.1	25.5	100.0	31.5	68.5
	경기/인천	(347)	12.3	17.5	45.1	25.1	100.0	29.8	70.2
	대전/충청	(102)	15.5	18.1	46.8	19.5	100.0	33.7	66.3
	부산/울산/경남	(89)	6.3	13.7	59.1	20.9	100.0	20.0	80.0
	광주/전라	(120)	11.4	22.9	49.8	15.9	100.0	34.2	65.8
	대구/경북	(66)	12.5	24.7	45.8	17.0	100.0	37.1	62.9
	강원/제주	(32)	11.8	22.4	58.2	7.6	100.0	34.1	65.9
직업	자영업	(122)	10.1	16.5	55.1	18.3	100.0	26.6	73.4
	화이트칼라	(302)	11.2	22.8	44.3	21.7	100.0	34.0	66.0
	블루칼라	(156)	18.3	17.3	49.4	15.0	100.0	35.6	64.4
	주부	(251)	6.9	13.8	49.8	29.5	100.0	20.7	79.3
	학생	(78)	26.5	21.0	34.2	18.3	100.0	47.5	52.5
	무직/기타	(91)	6.5	25.5	44.8	23.2	100.0	32.0	68.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13.8	23.3	44.6	18.3	100.0	37.2	62.8
	비정규직	(124)	12.5	14.8	51.0	21.7	100.0	27.3	72.7
학력	고졸 이하	(206)	8.8	19.2	48.8	23.2	100.0	28.0	72.0
	대재 이상	(794)	12.6	19.0	46.6	21.8	100.0	31.6	68.4
결혼여부	기혼	(768)	9.5	17.2	49.3	24.0	100.0	26.8	73.2
	미혼	(232)	19.6	24.9	39.8	15.7	100.0	44.5	55.5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19.7	24.0	44.7	11.6	100.0	43.7	56.3
	16~25년 이하	(220)	15.8	21.1	43.6	19.5	100.0	36.9	63.1
	26~35년 이하	(234)	11.7	19.3	47.3	21.7	100.0	31.0	69.0
	36년 이상	(330)	4.2	14.2	50.7	30.9	100.0	18.4	81.6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4.3	11.8	41.0	42.9	100.0	16.0	84.0
	주 1~2회	(652)	11.1	18.9	49.0	21.0	100.0	30.0	70.0
	월 3회 이하	(145)	20.1	27.3	47.4	5.2	100.0	47.4	52.6
	연 1~3회	(38)	25.9	21.9	39.2	13.0	100.0	47.8	52.2
교단	예장통합	(302)	12.6	19.8	48.2	19.4	100.0	32.4	67.6
	예장합동	(195)	4.5	17.5	52.1	26.0	100.0	21.9	78.1
	감리교	(117)	11.3	16.9	51.5	20.3	100.0	28.2	71.8
	기타장로교	(171)	11.2	17.2	49.3	22.3	100.0	28.4	71.6
	기타 교단	(173)	14.2	20.6	40.4	24.8	100.0	34.8	65.2
	잘 모름	(42)	35.7	27.4	21.6	15.3	100.0	63.1	36.9
교인 수	99명 이하	(261)	15.5	20.1	46.3	18.1	100.0	35.6	64.4
	100~499명	(306)	12.8	16.6	50.6	20.0	100.0	29.4	70.6
	500~2999명	(244)	7.8	22.0	44.3	26.0	100.0	29.7	70.3
	3000명 이상	(189)	10.7	17.7	46.0	25.7	100.0	28.3	71.7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28.0	20.3	47.3	4.4	100.0	48.3	51.7
	보통	(137)	31.9	27.0	36.0	5.1	100.0	58.9	41.1
	중요함	(825)	7.8	17.6	48.9	25.7	100.0	25.4	74.6

2. 주 활용한 신앙 콘텐츠

질문

유튜브를 통해 신앙 콘텐츠를 활용하셨다면, 주로 어떤 콘텐츠를 접하셨습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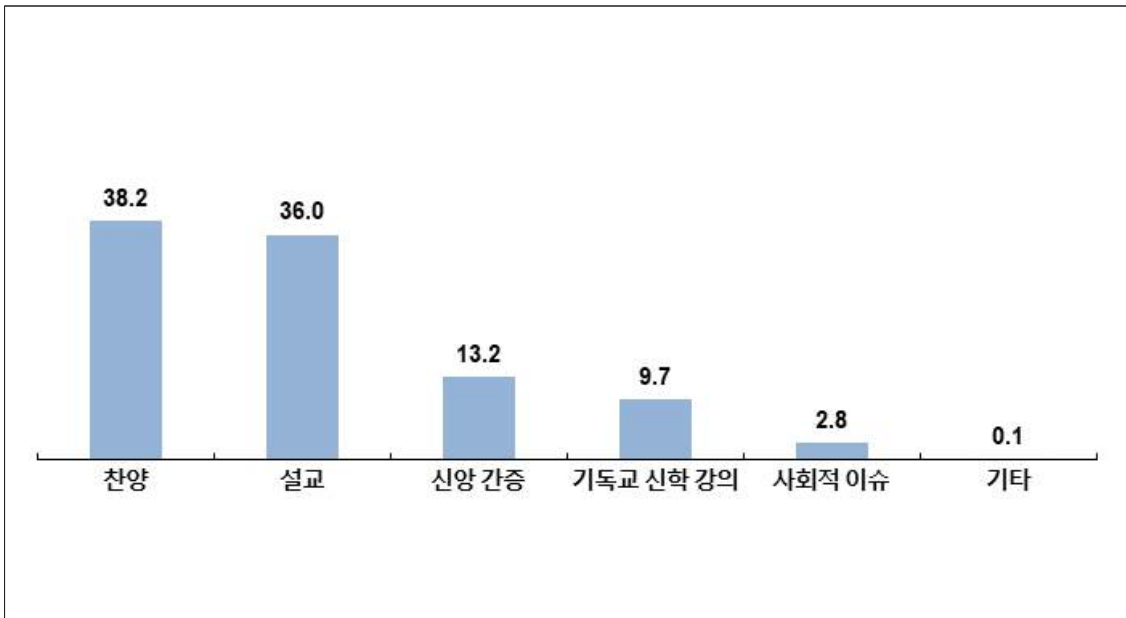
유튜브를 통해 접한 신앙 콘텐츠의 종류로는 '찬양'과 '설교'가 각각 38.2%, 36.0%로 가장 높았으며, 찬양과 설교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4.2%).

남성은 '찬양', 여성은 '설교'와 '신앙 간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접하며, 연령이 낮을수록 '찬양'을, 연령이 높을수록 '설교'를 더 많이 접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의 집단은 '기독교 신학 강의'를 상대적으로 많이 접하고, 16년 이상 집단은 '설교'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 생활이 짧은 집단에서 신앙의 이론적 배경과 신학 학문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주 활용한 신앙 콘텐츠

(Base=유튜브 신앙 콘텐츠 경험자, N=691, 단위 : %)



[표] 주 활용한 신앙 콘텐츠 (응답자 특성별)

(Base=유튜브 신앙 콘텐츠 경험자, N=691,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찬양	설교	신앙 간증	기독교 신학 강의	사회적 이슈	기타	계
전체		(691)	38.2	36.0	13.2	9.7	2.8	0.1	100.0
성별	남성	(271)	43.8	33.5	9.8	11.1	1.6	0.2	100.0
	여성	(420)	34.6	37.6	15.4	8.8	3.6	0.1	100.0
연령	19~29세	(74)	56.4	23.1	11.7	5.8	3.0	0.0	100.0
	30~39세	(88)	44.0	28.7	17.9	8.8	0.7	0.0	100.0
	40~49세	(132)	41.9	39.2	6.9	10.5	1.2	0.4	100.0
	50~59세	(137)	41.9	38.3	6.5	10.5	2.4	0.4	100.0
	60세 이상	(261)	27.3	39.3	18.7	10.2	4.5	0.0	100.0
지역	서울	(167)	35.1	39.4	11.5	12.4	1.6	0.0	100.0
	경기/인천	(244)	35.5	42.2	11.3	8.6	2.2	0.2	100.0
	대전/충청	(68)	27.7	32.9	15.2	17.0	7.2	0.0	100.0
	부산/울산/경남	(71)	44.3	27.0	19.8	5.7	3.2	0.0	100.0
	광주/전라	(79)	49.6	24.7	16.8	5.7	3.2	0.0	100.0
	대구/경북	(41)	47.1	28.9	9.8	10.0	4.2	0.0	100.0
	강원/제주	(21)	46.9	33.4	12.7	4.7	0.0	2.2	100.0
직업	자영업	(89)	43.1	23.4	15.4	14.3	3.7	0.0	100.0
	화이트칼라	(199)	38.5	36.8	11.1	11.7	1.3	0.5	100.0
	블루칼라	(100)	45.4	32.2	13.6	4.9	4.0	0.0	100.0
	주부	(199)	29.7	44.7	13.9	7.4	4.3	0.0	100.0
	학생	(41)	55.7	22.9	11.4	10.1	0.0	0.0	100.0
	무직/기타	(62)	34.2	38.1	15.2	11.0	1.6	0.0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213)	42.4	32.8	11.4	10.6	2.5	0.2	100.0
	비정규직	(90)	36.6	39.8	14.3	6.2	2.5	0.6	100.0
학력	고졸 이하	(149)	39.4	37.8	12.3	7.4	3.2	0.0	100.0
	대재 이상	(543)	37.9	35.5	13.4	10.3	2.7	0.2	100.0
결혼여부	기혼	(562)	36.0	37.7	12.9	10.2	3.1	0.2	100.0
	미혼	(129)	47.8	28.3	14.6	7.5	1.7	0.0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121)	36.6	23.9	16.2	15.8	6.8	0.8	100.0
	16~25년 이하	(139)	36.1	38.1	17.0	8.5	0.3	0.0	100.0
	26~35년 이하	(161)	40.5	36.7	12.1	8.4	2.4	0.0	100.0
	36년 이상	(270)	38.6	39.9	10.6	8.2	2.6	0.0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39)	37.3	37.0	9.8	13.2	2.4	0.4	100.0
	주 1~2회	(457)	38.6	37.2	13.2	8.7	2.1	0.1	100.0
	월 3회 이하	(76)	32.8	27.1	23.0	8.6	8.5	0.0	100.0
	연 1~3회	(20)	55.0	34.2	0.0	10.8	0.0	0.0	100.0
교단	예장통합	(204)	33.7	42.8	12.4	8.5	2.5	0.0	100.0
	예장합동	(152)	41.2	35.6	10.5	10.2	2.5	0.0	100.0
	감리교	(84)	45.4	27.2	19.0	4.4	4.0	0.0	100.0
	기타장로교	(122)	34.9	30.9	16.5	13.1	4.5	0.0	100.0
	기타 교단	(113)	39.4	36.6	11.0	11.1	1.1	0.9	100.0
	잘 모름	(15)	45.8	33.3	8.3	9.6	2.8	0.0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168)	46.2	34.2	10.1	8.0	1.5	0.0	100.0
	100~499명	(216)	35.2	29.2	21.3	10.5	3.8	0.0	100.0
	500~2999명	(172)	36.1	41.0	11.4	10.6	0.6	0.3	100.0
	3000명 이상	(135)	35.8	42.7	6.4	9.1	5.7	0.3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20)	36.1	27.3	22.4	14.2	0.0	0.0	100.0
	보통	(56)	30.5	36.4	19.0	9.6	4.5	0.0	100.0
	중요함	(615)	39.0	36.2	12.4	9.5	2.8	0.2	100.0

VII

타 종교 활동 경험

1. 타 종교 집회 또는 활동 참여 경험

질문

귀하는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집회(예불, 미사, 템플스테이, 피정/수련회 등)나 활동(굿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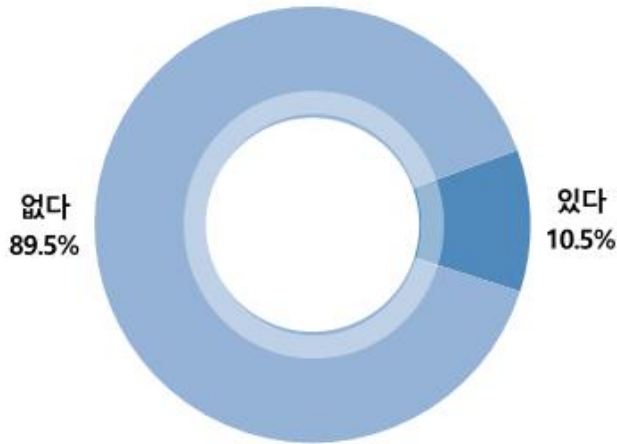


개신교인 10명 중 1명은 개신교 외 타 종교의 집회나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0.5%).

타 종교 활동 경험율은 남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앙 연수가 짧을수록,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그림] 타 종교 집회 또는 활동 참여 경험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타 종교 집회 또는 활동 참여 경험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0)	10.5	89.5	100.0
성별	남성	(427)	13.4	86.6	100.0
	여성	(573)	8.3	91.7	100.0
연령	19~29세	(137)	12.0	88.0	100.0
	30~39세	(147)	10.2	89.8	100.0
	40~49세	(193)	12.0	88.0	100.0
	50~59세	(190)	7.3	92.7	100.0
	60세 이상	(333)	11.0	89.0	100.0
지역	서울	(244)	12.8	87.2	100.0
	경기/인천	(347)	8.3	91.7	100.0
	대전/충청	(102)	14.7	85.3	100.0
	부산/울산/경남	(89)	12.4	87.6	100.0
	광주/전라	(120)	7.2	92.8	100.0
	대구/경북	(66)	9.5	90.5	100.0
	강원/제주	(32)	12.8	87.2	100.0
직업	자영업	(122)	13.8	86.2	100.0
	화이트칼라	(302)	14.5	85.5	100.0
	블루칼라	(156)	6.8	93.2	100.0
	주부	(251)	6.0	94.0	100.0
	학생	(78)	13.6	86.4	100.0
	무직/기타	(91)	8.9	91.1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12.4	87.6	100.0
	비정규직	(124)	10.0	90.0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4.1	95.9	100.0
	대재 이상	(794)	12.2	87.8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9.9	90.1	100.0
	미혼	(232)	12.6	87.4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19.5	80.5	100.0
	16~25년 이하	(220)	10.6	89.4	100.0
	26~35년 이하	(234)	8.3	91.7	100.0
	36년 이상	(330)	6.1	93.9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9.7	90.3	100.0
	주 1~2회	(652)	9.7	90.3	100.0
	월 3회 이하	(145)	13.1	86.9	100.0
	연 1~3회	(38)	17.2	82.8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8.7	91.3	100.0
	예장합동	(195)	10.0	90.0	100.0
	감리교	(117)	5.3	94.7	100.0
	기타장로교	(171)	9.9	90.1	100.0
	기타 교단	(173)	13.4	86.6	100.0
	잘 모름	(42)	30.6	69.4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11.7	88.3	100.0
	100~499명	(306)	8.5	91.5	100.0
	500~2999명	(244)	13.3	86.7	100.0
	3000명 이상	(189)	8.5	91.5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10.0	90.0	100.0
	보통	(137)	15.1	84.9	100.0
	중요함	(825)	9.8	90.2	100.0

2. 경험해 본 타 종교의 집회 또는 활동

질문

개신교 이외의 종교(천주교 포함) 활동을 직접 체험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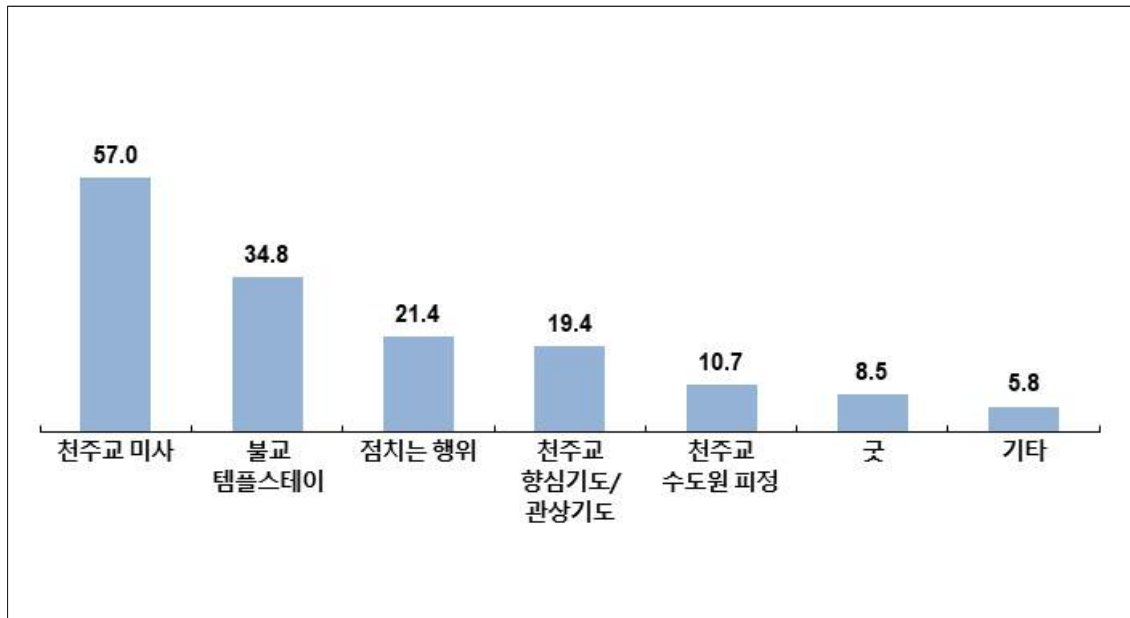


경험해 본 타 종교 활동으로는 '천주교 미사'가 57.0%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 템플스테이' 34.8%, '점' 21.4%, '향심기도/관상기도' 19.4% 등의 순으로 응답됐다. '굿' 8.5%와 '점'을 합치면 개신교인 10명 중 3명 정도가 무속신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29.9%).

남성은 '천주교 미사'와 '점', '향심기도'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성은 '불교 템플스테이'와 '굿'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경험해 본 타 종교의 집회 또는 활동

(Base=타 종교 집회/활동 참여 경험 있음, N=105, 단위 : %)



[표] 경험해 본 타 종교의 집회 또는 활동 (응답자 특성별)

(Base=타 종교 집회/활동 참여 경험 있음, N=105,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천주교 미사	불교 템플스테이	점치는 행위	천주교 향심기도/ 관상기도	천주교 수도원 피정	굿	기타
전체		(105)	57.0	34.8	21.4	19.4	10.7	8.5	5.8
성별	남성	(57)	69.8	32.5	25.4	27.1	12.8	5.7	3.0
	여성	(48)	41.7	37.5	16.6	10.1	8.0	12.0	9.1
연령	19~29세	(16)	27.9	34.5	19.5	31.0	13.7	12.9	10.6
	30~39세	(15)	70.2	48.0	23.3	24.3	21.3	4.0	0.0
	40~49세	(23)	51.0	40.3	16.1	23.6	11.5	10.4	14.1
	50~59세	(14)	89.4	4.1	40.2	3.0	0.0	16.1	3.9
	60세 이상	(37)	56.5	37.6	17.8	15.7	8.4	4.4	1.5
지역	서울	(31)	62.1	44.7	28.4	17.3	13.1	7.4	10.4
	경기/인천	(29)	67.8	24.8	12.9	13.4	7.5	9.4	6.1
	대전/충청	(15)	55.8	30.6	14.6	37.0	6.6	11.2	0.0
	부산/울산/경남	(11)	57.5	20.6	11.1	20.2	23.7	5.1	0.0
	광주/전라	(9)	19.3	51.2	14.1	27.7	15.7	0.0	0.0
	대구/경북	(6)	66.8	17.8	27.6	15.1	0.0	27.6	8.7
	강원/제주	(4)	11.5	73.2	86.8	0.0	0.0	0.0	13.2
직업	자영업	(17)	60.5	39.5	19.5	23.1	0.0	0.0	0.0
	화이트칼라	(44)	57.8	43.5	21.3	25.9	18.1	10.4	2.3
	블루칼라	(11)	65.5	18.7	35.0	0.0	0.0	32.1	0.0
	주부	(15)	58.5	20.7	9.9	0.0	10.0	0.0	21.6
	학생	(11)	38.6	37.0	13.1	25.4	0.0	0.0	12.2
	무직/기타	(8)	56.3	22.2	40.8	29.8	21.7	12.3	6.7
고용 형태	정규직	(42)	62.2	41.3	19.4	21.9	17.5	12.3	1.1
	비정규직	(12)	49.4	29.6	39.4	17.5	4.7	22.6	4.4
학력	고졸 이하	(8)	65.1	14.4	22.3	47.3	7.1	13.9	0.0
	대재 이상	(97)	56.3	36.5	21.4	16.9	11.0	8.1	6.3
결혼여부	기혼	(76)	60.8	36.7	21.9	18.0	10.5	6.1	5.7
	미혼	(29)	47.2	29.7	20.1	23.0	11.1	14.7	6.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42)	64.1	35.6	22.3	31.5	8.5	12.9	1.1
	16~25년 이하	(23)	39.8	43.3	10.9	15.5	21.7	9.7	7.8
	26~35년 이하	(19)	44.6	34.9	47.7	8.3	6.9	6.5	16.7
	36년 이상	(20)	74.5	22.8	6.3	9.3	6.0	0.0	2.7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	66.9	9.8	9.3	21.0	13.7	9.6	3.4
	주 1~2회	(63)	50.6	38.5	25.5	23.1	11.5	6.6	7.9
	월 3회 이하	(19)	71.3	42.0	19.1	9.3	9.0	8.2	2.8
	연 1~3회	(7)	54.3	38.2	18.0	8.0	0.0	25.5	0.0
교단	예장통합	(26)	47.6	40.3	7.4	20.5	15.3	10.4	12.4
	예장합동	(20)	68.4	26.3	17.3	24.9	6.3	6.0	6.6
	감리교	(6)	72.8	41.8	16.5	18.6	16.0	0.0	0.0
	기타장로교	(17)	60.8	26.7	19.2	16.8	15.1	4.2	3.2
	기타 교단	(23)	36.0	47.7	18.7	26.2	10.2	4.7	4.3
	잘 모름	(13)	84.8	20.1	66.9	0.0	0.0	25.6	0.0
교인 수	99명 이하	(30)	49.9	34.6	18.9	34.3	5.9	11.3	3.3
	100~499명	(26)	40.2	50.6	27.0	5.4	13.7	10.9	8.4
	500~2999명	(33)	61.6	32.3	13.7	21.3	16.5	6.9	9.0
	3000명 이상	(16)	88.4	14.5	32.9	9.9	2.9	2.9	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4)	44.9	71.5	53.0	16.6	0.0	0.0	0.0
	보통	(21)	63.6	26.0	24.9	15.3	18.4	9.7	0.0
	중요함	(81)	55.9	35.3	19.0	20.6	9.2	8.6	7.6

3. 요가 경험

질문

귀하는 요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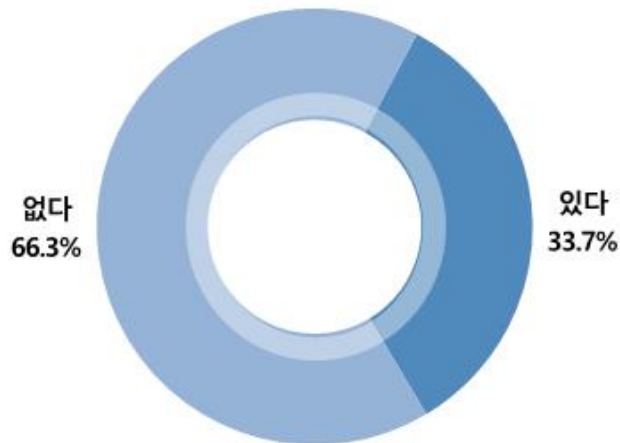


‘요가’를 해본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 3분의 1이 ‘있다’(33.7%)고 응답했다.

요가를 해 본 경험은 여성과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높았는데, 여성의 44.2%, 30대의 45.0%가 요가를 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요가 경험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요가 경험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있다	없다	계
전체		(1000)	33.7	66.3	100.0
성별	남성	(427)	19.6	80.4	100.0
	여성	(573)	44.2	55.8	100.0
연령	19~29세	(137)	34.7	65.3	100.0
	30~39세	(147)	45.0	55.0	100.0
	40~49세	(193)	39.0	61.0	100.0
	50~59세	(190)	25.3	74.7	100.0
	60세 이상	(333)	29.9	70.1	100.0
지역	서울	(244)	38.0	62.0	100.0
	경기/인천	(347)	30.4	69.6	100.0
	대전/충청	(102)	38.3	61.7	100.0
	부산/울산/경남	(89)	29.2	70.8	100.0
	광주/전라	(120)	39.0	61.0	100.0
	대구/경북	(66)	24.5	75.5	100.0
	강원/제주	(32)	31.6	68.4	100.0
직업	자영업	(122)	27.0	73.0	100.0
	화이트칼라	(302)	35.8	64.2	100.0
	블루칼라	(156)	23.5	76.5	100.0
	주부	(251)	42.1	57.9	100.0
	학생	(78)	38.2	61.8	100.0
	무직/기타	(91)	25.6	74.4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32.9	67.1	100.0
	비정규직	(124)	27.4	72.6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22.7	77.3	100.0
	대재 이상	(794)	36.5	63.5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33.7	66.3	100.0
	미혼	(232)	33.5	66.5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37.1	62.9	100.0
	16~25년 이하	(220)	37.0	63.0	100.0
	26~35년 이하	(234)	35.8	64.2	100.0
	36년 이상	(330)	27.7	72.3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29.2	70.8	100.0
	주 1~2회	(652)	33.1	66.9	100.0
	월 3회 이하	(145)	36.1	63.9	100.0
	연 1~3회	(38)	53.6	46.4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41.9	58.1	100.0
	예장합동	(195)	27.4	72.6	100.0
	감리교	(117)	31.6	68.4	100.0
	기타장로교	(171)	25.9	74.1	100.0
	기타 교단	(173)	34.8	65.2	100.0
	잘 모름	(42)	35.8	64.2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28.5	71.5	100.0
	100~499명	(306)	30.7	69.3	100.0
	500~2999명	(244)	40.5	59.5	100.0
	3000명 이상	(189)	36.7	63.3	100.0
	중요하지않음	(38)	30.1	69.9	100.0
종교 중요도	보통	(137)	37.2	62.8	100.0
	중요함	(825)	33.2	66.8	100.0

4. 요가의 종교 인식 여부

질문

귀하는 요가를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요가를 종교라고 생각하는지 물어 보았더니, 전체의 63.8%가 '전혀 종교가 아니다', 32.1%가 '종교는 아니지만 그에 가깝다', 4.1%가 '종교다'라고 응답해, 요가를 종교로 인식하는 비율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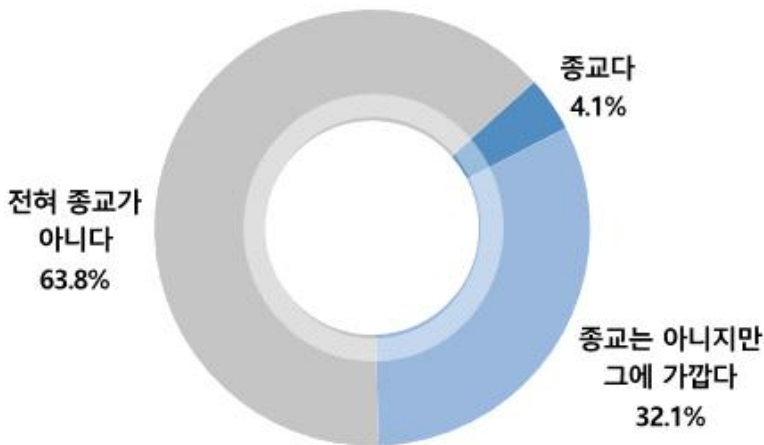
19~29세의 다수는 '전혀 종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고(74.7%), 40대 이상에서는 3분의 1 정도가 '종교는 아니지만 그에 가깝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전혀 종교가 아니'라는 인식은 예배 참석 빈도가 낮을수록 높고, '종교'라는 인식은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또한, 요가 경험이 없는 개신교인은 59.7%가 '전혀 종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요가 경험이 있는 개신교인은 71.9%의 다수가 '전혀 종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요가의 종교 인식 여부

(Base=전체, N=1000, 단위 : %)



[표] 요가의 종교 인식 여부 (응답자 특성별)

(Base=전체, N=1000, 단위 : %)

구분		사례수 (명)	종교다	종교는 아니지만 그에 가깝다	전혀 종교가 아니다	계
전체		(1000)	4.1	32.1	63.8	100.0
성별	남성	(427)	4.8	30.4	64.8	100.0
	여성	(573)	3.5	33.4	63.1	100.0
연령	19~29세	(137)	5.8	19.5	74.7	100.0
	30~39세	(147)	6.0	27.2	66.8	100.0
	40~49세	(193)	1.1	39.3	59.6	100.0
	50~59세	(190)	3.2	36.7	60.1	100.0
	60세 이상	(333)	4.8	32.6	62.6	100.0
지역	서울	(244)	5.2	30.3	64.5	100.0
	경기/인천	(347)	4.0	30.6	65.3	100.0
	대전/충청	(102)	6.0	30.4	63.6	100.0
	부산/울산/경남	(89)	0.5	37.1	62.4	100.0
	광주/전라	(120)	4.9	38.6	56.5	100.0
	대구/경북	(66)	0.0	32.0	68.0	100.0
	강원/제주	(32)	6.2	28.4	65.4	100.0
직업	자영업	(122)	8.7	38.7	52.7	100.0
	화이트칼라	(302)	3.7	31.0	65.3	100.0
	블루칼라	(156)	2.8	28.1	69.1	100.0
	주부	(251)	3.6	37.2	59.2	100.0
	학생	(78)	4.6	19.0	76.4	100.0
	무직/기타	(91)	2.5	30.8	66.7	100.0
고용 형태	정규직	(339)	2.9	28.5	68.7	100.0
	비정규직	(124)	4.8	32.9	62.3	100.0
학력	고졸 이하	(206)	5.4	27.3	67.3	100.0
	대재 이상	(794)	3.8	33.3	62.9	100.0
결혼여부	기혼	(768)	4.1	34.0	61.9	100.0
	미혼	(232)	4.1	25.7	70.2	100.0
신앙 생활 연수	15년 이하	(216)	6.6	27.3	66.2	100.0
	16~25년 이하	(220)	3.2	25.9	70.9	100.0
	26~35년 이하	(234)	5.3	32.6	62.2	100.0
	36년 이상	(330)	2.2	39.0	58.7	100.0
예배 참석 빈도	주 3회 이상	(165)	9.8	44.2	46.0	100.0
	주 1~2회	(652)	3.6	33.4	63.0	100.0
	월 3회 이하	(145)	0.8	14.6	84.6	100.0
	연 1~3회	(38)	0.0	24.0	76.0	100.0
교단	예장통합	(302)	1.4	30.0	68.6	100.0
	예장합동	(195)	4.9	40.4	54.7	100.0
	감리교	(117)	4.8	18.4	76.9	100.0
	기타장로교	(171)	5.6	30.9	63.5	100.0
	기타 교단	(173)	6.6	38.1	55.3	100.0
	잘 모름	(42)	1.6	26.6	71.8	100.0
교인 수	99명 이하	(261)	5.3	32.9	61.8	100.0
	100~499명	(306)	4.1	35.1	60.7	100.0
	500~2999명	(244)	5.0	26.8	68.2	100.0
	3000명 이상	(189)	1.3	32.9	65.8	100.0
요가 경험	있음	(337)	3.2	24.9	71.9	100.0
	없음	(664)	4.5	35.8	59.7	100.0
종교 중요도	중요하지않음	(38)	0.0	29.8	70.2	100.0
	보통	(137)	1.7	24.6	73.7	100.0
	중요함	(825)	4.7	33.4	61.9	100.0

부록. 설문지



코로나19와 개신교인의 신앙에 대한 조사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단수) → 쿼터확인

- | | |
|-------|-------|
| 1) 남성 | 2) 여성 |
|-------|-------|

SQ2. 귀하의 나이는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세 → 쿼터확인

- | | | |
|--------------|--------------|--------------|
| 1) 19세 ~ 29세 | 2) 30세 ~ 39세 | 3) 40세 ~ 49세 |
| 4) 50세 ~ 59세 | 5) 60세 ~ 69세 | 6) 70대 이상 |

SQ3. 귀하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단수) → 쿼터확인

- | | | | |
|--------|----------------|--------|--------|
| 1) 강원 | 2) 경기 | 3) 인천 | 4) 부산 |
| 5) 울산 | 6) 경남 | 7) 대구 | 8) 경북 |
| 9) 서울 | 10) 광주 | 11) 전남 | 12) 전북 |
| 13) 대전 | 14) 충남 (세종 포함) | 15) 전남 | 16) 제주 |

SQ4.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단수) → 3번 응답자만 조사대상

- | | |
|---------------------|----------------|
| 1) 불교 | 2) 원불교 |
| 3) 기독교 (개신교/성공회 포함) | 4) 가톨릭 |
| 5) 천도교 | 6) 민간신앙 (무속신앙) |
| 7) 이슬람교 | 8) 기타 |
| 9) 종교 없음 | |

SQ5. 귀하께서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단수) → 1번 응답자(교회출석자)만 조사대상

- 1) 출석 교회가 있다
- 2) 기독교는 믿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문1) 귀하께서는 2021년에 출석하시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단수)

- 1) 네

(문1에서 1번 응답한 경우)

문2) 귀하 교회의 온라인 예배 형식은 현장예배를 전체를 그대로 중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예배와 다른 형식입니까?
(단수)

- 1) 현장예배 전체를 그대로 실시간 중계/녹화 방송
- 2) 온라인용으로 별도 제작 내용 방송(설교만 별도 방송 포함)

(문1에서 1번 응답자에게)

문3)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을 때,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와 비교해 어떠셨습니까? (단수)

- 1) 현장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 2) 현장예배와 비슷했다.
- 3) 현장예배보다 더 만족했다.

(문3에서 1번 응답 경우)

문3-1)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 2) 디지털 기기 (TV, 컴퓨터, 휴대폰 등)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했다.
- 3)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형식이 달랐다. → P:문 2에서 2번 응답자에게만 노출
- 4) 교회의 온라인 시스템이 불안정했다.
- 5) 기타 ()

(문3에서 3번 응답 경우)

문3-2) 온라인 예배에 더 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오고가는 시간이 절약이 되었다
- 2)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
- 3) 디지털 기기 (TV, 컴퓨터, 휴대폰 등)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리했다. (화면확장가능, 빨리감기 가능 등)
- 4)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형식이 달라서 좋았다. (설교중심, 짧은 예배 등)
→ P:문 2에서 2번 응답자에게만 노출
- 5) 방역 안전을 취할 수 있었다.
- 6) 기타 ()

(문1에서 1번 응답한 경우)

문4) 온라인 예배는 어떻게 드리셨나요? (단수)

- 1) 교회 현장 예배 때처럼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면서 드렸다
- 2) 그냥 가만히 시청하면서 드린 편이다

(문1에서 1번 응답한 경우)

문4-1) 귀하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여 드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셨습니까?

다음 중 어떠한 행동을 하셨나요? (복수선택 가능)

- 1) 현장예배와 같이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만 집중해서 드렸다
- 2) 똑바른 자세를 하지 않고 편안한 자세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 3) 식사, 커피 섭취를 하거나 옆 사람과 대화하는 등 예배 외의 행동을 했다
- 4) 기타 ()

(문1에서 1번 응답한 경우)

문5)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경우 귀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별도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평상시 교회 갈 때와 같이 옷을 갖춰 입었다
- 2) 예배용으로 따로 마련한 의자 혹은 방석
- 3) 십자가, 초, 성화와 같은 상징물
- 4) 교회에서 나누어 준 온라인 예배 키트
- 5) 성경책과 찬송가
- 6) 기타 ()
- 7) 별도로 준비한 것 없다 → P) 단일응답만 나와야함

(문5에서 1~6번 응답한 경우)

문5-1) 앞서 응답하신 준비물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단수)

- 1) 예배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 2) 분위기를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
- 3) 교회에의 소속감 (공동체)을 느끼기 위해
- 4) 예배에 조금 더 준비된 자세를 취하기 위해
- 5) 기타 ()

문6) 귀하가 출석하는 교회는 코로나19 동안 기독교 절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에 특별 예배 혹은 특별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단수)

- 1) 했다
- 2) 안했다

(문6에서 1번 응답한 경우)

문6-1) 그러면 귀하께서는 기독교 절기 예배(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를 온라인으로 드리셨습니까? (단수)

- 1) 절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다
- 2) 절기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았다

(문6-1에 1번의 응답을 한 경우)

문6-2) 온라인 절기 예배를 드릴 때, 본인이 예배를 드린 공간을 절기에 맞게 꾸미셨습니까? (단수)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문6-2에서 1번 응답자)

문6-3) 본인의 공간을 절기에 맞게 꾸민 것이 교회에서의 절기 경험과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교회에서의 절기 행사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 2) 교회에서의 절기 행사와 비슷했다.
- 3) 교회에서의 절기 행사에 비해 만족도가 떨어졌다.

문7) 귀하의 교회에서는 코로나19 동안에 현장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에서 성찬식을 했습니까? (단수)

- 1) 했다 2) 안했다 3) 잘 모르겠다

(문7에서 1번 응답한 경우)

문7-1) 그러면 귀하께서는 현장예배나 온라인 예배와 상관없이 성찬식이 있는 예배에 참여했습니까? (단수)

- 1) 했다 2) 안했다

(문7-1에서 1번 응답한 경우)

문7-2) 코로나19 발생 이후 성찬 예식에는 어떻게 참여하셨습니까? 코로나19 이후 참여해본 성찬 예식 방식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교회 현장 성찬식에서 이진과 동일한 방법(공동 성찬 용기 사용)으로 성찬에 참여했다. (분병만 한 경우도 포함)
- 2) 교회 현장 성찬식에서 개개인에게 나눠준 개별 성찬 키트를 사용하여 성찬에 참여했다.
- 3) 교회에서 보내 준 성찬키트를 사용하여 온라인 성찬식에 참여했다.
- 4) 각자 집에서 준비한 성찬을 가지고 비대면 온라인 성찬식에 참여했다.
- 5) 떡과 잔 없이 비대면 온라인 성찬식 예배를 드렸다.

문7-3) (문7-2에 3, 4, 5번에 응답한 경우) 교회 현장 성찬 예식과 온라인 성찬식을 비교하면 어떠했습니까? (단수)

- 1) 교회 현장 성찬식이 더 좋았다.
- 2) 교회 현장 성찬식과 온라인 성찬식은 비슷했다.
- 3) 온라인 성찬식이 더 좋았다.

문7-4) (문7-3에 1번 응답한 경우)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드리는 온라인 성찬 예식에 집중하기 힘들었다.
- 2) 성찬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올바로 드리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 3) 교회의 온라인 성찬식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았다.
- 4) 교회에서 보내준 성찬 키트가 만족스럽지 않았다. → P: 문7-2에서 3번 응답자에게 보기 노출
- 5) 각자 준비한 성찬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 P: 문7-2에서 4번 응답자에게 보기 노출
- 6) 집에서 성찬을 준비하기 어렵다 → P:문7-2에서 4번 응답자와 5번 응답자에게 보기 노출

문7-5) (문7-3에 3번 응답한 경우) 온라인 성찬식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교회가 아닌 일상의 공간에서 드리는 온라인 성찬 예식이 집중도가 높았다.
- 2) 성찬을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이해가 있었다.
- 3) 교회의 온라인 성찬식의 진행이 좋았다.
- 4) 교회에서 보내준 성찬 키트가 만족스러웠다 → P: 문7-2에서 3번 응답자에게 보기 노출
- 5) 각자 성찬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은혜로웠다 → P: 문7-2에서 4번 응답자에게 보기 노출

문8)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귀하의 신앙 생활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단수응답)

- 1)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하여 예배드릴 것 같다
- 2)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번갈아 가면서 드리겠다
- 3) 현장예배보다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예배드리겠다
- 4) 신앙 생활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문9) 귀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오프라인에서 가끔 모임을 갖는 식의 귀하가 마음에 드는 '온라인 교회'가 있다면 참여하실 생각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수)

- | | |
|-----------|----------|
| 1) 전혀 없다 | 2) 별로 없다 |
| 3) 약간 있다 | 4) 매우 있다 |
| 5) 잘 모르겠다 | |

문10)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단수)

- 1) 신앙 생활은 교회에서 대면으로 해야 한다.
- 2) 대면/비대면을 병행하여도 신앙 생활에 지장이 없다
- 3)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육 등의 온라인 활동만으로도 신앙 생활에 지장이 없다
- 4) 신앙 생활을 대면으로 하든, 비대면으로 하든 관심없다

문11)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단수)

- | | |
|------------------|-----------------|
| 1) 예배에 집중하는 것 | 2) 교회에 자주 못가는 것 |
| 3) 교역자와의 상담 및 소통 | 4) 성도간의 교제 |
| 5) 자녀(들)의 신앙교육 | 6) 개인의 신앙성숙 |
| 7) 기타 (_____) | |

문12) 귀하께서 집에서 하고 계신 개인 신앙 생활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정기적인 개인기도 (통성, 묵상 등)
- 2) 정기적인 성경 읽기, 묵상, 필사 또는 큐티
- 3) 주기적인 가정 예배
- 4) 기타 (_____)
- 5) 하지 않는다 P) 단일응답만 나와야함

문13) 다음 중 귀하의 가정 혹은 일상의 공간에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십자가 (벽걸이, 탁상용 등)
- 2) 성화, 조각, 혹은 종교적 이미지
- 3) 기도할 때 켜는 초
- 4) 기도하거나 성경 읽을 때 사용하는 특별한 의자, 책상, 방석 등
- 5) 기타 ()
- 6) 아무것도 없다 P) 단일응답만 나와야함

문14) 귀하께서는 가정 (혹은 일상의 공간)에서의 신앙 생활을 위해 공간에 변화를 주신 것이 있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가구 등의 배치를 변경하여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 2) 예배 혹은 성경읽기와 기도를 위한 책상/테이블과 기도 방석 등의 가구 등을 새로 구비했다.
- 3) 십자가, 성화, 이미지 등과 같은 상징물들을 새로 구비했다
- 4) 향초, 조명 등을 사용하여 분위기를 바꾸었다.
- 5) 기타 ()
- 6) 특별히 변화 준 것이 없다

문14-1) (문14에서 보기1~5번 응답한 경우) 이러한 공간의 변화는 귀하의 신앙 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주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1) 성경읽기, 기도, 묵상 시간이 늘었다.
- 2) 비대면 예배 시 집중도가 늘었다.
- 3) 일상의 공간을 거룩하게 느끼게 되었다.
- 4)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 5)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교육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 6) 기타 ()

문15-1) 코로나 이전에 귀하의 교회는 성가대가 있었습니까? (단수)

- 1) 있었다
- 2) 없었다

문15-2) 코로나 이후 교회 예배 중 성가대 찬양의 비중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단수)

- 1)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한다
- 2) 독창이나 중창 등 다양한 형태의 찬양으로 전환해도 괜찮다
- 3) 별도 찬양 없이 교인의 합창으로 충분하다
- 4) 유튜브 등 인터넷 음원을 성가대 찬양 대신 활용해도 좋다
- 5) 기타 ()

문16-1) 코로나 기간 동안 귀하는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2	3	4	5	6	7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6-1의 1~3 응답자만)

문16-2) 코로나 기간 동안 목회자의 영적 지도와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면, 귀하는 어떤 영적 지도와 돌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목회자의 설교 메시지가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었다.
- 2) 목회자가 성경공부를 잘 인도해 주었다.
- 3) 목회자가 직접 방문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
- 4) 목회자가 전화나 인스턴트 메신저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
- 5) 기타 ()

문17-1) 코로나 기간 동안 평신도 교인 간 사귄과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1	2	3	4	5	6	7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문17-1의 1~3 응답자만)

문17-2) 코로나 기간 동안 평신도 교인 상호간 사귄과 돌봄이 잘 이루어졌다면, 귀하는 사귄과 돌봄을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소그룹 리더(구역장, 순장, 셀 리더, 목자 등)가 직접 방문하여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
- 2) 소그룹 리더(구역장, 순장, 셀 리더, 목자 등)가 전화나 인스턴트 메신저로 기도하고 위로해 주었다
- 3) 가까운 교인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위안을 얻었다.
- 4)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교인들이 찾아 와 주고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
- 5) 기타 ()

문18-1) 귀하의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을 물질적으로 돕는 활동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있었다
- 2) 없었다
- 3) 잘 모르겠다

문22) 코로나 이전에 비해 개인의 신앙 생활에서 더 중요해진 것은 무엇입니까? (단수)

- | | |
|---------|---------------|
| 1) 설교 | 2) 기도 |
| 3) 성경공부 | 4) 봉사 |
| 5) 친교 | 6) 기타 (_____) |

문23)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볼 때 귀하의 개인 기도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단수)

1	2	3	4	5	6	7
많이 늘었다			변함없다			많이 줄었다

문24) 코로나 시기 귀하가 개인 기도 생활(식사 기도 제외)을 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단수)

- | | |
|---------------------------|-----------|
| 1) 하루에 여러 번 | 2) 하루 한 번 |
| 3) 하루 한 번 미만~일주일에는 한 번 이상 | 4) 불규칙적 |
| 5) 기타 (_____) | |

문25) 코로나 시기 기도 생활에서 귀하는 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많이 하는 순서대로 세 가지를 응답해 주세요
(3순위 필수 응답)

- | | |
|----------------------|---------------|
| 1) 마음의 평화 | 2) 몸의 건강 |
| 3) 경제적 안정 | 4) 가족의 평안 |
| 5) 교회 공동체의 평안 | 6) 사회적 약자의 안녕 |
| 7)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자연의 평안 | 8) 기타 (_____) |

문26) 귀하는 개신교 이외의 다른 종교의 집회(예불, 미사, 템플스테이, 피정/수련회 등)나 활동(굿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단수)

- | | |
|-------|-------|
| 1) 있다 | 2) 없다 |
|-------|-------|

(문26의 1 응답자)

문26-1) 개신교 이외의 종교(천주교 포함) 활동을 직접 체험하신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복수선택 가능)

- | | |
|------------------|-------------|
| 1) 천주교 향심기도/관상기도 | 2) 천주교 미사 |
| 3) 천주교 수도원 피정 | 4) 불교 템플스테이 |
| 5) 굿 | 6) 점치는 행위 |
| 7) 기타 (_____) | |

문27) 귀하는 요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수)

- | | |
|-------|-------|
| 1) 있다 | 2) 없다 |
|-------|-------|

문28) 귀하는 요가를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 1) 종교다
- 2) 종교는 아니지만 그에 가깝다
- 3) 전혀 종교가 아니다

문29)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지난 2년 동안 귀하의 성서 읽는 시간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	2	3	4	5	6	7
많이 늘었다			변함없다			많이 줄었다

문30) 귀하가 성서를 읽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 1) 그냥 통독한다
- 2) 성서 독서와 함께 QT 등 묵상을 한다
- 3) 성서를 해석하는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참고해 공부한다
- 4) 교인들과 함께 공부하고 토론한다.
- 5) 기타 ()

문31) 코로나 시기 동안 예배 설교에서 귀하가 가장 공감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 | | |
|------------------|---------------|
| 1) 위로 | 2) 교회의 사회적 책임 |
| 3)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 | 4) 공동체적 삶 |
| 5) 고난을 헤쳐 나가는 믿음 | 6) 기타 () |

문32) 2021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신앙 및 신학 도서를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단수응답)

- | | |
|-----------|---------|
| 1) 읽지 않음 | 2) 1~3권 |
| 3) 4~6권 | 4) 7~9권 |
| 5) 10권 이상 | |

(문32의 2~5 응답자)

문32-1) 신앙 및 신학 도서를 읽으셨다면, 주로 어떤 주제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 | | |
|------------|-----------------|
| 1) 물질적 축복 | 2) 교리와 신학 |
| 3) 자기계발 | 4) 기독교 인문학(교양) |
| 5) 영성/기도 | 6) 이웃종교의 사상과 영성 |
| 7) 사회적 공공성 | 8) 설교집 |
| 9) 기타 () | |

문33) 코로나 기간 동안 귀하의 교회에서는 성경공부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1	2	3	4	5	6	7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문34) 코로나 기간 동안 귀하는 유튜브에서 음악(찬양), 설교, 예배, 방송 등 신앙 콘텐츠를 어느 정도 보십니까? (단수응답)

- | | |
|--------------|-----------------|
| 1) 전혀 보지 않는다 | 2) 별로 보지 않는 편이다 |
| 3) 가끔 보는 편이다 | 4) 자주 본다 |

(문34에서 3번, 4번 응답자에게)

문34-1) 유튜브를 통해 신앙 콘텐츠를 활용하셨다면, 주로 어떤 콘텐츠를 접하십니까? (단수응답)

- | | |
|-----------|---------------|
| 1) 설교 | 2) 기독교 신학 강의 |
| 3) 신앙 간증 | 4) 찬양 |
| 5) 사회적 이슈 | 6) 기타 (_____) |

문35)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귀하의 신앙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1	2	3	4	5	6	7
매우 깊어졌다			코로나19 이전과 차이 없다			매우 약화되었다

(문35의 1~3 응답자)

문35-1) 코로나 이전보다 귀하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수응답)

- 1) 질병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에 더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목회자의 영적 지도나 교인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신앙 생활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 3) 비대면 상황에서도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지도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 4) 기타 (_____)

(문35의 5~7 응답자)

문35-2) 코로나 이전보다 귀하의 신앙이 더 약화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단수응답)

- 1) 비대면 상황에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예배 참석이나 모임 참여 등의 기회가 줄었기 때문이다
- 3)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비판 때문이다
- 4) 기타 (_____)

마지막으로 통계 분석을 위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DQ1. 귀하는 결혼(사실혼 포함)을 하셨습니까? (단수)

- 1) 예 2) 아니오 3) 기타 (이혼, 사별 등)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단수)

- 1) 농업/임업/어업
- 2) 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목공소 주인, 개인택시운전사 등)
- 3) 판매/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4) 기능/숙련공(운전사, 선반, 목공 등 숙련공)
- 5) 일반작업직(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등)
- 6) 사무/기술직(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초·중·고 교사, 향해사 등)
- 7) 경영/관리직(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의 위치, 교장)
- 8) 전문/자유직(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인 등)
- 9) 전업주부 (주로 가사에만 종사하는 자)
- 10) 학생
- 11) 무직
- 12) 기타

DQ3. (DQ2의 1번, 3번~8번 응답자) 귀하의 고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단수)

- 1) 정규직

DQ4.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단수)

- 1) 중학교 졸업 이하 2) 고등학교 졸업 3) 대학교 재학/졸업 이상

DQ5. 신앙 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년 P) 응답자 나이보다 같거나 작아야함

→ 현재 '연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는 듯(1900 이상 응답하라고 나옴). '연수'로 응답하도록 바꿔주세요.

최소값0, 최대값 SQ2의 나이

→ 최대값 설정 해주세요. 응답자의 나이가 '최대값'으로 되어야 합니다. 현재 최소값이 나이로 설정되어 있는 듯 하네요.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DQ6. 귀하께서는 공식적인 예배(새벽기도 포함)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포함하여 말씀해주세요. (단수)

- 1) 일주일에 3회 이상
2) 일주일에 1~2회
3) 한 달에 1~3회
4) 6개월에 2~5회
5) 1년에 1~3회

DQ7. 귀하의 종교는 귀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수)

→ 문항이 아예 나타나지 않고 스킵되네요. 전체 응답자 대상 문항입니다. 스킵되지 않도록 수정해주세요.

1	2	3	4	5	6	7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중요하다

DQ8. 귀하께서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교파는 무엇인가요? (단수)

- | | |
|-------------------------|-----------------|
| 1)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2)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 3)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 4)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
| 5)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 | 6) 대한예수교장로회(기타) |
| 7) 한국기독교장로회 | 8) 기독교 대한 감리회 |
| 9) 대한 기독교성결교회 | 10) 기독교 한국 침례회 |
| 11)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순복음) | 12) 대한성공회 |
| 13) 독립교단 | 14) 기타() |
| 15) 잘 모름 | |

DQ9. 현재 출석하고 계신 교회의 청년 이상 출석교인 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되나요?

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단수)

- | | |
|-----------------|--------------|
| 1) 30명 미만 | 2) 30-49명 |
| 3) 50-99명 | 4) 100-299명 |
| 5) 300-499명 | 6) 500-999명 |
| 7) 1,000-2,999명 | 8) 3,000명 이상 |

DQ10. 실례지만 귀댁의 월평균 가구 실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귀댁에서 함께 거주하는 구성원 모두의 수입 및
이자수입, 연금 등을 포함한 전체 가구소득을 말씀해 주십시오. (단수)

- | | |
|--------------------|--------------------|
| 1) 150만 원 미만 | 2) 150만~200만 원 미만 |
| 3) 200만~250만 원 미만 | 4) 250만~300만 원 미만 |
| 5) 300만~350만 원 미만 | 6) 350만~400만 원 미만 |
| 7) 400만~450만 원 미만 | 8) 450만~500만 원 미만 |
| 9) 500만~550만 원 미만 | 10) 550만~600만 원 미만 |
| 11) 600만~650만 원 미만 | 12) 650만~700만 원 미만 |
| 13) 700만~750만 원 미만 | 14) 750만~800만 원 미만 |
| 15) 800만 원 이상 |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CI빌딩

Tel. 02-312-3317

Homepage: www.jpica.org

E-mail: cisjd@jpica.org

